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 연구

A Study of the Migration Life History of  
First-Generation Korean Female Nurses in Germany  
and Austria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남혜경

교육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 연구

A Study of the Migration Life History of  
First-Generation Korean Female Nurses in Germany  
and Austria



지도교수 김영순 · 배을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남혜경


이 논문을 남혜경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0년 8월

주심 최 현 식 

부심 김 영 순 

위원 배 은 규 

위원 정 상 우 

위원 최 등 인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에 관한 연구이다. 파독 간호사는 1960-70년대에 있었던 한국 여성의 대규모 자발적 해외 노동 이주이다. 파독 간호사 이주가 있던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높은 실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가난으로 인하여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는 더욱 적었다. 그리하여 파독 간호사는 서구 선진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주기회였으므로 한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파독 간호사들은 이주 후 가족에게 송금하여 가족의 빈곤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국가 경제에도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어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다. 이들은 이주 후에도 모국으로 지속하여 연계하여왔다.

현대사회에서 이주는 큰 이슈이다. 이는 이주가 지구촌의 대다수 국가와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주의 영향 가운데 큰 특성 중 하나는 이주의 여성화이다. 이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주의 절반 이상을 여성 이주자들이 차지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관점이 여성의 이주와 그에 따르는 현상과 영향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은 1960-70년대 파독 간호사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로 여성들이 노동 이주를 떠남으로써 송출국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국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한국 사회가 노동자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을 가져오는 동안 해외에서 파독 간호사들도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은 이주 후 거주국에 정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주자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한 파독 간호사들의 삶의 궤적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방면에서 시사점을 남길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기 한 세대 전, 이주자로서 선행된 삶의 경험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주생애사를 통해 이주자의 삶의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생애사는 일반 생애사 연구와 차이를 가진다. 이주생애사는 이주자가 국경을 건너 모국과 거주국을 아우르는 삶을 살게 되므로 비이주자에 비해 삶의 영역이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주로 인한 영향은 이주자 개인과 이주자의 모국, 그리고 거주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주생애사는 개인을 둘러싼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독일로 이주한 간호사 4명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간호사 3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자료는 면대면 인터뷰 자료와 자기생애기술, 그리고 신문기사, 연구참여자가 만든 스크랩북, 거주국에서 발행한 책과 한국의 이주 역사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별 이주생애사를 순차적 연대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각각 경험한 특정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생애사적 연계, 인과성 등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생애사 범주를 유년-청년기, 이주 후-결혼, 거주국에서의 삶, 노년의 삶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경을 건너는 이주를 선택하게 된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요인이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주를 선택한 후 거주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계속하여 한국의 친족들과 연계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자녀와 함께 친정을 방문하고 자녀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하여 친지와 정서적 연결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거주국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국에서 이방인이 됨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한인 여성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강화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거주국에서 차별받을 때, 2개의 정체성 즉 거주국 정체성과 어머니 나라의 정체성으로 차별과 편견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연구참여자들은 거주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에 모국에 와서도 다시 이방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녀세대의 어머니로서 양쪽 사회에서 지속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스스로 성찰하며 자녀세대를 교육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자들을 대할 때, 인간존중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이주자로서 살아올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주제어: 한인 여성, 이주생애사, 문화적응, 정체성, 인간존중

# 목 차

국문 초록 .....	i
목차 .....	iii
표·그림 목차 .....	v
<b>I. 서론</b>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	4
<b>II. 이론적 논의</b> .....	7
1. 파독 간호사의 역사 .....	7
1) 파독 간호사의 형성 및 이주 .....	7
2) 파독 간호사의 정주와 결혼 .....	10
3)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 동향 .....	11
2. 이주생애사 .....	14
1) 재외한인 생애사 선행연구 .....	14
2) 재외한인 생애사 연구분석 .....	16
3) 이주생애사 연구 .....	18
3. 소결 .....	34
<b>III. 연구방법</b> .....	37
1. 생애사 연구개요 .....	37
2. 연구참여자 .....	39
3. 자료 수집 및 분석 .....	44
4. 연구윤리 .....	49

IV.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 .....	51
1. 독일 베를린 거주 한인 여성 .....	52
1) 연구참여자 1: 성실하고 용감한 자기 삶의 탐험가 .....	53
2) 연구참여자 2: 늦깎이 낭만 학인(學人) .....	78
3) 연구참여자 3: 사회변화를 꿈꾸는 변혁가 .....	97
4) 연구참여자 4: 부드러운 협상가 .....	116
2. 오스트리아 빈 거주 한인 여성 .....	131
1) 연구참여자 5: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 .....	131
2) 연구참여자 6: 세심하고 꼼꼼한 전략가 .....	158
3) 연구참여자 7: 열정적 자기 계발 실천가 .....	191
3. 소결 .....	205
V. 결론 .....	211
1. 요약 .....	211
2. 논의 .....	215
3. 제언 .....	218
참고문헌 .....	221
ABSTRACT .....	229



## 표 목차

<표 II-1>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비교 .....	26
<표 II-2> 이주생애사 분석 .....	35
<표 III-1> 연구참여자 특성 .....	40
<표 III-2> 인터뷰 일정 및 자료 .....	44
<표 III-3> 생애사를 위한 질문 개요 .....	46
<표 III-4> 초국적 활동 관련 질문 .....	47
<표 IV-1> 연구참여자 1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53
<표 IV-2> 연구참여자 2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78
<표 IV-3> 연구참여자 3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97
<표 IV-4> 연구참여자 4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116
<표 IV-5> 연구참여자 5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131
<표 IV-6> 연구참여자 6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158
<표 IV-7> ‘정’의 악장별 제목 .....	186
<표 IV-8> 연구참여자 7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191

## 그림 목차

[그림 II-1] 이주생애사 모형 .....	36
--------------------------	----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66년 128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이주하였다(김학선 외, 2009: 174). 이는 한국과 독일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이주한 첫 그룹이며 1966년을 기점으로 하였을 때 파독 간호사의 이주 연한은 2020년 현재 54년이다. 이러한 공식 이주 이전에는 개인적 경로 즉 가톨릭의 신부를 통해 가톨릭 재단 병원으로의 이주나, 한국 유학생의 소개로 독일 병원으로 이주를 실행한 경우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파독 간호사<sup>1)</sup>는 1957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노동 이주한 한국 간호 인력을 통칭한다(이애주 외, 2011: 16). 한국 여성의 이주역사에서 국가 간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의 해외 노동 이주는 파독 간호사 그룹이 유일하다. 한국 여성들이 독일로 이주하던 시기인 1967부터 1970년대의 독일은 산업의 부흥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던 시기였다(나혜심, 2009b: 263). 이에 반해 한국 사회는 갓 출범한 박정희 정권이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100달러가 채 안 되었던 최빈국의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노명환 외, 2014: 10). 1966년 파독 간호사의 월급은 700마르크 정도였으며 이 금액은 당시 한국 장관의 월급과 거의 동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김학선 외, 2009: 175). 이와 같은 파독 간호사의 높은 임금은 한국 사회에서 파독 간호사가 그토록 인기 있었던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인기 높았던 파독 간호사 이주는 1975년 독일 정부의 외국인 인력 유입중단 조치의 시행으로 독일로의 노동 이주는 이어지지 않았다. 노명환 외(2014: 11)는 파독 간호사 한인 노동자의 독일 사회 유입중단은 독일 내 한인 이민사회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1990년대부터 한인 간호 인력 1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으나 이들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정리는 방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파독 간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월급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가족의 경제적 빈곤에 도움을 주었으며 나아가 한국 경제에 마중물 역할이 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한 한국 사회의 본격적 관심은 2000년대 중

---

1) 파독 간호사는 독일로만 이주한 것이 아니며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변국(스위스, 오스트리아)으로도 이루어졌다. 독일이 아닌 주변국으로 이주한 한국 간호사들도 파독 간호사모집을 통해 이주하였으며 단지 나라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것이기에 이주 성격과 형식이 같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한국 간호 여성도 파독 간호사라는 용어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한다.

반 이후 시작되었다. 한인 이주여성에 관한 관심이 시작된 이 시점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형성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는 1990년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외국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문제와 갈등이 표면화되던 시기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에 관한 연구가 빠르고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파독 간호사에게로 관심의 폭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전의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는 간호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파독 간호사 개인의 이주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국의 가족들은 노동자로 이주한 딸들이 거주국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한국을 방문한 딸들도 이주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파독 간호사의 이주자인 삶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한국 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다. 그리고 이들에 관한 관점은 과거 지향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파독 간호사들이 이전에 한국 사회에 송금하여 한국 경제에 공헌했던 측면만을 재생한다. 그것 역시 중요하지만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주자의 삶과 한국 사회로의 연계, 그리고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이주의 지속성과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이주의 영향 등에 관하여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파독 간호사의 이주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독 간호사는 1950년대 후반 개인적 소개에 의한 이주가 있었고 1966년에는 공식적으로 한국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독일에 파견되었다. 한국의 인력수출 관리공단과 독일 병원연합회가 그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공식,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1950년대 말부터 1976년까지 약 1만 1천 명의 한국 여성이 간호 인력으로 독일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한다(김정숙 외, 2012: 169; 손대원·윤서옥, 2017: 26 재인용). 이들 11,000여 명의 한국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의 한국 여성이 1975년 독일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귀국정책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약 5,000명의 한국 여성이 독일에 정착하였다. 그 가운데 700명은 독일에 있던 한국인 광부와 결혼하여, 한-한 가정을 이루었고 약 3,000명의 여성이 독일 남성과 결혼하여, 한-독 가정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이영석, 2015: 131).

파독 간호사는 당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직 간호업계 종사자, 유관업종 근무자, 양호교사 등과 일반인들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파독을 위한 재수, 삼수생이 생겨났고 현직 국회의원이 로비할 정도였으며 심지어는 나이와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해 자살하는 사태도 있을 정도였다(김용출, 2015: 152). 파독 간호사의 나이는 18세부터 30세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21세부터 25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다수가 미혼이었으며, 이주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호사의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이 이주의 중요한 동기가 되지 못했다. 즉 이들의 이주 동기에는 선진국에 대한 동경, 교육기회에 대한 희망,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떠남,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여성들이 이주하기에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었던 것 등이 한국 여성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이유가 되었다(유정숙, 2017: 54-55).

파독 간호사들은 학력에 있어서 고졸 이상과 대졸이 다수를 차지하는 고학력의 여성들이다. 1973년 12월에 6,1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졸이 18.9%, 고졸이 65.7%, 초대 졸 또는 중퇴가 11.8%, 대졸이 3.5%를 차지했다(윤용선, 2014: 434). 또한, 이주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 이주 노동자로서 간호 이주는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한국 경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들에게 빈곤의 탈출구가 되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1억 153만 달러였으며, 이들의 송금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김민정, 2018: 18-19). 파독 간호사의 노동 이주는 떠날 때 대대적 환송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을 떠난 후 한국 사회에서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노구가 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들은 한국에서 손님이 된다. 그리고 거주국에서는 외국 여성으로서 이방인이 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여성들은 지속하여 그들의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한다. 바로 이러한 특성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현대의 이주자들은 교통과 통신이 미발달한 이전 시대의 이주자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이주로 인하여 고립되지 않으며 지속하여 자신의 고향과 모국 사람들, 그리고 거주국을 연결하며 그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스스로 설정하고 규정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 여성들은 초국적 가족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상대방부터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초국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이주자로서 이방인이 되고 타자가 되는 현실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였다(김영순 외, 2014: 85-86). 또한, 이들은 초국적 사회적장에서 자신들의 자원을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초국적 생존을 모색하고 탈 영토화된 정체성을 나타낸다(김정선, 2009: 194-195).

결혼 이주 외국 여성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기 한 세대 전 한국 여성들은 간호 노동 이주를 실행했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거주국에 정주하였고 국제결혼을 하였다. 이들은 또한 모국 사회와 거주국 사회에서 초국적 연계를 위한 행위를 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양국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행한 초국적 행위의 영향은 세대를 넘어 자녀세대로 전수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자로서 거주국에서

오랜 세월을 거주하며 적응을 실행해 온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이주는 1970년대에 이루어졌고 이제 그들은 노년 이 되었으며 이주의 영향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이주의 영향 아래 있기에 이들의 이주생애사를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 파독 간호사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이주역사이지만 그에 반해 이들 개인의 이주역사는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과 한국 구성원은 상호이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파독 간호사의 이주 영향을 국제적 차원, 국내 차원, 개인 차원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여성 노동자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의 이주사와 이들의 모국으로 이어지는 초국적 연계의 행태와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둘째, 파독 간호사의 선행된 경험은 한국 사회에 유입된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 다양성을 줄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가 다양화된 지구촌의 이주 환경에서 타자에 관하여 개방된 이해를 갖추게 할 것이다.

한편, 이주자의 정체성은 이주를 수용하는 국가나 송출하는 국가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성을 가진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구학적 필요성과 자국의 노동력 충원을 위해 국경의 장벽을 느슨하게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 정주와 문화적 개방에서는 문호의 견고함을 강화한다. 그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독일과 한국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파독 간호사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아 한국 여성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소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연계하였으며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찾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빈곤하였던 시기에 노동 이주를 떠났던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경을 건너 이주한 후 거주국에서 정주한 한국 여성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두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첫째,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는 어떠한가? 이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전쟁을 겪은 후 폐허가 된 경제와 낙후된 사회의 바탕에서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녔던 고학력의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현실을 이겨낸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실행하였던 여성들이다. 이러한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된 한인 여성의 이주와 삶에 관한 역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생애사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현재의 우리와 연결된 역사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발자취, 행위들을 통해 한인 여성들이 거주국에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와 이주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모국으로의 연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은 이주 후 국경을 가로질러 모국과 연결하고 모국의 친지를 거주국에 데려와 공부시켰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주국에서 다른 민족이나 거주국의 사회단체와 연계하며 모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으로 관여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파독 간호사들이 모국에 관여하는 행위를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국 사회의 내적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거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독일인이나 오스트리아인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며 거주국 사회 내에서도 외국인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양쪽 사회에서 모두 타자인 현실에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이 모국과 거주국에서 소통을 위해 어떻게 행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I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혔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파독 간호사에 관한 관심이 미약함을 문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파독 간호사의 이주에 따른 영향력이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주의 현상에서 제외하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파독 간호사들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 어떻게 소통을 시도하고 실행해 왔는지를 이주생애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밝혔다.

II 장, 이론적 논의는 파독 간호사의 이주역사를 살펴보고 이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주생애사를 개념 정의하여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이주생애사를 분석할 때 활용되는 이론들은 이주를 추동케 하는 국제환경에 관한 이해,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문화적응이론, 정체성 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초국가주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이주자들이 소외된 개념으로서의 이주자가 아닌 모국과 거주국 양쪽을 모두 연결하여 이주에서 주체적 행위자가 되는 것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이주자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거주국 사회에서 소통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가진 그룹이다. 그러므로 파독 간호사가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장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주하여 실행한 삶에 나타난 행위들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방법을 생애사로 정하고 이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생애사 연구개요, 연구참여자,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윤리 등을 설명하였다. 생애사 연구개요에서는 생애사의 일반적 특성과 생애사 연구가 본 연구에 필요한 이유 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은 참여자별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글로 적어보도록 미리 생애사적 질문지를 보내드렸다. 그 후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한국인 이주역사, 연구참여자 개인이 게재된 거주국 신문, 연구참여자가 자주 읽은 책 등의 자료를 모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이주생애사 분석을 위한 범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Ⅳ장 연구결과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애사를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개개인의 행위를 다큐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주화는 유년-청년기(이주 전), 이주 후 결혼, 거주국에서의 삶, 노년의 삶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초국적 행위, 문화적응 경험, 정체성 형성과 협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비슷한 거주지역으로 이주한 한인 여성들이 그들 개인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개인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한 개인의 삶이 이주 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 주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V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논의와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기술하고 본 연구의 함의를 나타내고 제언하였다. 이주생애사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이주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향후 재외한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주생애사도 풍부하게 연구되기를 희망한다.



## II. 이론적 논의

### 파독 간호사의 역사

#### 1) 파독 간호사의 형성 및 이주

한국 여성이 간호사가 되어 이주하던 독일은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을 맞이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었고 이를 외국인 손님 노동자의 유입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 시기에 독일에 유입되었으며, 업종은 광산과 병원, 결핵 요양원, 양로원 등과 관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 양말공장이나 초콜릿 공장 등에 기술 실습생 명분으로 가기도 하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복구과정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경제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외화 유입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이때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높은 실업률로 나타났고,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가정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같은 경우라면 남자 형제에게 먼저 교육의 기회가 있었고 여성은 배제되었던 현실은 여성들이 이주를 선택하는 동기가 되었다(정성화, 2013: 15).

서독은 1955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총 8개국과 국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외국 인력을 유입했다. 양해각서는 계약 기간만 독일에 근무하고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순환원칙에 기반하였다(윤서옥, 2018: 26). 한국인 간호 인력의 파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1950년대 말부터 1966년 1월까지 민간 주도기가 있다. 둘째, 1966년 3월부터 1969년까지 민관에 의한 파견 병행기가 있다. 셋째는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제1차 및 제2차 간호 협정에 의한 정부 주도의 파견기이다(파독 광부백서, 2009: 63; 이애주 외, 2011: 109 재인용). 민간에 의한 한국 간호사의 파독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 일은 처음에 독일의 가톨릭 신부들, 개신교 계통의 신자들과 본(Bonn) 대학의 의과대학생 이종수, 마인츠(Mainz) 대학의 이수길 박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서독에서 간호사의 지속적 수요가 있었으며, 1966년부터 한국 해외개발공사에서 간호사 송출을 전담하였다. 당시 파독 간호사의 규모는 1966년 이전인 1950년대 말부터 민간에 의해 파독한 인원이 있었기에 정확히 산출되지 못하였으나 진실 화해조사위원회(6차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11,057

명으로 기록되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이러한 파독 간호사의 이주는 한국과 독일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1960-70년대에 있었던 파독 간호사는 19세기 후반기부터 지속한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적 이주의 연속선에 있고 한국전쟁 후의 경제적 빈곤으로 추동되었다. 이 일은 또한,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한 것이 진실·화해 조사위원회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서독의 지속적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아울러 한인 간호사의 이주는 유럽과 북미의 한인사회 형성에 중요 계기가 되었다. 파독 간호사의 업무 형태는 미국과 같은 전문직이기보다 비전문직 돌봄 노동의 형태를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이 영향으로 한국에 간호조무사 제도가 정착되는 영향이 있었다(이애주 외, 2011: 139-140). 독일에 이주한 한국 여성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는 물론 여성해방의식이나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1975년 독일은 외국인 고용중단을 선언하고 외국인 간호사에 대하여 해고와 귀국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인 간호사들은 이에 항의하여 체류권 획득을 위한 투쟁을 하였고 서베를린은 그 중심지였다. 이를 계기로 결성된 재독 한국 여성 모임의 주요 활동지였던 베를린의 여성들은 정치·사회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문화 활동을 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17).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파독 간호사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높은 소득에 있었다. 한국인 간호사들은 오전, 오후, 야간반 등으로 나뉘어 근무하였고 기숙사에 거주하였으며 휴가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러나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는 언어장벽, 외로움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근무 후 독일어 공부를 위해 단어를 외우고 스테디를 하고 시민대학이나 문화센터에 등록하여 배우기도 하였다(김용출, 2015: 155-158). 다른 한편으로 한인 간호사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수의 갈등이 발생했고 적응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한인 간호사가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법적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문제는 생활과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던 점이다(유정숙, 2017: 54-55). 한국 간호사의 적응문제는 특히 요양원에서 심각하게 발생했으며, 이유는 업무에 있어서 돌봄 노동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간호사가 전문직이지만 독일은 전문직과 돌봄 노동이 혼재되어 있기에 처음에 한국인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이 자신들에게 일부러 청소 등을 배정한다고 여겼다. 이와 더불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기에 한국 여성들의 작은 체구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이 외에도 언어적응과 소통의 문제, 문화 차이로 문제 해결방식의 다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였다. 상황이 이와 같았음에도 파독 간호사는 한국에서 큰 호응을 일으켰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에 따르면(2008: 190-191), 1975년 1월 1일

부터 4, 5년 지속하는 2차 송출 계약이 체결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독 간호사 송출에 제동이 걸린 것에는 다음의 원인이 있었다. 첫째, 초기 간호사들의 좋은 이미지에 반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간호사들이 제3국으로 무단이탈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축적되었다. 둘째, 한국 간호사의 송출로 인해 한국 국민의 보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서독의 노조와 정부는 한인 간호사 유입중단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셋째, 1974년 서독 내에서 간호사의 임금이 11% 상승함에 따라 독일 여성들이 대거 간호사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독일 측에서 임금이 한국보다 저렴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간호사를 고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76년 70명을 마지막으로 파독 간호사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1966년부터 독일에 파견된 한국 간호사들의 성실함과 근면성은 주변국인 오스트리아도 한국에 간호사를 요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1차(1972년 8월 27일) 빈 대학병원에 20명, KFJ Spital(Kaiser Franz Josef Spital) 20명, 라인츠 병원 10명 등 총 50명, 2차(1973년 5월 31일) AKH 20명, 룡겐하일슈테테 결핵 요양원(현재 오토 바그너 병원) 30명 등 50명, 두 그룹을 합하여 총 100명이 오스트리아로 파견되었다(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2012: 125-126).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2013: 81, 87)에서는 스위스에 간호사로 이주한 한인 여성은 1968년 11월 13명, 1972년 54명이 베른의 인셀 병원에 취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 또한 1960년대 파독 간호사가 독일에 대거 유입되어 호평을 받던 과정에서 스위스 병원이 고용하였다. 오스트리아에 이주한 한국 여성들의 이주 동기는 독일로 이주한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선진국을 향한 동경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남성 중심인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 자립과 독립을 추구하고 자유로움을 찾으려는 열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간호사들은 1972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로 나뉘었다. 당시 오스트리아로 온 50명의 한국 간호사들은 빈 공항에 도착하자 첫 아시아 취업자로 신문 기자들과 각 병원 원장들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이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그만큼 견뎌야 했던 어려움도 많았다. 제일 큰 것이 의사소통이었다. 나이 많은 환자나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빈 사투리를 많이 사용했고 독일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도 너무나 많았다. 종일 잘되지 않는 독일어를 사용해야 하거나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더욱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는데, 독일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담담이 아닌 일을 떠맡거나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부족한 독일어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있었기에 서서히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75년 한국에 홍수가 났을 때 30명의 파독 간호사들이 100실링씩 모아 3천 실링을 한국대사관에 전달하였고 크리스마스에는 병원 환자들을 위해 한복을 입고 캐롤을 불렀다(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2012: 127-128).

## 2) 파독 간호사의 정주와 결혼

파독 간호사의 정주와 국제결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부터 1981년까지 1622쌍의 독일인과 한국 사람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었고 그 가운데 90%가 한국인 여성과 독일인 남성의 결합이다. 한국인과 독일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1,427명이며 모체가 한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에 능숙하지 못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향이 나타났다(유정숙, 2017: 65). 독일 남성과 한인 여성의 결합은 서로 다른 문화들의 결합이기에 가족관계 안에서의 갈등과 갈등 조정의 필요를 가져왔다. 또한, 두 국가의 발전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계관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정치와 교육에서 두드러졌다. 철저한 반공 교육의 영향에 있던 한인 간호사들은 사회주의나 사회단체 등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에 거부감이 강했던 반면 독일 남성은 이념의 차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성향을 나타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한국 여성이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경쟁을 일반화하는 것에 비해 독일 남성은 그에 대해 한국인 아내보다 자유로운 태도를 나타냈다(김용출, 2015: 161). 음식 적응에 있어서 국제결혼 가정의 당사자들은 모두 배우자 나라의 음식에 적응해야 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식탁예절과 문화가 달랐으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였다(손대원, 윤서옥, 2017: 348-349). 국제결혼가정의 이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커플의 경우 거주국의 제도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국사편찬위원회, 2013: 93).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2008년에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의 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해 빈 국제부인협회 '나오미'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2009년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나오미는 성서 최초 이방인과 결혼한 아들을 둔 여성이다. 그리하여 이를 협회의 특징과 배경을 함축하는 이름으로 삼았다. 원래 성서상의 결혼이주여성은 룯 이지만 발음하기 편한 나오미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에는 현재 160가구의 국제결혼가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나오미에는 약 80명 내외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나오미는 다음의 네 가지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1) 어린이 한글 놀이방, 2) 가정 지원 무료상담센터, 3) 음식 만들기, 4) 워크숍이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위해 한글 교육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춘다. 나오미는 그들 단체가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마음의 친정이 되기를 희망한다(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2012).

국제결혼 가정은 언어, 문화, 가치관, 정치의식, 관습의 차이, 자녀 양육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은 문화와 문화 사이에 존재하며, 문화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이지만 특별히 주목되지는 않았다. 이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거주국의 구성원들은 한국을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한인 여성들의 행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며 노년의 재외한인 여성들 또한 한국에 대하여 미디어로만 접하여 한국 사회와의 소통에 한계점을 가진다. 한국 사회가 재외한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이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그들의 생애 전반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 동향

유럽 거주 재외동포 가운데에서 독일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한국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국가이자 유럽 내에서 최초로 한인 재외동포사회가 형성된 곳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로의 대규모 한인 이주가 시작된 것은 한국과 독일 간 협약에 의한 광부와 간호사의 노동 이주가 이루어지면서이다(손대원·윤서옥, 2017: 15). 그리고 이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한국 사회에 급격히 외국 인력이 유입된 시점과 맞물린다. 즉 파독 간호사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파독 간호사 자체가 주요 관심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는 여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에 관한 연구보다 수치상으로는 다양성 면에서 비교적 다수로 연구되었다.

파독 간호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된 자료 가운데 국내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선행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파독 간호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학위논문은 석사 논문 2편이 있다. 석사 논문 2편과 국내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 가운데 파독 간호사 관련 연구에서 이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 38편을 선행연구로 살펴보았다. 또한, 다수의 단행본은 파독 간호사 당사자의 경험적 글쓰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이미 학술지 안에 포함된 내용이기에 본 연

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시작되었고 현재도 소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자료에 있어서 풍부하지 않다. 또한, 파독 간호사 가운데 결혼하여 거주국에 정주한 한인 여성에 관련한 연구는 더욱 희소하다. 김민정(2018: 35)은 재외한인 여성에 관한 연구의 비가시화는 한국이 단일한 부계 혈연 공동체라는 신화에 기반하기 때문에 재외한인에 대한 젠더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파독 간호사 당사자들의 역이주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독일로 이주한 한인들에 대하여 ‘나가는 것’ 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이유재·박주연, 2015: 328). 뒤늦은 관심의 중심에도 이들이 중심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내의 상황이 중심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선행된 연구는 이주한 한인 여성들 자체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1960-70년대 독일로 이주한 한인들은 다른 언어와 문화권으로 이주하였으나 그들의 삶은 한국 전통의 질서가 고스란히 남아 화석화되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여 진공관 세대로 존재한다고 하였다(박정희, 2005).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 여성들은 독일 사회에서 타자이지만 문화적응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조정해 나가며 독일 사회에서 문화융합의 역할을 행하는 주체자임을 나타냈다(이수자, 2006). 또한, 독일로 이주한 한국 여성은 이주를 통하여 자율성을 획득하였고 이러한 자율성은 공동체의 활동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할 원천으로 작용하였다(김용찬, 2007). 이수안(2008)은 한국 여성들이 독일 사회 내에서 타자성을 극복할 방법으로 이주자와 원주민 모두의 상호관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파독 간호사 이주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나혜심(2009a)의 연구는 한국 여성들이 여가를 초과근무로 전환함으로써 한국 여성에게는 경제적으로 공헌한 측면이 있었으나 독일의 간호사에게는 여가를 위한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독일 정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한인 간호사들이 독일 사회의 능동적 구성원이 되거나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이주하게 된 배경과 아울러 독일 사회에서 타자로 존재함, 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편 등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관점이 다수를 차지한다. 즉 간호사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의 이주와 적응과 관련하여 이주자 자신의 관점이 아닌 외부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

이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의 경향은 이전보다 많은 연구에서 이주자의 관점을 지향하여 이주가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파독 간호사인 한인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국의 말과 음식이 점점 더 그리워지며 한국이나 독일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지 않은 이방인의 심정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방성을 여기

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는 다중적 존재로 이해하기도 한다. 즉 이민자는 ‘뿌리 뽑힌 자’가 아니라 ‘이식’된 자로서 이식을 개인의 적극적 행위의 결과로 보았다(김학선 외, 2011; 이선희, 2012). 또한, 한국 여성들은 그들 삶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이선희, 2013; 이수안, 2013; 정선이 외, 2017). 파독 간호사의 생애사 연구에서는 이주가 한인 여성들에게 We를 위한 삶에서 I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점을 제공하였으며(이효선·김혜진, 2014), 이들은 두 세계에 적응하는 곡예사의 줄타기와 다른 없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냈다(양영자, 2016). 또한, 이들을 행동하게 만든 것은 결핍이었으며 결핍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와 실천이 이들 삶의 동력이 되었다(이효선·유연숙, 2017). 이와 같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들은 이주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주자 자신의 관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2000-2018년에 진행된 연구의 중심 관점은 한인 여성들의 적응 측면과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에 관한 연구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윤인진(2012: 31-32)은 재외한인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재외한인이 밀집해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적응과 동화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국제 이주자들의 삶과 경험을 초국가주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이주자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주자들은 기존의 고립된 의미에서의 이주자가 아닌 이주자의 모국과 유입국을 연결하고 적극적으로 행위 하는 초국적 이주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문숙(2014: 267)은 재외한인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초국가주의의 확대라고 보았다. 또한, 재외한인의 삶은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영역에서 초국가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문화면에서 모국과 거주국의 문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고 심리적 측면에서 탈영토화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국가주의에 의한 이주자의 특징은 이주자가 어느 한 지역에 고정된 존재가 아닌 모국과 거주국 모두를 연결하는 행위의 주체자임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파독 간호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부 관점에서 이들의 이주를 살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주자 본인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파독 간호사들이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여 그들 자신과 모국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초국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소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파독 간호사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고 이들의 이주자의 삶과 초국적 행위,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이주 행위에 따른 모국과 거주국의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주생애사

### 1) 재외한인 생애사 선행연구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재외한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재외한인 연구가 비교적 다수 진행된 지역(독일, 미국, 고려인, 사할린 한인)의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연구를 생애사 연구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연구 가운데 생애사 제목이 있으나 연구 내용에서 연구참여자의 삶을 총체적 배경으로 하지 않은 연구, 즉 연구방법이나 이론에 관련된 것과 생애 경험의 일부를 어떤 특정한 주제에 연결하여 분석한 것 등은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독일, 미국, 고려인,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 가운데 25편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독일에 이주한 한인 가운데 생애사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파독 간호사와 광부 그리고 파독 간호사로 이주한 후 독일에 정주한 후 국제결혼 한 한국 여성들이 대상이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경우 한인 부부, 한국전쟁을 겪은 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1세대가 대상이었다. 고려인 생애사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고려인, 고려인 가족, 원로 고려인이었고 사할린 한인의 경우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이 주요 대상이었다. 독일로의 이주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인한 이주가 대거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에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주둔이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한국전쟁을 겪은 후 이주한 세대에 관련한 생애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이주는 역사적으로 다른 이주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민족적 이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고려인 가족이나 원로 고려인,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등이 있었다.

독일, 미국, 고려인, 사할린 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 살아가는 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룬 주제는 거주국에서의 사회 활동(이희영, 2005b; 양영자, 2016)이 있었고, 이주경험의 생애사적 의미 찾기와 정체성 등에 관련한 연구(이효선·김혜진, 2014; 양영자, 2015; 이혜숙, 2016; 남혜경·김영순, 2018)가 있었다. 이 가운데 양영자(2015: 324-325)는 노동 이주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생애사가 전 생애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애사의 이야기 구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효선·김혜진(2014: 281)은 이주노동이 개인에게 어떠한 생애 사건으로 재정의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삶이 이주국의 제도적 정



치적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남혜경·김영순(2018)은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참여자의 경험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구분하였고, 한인 이주여성들의 삶에 관한 다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대상 생애사 연구는 석사 논문으로 김남규(2019)는 테니스인 이종훈에 관한 생애사 연구를 하였으며 체육인으로 살아온 삶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윤택림(2010: 153)은 개인에게 보수적 성향이 내재하게 된 이유를 개인의 생애사에 나타난 사회적, 역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김혜정(2012)은 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변화하는 자아개념과 이주자의 삶, 이중문화에의 적응 등을 살폈다. 곽애영(2018)은 개인이 사회에 미친 생애사적 영향을 나타냈다. 고려인에 관련한 생애사 연구에서 강희영(2012)은 한국으로 유학한 고려인 여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배은경(2008)은 원로 고려인의 생애사를 통하여 고려인 지식인의 역할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황영삼(2008)은 강제이주, 소수민족의 애환에서도 꽃핀 고려인 학자의 학문에 관한 열정을 나타냈다. 고가영(2008)은 정치적 변화환경에서 개인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생애사로 연구하였다. 임영상(2010)은 한국어 교사로서의 생애담을 연구하였다. 사할린 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는 영주귀국자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사할린 한인의 생활사(박경용, 2013), 모국으로의 귀환 후 적응(조일동, 2015; 박신규·이채문, 2016), 생애 경험의 초국적 의미(문현아, 2016), 사할린 한인 한국어 교사의 기억(김영순·박봉수, 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재사회화(박봉수, 2017), 귀환 이주의 성격과 의미분석(박신규, 2019) 등이 있었다.

재외한인 생애사 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이주경험과 사회 운동,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애사는 정체성, 적응,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의 공헌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고려인에 관한 연구는 생애사적 체험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이주경험이 연구되었다. 사할린 한인연구는 한국 사회에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초국적 경험이나 귀환 이주, 영주귀국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외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의 특징을 보면 첫째, 특정한 이론적 렌즈로 개인의 생애사를 살펴보는 것이 있다. 사회 운동이나 개인의 정체성과 같은 주제에 관련된 이론적 렌즈를 통해 개인의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고 개인의 생애사를 연구하면서 특정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 연구를 통해 이주자의 삶, 이중문화 적응, 자아의 변화 등을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삶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연구가 있었다. 그 영향은 개인의 공헌, 특수 사례 등을 통해 나타냈다. 넷째, 이주와 같은 특정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생애사 연구

가 있다. 이처럼 재외한인에 관한 연구는 이주와 이산, 그 후 적응하는 개인의 노력, 그리고 공헌, 특수한 생애사적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의 이주가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드러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즉 생애사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관점과 분석이 각기 다르므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저러한 것을 보는 파편화 현상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주와 그 영향을 분석할 때 파편화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해서 재외한인 생애사 연구에서 분석은 어떻게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 2) 재외한인 생애사 연구분석

독일의 경우 양영자(2015, 2016)가 생애사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며 정교화하였다. 그것은 첫째, 연대기적 서술, 둘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주제영역 도출, 셋째,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 넷째,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비교분석, 다섯째, 각각의 사례의 고유성, 특수성, 공통점을 유형화하였다. 이희영(2005a)은 이주자의 사회활동을 분석하면서 첫째, 살아온 생애사-이야기된 생애사-체험된 생애사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사회 운동 참여의 생애사적 배경, 정치 활동의 내용 및 생애 역사가 갖는 현재의 의미를 통해 사례의 유형을 형성하였다. 이효선·김혜진(2014)은 쉬제(Schütze)의 이야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첫째, 화자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였고 둘째, 삶의 과정과 경험을 구조화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구조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석적 개념을 끌어내었고 넷째, 각각의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유형들을 만들어내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혜경·김영순(2018)은 만델바움(Mandelbaum, 1976)의 생애사 분석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생애 경험들을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으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애사 연구분석은 첫째, 연대기적 서술, 둘째, 특별한 사건 또는 업적을 중심(임영상, 2006; 김혜정, 2012; 최성규, 2016; 곽애영, 2018)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윤택림(2010)은 연대기적 서술과 아울러 시대적 환경의 영향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고려인에 관한 생애사 분석은 강희영(2012)의 경우 사회학의 인구이동을 분석할 때 이주를 촉진하는 원인을 밀어내고-끌어당기는(push-pull)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밀어내고-끌어당기는 요인으로 고려인 여성들이 한국으로의 이주와 한국 체류 체험 후 재이주 과정을 분석하였다. 학술지에서는 개인의 생애를 고찰하여 고려인 이주사의 이면을 살펴보거나(배은경, 2008; 황영삼, 2008; 고가영, 2008),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생애사(임영상, 2010),

또는 개인으로서의 고려인의 삶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할린 한인에 관한 생애사 내용의 분석은 거주국에서의 생활, 귀환 후 적응, 삶의 경험과 행동을 통해 생의 본질적인 의미와 의미들의 관련성을 밝히려 하였다. 박경용(2013)의 연구분석은 기억의 환기 방식을 따랐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분석을 하려는 방법이다. 조일동(2015)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개인의 생애사 수집과정에서 만나는 미시적 차원의 삶의 이야기를 비교,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문현아(2016)는 구술된 내용을 시공간적으로 재배치하며 의미화를 시도하려는 크로노토프 기법을 활용하였다. 김영순·박봉수(2016)는 연구의 분석을 첫째, 삶의 맥락적 시간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개인의 경험과 행동의 본질적인 의미와 의미들의 관련성을 밝히려 하였다.

이와 같은 재외한인의 생애사(구술사연구 포함) 연구의 분석은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중요사건에서 개인의 연대기적 경험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가는지를 살피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를 위해 연대기적 서술, 삶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 물리적, 문화적 공간 중심 분석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의 경험을 분류하는 방식에 문화, 역사 등과 같은 범주를 두었다. 사할린 연구의 경우 한국에서 사할린으로의 이주, 그리고 그 후손의 한국으로의 재이주와 사할린에 남아 있는 자녀들과의 재생되는 이산 등이 연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초국적 관점과 디아스포라, 역사적 사건 등이 함께 연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의 분석 틀은 통일되지 않았으며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그 가운데 각각의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적용된 구성은 첫째, 연대기적 서술이었다. 둘째,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하여 주제별 범주화 후 이를 연구자가 제시하는 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시대와 역사적 사건에 연관된 경험들의 생애사적 의미분석과 해석, 그리고 이를 통한 유형 도출이 있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의 생애사가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며, 어떻게 분석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생애사 연구의 관점은 연구자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주 한인의 삶을 살펴보는 결과로 이주한 한인의 삶이 조각조각 파편화된다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분석틀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생애사를 위한 이론적 분석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으나 개인의 이주생애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범주화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재외한인의 이주생애사를 다룰 때 분석의 파편화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으로 여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성인이 된 후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하여 거주국에 정주한 후 결혼한 여성들이다. 이들의 삶은

모국인 한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초국적 형태의 성격도 있었다. 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주생애사를 위한 범주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재외한인 생애사 연구분석에서 도출된 분석법을 일부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연대기적 서술, 시대와 역사적 사건에 연관된 경험들의 생애사적 의미분석과 해석이다. 그 후 초국적 연계와 정체성 등의 분석이 이주생애사에 포함될 것이다.

### 3) 이주생애사 연구

이주자들은 이주의 영향력을 그들이 이주한 유입국뿐만 아니라 송출국인 모국으로 확장한다. 현대사회의 기술발달과 이주의 보편화 현상은 개인의 이주로 인한 영향력을 이주자의 거주국과 모국 사회로 확장한다. 이를 사회학자들은 초국가주의로 개념화하였다. 초국가주의의 접근은 현대의 국제 이주가 과거에 비교해서 모국과 거주국 간의 쌍방향적인 인구이동이며, 이주민이 거주국에서 정착하면서도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주목한다(윤인진, 2017: 41). 이주 후 모국의 가족과 연계하는 초국적 활동은 예전부터 항시 있었던 현상이지만 현대에 들어 이주자들의 초국적 행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로의 이주 후 정주하고 다시 한국으로 연계를 지속하였는데 그 영역이 가족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면으로도 확장되었다. 이러한 것은 이주자의 초국적 활동의 예가 된다. 이외에도 파독 간호사들은 거주국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고 자녀를 키워야 했다. 이러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의 이주생애사에서 초국적 행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하나로서 개인의 삶을 연구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연구방법이다. 김영천·한광웅(2012: 12)은 생애사 연구를 통해 미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삶이라는 렌즈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 연구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오저마크(Ojermark, 2007: 2-3)는 생애사 연구가 이전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과 이주와 빈곤에 관련된 문제들에 접근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포착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생애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생애사는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생애사 연구는 인생의 한 부분만이 아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의 삶 전체를 연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는 사회의 총 실재를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chütz, 1983, 1984; 박성희, 2016: 219-223 재인용). 이러한 질적 연구는 계량적인 연

구방법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생애사는 한 사람의 삶을 그 개인의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또한, 개인이 경험한 삶의 맥락을 삶의 전체적인 시각과 개인이 가진 환경적 조건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인 간호사들이 모국과 거주국 양쪽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그들의 생애를 구성하고 조정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인 간호사의 이주생애사를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의 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대기적 서술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이주 전까지를 ‘유년-청년기’로 두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생활, 부모님과의 관계, 기억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연구참여자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기반이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이주 후 실행하는 삶의 선택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생애사 분석에 있어서 두 번째 분류기준은 ‘이주 후 결혼’이다. 이 시기는 이주 초창기로 거주국 언어습득과 독일과 오스트리아 병원업무에의 적응, 그리고 이성으로부터 구애를 받았던 시기이고 한국을 떠나 거주국 사회로 나아가는 중간 지점으로서의 시기이다. 세 번째 범주는 ‘거주국에서의 삶’을 두었다. 이 범주는 연구참여자들의 사회활동, 결혼생활, 이혼, 자기 삶의 주도성, 경제적 안정기, 모국으로의 초국적 활동 등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이 범주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거주국의 문화와 모국의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하는지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에서는 2세대를 위한 활동, 거주국 구성원과 친목, 자기 성찰, 여가, 안정 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유년-청년기

이 부분에서는 이주를 추동케 한 국제적 상황과 국제 정세가 연구참여자의 모국과 이주를 유입하고자 하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초국적, 국내적 정황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국제 이주기구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명 중 1명은 이주자라고 하였다. 지난 2010년에 여성 이주는 전체 이주의 49%에 이르렀고 동아시아와 남미에서는 이미 여성 이주가 남성 이주를 추월하였다(이지영, 2013: 236). 이는 전 세계 인구에서 7명 가운데 1명이 이주자일 때 그중 절반 또는 지역에 따라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카슬과 밀러(Castles & Miller, 2016: 38)는 현대 이주의 특징을 여섯 가지 즉 이주의 전 지구화, 이주의 가속화, 이주의 차별화,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정치화, 이주 변천의 확산으로 요약하였다. 그 가운데 이주의 전 지구화는 이주의 영향이 거의 모든 나라에 미치고 있음을 말하며 이주의 여성화는 모든 이주 지역과 이주유형에서 여성 이주자의 중요 역할과 특별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지영(2013: 240)은 여성의 이주에서 노동 이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파독 간호사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로의 이주는 한국 여성의 대규모 자발적 노동 이주이다. 이 이주는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현상이지만 현대사회의 거대한 조류인 이주 현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대규모 여성 노동 이주라는 점에서 현재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연결되고 있다.

개인이 이주를 실행하기까지 국제적, 이주자 모국의 내적 상황, 그리고 개인적 상황이 존재한다. 국제적 환경은 지구촌 노동환경의 변화나 거대 자본의 이동, 전쟁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노동력의 흐름을 발생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은 유입국과 송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에 영향을 줌으로써 노동자의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주생애사를 살펴볼 때 이주자의 개인적 환경과 아울러 국제적 환경과 유입국과 송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주생애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① 국제적 요인

한국은 정부 수립 이래 재정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에 의존했다.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자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달러를 해외로 방출했다. 그러나 1958년을 기점으로 서구 주요 통화의 태환성이 회복되었기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미국은 개도국의 무상원조를 유상원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한국으로의 원조도 1957년 3억 8,92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점 하향했고 1959년 2억 2,220만 달러, 1961년 1억 9,91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홍성유, 1966; 정성화, 2013: 31, 재인용). 미국의 원조가 줄어드는 시점에 서독과 일본은 마셜플랜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독일은 동맹의 연대 책임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독과 일본은 한국을 비롯하여 개발도

상 국가에 대한 원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노명환 외, 2014: 92).

한국과 독일은 전후 나라가 분단되어 각각 공산주의 정권과 자유주의 정권이 통치하는 구조가 되었던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독일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독은 파병하지는 않았지만 1954년 2월 적십자 병원을 통하여 의료 부분을 원조하였다. 그 후 1956년 양국 정부는 각국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였고 1957년 영사관을 공사관으로 승격한 후 1958년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1965년 2월에는 한독 투자보장 협정이, 4월에는 한독 무역협정이 조인되었다. 이러한 긴밀한 교류의 바탕에서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이애주 외, 2011:71-74).

독일은 1955년 12월에 이탈리아와 노동 인력 지원 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주변 유럽 국가들과 터키와 국가적 협약이 체결되었고 노동 인력은 충분하였다. 그러나 1964년 이후 고용 사정이 개선된 유럽 지역으로부터의 노동자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1967년부터 1970년에 이르러서 독일의 노동력 부족은 한계를 넘어선 형편이 되었다(나혜심, 2009b: 263). 그리하여 1950년대 말 가톨릭 신부들에 의해 개별적 독일 이주를 시작으로 1966년 한국과 독일 정부 사이의 공식 협정에 의한 파독 간호사 행렬이 본격화되었다. 간호사로서 한국 여성의 독일 이주는 1975년 독일에 오일쇼크가 오면서 독일에 의해 공식 중단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이주는 1976년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공식적 한국 여성의 파독 간호사 이주는 막을 내렸다. 파독 간호사의 이주가 이루어지기까지 초국적 상황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 하였던 시점과 독일과 일본이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 대국을 향해 급부상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경제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던 독일은 한국과 같은 개도국의 원조에 참여할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종용받았다. 그리고 독일 사회 내 노동력의 급감으로 인한 해외 노동력 유입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과 독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파독 간호사 이주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 ② 국내적 요인

파독 간호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의 한국은 1960년 4.19에 의해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 1961년 제2공화국이 무너지고 군사정부가 들어선 상황이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였고 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높은 실업률은 실업자를 수용할 기업이 없었으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때 유희 노동력의 해외유출은 국내 실업을 완

화하고 외화획득의 목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이애주 외, 2011: 80-81). 이와 더불어 1차 경제개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했고 일본의 원조를 받기에는 국민의 정서가 맞지 않았다. 이에 서독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정치 안정과 정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서독 선택과 광부·간호사의 파독은 미국·서독·일본의 출구 전략과 한국의 입구 전략이 시기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해소해야 하는 국내외 정치 환경과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노명환 외, 2014: 92-94). 파독 당시 한국 사회는 전후 복구가 시급했고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그들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경제 회복이 필요했다. 그러나 전후 재건에서도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던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의 현실에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파독 광부·간호사의 이주로 인한 실질적 외화 유입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정희 정권에게는 매우 유용한 역할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에서 파독 간호사의 송출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도 상당했다.

### ③ 개인적 요인

한국인 간호사의 파독 당시 한국 사회는 높은 실업의 형편에 있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최빈국 상태였고 해외여행 자체가 사회의 극소수 그룹의 특권을 의미하던 시기였다. 당시 서독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1배에 달했고 선진국은 한국에서 동경의 대상이었다. 서독 취업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취업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3%가 경제적 이유를 들었고 32%는 서구 사회의 동경을 이유로 들었다(심윤종, 1975: 노명환 외, 2014: 62, 재인용). 서독주재 파독 간호사의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65.7%, 대학졸업자는 15.3%, 중학교 졸업자는 20%였다. 나이는 21세에서 25세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5.9세이다. 이들 가운데는 미혼이 82.1%이고 기혼자는 17.9%였다. 이들의 이주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61.1%이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함이 31.6%로 나타났다(김조자, 1975: 29).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파독 간호사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80%가 넘는 고학력 여성들의 이주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주 동기에서 경제적 동기가 높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빈곤의 이유와 개인적 목표를 가지고 실행한 이주가 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갔는지를 이주생애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이주 후 결혼

파독 간호사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은 2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처음에 3년 계약으로 이주하였으나 3년이 지난 후에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계속적 간호사의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간호사의 업무 능력이 거주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며 파독 간호사 개인도 체류 연장에 불만이 없었으므로 연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체류가 길어지면서 거주국 남성, 또는 거주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남성과의 교제가 있었고 결혼으로 이어졌다. 결혼은 여성들이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은 여성이 부모를 떠나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결혼을 통해서 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스스로 설정해 나가야 하고 결혼을 지속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의 형태가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된다.

이희영(2014: 112)은 결혼 이주를 포함한, 여성의 이주와 결혼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혹은 개인의 단순한 공간이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라고 하였다. 개인은 체화된 문화 양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거주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규모와 차원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새로운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최종렬·최인영(2008: 184)은 이주여성이 이주하기 전까지 본국의 문화자원을 통해 행위전략을 구성하며 살아왔지만, 이주 후 그러한 행위전략이 통하지 않는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행위전략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주여성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로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의 적극적 의지의 표출로 국제결혼에 이르렀으나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한인 여성에게 새로운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게 하였다. 정혜실(2007)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한국 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하지만,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거주권, 노동권 제한<sup>2)</sup>과 같은 법적, 제도적 차별을 둠으로써 타자의 위치에 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구 백인 남성이 아닌 동남아 남성에게 한국 공무원은 반말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동남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계급차별을 경험하였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한국전쟁에 이은 미군의 주둔, 그리고 미군과 한국 여성의 결혼으로 이미지화되었다. 그리하여 이희영(2014: 111-112)은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반도덕적으로 여겨져 질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지

2)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의 거주권과 노동권 제한은 1997년 이후 개선되었다(정혜실, 2007).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한 결혼 이주 외국 여성의 경우 한국 남성의 ‘돈’ 때문에 결혼한 여성, 인권침해의 피해자, 국제적인 사기 결혼의 당사자라는 낙인이 재현되는 실정임을 나타냈다. 한국 사회는 이처럼 국제결혼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고려하여 최근 국제결혼 대신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나타내는 것은 여성의 이주와 이주한 여성의 결혼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메시지이다. 이주여성의 결혼으로 야기되는 개인적 삶의 변형, 거주국의 사회적 변화들, 결혼, 그리고 기든스(1996)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에 잠재된 사회적 억압 등에 관한 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주와 결혼을 통하여 여성의 삶이 뒤틀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과정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관찰될 필요가 있다. 이주를 추동케 한 사회적, 역사적 환경과 이를 선택하게 된 개인의 여건, 그리고 이를 살필 때 활용할 진화하는 사회학적 이론들은 이주생애사에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며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이주와 결혼, 그리고 그 영향이 세대로 이어지는 현상에 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될 것이다.

### (3) 거주국에서의 삶

이주생애사를 분석하고자 할 때 거주국에서의 삶 부분에서는 이주자가 거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다루게 된다. 자녀를 낳아 교육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 정체성을 심어주며, 이와 동시에 거주국에서의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이주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은 현대 이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것에 주목하는 초국가주의 이론과 디아스포라 관점, 그리고 문화적응 이론과 정체성 이론 등이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관점, 문화적응, 정체성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이주자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은 경제적 측면과 연결된다. 즉 재화가 풍부한 곳을 향해 노동자들이 움직이는 현상, 경제와 문화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로 빈국의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한 설명으로 거대 글로벌기업과 투자자들이 경제적 빈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경제적 손실과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실업의 현실을 피하려는 개인들에 의해 이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Stalker,

2003: 41). 이주자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관점이 소외되고 무엇인가 부족한 개념으로서의 이주자였다면 현대의 이주자들에 관한 관점은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것에 무게를 둔다. 나아가 오늘날의 이주자 개념은 국가 간 국경의 의미를 엷게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주자들의 행위는 출신국에서 이주국으로 나아가는 일 방향의 이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국가를 오가는 양방향의 행위자가 되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 초국가주의 이론이다. 이주에 관한 초국가주의 관점은 이주자들이 출신국과 거주국을 잇는 행위의 주체로서 주목한다. 이윤경(2014: 12-13)은 초국가주의 관점에서는 이주자들의 정체성, 모국과의 연계, 그리고 모국 정부가 하는 역할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모국과 연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주목한다. 파독 간호사 역시 이주하여 정주한 후 모국 가족과의 연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주자들의 초국적 활동은 지구촌의 세계화 현상을 기반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주자들은 본국과 거주국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주자에 대한 모국 정부의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이주자의 모국 정부는 자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자국 동포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을 하며 필요한 정부 기구를 설치한다. 1970년 10개국도 되지 않았던 재외동포 관련 기구는 2014년 193개, 유엔회원국 중 110개 국가가 재외동포 관련 기구와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7개 이상의 국가들은 복수의 재외동포 지원기구와 제도를 제정하고 있다(Gamlen 2014; 김용찬, 2017: 23 재인용). 한국도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였으며,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다. 초국가주의는 국가와 정부 및 다국적기업의 대표 같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될 경우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라고 부르며 이민자 및 본국의 친척들 같은 평범한 개인들에 의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로 분류된다(Castles & Miller, 2013: 70-73). 과거와 달리 신속하고 저렴한 교통·통신으로 이주자들은 초국가적으로 '여기'와 '저기'의 삶을 유지한다. 이주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가족과 친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아가서 혼인, 개인과 가족 차원의 송금, 선물수수 등 보다 미시적인 차원의 사회·문화적 연결을 시도하며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활동을 실행한다(김경학, 2007: 28). 가르니조 외(Guarnizo, Portes & Haller 2003: 1225, 1239)는 교육 수준이 낮고, 소외되어 있으며,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이 불충분한 이주자들이 본국으로의 연결을 이끈다는 기존의 연구와 해석을 달리했다. 즉 초국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주민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과 개인 소득 수준이 높으며, 거주국으로의 귀화율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주자의 초국가적 행동은 거주국에 정박함을 기반으로 하며 거주국에 대한 충성을 버

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이주자의 초국적 행위가 거주국에서의 성공적 통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주의 이론과 아울러 이주자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이주이론으로 디아스포라 이론이 있다. 디아스포라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한다. 하나는 이민이나 국제적 인구이동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강제이주나 비극적 종족 이산의 경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수자, 2004: 194). 그러나 다양한 이주 연구가 지속 되면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그 의미도 넓어졌다. 그리하여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에서 이론적 논의들이 중첩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두 개념에 대한 의미를 <표 II-1>을 통해 구분하였다.

<표 II-1>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비교

구분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
용어	공동체, 집단을 일컫음	이주자, 공간, 연계를 강조함
초점	정체성, 종족 관계에 초점을 맞춤	이주 연구 영역에 초점
성격	정치적 속성을 가짐	정치적 의미로부터 자유로움
장소와 영토와의 관계 (Bruneau, 2010)	모국에 강하게 정박 모국과의 단절에 의한 향수개념 도출 종족 정체성을 통해 집합적 연대감 산출 정박, 정착의 특징	모국과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음 모국에 다시 뿌리내려질 필요 없음 이주자 가족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평행적인 삶을 이룸 유목, 이동성의 특징
용어의 특징 Faist, 2010)	강제이주의 의미	자발적 이주와 분산
	모국으로의 귀환을 함축한다.	모국으로의 귀환은 순환적 이주와 초국가적 이동성의 의미가 있다.
	거주국에서의 통합의 어려움이 있음	거주국에서의 통합은 문화적 혼성성의 특징을 가짐.

<출처: 이윤경, 2014: 18-20; 윤인진, 2017: 41-42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개념은 모두 이주자가 모국과 연계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는 모국으로의 귀환에 의미가 있지만, 초국가주의는 귀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디아스포라 개념과 초국가주의 개념 모두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주자가 거주국에 이주하고 적응할 때 이주자들의 행태는 초국가주의나 디아스포라의 어느 하나에만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개념을 모두 이해할 때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애사에 관하여 정교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기에 두 개념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윤인진(2017: 62)은 고전적 디아스포라 개념에서는 강제로 모국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말하고 이에 반해 현대적 디아스포라 개념에서는 스스로 모국과 거주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를 구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은 이동성과 모국-거주국과의 연계성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동성이 낮고 모국-거주국과의 연계성이 낮은 경우는 디아스포라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동성이 높고 모국-거주국과의 연계성이 높은 경우는 초국가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를 함께 이해함으로써 이주자들의 행위가 초국적 행위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행위에 더 가까운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동시적 관여(engagement)의 의미는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산된 사람들을 좁히고,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윤인진, 2012: 25). 이주자들은 신기술의 혁명과 지구화의 맥락에서 떠나온 곳과 머무는 곳이라는 두 장소의 연결성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주체자의 성격을 가진다(Brunneau, 2010: 43-47; 우명숙·이나영, 2013: 145 재인용).

현대의 이주자들은 빈번하게 국경을 넘지 않아도 초국적 사회적 장을 통해 경제적(예: 송금), 사회문화적(예: 위성방송), 정치적(예: 본국 투표 참여)으로 이주국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본국에서의 소속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동시개입을 통해 이주국에서의 자본과 본국에서의 자본을 결합할 수 있다(구본규, 2013: 14). 현대의 이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으로의 강력한 기반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거주국에서의 정착이다. 거주국에 뿌리내림을 기반으로 모국으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초국적 이주자들의 특징이다.

현대 이주자의 특성에는 이주자들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몸을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출신국 구성원의 일부라고 간주한다. 즉 “세계 각지에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국가 밖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Basch, Schiller and Blanc, 1994: 269; 이철우, 2008: 9-10 재인용). 월딩어와 피츠제럴드(Waldinger & Fitzgerald, 2004: 1179, 1193)는 동화 사회학 개념을 통하여 국가가 국경을 강화함으로써 외부인을 배제하고 거주국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거주자를 사회적으로 구별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주자의 동화가 민족적 차이를 줄인다고 이해되어왔으나 사실은 국경을 통제하고 이질적 이주자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민족적 차이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국가주의 이론은 사회적 관계가 국가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암묵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였다. 월딩어와 피츠제럴드의 견해는 초국가주의는 이주자가 거주국의 동화정책에 의해 구별되고 배제되는 것의 반대급부의 행태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주자들은 초국적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지지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 ② 문화와 문화적응

현대사회의 이주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문화와 정체성이다. 카슬과 밀러(Castles & Miller, 2013: 87)는 종족적 소수자에게 문화는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배제와 차별에 대한 저항의 중심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출신지의 문화는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문화는 모든 이주자 수용국에서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으며, 인종적 우월성 개념이 이데올로기적 힘을 상실하면서 소수자 배제는 더욱더 문화의 차이라는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주자가 모국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어와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이주자가 거주국의 원주민과 다른 부류로 이해되는 데에는 다음의 이유가 있다.

김광기(2014: 205-206)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는 인간의 규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 행위의 규칙성은 곧 반복성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의 규칙적 되풀이에는 예측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는 행위자들에게 평온 유지에 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된다. 이러한 규칙성에 어긋난 '비규칙성'은 사회 성원에게 '비정상'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비규칙성은 인간에게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주자의 유입은 그동안 거주국의 원주민들이 가졌던 문화적 규칙성에 비규칙성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는 문화적 동질성에서 규칙성을 가진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주자들은 비정상으로 보이며 불안을 일으키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과 '비정상'은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의 문제이며 한 사회에서는 비정상인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정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카슬과 밀러(Castles & Miller, 2013: 27)는 국제 이주는 종종 갈등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주가 갈등과 연결되는 이유는 이주가 이주라는 현상으로 마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에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주민의 등장은 원주민과의 사이에 필연적으로 상호적응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주민은 원주민이 가진 문화, 역사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존재이고 이로 인해 두 문화의 갈등이 발생한다.

문화는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과 아울러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측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Samovar et al., 2015: 68). 문화의 차이는 종족적 경계를 표시한다. 지배집단은 문화 차이를 이주자 문화부적응의 증거로 간주한다.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적 위치에 머무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한편, 출신지의 문화는 그들의 능력과 경험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Castles & Miller, 2013: 86-87). 거주국 구성원은 그들의 문화에의 동화를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우월성을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주자는 출신국 문화를 고수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승재(2011: 102)는 문화가 개인의 인식 틀을 형성하고 나아가 정체성과 행동 및 인지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며, 타문화와의 만남은 행동과 인식의 차이를 동반하게 된다.

남혜경·김영순(2019)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과 독일의 문화 차이로 인해서 부부, 자녀,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틈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주자와 거주국의 구성원은 문화의 다름으로 상호 소통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갖는다. 이를 사회학자들은 문화적응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문화적응이란 두 개의 문화 집단 간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문화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김영란, 2007: 52). 린(Lin, Masuda & Tasuma, 1982; 전우택, 2000 재인용)등은 문화적응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주변적 신경 긴장성 유형을 들었으며 이 유형은 양쪽 문화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 주변적 일탈 유형은 양쪽 문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셋째, 전통주의형은 원래의 고유문화에 집착하는 유형을 말한다. 넷째, 과동화형은 오직 새로운 거주지의 문화만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이중문화형은 양쪽 문화를 통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유형이다. 베리(Berry, 1997)는 문화적응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통합은 모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조화를 이루는 형태이며 동화는 모국의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모국의 문화만을 고수할 경우 분리라고 하였으며, 모국과 새 문화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는 주변화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Berry의 이론은 현재에도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수 인용되고 있으나 이주자의 문화적응을 네 가지 범주에만 한정할 수 없으며, 이에 나아가 이주자가 하나의 범주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닌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가들의 문화적응 유형들은 원주민의 문화에 이주민이 적응하는 가 아닌가에 주목한다.

현대에 들어 이주가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이러한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다원적 시각의 등장이다. 다원적 시각은 이주자들 각 민족의 특징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여 전체 사회에 더 도움을 주고 공헌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다원적 시각에서는 이민자들의 문화와 전통이 주류문화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시각은 오히려 2세대들이 거주국에서 차별에 의한 갈등을 갖거나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

이 있다(전우택, 2000: 101-102).

이처럼 지구화 시대에 이주자들의 문화적응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고 관점도 다양하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문화적응 유형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주와 문화적응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종교적 측면에서의 문화 다양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에 있어서 종교는 문화와 같이 이주자의 적응에 중요 요소가 된다. 어쩌면 문화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이 종교적 특성인 절대성을 주장할 경우 양쪽 당사자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회를 정화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호혜적 역할을 한다. 신광철(2010)은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종교단체를 통해서 소통과 자립 그리고 다문화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기쁨(2011)은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이 종교를 통해 연대의 고리를 구성하기도 하며,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기제로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피하려 종교기관을 이용하고, 이주여성 활동가로서 활동할 때도 종교기관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종교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주여성들이 모국과 거주국의 종교가 다름으로 인한 어떠한 심리적, 문화적 갈등 또는 경험을 갖는지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재외로 이주한 한인 여성들의 경우 거주국에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또 종교적으로 어떠한 결핍이나 위안을 얻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러한 내용은 이주생애사에서 문화와 문화적응을 다룰 때 종교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③ 이주와 정체성

이주자가 자신의 문화적 근원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문화의 다름으로 거주국에서 이방인이 되었을 때 이주자에게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은 정체성이다. 기든스는 정체성을 기초적 신뢰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는 기초적 신뢰를 아이와 그를 돌보는 보호자로 비유하였다. 아이가 정상적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보이는 신뢰는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예방접종이며 보호막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적 신뢰는 정상적인 개인들이 일상 생활사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주변에 가져다 놓은 방어껍질 또는 보호 고치의 감정적 지주라고 하였다(Giddens, 1991: 92-95). 즉 기초적 신뢰는 정체성의 조건이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막이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은 외부로부터의 위



해 요인에 대한 보호 고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정체성(Ident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ident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그것의 자기 자신',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닌다. 정체성의 철학적 논의는 A는 A다. 라는 동일성에 근거한다. 이에 더하여 현대에서는 자기 자신의 독립성 또는 독자성을 추가하였다. 신분증명서(identity card-여권, 신분증 등)를 예로 든다면 이는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나'인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사실로서의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신분증 등을 통해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공적 조직에 귀속된 존재로서의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즉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승인되기 위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나'라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정체성은 '나 스스로를 나'라고 하는 존재적 의미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존재'의 이중 구조를 함축하는 말이다(박아청, 1998: 82-84). 개인의 정체성은 타인과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가족은 개인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회적 과정의 초기 단계이며 사람들은 다수의 정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정체성은 친족 관계, 직업, 문화, 제도, 영토, 교육,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Samovar et al., 2015: 111).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회를 전제로 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타인의 확증이 필요하다. 개인이 어떤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정체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타인들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체성은 사회적인 문제이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Hewitt, 윤인진 외 역, 2001: 203).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자아 인식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것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기에 정체성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다. 사회학 관점에서 정체성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집합이다. 그것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정의들로 구성된다.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정의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이 주체화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이진경, 1997: 14). 정체성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은 정체성이 자신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기능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테일러(Taylor, 1989, 1991)는 개인이 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자신의 진실된 내 면의 모습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하였다. 즉 스스로에게 진실한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형성된다(성지영, 2018: 30 재인용). 그러므로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이며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타지펠(Tajfel)은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형성되며, 다른 집단과 차별되는 특정 사회집단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찾고, 형성하고,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Tajfel, 1974; 김가연, 2018: 21 재인용).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사회는 사회구조와 시공간의 틀 속에 뿌리를 둔 사회 결정과 문화 기획에 따라 재료들을 가공하여 의미를 재배열한다. 이런 과정은 집합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정당화 정체성, 저항적 정체성, 기획적 정체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의에서 이주와 관련하여 주목할 정체성은 기획 정체성이다. 기획 정체성은 “어떠한 사회행위자들이든 간에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에 도달한다.”(Castells, 1997; 박신규, 2009: 18 재인용). 즉 이주자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 환경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게 된다.

이주자의 정체성은 이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거주국 사회에서 중요 관심의 대상이 된다. 김선임(2012: 32)은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이해는 그것의 사회적 구성과정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한 사람의 개인은 그가 속한 문화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형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 파독 간호사들은 2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들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가족과 모국 사회를 떠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거주국 사회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이에 적응할 때 한국인의 정체성만으로는 거주국에서 ‘잘’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이주자의 삶의 현실에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 보수하고 변형시켜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노년의 삶

이주자에게 노년은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에 관한 관점이 이 부분에서 분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은 개인에게 신체적으로 기력이 쇠하고 에너지의 부족을 감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심리적으로 상실감과 고독감, 우울감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 안에서 위계의 구조가 변화되는 시기이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는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집안의 리더를 이양하는 구도가 되면서 이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을 가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줄거나 중단되면서 긴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은퇴 등으로 사회적 관계의 축소가 일어나고 사기가 저하되거나 사회적 기여에 참여하는 것이 줄어들

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가중될 수 있다.

일반적인 노년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이주자들은 이에 더하거나 덜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에 관한 것을 생애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주자들은 거주국에서 생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노년에 이르렀고 그러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주생애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파독 간호사들은 이주하고 정주함으로써 그들 자녀세대에게 시조 할머니가 된다.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주국과 다른 점을 가진 한국에서 온 시조 할머니로서 그들은 자녀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거나 전수하고자 하는가에 관한 것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경제 상태, 여가, 치매와 같은 질병, 2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들, 자녀의 한국 문화적 행위,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 등을 노년의 삶에서 다룰 수 있다.



### 3. 소결

지금까지 파독 간호사의 이주와 이주역사, 재외한인의 생애사 선행연구, 그리고 이주생애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주와 관련하여 연구할 때 생애사 연구는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생애사 연구와 다른 이주생애사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생애사는 이주자의 생애사를 살필 수 있는 범주화를 4가지(유년-청년기, 이주 후 결혼, 거주국에서의 삶, 노년의 삶)로 구분하여 명료화하였다. 제시한 네 가지의 범주에 개인의 생애사를 적용하여 살필 때 삶에 대한 총체적 관점의 유지에 유용하다. 이러한 총체적 맥락의 유지는 비이주자가 이주자의 삶을 이해할 때 파편화된 이해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이주와 그에 따른 생애사 분석에서 다양한 이론과 다층적 관점의 적용이 가능하다. 즉 한 개인의 이주가 있기까지 그를 둘러싼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환경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아울러 한 개인이 이주자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러한 새로운 이론들을 과거의 삶을 바라볼 때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 수 있게 된다. 이주생애사에서는 개인의 생애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하여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이주생애사 분석을 위한 범주화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의 이주생애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편리하다. 이주생애사는 한 개인의 이주를 통한 삶의 맥락을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차원에서 드러낸다. 그리고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점의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하므로 개인이 그의 삶을 통해 만들어 낸 지울 수 없는 실천적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파독 간호사는 한국 여성의 해외 노동 이주의 유일하고 대규모 그룹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당시 이들이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로 이주하는 것은 사회적 이슈였고 높은 임금과 선진 서방국가로의 여성 이주였기에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 여성 노동자의 해외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1976년까지 이루어졌다. 이주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가 경계를 넘는 것 이외에 국경을 사이에 두고 생활 공유는 물론 문화, 세계관, 인식 등에서 두 문화의 동시적인 향유, 고수, 유지하게 한다(노명환 외, 2014: 235). 이주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두 문화의 공유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오늘날의 이주는 어느 한 국가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며 지구촌과 같이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이유에서 해외에 이주노동자로 건너간 파독 간호사의 생애사적 연

구는 더욱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연구되어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지구화된 현상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할 중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파독 간호사의 이주는 그들의 자녀세대가 자라나고 있으므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의 이주는 개인적 차원과 이주를 보내는 송출국 차원, 그리고 이주를 유입한 유입국 차원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다. 이주자들은 이주 후에도 모국과 거주국을 오가는 양상을 지속하는 행태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공유와 연계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이주자의 초국적 행태에 송출국과 유입국의 개입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대의 이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더구나 여성의 이주와 거주국 정주는 다음 세대로의 연계를 가지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파독 간호사의 생애를 이주생애사로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주생애사의 범주화를 표로 구성하였다. 이주생애사를 통해 이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총체적(국내, 국제, 개인) 환경과 이주의 영향,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개인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이주생애사 분석은 다음 <표 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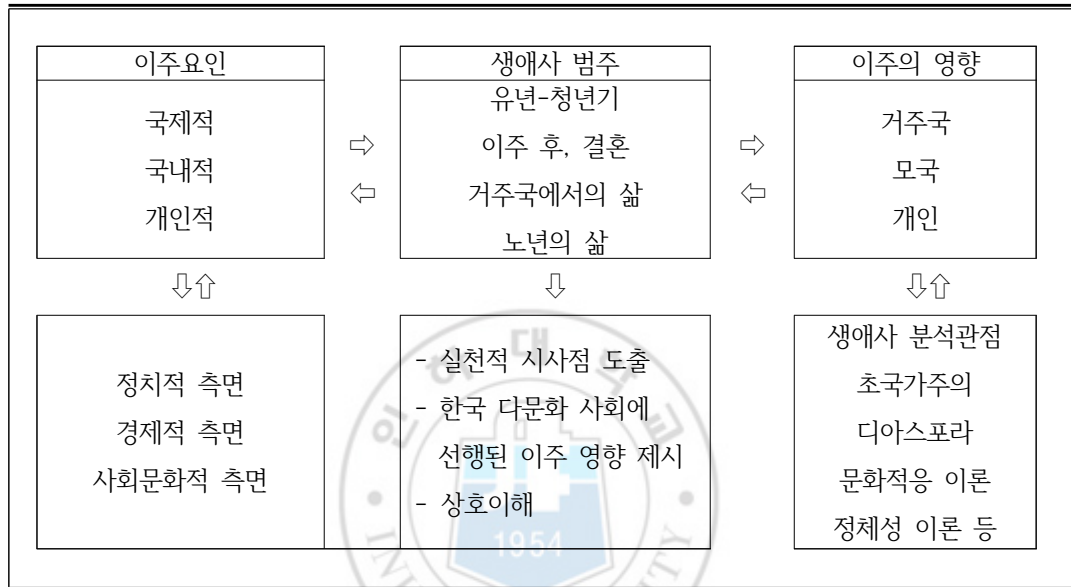
<표 II-2> 이주생애사 분석

구분	분석요인	이주자로 인한 영향
이주 전 유년-청년기	이주를 추동케 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li> <li>■ 국내적</li> <li>■ 개인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입국이 받는 영향</li> <li>■ 송출국이 받는 영향</li> <li>■ 개인의 영향</li> </ul>
이주 후 결혼	결혼(국제결혼)에 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li> <li>■ 거주국</li> </ul>	이주자의 결혼(국제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li> <li>■ 거주국에 미치는 영향</li> </ul>
거주국에서의 삶	왕성한 활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화와 문화적응</li> <li>■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li> <li>■ 이주와 정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국이 받는 영향</li> <li>■ 모국이 받는 영향</li> <li>■ 개인이 받는 영향</li> </ul>
노년의 삶	삶을 되돌아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세대에게 조상이 됨</li> <li>■ 거주국에의 정착</li> <li>■ 신체적 질병과 에너지의 소진</li> </ul>	이주자의 노년으로 인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국이 받는 영향</li> <li>■ 이주자의 모국의 영향</li> <li>■ 개인적 영향</li> </ul>

<표 II-2>의 이주생애사 분석을 보면 먼저 개인의 생애사적 경험과 사건을 차례로 분류

하고자 네 가지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는 분석요인을 두어 어떤 면에 주목하여 해석할지를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영향은 한 개인의 이주가 거주국과 이주자의 모국, 그리고 이주자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되는지를 각각의 범주화에 따라 해석할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이주생애사 모형



[그림 II-1] 이주생애사 모형은 이주생애사 분석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모형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의 생애사적 모든 상황은 외부적 요소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 Ⅲ. 연구방법

#### 1. 생애사 연구개요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하나로서 개인의 삶을 연구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연구방법이다. 고전적 의미의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삶에 관한 기술’로 정의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생애사는 한 개인의 생애사를 외적인 삶의 상태와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정신적이고 내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김영천, 2013: 205). 생애사의 주체인 개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McAdams, 1985; 이만영·김수연, 1995: 87-88 재인용). 생애사 연구의 또 다른 특성은 생애사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관점이다. 사회학 관점에서의 생애사는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대처하는 전략과 행위들의 구성물이다(이희영, 2005a: 129-130). 이러한 생애사 연구는 사람들에게 통찰과 명료화를 제공하며, 연구참여자가 살아가는 사회적, 역사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묘사하도록 한다. 또한, 생애사 연구는 사건 및 경험과 관련된 조건의 원인과 의미를 조명한다(민성은·김영천·정정훈, 2015: 623).

생애사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은 그의 삶을 구술하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 삶의 환경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을 통해 그 개인이 지나온 삶의 역사적 시대상, 사회적 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는 그 개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생애사는 한 개인이 그의 삶에 대처하는 행위와 전략들이 궤적으로 나타나므로 생애사를 통해 표현된 개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역사성을 가지며 지워질 수 없는 그 개인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국가 간 이주는 이전의 시기보다 편리하고 빈번해졌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한국 간호사들은 외모와 언어, 문화, 가치관이 다른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했다. 한국 간호 여성들이 삶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처했던 과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하나이다. 질적 연구에서의 분석은 주어진 자료의 조직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세분화하는 능력이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구성하여 분해하고 조직하는 것과 아울러 그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각 요소 사이의 관계 및 배경 원리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김영천·정상원, 2017: 37). 생애사 분석에는 범주적 접근 방식, 총체적 접근 방식,

담화 분석의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첫째, 범주적 접근 방식은 여러 개의 생애사로부터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특정 사실로부터 과거의 상황을 추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분석방법이다. 둘째, 총체적 형태의 분석방식은 생애사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보다 각 생애사의 전체적 구조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종단적 코딩은 연구참여자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증가와 발생, 출현, 전환점, 일관성, 특이함, 상실 등의 분석단위를 활용하여 이야기기를 구조화한다. 셋째, 담화 분석은 참여자가 왜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하는가? 와 같은 이야기기의 조직 원리에 초점을 두어 내러티브의 서사구조를 탐색하는 방법이다(이동성, 2015: 117-120). 김영천·정상원(2017: 469)은 생애사 분석을 다음의 여섯 가지 즉 연대기적 시간순서, 인간관계 형식 중심, 공간 및 소속집단 중심, 가치관과 비전 중심, 삶의 대응방식 중심, 사회적, 역사적 맥락 중심으로 분석함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생애사 분석에 관한 방법은 학자마다 유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면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방법이 적용되는 생애사 연구분석에서의 요점은 개인시각 발전성, 총체성 그리고 개방성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발전성은 생애사 자료에서 새로운 앞의 지식이 발견되어야 하며 이 지식은 다른 분야와도 체계적인 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Strauss, 1991; Strauss & Corbin, 1990; 박성희, 2016: 226 재인용). 개인이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구성하여 온 삶과 이야기되는 삶은 정교하게 분석되고 해석되는 것에 의해 그 개인이 존재했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위한 생애사 분석은 먼저 연대기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대기적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연대기적 서술을 민성은·김영천·정정훈(2015: 627-634)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주제나 이슈 중심의 연대기적 분석이다. 이는 연대기적 사건들에서 여러 개의 공통된 주제나 이슈를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경험들을 범주화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의미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관점은 삶의 형태 중심 연대기적 분석이다. 즉 삶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을 굴곡지게 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대기적 패턴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각 참여자의 생애사를 기본적으로 연대기적 서술 즉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서술하지만 때로 어떤 사건과 연결된 결과를 먼저 기술해야 할 때 순차적 시간성보다 우선하여 삶의 행위의 맥락을 먼저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가 그의 생애 기억에서 특별히 더욱 의미 있게 회고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현재 연구참여자의 삶과 연결되는 의미들을 찾고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범주화는 <표 II-2>에서 제시한 이주생애사 분석법을 적용할 것이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 7명이다. 그 가운데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은 4명이며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은 3명이다. 연구참여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섭외되었다. 그리고 섭외 후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여건을 가진 한인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이며, 결혼하여 정주한 경우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둔 이유는 노동자로 이주한 후 결혼하여 정주했기에 온전히 이주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독 간호사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이주이지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노동 이주이다. 자발적 선택을 통해 이주한 후 거주국에서 터전을 마련한 한인 여성들의 삶은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선행된 이주자로서 역사적 가치 지닌다. 한인 여성들의 거주국 정주는 언어와 문화에의 적응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는 종교적 적응과 생활방식, 문화의 다름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파독 한인 여성들의 삶은 생애사의 시간성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삶의 역사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는 그 개인적 삶의 가치와 함께 한국 다문화 사회에 반추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둘째, 나이는 60대 이상이며 거주국 정주 연한은 40년 이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고령으로 한 이유는 이들이 이주를 시작한 연한이 오래되었으므로 이들은 거주국에서 노년에 이른 상태이다. 그리하여 이주자의 삶을 고찰할 때 오래된 연한을 고려하는 것은 모국으로의 초국적 연계와 거주국에서의 적응에 따른 삶의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오랜 기간 머무는 것이 이주자에게 어떤 사회적 변화와 심리적 특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러한 선정 기준을 두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를 찾는 중에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빈에도 파독 간호사가 이주하였으나 이들에 관한 연구는 이주 인원이 현저히 적었으므로 크게 연구된 바가 없었다. 이에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에 대한 본연구의 특성상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도 연구에 포함할 이유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을 소개받았고 연구에 관한 안내 후에 참여 의사를 가진 연구참여자 가운데 위의 첫째, 둘째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출생 연도	이주 연도	거주 기간	배우자	배우자 직업	결혼 상태	거주지	국적	자녀
1	1952	1973	47	독일남성	엔지니어	사별	베를린	독일	1남
2	1950	1970	50	한국남성	오케스트라 단원	이혼	베를린	한국	2남
3	1944	1966	54	독일남성	회계사	이혼	베를린	독일	2남
4	1947	1972	48	독일남성	직장인	재혼	베를린	독일	1남1녀
5	1952	1973	47	오스트리아 남성	직장인	결혼 유지	빈	오스트리아	3녀
6	1951	1972	48	오스트리아 남성	사업가	별거	빈	오스트리아	2남1녀
7	1949	1973	47	오스트리아 남성	부동산업자	사별	빈	오스트리아	1남1녀

위의 〈표 III-1〉의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연구참여자 1부터 4는 독일 베를린 거주 연구참여자이며 5부터 7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1952년 경기도에서 1남 5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가정형편은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부유하였으나 아버지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후 갑자기 가세가 기울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주 가정교사를 하며 간호 학원에 다녔고 1973년 21세에 간호보조로 독일에 이주하였다. 1975년 오일쇼크의 여파로 독일이 외국인 간호사를 귀국 조치하였을 때 한국으로 귀국했으나, 독일에 있을 때 만난 독일인 청년과 결혼함으로써 1977년 다시 독일로 이주하였다. 이주한 후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독일에서 취득하였고 당시 기능공이었던 남편을 대학에 보내어 엔지니어로 만들었다. 자녀는 1명이고 현재 임상병리사에서 은퇴하였으며 남편과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과 독일에서 1년의 절반씩 나누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과 독일에서 같은 취미생활에 시간을 사용한다.

## 2)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는 1950년 시골 부농의 13명 형제(친형제 7, 이복형제 6명) 가운데 여섯 번째(친형제 중에서는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연구참여자 2의 어머니이며 어렸을 때는 큰어머니의 자녀들과 잘 지냈으나 후에는 서로 등을 돌렸다. 고등학교 시험 대비 연습 삼아 시험 본 간호 고등학교에 합격하여 간호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간호 고등학교의 졸업은 1970년 독일 이주로 이어졌고 독일에서 음악을 하는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는 아들 둘이 있다. 그리고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갈등을 가졌고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이혼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경제 능력이 없었던 남편 대신 풀타임으로 일해야 했기에 힘들었으나 그것이 노후에는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되어 경제적 안정의 기반이 되었다. 남편과 이혼 후 독일 남자친구와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그 독일 남자친구가 신뢰를 저버렸기에 현재는 집만 같이 사용하는 사이가 되었다. 간호사로 은퇴한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성인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후 베를린 자유대학에 입학하여 수학 중이다. 그리고 젊었을 때 풀타임으로 일하였기에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으나 은퇴 후에는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화운동 단체와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한국 정세에 대하여 배우고 있으며 사회활동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 이주 당시 21세였으며 거주기간은 2020년 기준으로 50년이 되었다.

## 3)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경상북도에서 1944년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 서장이었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돌아가셨고, 당시 연구참여자 3은 6세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어머니는 장사하러 다녔기 때문에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 간호대학을 나와서 수도병원에 재직하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파독 간호사 광고를 보았고 1966년에 독일로 갔다. 1975년에 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결혼 후 바로 재독여성 모임의 창립회원이 되었다. 재독여성 모임에 나가면서 사회적 의식이 자라났고 이후 5.18을 겪으면서 레드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재독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서로 관심사가 달랐던 남편과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1990년에 이혼하였다. 자녀는 아들 둘이 있으며, 현재는 연금수령자이다. 그러나 연금액이 적기에 아들은 아내와 상의하여 연구참여자 3에게 매달 용돈을 보낸다. 이는 아들이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108배로 운동하고 불교 강연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주 당시 22세였으며, 독일 거주기간은 2020년 기준 54년이다.

#### 4)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는 1947년 서울에서 5남 1남 가운데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고 너무 어릴 때여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은 것이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웠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1년씩 늦게 들어갔으며 약학대학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졌고 다시 간호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미국으로 가려면 2년의 경력이 필요했으나 독일은 경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직업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파독 간호사에 지원하여 스위스로 이주하게 되었다. 스위스에서 5년 근무 후 독일로 옮기게 되었고 독일에서 40년 동안 응급실에 근무한 후 은퇴하였다. 독일에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고 아들이 돌이 되기 전 이혼을 청구하여 32세에 이혼하였다. 그 후 38세에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여 딸 1명을 두어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이주 당시 26세였으며 2020년 현재 스위스 5년 근무를 포함하여 48년째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연금생활자이며 한인 간호사협회 회장, 한인회 회장,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5)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1952년 7남매의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부상하였다. 이후에 집에서 농사를 짓고 인근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어머니는 자녀들을 돌보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교육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도 있었다. 가족들 몰래 신문을 돌리면서 학원비를 마련하여 9개월간 간호 학원에 다닌 후 간호보조로 오스트리아에 오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병원에 도착한 직후 병원 계단에서 우연히 만난 오스트리아 청년과 1976년에 결혼하였다. 결혼 후 간호학교에 입학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남편은 한국 남성 이상으로 가부장적 태도이지만, 한편으로 오스트리아 시어머니의 지독한 아들 편애를 겪을 때 늘 아내를 지지하였다. 자녀는 딸이 셋 있으며 연구참여자 5는 현재 은퇴하여 오스트리아 내 한인 2세대와 3세대들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연구참여자 5는 간호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손자 손녀를 돌보며 미국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개인의 취미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이주 당시 19세였으며 거주기간은 2020년 기준 47년이며, 빈 국제결혼 여성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6)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1951년 5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6의 출생기록은 할아버지가 하였는데 실제 태어난 해와 달을 부정확하게 신고하여 나중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국립의료원에 지원할 때 나이가 어리다고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부모님이 하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은 서울로 이사 가고자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모두 서울로 이사 간 후 시골에 혼자 남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국립의료원에 10:1의 경쟁을 뚫고 입학하여 졸업하고 간호사로 재직하던 중 오스트리아로 가는 간호사 모집 광고를 보고 주저 없이 오스트리아로 떠나왔다. 그리고 빈의 병원에서 가진 직장 생활 1년 반 동안의 기간에 당시 의과대학생이던 남편의 적극적 구애가 있었고 결국 이를 받아들여 서울 종로에서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 24년 만에 별거하였고 이혼은 남편의 반대로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자녀는 4명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현재 아들 2명 딸 1명이 있다. 이주 당시 21세였으며 빈 거주기간은 2020년 기준 49년이다. 간호사로 은퇴하지 않았지만, 남편 회사에 등록이 되어있었으므로 현재 연금수령자이다.

## 7)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은 1949년에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경찰이며 마을 이장이었다. 고등학교까지는 고향에서 학교에 다녔으며 대학은 OO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하였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선배 중 한 명이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 왔다. 그 선배를 보면서 자신도 독일에 간호사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중에 오스트리아로 갈 사람을 모집할 때 지원했다. 이주 후 같은 마을에 살던 오스트리아 청년을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의 직업은 부동산업자이고 당시 오스트리아로 한국인 엄마와 자녀들이 이주를 종종 하였다. 이때 방을 얻어주는 일이 교회를 통해 연구참여자 7에게 자주 연결됨으로써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2008년)하였고 지금은 혼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각 1명이 있고 이주 당시 24세였으며 빈 거주기간은 47년이다. 현재는 한인 여성합창단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회 모임과 음악, 글쓰기 모임 등을 하며 바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영어 배우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여 행하고 있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기간에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및 자료 수집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인터뷰 일정 및 자료

구분	인터뷰 회차	인터뷰 일자	인터뷰 시간	인터뷰 장소	자료
참여자1	자기생애기술	-		-	녹취록
	1차 인터뷰	2018. 10. 03	11:00-17:00	경기, 용인, 카페	
	2차 인터뷰	2019. 02. 28	13:30-19:00	경기, 용인, 카페	
	3차 인터뷰	2019. 03. 07	16:00-17:00	인터넷 전화	
참여자2	자기생애기술	2018. 10. 13		E-mail	녹취록
	1차 인터뷰	2019. 01. 19	15:00-18:00	베를린, 연구자 숙소	
	2차 인터뷰	2019. 04. 10	17:00-18:00	인터넷 전화	
참여자3	자기생애기술	2018. 11. 07		E-mail	녹취록
	1차 인터뷰	2019. 01. 23	11:00-13:00	베를린, 카페	
	2차 인터뷰	2019. 04. 10	17:00-18:00	인터넷 전화	
참여자4	자기생애기술	-		-	녹취록, 신문 자료
	1차 인터뷰	2018. 10. 12	15:00-20:00	경기, 용인, 아파트 <sup>3)</sup>	
	2차 인터뷰	2020. 01. 23	15:00-15:30	신문자료 <sup>4)</sup>	
	3차 인터뷰	2020. 02. 19	17:00-18:15	인터넷 전화	
참여자5	자기생애기술	-		-	녹취록, 책 <sup>5)</sup>
	1차 인터뷰	2019. 01. 28	09:00-13:00	빈, 자택	
	2차 인터뷰	2019. 06. 04	20:00-21:00	인터넷 전화	
	3차 인터뷰	2019. 08. 23	10:00-12:00	경기, 군포, 언니집 <sup>6)</sup>	
	4차 인터뷰	2020. 02. 20	16:20-16:40	인터넷 전화	
참여자6	자기생애기술	2018. 09. 20		E-mail	녹취록, 스크랩 자료
	1차 인터뷰	2019. 01. 25	09:30-12:30	빈, 자택	
	2차 인터뷰	2019. 08. 06	11:00-14:30	경기, 남양주, 카페	
	3차 인터뷰	2020. 01. 24	19:12-19:54	인터넷 전화	
	4차 자료	2020. 01. 26	2020. 1. 27	E-mail	
참여자7	자기생애기술	2019. 02. 26		E-mail	녹취록, 수필 <sup>7)</sup> .
	1차 인터뷰	2019. 01. 26	09:00-11:00	빈, 연구자 숙소	
	3차 인터뷰	2019. 03. 12	16:00-17:15	인터넷 전화	
	수필 2편	2019. 03. 24	-	E-mail	
	4차 인터뷰	2019. 11. 05	15:38-16:30	인터넷 전화	

3) 연구참여자 4가 한국에 왔을 때 독일에 거주하는 지인 소유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고 그곳에서 인터뷰 하였다.

4) 연구참여자 4는 거주국에서 봉사활동 지도사로 활동한다. 그리하여 봉사활동에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종이접기, 한국 문화 등을 소개하였다. 그러한 활동은 지역신문에 실렸고 그 신문자료들을 보내주었다.

자료 수집은 총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자기생애기술지 수집. 둘째, 면대면 심층 인터뷰. 셋째, 메일과 전화 연결을 통한 인터뷰.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보내준 신문, 책, 수필 등. 다섯째, 파독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후 먼저 개인의 생애에 관한 자기생애기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메일로 보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해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질문은 <표 III-3> 생애사를 위한 질문 개요와 같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와 면대 면 방법으로 인터뷰할 때 자기생애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보강하며 하였으며 없는 경우는 질문지에 근거하여 인터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생애기술은 7명 가운데 4명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수필 2편을 더 보내왔으며 그것이 생애사적 수필이기에 자기생애기술에 포함하였다.

자기생애기술과 생애사 질문에 근거한 면대면 심층 인터뷰는 2018년 10월(한국)부터 시작되었으며 2019년 1월 17일부터 31일에는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루어졌다. 1차 면대면 인터뷰 후, 2차 인터뷰는 인터넷 전화를 60분 내외 동안 통화하여 이루어졌다. 2차 인터뷰에 대한 요청은 8명 가운데 6명에게 받아들여져서 실시하였다. 3차, 4차 인터뷰는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면대 면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통한 통화, 신문자료 등 여러 가지 추가 자료들의 수집을 말한다. 인터뷰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1차 면대면 인터뷰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조용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장소인 연구참여자의 집, 연구자의 숙소, 카페, 연구참여자의 지인 아파트에서 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연구 목적을 메일을 통해 설명하였고 만났을 때 다시 설명하고 녹취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메모를 병행하면서 녹취를 하였다. 녹취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녹음 자료를 전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문자를 하거나 통화를 하여 인터뷰에서 놓친 자료들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반 구조화한 질문 자료를 미리 메일로 보낸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그들의 생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나 경험, 그리고 지나온 시간 들을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갖는 효과를 가져왔다. 2차 인터넷 전화를 통한 인터뷰는 6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 인터뷰 때보다도 더 친근한 상태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자료들은 연구참여자들의 활동이 실린 거주국의 신문기사, 연구참여자가 인터뷰에서 소

- 
- 5) 연구참여자 4는 거주국에서 남편과 갈등이 있었을 때 케리 채프먼 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새로 국제결혼 하여 거주국으로 이주하는 한인 여성들이 부부 갈등을 겪을 때 꼭 이 책을 사서 선물로 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를 이해 하기 위하여 연구자 또한 이 책을 읽는 과정이 있었다.
  - 6) 연구참여자 5가 한국에 오면 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머문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3차 인터뷰를 하였다.
  - 7) 연구참여자 7은 빈에서 글쓰기 모임을 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7에게 자작시나 수필의 소개를 부탁했을 때 두 편의 자작 수필을 보내주었다. 그 내용이 이주하기까지의 과정들이기에 논문에 포함하였다.

개한 책, 연구참여자가 모아놓은 자료 등도 함께 수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면대면 인터뷰가 있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개인의 생애 역사가 될 기록들에 대하여 요청하였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모아 두었던 자료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는 한국에서 큰 이슈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연구와 기록물 또한 자료에 포함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생애사 질문은 참여자들의 생애를 순차적 시간성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외에 사회적 활동과 모국으로의 연계행위와 관련된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는 전사한 후 내용을 요약하고 한 사람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사적 시간성에 따라 정리하였다. 그런 후 생애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범주화한 1차 자료들을 연구참여자에게 보내어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자신의 자료에 수정을 요청한 참여자는 1명이 있었다. 논문의 완성 후 2차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7명 가운데 6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정사항을 받았다. 수정사항의 내용은 년도 등의 오류와 형제들 가운데 몇 번째인지, 그리고 문장을 몇 가지 수정하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이는 모두 적용하여 수정하였다. 3차 수정은 2020. 6월 최종 수정사항이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은 7명이 모두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2명의 참여자가 수정할 내용을 보내주었고 수정 완료하였다. 수정사항에 대한 자료는 전사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 이해를 위한 질문과 초국적 연계에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표 III-3>과 <표 III-4>와 같다.

<표 III-3> 생애사를 위한 질문 개요

구분	질문내용
유년-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가정환경</li> <li>■ 학업 및 성취목표</li> <li>■ 이주 과정</li> </ul>
이주 후-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생활(직장동료, 상사와의 관계, 공동체 활동)</li> <li>■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li> <li>■ 결혼생활, 문화의 차이, 시집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li> </ul>
거주국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국에서의 사회활동</li> <li>■ 거주국 구성원과의 문화교류, 언어습득.</li> <li>■ 자녀 교육(모국연계 사회활동, 언어, 문화, 정체성 등)</li> </ul>
노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 활동</li> <li>■ 가치관</li> <li>■ 가족(남편차, 자녀, 손자녀)</li> </ul>



<표 III-3>의 생애사 관련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이 간호사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의 삶과 이주 후 거주국에서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4> 초국적 활동 관련 질문

구분	질문내용
모국과의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금, 이주 후 친정 가족과의 관계</li> <li>■ 모국방문, 향수 행위.</li> <li>■ 친지와와의 연결</li> </ul>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과 한국에서 가지는 사회활동.</li> <li>■ 직업, 커뮤니티, 친목 모임</li> <li>■ 모국/독일과의 유대관계.</li> </ul>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하는 미디어</li> <li>■ 한국의 정치 및 경제에 관한 관심</li> <li>■ 해당 국가 미디어에 등장하는 한국의 소식에 대한 반응</li> </ul>
언어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자의 삶</li> <li>■ 민간 대사로서의 활동 내용</li> <li>■ 세대연결을 위한 활동</li> </ul>

<표 III-4>는 초국적 활동과 관련한 질문 목록이다. 앞의 생애사 질문에서도 이 부분과 연결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표 III-3>과 <표 III-4>의 질문은 자기생애기술을 위해 면대면 인터뷰 전에 먼저 연구참여자들에게 전달이 되었다. 자기생애기술은 연구참여자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질문지를 받았으나 각각 어떤 특정 부분을 두드러지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구술하였다. 그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생애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들의 기억 속에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라 여겼기에 연구에서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이주 후 다시 모국으로 향하였던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활동의 영향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과 자녀, 그리고 친정과 모국에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분석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았다.

데이는 질적 연구의 분석을 자료 안에 포함된 주제와 의미를 규명하고 도출하기 위해 범주를 나누고 관련시키는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 초기부터 시작되며 면담, 관찰, 문헌, 문화유물, 현장일지 등과 분석(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를 생성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교차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 속에 숨겨진 의미와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 계속하여 사유하고 반성을 적용하고 공감과 추론을 해나간다(Day, 1993; 김영천, 2016: 493-495 재인용). 또한, Glaser & Strauss(1967)는

생애사 분석은 귀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미 세워진 가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술된 개인의 생애사에서 중요한 맥락을 찾고 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적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입력하여 전사 자료로 만들었고, 스크랩, 사진, 책과 신문 등 전체 자료 가운데에서 연구참여자별 생애사적 핵심 사건이나 행위들을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대분류한 생애사 범주에 소분류의 생애사적 사건들을 대입하여 개인의 생애사를 총체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요사건들이 연구참여자의 생애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파독 간호사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주자가 되므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거주국 여성들과 다른 생활환경에 놓인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회적 조건에서 거주국 여성이나 한국 여성들의 삶과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파독 간호사의 생애사 분석은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방법으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삼각검증법은 두 개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해석의 오류를 보완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 연구 결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덴진(Denzin)은 삼각검증법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것은 연구방법의 통합, 연구자의 통합, 이론의 통합, 자료의 통합, 환경의 통합이 있다고 하였다(김영천, 2012: 629-63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삼각검증법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을 적용하고자 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이론적 통합과 환경의 통합, 그리고 자료를 통합하였다. 이론의 통합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와 관련한 생애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이주이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현대 이주자들을 살피는 다양한 이론 가운데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문화적응, 정체성 이론 등을 이주자의 삶을 살펴보는 이론적 렌즈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이론을 적용하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다차원적으로 살펴서 이주를 추동케 한 요인과 이주의 영향을 국제적, 이주자의 국내환경, 그리고 개인의 환경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고 환경의 통합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층위를 파독 간호사에 둬으로써 환경적 통합을 의도하였다. 자료의 통합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생애기술과 심층 인터뷰, 신문자료 등을 연구참여자별로 수

집하여 해석할 때 충위를 유사하게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각검증법 형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료 검토법을 통해 1인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김영천(2016: 600)은 동료 검토법을 통해 1인 연구자는 주관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으며, 1인 연구자가 놓친 연구상의 문제, 관점, 아이디어 등을 상기시키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1) 삼각검증법 2) 심층적 기술 3) 동료 검증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 5. 연구윤리

본 연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양심의 자유 보장, 상호신뢰의 약속 보장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 등에 관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선정과 면접 과정에 집중하여 연구 과정 동안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내용의 녹취,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에 관해 설명하였고, 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고 연구참여자 동의서에 서명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와 함께 진행된 기록은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간단히 기록되었다. 비언어적 표현이란 기침, 웃음, 침묵 등 구술과 함께 표현되는 감정 등을 말한다.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은 또 하나의 구술로서의 의미가 있기에 이를 기록하여 연구참여자의 구술맥락을 이해하는 다른 요소로 삼고자 하였다.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와 함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문헌연구는 주제와 관련한 신문기사,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의 베를린과 오스트리아의 빈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의 이주생애사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생애사 연구방법 캠프에 여러 차례 참여하여 수확하였고 국제결혼 여성들의 삶을 연구한 연구서들을 공부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미국과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국제결혼 여성의 문화적응, 정체성, 공동체 활동, 임파워먼트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할 때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을 연구참여자에게 알리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비록 연구 참여를 시작하여 진행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고,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연구 도중에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연구참여자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참여자의 면

담내용 및 개인정보 등 수집된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기록은 익명으로 보호되고, 연구결과의 출판에도 연구참여자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임을 알렸다. 그리고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인간 대상 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알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연구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1808071A), 연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심의를 받았고 이에 대한 승인(지속승인번호: 1808071AR)을 받아 연구하였다.



## IV.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

본 연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간호사로 이주하여 정주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거주국에 정착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주생애사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성장과 이주 동기,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자녀 양육, 이주자의 노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개인적 측면과 아울러 이주자의 모국과 거주국의 환경을 함께 살펴본다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한국을 떠날 때 한국의 경제 사정은 매우 열악했다. 1965년 경제 통계에 의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7달러로 대만(200달러)과 필리핀(237달러)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그 당시의 한국은 국가적으로도 가난한 나라라는 꼬리표를 떨쳐낼 수 없었으며 개개인의 살림은 고달픈 현실 그 자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된 파독 인력송출 사업은 국가적으로는 산업화에 필요한 외화획득과 한국 내 실업 해소의 이익이 있었으며, 개인에게는 가난을 극복할 기회가 되었다. 이와 아울러 여성 개인에게는 사회적 억압을 벗어나는 출구가 되었다(윤용선, 2014: 426-427). 한편, 파독 간호사가 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로 이주한 여성들은 거주국에 체류한 기간이 길수록 거주국에 머물고자 하였다. 체류 이유에는 귀국 후 직장이 확정되지 않음(33.8%), 독일에서 공부하기 위함(28.6%), 그리고 18.6%는 독일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다(김조자, 1975a: 19). 파독 간호사 가운데 일부는 거주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친족과 친지들을 거주국에 데려와 유학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들이 이주하던 1970년대 모국과의 연결은 먼 곳에서의 연결이라는 형태를 가졌지만, 교통과 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거주국과 모국의 지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주자들은 교통과 과학기술발달 이전에는 거주국에서 소수이며 타자가 됨으로써 이방인이나 외부자의 삶이 있었다면 과학기술발달 이후에는 외부자이면서도 동시에 거주국과 모국을 빈번하게 연결하는 이주의 주체자로 변화되었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한국인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거주국으로 이주하여 정주하고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가치관과 한국인 정체성을 조정하고 협상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모국의 가족과 친족 그리고 거주국의 구성원들로 대표되는 타자

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요소가 되었다.

이주 후 거주국에 거점을 마련한 파독 간호사들은 모국으로의 다양한 연결과 아울러 모국에의 간섭을 시도하며, 그 형태는 개인적인 것과 아울러 집단으로도 실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생애사를 총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생애사 분석을 순차적 연대기로 분류하여 첫째, 유년-청년기, 둘째, 이주 후-결혼, 셋째, 거주국에서의 삶, 넷째, 노년의 삶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국적 행위들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터뷰와 자기생애기술지, 자작 수필, 살아온 행적이 담긴 신문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독일 베를린 거주 연구참여자와 오스트리아 빈 거주 연구참여자의 이주생애사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독일 베를린 거주 한인 여성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본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는 모두 4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시기는 1966년 1명, 1970년 1명, 1972년과 1973년에 각각 1명이 있다. 이들이 이주한 나이는 20대 초반이 3명이 있었고 25세 1명이 있다. 이주 전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명, 대학교 졸업 2명이며 자격증의 유무에서는 간호보조원 1명이 있고 3명은 간호사였다. 이주 전 직업은 4명 가운데 2명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이주하였고 2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보조 학원에 다니거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던 상태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이주하였다. 이들의 이주 이유에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와 집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었던 것,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미국 대신 독일로의 방향전환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참여자 1 : 성실하고 용감한 자기 삶의 탐험가

연구참여자 1은 1952년에 태어났고 5년 1남 가운데 3녀이다. 아버지는 운수업을 하였고 어머니는 서울 일제 강점기 때 산파 교육을 받은 엘리트이다. 연구참여자 1은 어머니가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표 IV-1> 연구참여자 1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요로운 어린 시절</li> <li>■ 하얀 눈과 아버지의 코피</li> <li>■ 뼈아프게 사무친 모욕감</li> <li>■ 입주 가정교사, 이주의 밑거름</li> </ul>
이주 후-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 한 장의 설움</li> <li>■ 체류 연장이 거부됨</li> <li>■ 결혼, 이주의 바다에 뛰어듦</li> </ul>
거주국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li> <li>■ 망부가(亡夫歌)</li> <li>■ 기러기처럼 양쪽 나라를 오고 감</li> <li>■ 세월 속에 묻힌 청춘</li> <li>■ 독일어 바다에서 노 젓기</li> <li>■ 안전 최우선</li> <li>■ 스며드는 거주국 문화</li> </ul>
노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함</li> <li>■ 잘해도 이방인, 못해도 이방인</li> <li>■ 이주자, 공중에 뜬 사람</li> </ul>

### (1) 유년-청년기

#### ① 풍요로운 어린 시절

“아버지는 운수업을 하셔서 재물이 받쳐주니까 부자는 아니어도 동네에서 우리 집에 전화가 있었고 일제 전기 재봉틀이 있었고 전축이 있었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가족구두 맞춰 신고 들어갔어요. 가족가방 메고.”(2018. 10. 03)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하였고 1960년대 한국 경제는 세계 최빈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연구참여자 1의 가정형편은 넉넉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연구참여자 1의

집에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아버지는 연구참여자 1의 언니인 어린 딸을 데리고 음악회를 다니는 등 삶의 여유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는 일본 의과대학에 가고자 했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남동생을 혼자 남겨두고 공부할 수 없어서 공부를 중단했기에 평생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도 성경책을 필사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보고 또, 언니로부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제야 어머니의 평생소원이 공부하는 것이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늘 공부하던 어머니의 영향은 연구참여자 1이 거주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할 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평생 거주국 언어를 공부하는 습관에 나타나고 있다.

### ② 하얀 눈과 아버지의 코피

“아버지가 저 12살 때 급성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겨울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코피가 나더라고요.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코피가 밤에도 안멈추는거예요. 동네에 아버지 지인분인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밤에 지혈하고 큰 병원에 갔더니 병을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몇 달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겨우내 그리고 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봄에 돌아가셨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의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왔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어머니는 자녀 6명을 위해 경험 없는 사업을 이것저것 시도하였다. 택시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했고 빵을 군대에 납품하다가 4.19 또는 5.16으로 인해 빵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리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2, 3년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런 후 어머니가 손재주가 좋았기에 재봉틀로 샅바느질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므로 아버지의 혈액암 투병과 사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추운 겨울에 내린 하얀 눈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피는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만큼이나 강렬하게 어린 연구참여자 1에게 각인되었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1이 그의 삶을 자립의 기반에 놓게 하는 이유의 시작이 되었다.

### ③ 뼈아프게 사무친 모욕감

“제가 이렇게 평생 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평생 남의 돈은 엄청 무서운 거라는 것을.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머니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제때 못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머니가 샅바느질하는 재봉틀을 땅에 팽개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젊은 여자인데 엄마한테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이었거든요. 그때 그 뼈아프게 사무쳐가지고요. 남의 돈 무서운



거. 그리고 또 하나 나 스스로는 내가 생활을 남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엄마 영향이 엄청 컸죠.”(2018. 10. 03)

이 경험은 여러 가지로 연구참여자 1의 삶에서 중요 전환점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당시 어렸고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았던 그 상황이 뼈아프게 사무쳤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체면의 손상이다. 이 장면이 평온하게 살아왔던 연구참여자 1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재생되면서 상처가 아물지 않고 반복되었던 것 같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1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생애 동안 절대로 빛을 지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육성회비 670원(당시 연탄 한 장이 20원 이었다함)을 내지 못해 졸업장과 상장을 받지 못했다. 그것 또한, 친구들 앞에 가난을 들키는 일이 되었으므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연구참여자 1은 어머니에게 울면서 돈 벌러 간다고 했었다. 이러한 기억 역시 가난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처로 남아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그의 결심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혹독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다가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내면의 갈등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1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넉넉하게 살다가 별안간에 있던게 없어진 그거를 소화시키는게 엄청 힘들었어요.”(2018. 10. 03)

한편,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가난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런 때에 연구참여자 1의 언니가 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형편은 조금 나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참여자 1은 고등학교 재학 때 교과서를 살 여력이 없어서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아닌지에 대하여 고민할 만큼 상황은 열악했다. 연구참여자 1은 첫째 언니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늘 가지고 있다.

“우리 언니는 수십 년 동안 월급을 봉투째 우리 어머니께 가져다드렸어요. 엄청 효녀죠. 그런데 너무 효녀라서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홀어머니를 두고 결혼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가슴 아프죠.”(2018. 10. 03)

언니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후에 연구참여자 1이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삶의 형태를 지니게 된 이유이다. 연구참여자 1의 가족에게 경제적 빈곤의 그림자가 항상 있

있던 만큼 그 일에서 바람막이가 되었던 언니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항상 연구참여자 1의 마음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이 독일에서 은퇴할 시기에 막내 남동생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때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매일, 아무 때나 울며 시름에 잠겨있었고 나중에는 치매에 걸렸다. 그런 어머니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언니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었다. 언니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등의 이유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어머니 곁에 반년씩 머물게 된 이유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한국에 와있는 동안 언니가 그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였다.

#### ④ 입주가정교사, 이주의 밑거름

“초등학교 애들 둘을 가르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나는 그 학원을 가고 그랬는데 월급이라야 얼마.. 먹고 자는 것을 우선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빠듯했죠. 어느 때는요 흑석동에서 서울역 뒤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젊으니까 했죠. 차비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1973년에 독일로 간거예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1972년 당시에는 간호사로 독일에 가는 것에 관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1은 파독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입주가정교사를 1년 동안 하며 서울에 있는 고려학원에 등록하여 간호보조원 과정을 수강하였다. 그리하여 독일에 간호사로 갈 준비를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때이다. 배을규·김대영(2012: 3714)은 자기 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학습의 기회를 탐색하고 학습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었고 실업률이 높았던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을 타개할 기회를 탐색한 결과가 파독 간호사 이주였다. 이에 따라 학원에 다니면서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을 받으며 삶의 기회를 만들어 간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1973년에 독일로 이주하였고 베를린에서 왼쪽으로 220km 가면 나오는 작은 병원에서 3년을 근무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남편이 될 청년을 만났다.

## (2) 이주 후-결혼

### ① 종이 한 장의 설움

“저랑 같이 어떤 여자가 배치되었는데 그 사람이 OO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 배정받으며 나한테 “애 너는 보조원이니까 재만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워.

재가 보조원이래. 그럼 나는 간호원이니까 재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울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저를 그렇게 싹 무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서독에 처음 도착하여 배정받은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간호사는 한국에서 정규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은 학원에서 간호보조 과정을 1년 배우고 독일에 왔다.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 배치되었을 때 독일 병원에서 봤을 때 같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였겠지만 한국인 간호사는 독일 병원의 업무에서 위계를 두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이 정식 간호사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 일은 연구참여자 1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단지 종이(자격증) 한 장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임을 깨달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 일단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 말을 빨리 배웠어요. 빨리 배웠고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말을. 맨날 주머니에다가 사전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휴식시간에 신문보고 단어 쓰고 그랬었어요. 늘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왔는데 그 양반이 이론으로는 많이 알겠지만 가가지고는 그거를 안쳐요. 일단 실무를 빨리 알아듣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이뻐했었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동료인 한국인 간호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독일 직장에서도 책임감 있는 업무를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당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참여자 1이 취한 선택은 언어습득이었다. 연구참여자 1의 언어습득 전략은 독일 간호사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독일의 간호업무나 급여는 간호사와 간호보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1이 깨닫게 된 것은, 간호사는 책임성이 있는 업무를 하고 간호보조는 책무가 없는 업무가 부여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야간에 근무할 때 간호사는 혼자서 밤 근무가 가능하지만, 간호 보조에게는 그러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1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의 업무의 차이는 급여가 아니라 책임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인 간호사가 간호보조였던 자신을 무시했던 것과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은 연구참여자 1이 거주국에서 자격증의 필요를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다.

## ② 체류 연장이 거부됨

“베를린에 오면 연장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베를린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했어요. 베를린 와서 일을 시작하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노동청에서 허가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3년 끝나고 집으로 온거예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한국에서 독일에 올 때 배정받았던 병원에서 3년을 근무하고 난 후 체류 연장을 신청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1973년에 독일에 왔고 1975년에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간호사 유입을 중단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기계약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일부는 1976년에도 독일로 입국한 경우들이 있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1973년 이후 독일에 유입한 간호사들은 체류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1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한국인 간호사들이 독일 정부에 의해 귀국 조치 되던 때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장하기 위해서 독일 체류가 비교적 잘 된다는 베를린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고 베를린에서 취직이 되었다. 그러나 직장에서 받아들여도 독일 노동청에서 체류 허가를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연구참여자 1은 한국으로 귀국할 결심을 굳혔다. 이때 연구참여자 1이 처음 배정받은 병원이 있던 지역에서 알게 된 한 독일 청년이 결혼 신청을 하였지만, 연구참여자 1은 체류를 위하여 결혼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 ③ 결혼, 이주의 바다에 뛰어들

“한국으로 오니까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보내구요. 그리고 베를린의 주간 잡지 책을 편지하고 같이 보냈어요. 독일 말 잊지 말고 배우라고. 자기 여름에 휴가 때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결혼할 마음이 있고 진짜로 생의 반려자로 생각을 한다면 오면 내가 결혼을 할게.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에게 관심이 있었던 독일 청년은 연구참여자 1이 체류 연장을 위해 베를린으로 이사함에 따라 자신도 무작정 고향을 떠나 베를린으로 이사하였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에게 결혼을 신청했지만, 연구참여자 1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독일 청년은 연구참여자 1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와 잡지를 보냈다. 독일 청년의 노력으로 연구참여자 1은 ‘당신이 한국으로 온다면 결혼하겠다’라는 답장을 보냈고 독일 청년은 여름 휴가를 내어 한국에 왔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은 친정엄마에게 국제결혼을 하면 어떤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으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그것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이 반려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결정을 네가 해보라 그러셨어요. 엄마는 나인은 안하겠다. 그래서 그 양반 오고 나서 부랴부랴 결혼식 청첩장 돌리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여름에. 8월 25일날. 그리고 (남편은) 3주인가 있다가 결혼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여권이 내가 말소된 상태였거든요. 독일 대사관에 가서 여권 다시 만들고 하는데 반년이 걸렸어요. 결혼 후에, 독일에서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제가 다시 독일로 갔는데 이번에는 베를린으로 간거죠. 그 양반 사는 데로.”(2018. 10. 03)

국제결혼을 고민하는 연구참여자 1에게 어머니는 그 결정을 딸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은 국제결혼을 선택했다. 이 결정은 연구참여자 1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국제결혼이 본격적인 이주를 함축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결혼 결정은 연구참여자 1이 이주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지점이다. 그리하여 독일 청년이 여름에 한국에 나왔고 연구참여자 1의 가족은 부랴부랴 결혼을 서둘렀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독일로 돌아간 후 6개월이 걸려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진정한 이주민이 되어 남편이 있는 베를린으로 갔다.

독일에 다시 온 후 연구참여자 1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전의 이주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생각이다. 간호보조로 일할 당시 자신에게 책임성 있는 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단지 그 일에 대한 자격증이 없으므로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임상병리사 학교와 간호사 학교에 지원서를 냈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두 곳 모두에서 입학 수락이 왔으나 고민 끝에 임상병리사 학교에 들어갔다. 임상병리사 학교에 입학하면서 연구참여자 1은 남편에게도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 등록할 것을 권유하였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한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기술학교에 진학하였고 기능공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남편의 직업은 연구참여자 1의 마음에 차지 않았고 그리하여 남편에게 대학에 가서 기술자가 될 것을 권유하였다.

### (3) 거주국에서의 삶

####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병리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무~지 어려웠어요. 말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의학용어가 다 라틴어거든요. 밤새껏 공부했어요. 무지하게 공부했어요.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도대체 나한테 시집은 건가? 책한

테 시집은 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60명 가운데 20명이 합격을 했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들어간 병리사 학교에서 60명 학생 중에 동양 여성은 연구참여자 1이 유일했다. 이전에도 임상병리를 공부했던 한국인 학생이 있었지만, 연구참여자 1이 공부하던 그룹에는 없었다. 이주자였기에 독일어를 공부하기도 바쁜 형편에서 의학용어인 라틴어를 배우는 것이 몹시 어려웠다. 연구참여자 1은 독일이 공부하는 것에서 어느 학교든 ‘세계’ 시킨다고 하였다. 물리, 수학, 화학, 생물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내가 참 못 알아듣는 표정을 여기(이마를 가리킴)에 썼었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오더니 한국에서 왔느냐고 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다 붙는다고.” 이런 친절한 교수가 있었던 반면 학생이 그 자격증을 받을 만큼 공부하지 않았다면 자격증 시험에서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는 엄한 교수도 있었다. 열심히 공부한 덕에 그 엄한 교수로부터 면접시험 없이 통과하여 60명 가운데 합격한 20명 안에 들 수 있었다.

## ② 망부가(亡夫歌)

“이 사람은 초등학교 10학년인가 나오고 기계공고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속이 안찬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그랬어요. 나는 이 학교를 갈건데 당신은 앞으로 살날이 30-40년 되는데 언제까지 기름 무쳐서 살거냐고. 젊으니까 공부를 해서 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안하겠대요. 몇 번을 끝더니, 제가 “여기 병리학교에 원서 냈어. (나는) 이제 할거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김나지움 야간 학교에 원서를 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원서 냈을 때가 27세, 내가 25세였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남편과의 추억에 할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연구참여자 1이 남편의 특성을 구술한 부분들을 모아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 1과 그녀의 남편이 삶에서 어떻게 함께 노력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부부가 학교에 등록하던 당시에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치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서 음식을 씹지 못하는 상태였다. 연구참여자 1은 이를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의 치아 관리를 하지 않았기에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이라 여긴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이 이주여성이지만 독일인 남편을 대신하여 병원 예약 등을 하여 치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치아 치료 때문에 남편은 오른쪽 뺨이 통통 부은 상태로 저녁에 가서 공부하고 새벽에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연구참여자 1이 임상병리

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대학에 입학하였다. 연구참여자 1이 1982년 6월에 임상병리사 자격을 받았고 그해 8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달에 남편은 친구들과 한 달 동안 그리스로 오토바이 여행을 떠났다.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는 연구참여자 1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부부가 서로 문화권이 다르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9월 학기가 시작하고 연구참여자 1은 임신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임신하였기에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하였다. 그러나 과장인 여자 의사가 다가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의 미열이 떨어지지 않아 검사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혈액암인 악성 임파선 판정을 받았다.

“크리스마스에 독일은 생소나무를 사거든요. 그거를 장식해요. 그 나무를 사가지고 오면서 이 나무가 이 아이한테는 아버지와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이다.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학교를 휴학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이 보름달같이 부었어요...(중략). 항암치료 받는 날은 애를 데리고 밤에 돌아다녔어요. 애가 잘 때까지. 집에 이 양반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거 항암 주사 맞고 오면 다 토해요. 하루 내내 토하고 밤새껏 토해요 (2018. 10. 3). 그렇게 1년 치료받고 복학을 했어요. 복학하고 엔지니어 디플롬이라고 학사 받는 거를 점수를 1점을 받았어요. 1점이 A+ 예요. 최고점을 받았어요.”(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남편의 치료를 위해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 있는 베를린에서 혈액암으로 매우 저명한 교수를 찾아갔다. 이 교수는 직원에게는 호되게 가르쳤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연구참여자 1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도움을 주었다. 어떤 날은 혈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암치료 약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맨살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런 독한 약을 사용하여 1년 동안의 치료가 끝나고 남편은 대학에 복학하여 최고점수를 받으며 졸업한 후 지멘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직업 환경도 좋아졌고 급여도 달라졌을 뿐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달라졌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남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으며 특히 많이 배운 사람과 대화할 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엔지니어가 되면서 그러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독일 사회가 개인의 성취를 인정해주는 사회라고 인식한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오후 2시에 돌아오면 항상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자전거 타고 수영 가고 극장가고 안 간 곳이 없이 다 갔어요. 아이는 파파아들이예요. 아빠랑 같이 여행가고 친구처럼 친했어요.” (2018. 10. 3)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이 만약에 생을 다시 산다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남편과 똑같은 생활방식으로 똑같이 살라 해도 살겠다고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시어머니의 집은 서독이었고 연구참여자가 사는 곳은 서베를린이었으므로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동독을 지나야 했다. 당시는 동독과 통일이 되기 이전이었다.

“돌아가시기 7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은 갔어요.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대청소해요. 매번. 그리고 개도 살았는데 개도 목욕시켜줘요. 나는 개 싫은데,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멀잖아요. 제발 사람을 쓰라고 우리가 돈을 낼테니까, 그런데 남한테 문을 안 열어줘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문을 안 열어줘서, 아들이 오면 좋아하죠.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72세이었어요. 할 일이 없고 몸은 힘들고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창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독일 노인들이 외로워요.”(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가고 올 때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에게 안경을 쓰게 했다가 다시 쓰지 말라 했다가(여권 사진에는 안경을 썼음),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차의 바닥을 거울로 들여다보았으며 불이 대낮보다 더 환해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계가 삼엄하였다. 이러한 곳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시어머니를 연구참여자 1과 그녀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하고 목욕시켜드리면서 7년을 돌보았다. 연구참여자 1과 그녀의 남편은 자주 집 주위의 공원을 거닐며 산책하였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다시 암이 찾아왔다.

“어느 날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 후 의사는 우리를 앉혀놓고 당신의 병명이 췌장암인데 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출장 많이 다녔는데 그거 싹 없애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더라고요. 병가를 내지는 않았어요...(중략). 남편이 사망한 후 우리 아들이 서류를 열다가 엄마 이게 뭐지? 하는데 작은 카드 6장, 12페이지에 뽁뽁이 썼어요. 언제 썼는지도 몰라. 그런데 페이지 하나가 한 테마야. 첫 번째 테마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전쟁 후에 바깥에서 애들하고 놀고 그러던 거. 그다음 장에는 자기 초등학교 이야기. 또 한 장은, 결혼하고 애 키우고. 맨 끝은 머리는 자기보다 먼저 죽은 친구들에 관한 얘기. 그래서 12페이지. 한 장 한 장 다 한 테마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장례식 때 그 사람(장례사)이 그거 읽었어요.”(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췌장암 선고를 받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암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겨낼 것으로 자신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 후 8개월 동안 일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회사 동료는 자신의 부인이 1년 전에 백혈병으로 먼저 갔을 때 했던 장례절차를 유에스비에 담아 와서 옮겨주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본인의 사망 후 편지 보내야 할 곳, 아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전화, 차, 보험 등등의 명의를 바꾸었으며 이를 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미리 장례사에게 가서 꽃, 노래, 옷, 관 등을 계약하고 유골함 색깔을 정하는 등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준비해 놓았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이 12장의 카드에 적은 주제들의 기록은 장례사가 고인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 읽을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 같다고 했다. 장례사가 너무나 독특하다고 자기에게 달라고 했지만, 내용만을 보내주고 원래 기록은 아들이 보관하고 있다.

### ③ 기러기처럼 양쪽 나라를 오고 감

“돈 벌어야겠다. 그런거였었죠. 절박했었어요. 저희 그때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애초에 뭐가 없었으면 덜 할텐데 좀 넉넉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으니까. 월급 중에 반 보냈어요. 3년 동안 꼭 반씩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결혼해서 갔으니까. 가끔씩 엄마한테 돈을 드리고 그런 것은 있었죠. 그런데 저는 남편 몰래 돈 집에다 주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가정경제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절박함이 함께 떠오른다. 독일에 간호사로 이주한 후 가족에게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보냈다. 그리하여 당시 언니 혼자서 감당했던 생계의 짐을 함께 나누었다. 연구참여자 1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들 가족에게 닥친 경제적 빈곤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것은 절대로 남에게 빚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설정한 이유가 되었다.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 풍요로움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1은 2020년 현재에도 독일에 자기 집이 없고 월세로 살고 있다. 월세로 사는 이유는 집을 사려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은 후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를 피하려는 이유였다. 집은 필요하지만, 은행 빚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어떤 뜻하지 않은 일에 의해 자신이 겪었던 것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엔 빚을 내어 집을 사는 일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월세로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의 가족은 집을 사지 않은 대신 친정 가족을 자주 방문하였다.

“집이 좋으니까. 나는 진짜로 많이 왔었거든요. 엄마를 제가.. 나는 엄마같이 안살아. 엄마가 싫어. 그러면서도 엄마를 엄청 따랐다고 해야할까? 나 결혼했을 때 내 동생들이 결혼 안하고 있잖아요. 개네들이 형부형부 하면서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카들이 이모부 하면서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그때 친척 그런 분위기가 거기는 없는데 여기는 식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좋은거야...(중략).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와도 사촌들하고 떨떠름하고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거주국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녔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쁘다고 했을 만큼 어머니를 닮아 솜씨가 좋았다. 연구참여자 1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바느질 솜씨도 좋았던 것에서 엄마를 닮았으나 어머니의 삶은 연구참여자 1이 그렇게 되고 싶은 삶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 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가 좋아서 해마다 가족을 이끌고 한국으로 오는 연구참여자 1이 있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과 본인이 벌었던 월급을 모았다가 한국에 자주 오갈 때 한꺼번에 사용하곤 했다. 연구참여자 1은 집을 사지 않은 대신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 친정에 오면 친정 가족들이 남편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편도 한국에 와서 아내의 가족과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 가족이 집을 사지 않으면서까지 한국에 자주 나온 궁극적인 목적에는 아들과 친척의 연결에 있다. 시집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이 있었으나 남편의 형은 연구참여자 1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가족 간에 교류가 적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친정 가족과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자주 만나서 서로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혼자 있는 아들이 한국의 조카들과 정서적으로 가깝게 연결되기를 바랐다. 그러한 노력을 들인 지금 모든 친척과 친밀도가 똑같이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형제의 자녀들과 아들의 친밀감은 이들의 자녀세대인 3세대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초국가주의의 연계성의 일환이다. 거주국에 뿌리를 내리는 자신의 가족과 친정 가족의 연계를 송금과 친정방문을 통해 이어나가고 있다. 더욱이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친정에 보내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게 함으로써 문화적, 정서적 연결을 목적한다.

“애가 한 3학년쯤 되니까 어느 날은 안가겠다고 따져요. 내가 왜 주말학교를 가야되느냐.. 왜냐하면 지 친구들은 주말에 축구를 하고 놀러가는데 나는 왜 거기를 가야하는지 설명을 하래요. 그래서 애한테 설명을 했죠. 니가 알다시피 거기가면 이모도 있고 사촌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런데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네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설명을 했어요 30분 이상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소리 않고 갔어요. 가면은 많이 배우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두 마디라도 듣잖아요. 제일 많이 도움이 된 거는 한국에 자주 온 거.”(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7년 동안 한글학교 교감으로 활동하였고 그 가운데 일정 기간에는 교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인 토요일에 2시간 동안 한글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였다. 자녀가 거주국에서 공부의 양이 많고 친구들과 놀이하는 시간을 빼면서까지 한국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 1은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설명이 연구참여자 1의 아들에게 설득이 된 것은 이 가족이 자주 한국의 친지를 방문했고 그것을 아들도 즐겁게 여긴 이유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1의 아들은 한국의 외사촌들과 최소 1, 2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같이 놀았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습득이 필요한 일이었음을 이해한 것이다. 한국어 교육은 자녀와 한국과의 연결이 세대를 지나서도 계속되는 것과 자녀의 한국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모국에 있는 친지와 연계를 지속하도록 역할 한다.

#### ④ 세월 속에 묻힌 청춘

“그런데 막내 남동생한테는 조금 감정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밥도 굶을 지경이었고 그런데 남동생이 학교 다닐 때는 웬만큼 살만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벌어서 여기에 부치면 동생들 등록금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애는, 그래서 애가 책임감이 없다고 할까. 애는 지가 돈을 벌어서 쌀 한가마를 사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휴가오면 싸움을, 제가 동생한테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우리 양반이요. 어느 해는 그래요. 올해는 제발 동생하고 트라블 하지 말고 아무소리 말고 그냥 오라고.”(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스스로 이주를 선택했으나 그 배경에는 가족이 있다. 그리고 이주 후 3년 동안 월급의 반을 송금했다. 그리하여 가족을 굶주림에서 헤어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남의 나라에서 3년을 지속한 돌봄 노동자의 애환은 이야기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개인의 가슴 속에서 녹여내고 성찰함으로써 세월 속에 흘러가는 일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만을 위한 이주 행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삶에 흘러가 버린 자신의 청춘을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 1은 위로 언니들과 아래로 여동생들의 경우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한다고 하였다. 그런 딸들과는 달리 남동생은 자기 밥벌이를 하지 않고, 장성해서는 남동생이 가게를 하였는데 그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취미활동을 하며 삶을 여가처럼 사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고 그야말로 난리를 쳤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까지 남동생과 트라블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다. 연구참여자 1은 가족과 함께 자주 한국에 나왔다. 방문 때마다 남동생과 갈등이 있었다. 이여봉(2011:45)은 떨어져 살던

가족이 잦은 만남을 가질 때 상대방의 생활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와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1처럼 친정 방문주기가 비교적 짧은 경우 이주한 딸들의 친정 살림에 대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1은 독일로 이주하여 친정에 송금함으로써 가정경제에 동참하였다. 그러한 경제적 참여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친정방문을 통해 친정 가족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간섭은 간섭 당사자가 간섭 대상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지시키는 하나의 표시이다.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참여자 1의 행위는 친정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구축이며 인정 요구의 일면이다. 즉 연구참여자 1이 가정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외부(친정 가족, 남편, 아들, 이웃 등)에 지각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간섭의 행위는 자신이 이주자로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 기제일 수 있다. 연구참여자 1의 동생과의 갈등은 남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의 치매로 이어지면서 일단락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어머니가 사용하던 집을 언니와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친정에 안착하게 되었다. 큰 언니는 어머니의 상가주택 위층에 살고 연구참여자 1은 아래층에 산다. 둘째 언니는 일찍 시집을 갔으므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끼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두 여동생은 연구참여자 1이 교육을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하게 도왔으며, 남동생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연구참여자 1이 어머니의 집을 기반으로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반 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⑤ 독일어 바다에서 노 젓기

“제가 40-50년 (독일에서)살아도 독일 사람같이 말을 못 해요. 내 아들이지만 독일에서 공부하고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렇게 느끼는게 많아요. 나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소통을 못하거나 그런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애가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말을 잊어버리고 그러는게 굉장히 은근히 걱정이 되나봐요. 작년에 공항에 나오면서 엄마 책 좀 가져가서 읽어요. 그러는데 엄마가 말을 못 하면 심각하게 트라블 있어서 안되니까 말을 잊어버리면 안되니까 책을 사주더라고 공항에서.”(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살아오면서 늘 독일어를 공부했다. 인터뷰 때 연구자에게 보여준 핸드폰은 독일어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독일어를 잊지 않기 위하여 연구참여자가 하는 노력의 하나였다. 연구참여자 1은 1년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머물다가 독일로 복귀한다. 그러면 독일 친구들이 독일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늘 독일어 공부를 한다. 연구참여자 1에 따르면 독일에 사는 한국인 부모들이 집에서 한국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닌 그런 말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일상어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들이 성장한 후 부모와 독일인으로 자란 자녀들 사이에 ‘대화’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한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자란 자녀들이 한국어를 부모처럼 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부모 또한 자녀만큼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독일에 이주한 한인이 그들의 자녀와 ‘대화’하는 것에는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1은 스스로 독일어를 그의 생활의 중심에 놓아두고 늘 공부하고 발음을 연습하고 책을 읽고 독일 뉴스를 한국에서 듣는다.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함에도 언젠가 아들이 e 발음이 들어간 것을, 자꾸 교정해 주어 연구참여자 1이 대단히 화를 낸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들이 어머니의 발음을 교정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남편이 없는 현실에서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것 같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사과를 하였고 더는 어머니의 발음을 교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신 어머니가 독일어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도록 책을 사준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언어(거주국 언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는 이주자와 그의 가족의 삶에서 상호이해로 이끌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언어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주자들의 가정 내에서와 사회에서 소통하고자 할 때 상호이해로 이끌리지 못하게 된다. 한편, 연구참여자 1은 노년이 되어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발화되지만, 거주국 언어는 지속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거주국 언어 능력의 낮은 정도는 이주자의 삶이 노년에 더욱 외로워질 가능성을 갖는 이유이다.

“에 아빠는 독일 사람이기는 하지만 독일어는 빵점이에요. 독일어를 진짜로 하기는 하지만 엉터리로 하고 문법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은 총 관리를 했죠. 에 학교를.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마다 책이 있잖아요? 교과서. 그거 말고 내가 책방에 가서 부교재를 산거예요. 내가 봐가지고 그거를 물어본거죠. 애가 1학년이고 2학년인데 여기에다 어떤 책을 보충해서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죠. 내가 샀어요 그 책을. 그레가지고 같이 공부한 거예요. 에 공부 가르쳐주면서.”(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자녀가 독일에서 잘 적응하도록 처음에는 독일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아이가 학령기가 되었을 때 남편이 독일 사람이지만 아이의 학습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학생용 교재를 보면서 아이와 함께 공부했다. 그리고 아이의 받아쓰기를 계속 연습시켰다. 그 결과 자녀는 김나지움에 가는 학생 그룹에 속했고 석

사를 졸업했다. 연구참여자 1이 자녀의 거주국 언어에 공을 들인 이유는 자녀는 독일인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독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 ⑥ 안전이 최우선

“나는 평생 내 돈을 갖고 있어야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살아갈 내 돈을 벌어야되겠다. 안전 뒤로다가 독일말로 지셔하이트(Sicherheit)<sup>8)</sup>가 항상 있어야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었어요. 늘. 그래서 내가 직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50살에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독일에서 병원을 줄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기를 거쳐왔다. 당시 새로 뽑는 인력은 젊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력이기에 급여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 1처럼 오래된 경력자는 급여를 많이 줘야 하기에 새로 뽑는 일은 드물었다. 연구참여자 1은 병원을 그만두게 되는 시기 이전부터(통합에 대한 예고를 미리 병원에서 알렸으므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이력서를 여러 병원에 지원해 놓았다. 그리고 이전 병원에서 9월 30일까지 일하고 10월 1일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였다. 새 직장은 같은 임상병리 일이기는 하였지만, 사람도 새롭고 컴퓨터도 다르기에 오십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했다. 연구참여자 1은 혈액학을 했기에 종일토록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보고 그것을 독일어로 설명을 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1이 정확하게 보고 설명한 자료를 통해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기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1은 다른 병원에서 이미 20년을 근무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야 했다. 연구참여자 1이 새로운 직장에서 너무나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므로 남편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그만두고 쉬도록 권유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1은 그 직장에서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라는 심정으로 버티어 냈다. 무엇보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지 못할 상황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게 된 자립의 필요성이 각인된 때문이다. 그리고 이주여성이었기에 거주국에서 자신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자녀와 함께 안정감 있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었다. 그랬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새 직장에서의 적응을 이겨냈다.

8) 안심, 안전, 확실성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이다음에 남편이 만약에 없을 때 내가 돈 없어서 저런 설움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금을 하는 게 늘~ 박혀있어요. 머리에. 나는 이다음에 혼자 살게 되면 내가 굶으면 어떻게 하지 출고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출고 배고픈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나 그게 싫거든요. 명품백 저는 그런 거 관심없어요. 그런거 이해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게 자기 수입이 있는 만큼만 사야지 그거를 넘으면은 빚이 되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했으면 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살아요. 여기에서도 살다 저기에서도 살다, 하고 싶은 거 하고.”(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으므로 늘 저축을 하며 살았다. 현재는 연금이 나오므로 더는 저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도 연구참여자 1은 금전이 생기면 저축부터 한다. 그리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지금은 한국과 독일을 반반 오가며 살아간다. 모국과 거주국을 오가며 살아가는 형태는 파독 간호사들이 가지는 로망 같기도 했다. 거주국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간극을 모국에 와서 해소하고 모국에서 다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거주국에서 채우는 방식으로 선호되는 듯이 보였다. 연구참여자 1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노년을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은 한국과 독일에서 같은 취미생활을 한다.

“한국에서 월요일에는 영어를 배워요. 수요일은 시청에서 하는 하모니카가 있어요. 하모니카 하는 지가 3년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은 옛날부터 독일에서도 그렸으니까. 그래 일주일에 세 번을 나가요. 독일에서는 한국 사람이 하는 합창단. 그리고 그림하고 영어 배워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 이유는 친정어머니의 간호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특별히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생활을 하면서 옛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하며 한국에 삶의 장이 형성되었기에 양쪽 국가에서의 삶을 유지한다. 연구참여자 1이 양쪽 국가를 오가며 살아가는 초국적 이주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도 크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만들고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장기체류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한다. 이로써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법적, 제도적, 경제적 등의 이유에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연구참여자 1의 초국적 생활방식을 촉진하는 역할이 된다. 연구참여자 1은 취미생활도 한국과 독일에서 같은 취미를 가지며 생활한다. 이러한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새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⑦ 스며드는 거주국 문화

“한번은 친구가 주말에 놀러 오는데 제가 항상 은행에 저금해서 현금이 없었어요. 주말에 은행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인한테 주말이라 돈을 찾을 수 없으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돈이 있으니 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몇백 마르크를 빌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게 그걸 빌려주면서 차용 증명서를 쓰시더라구요. 그 부인이, 3년 동안 왔다갔다 했는데... 썼죠. 그리고 월요일에 당장 은행 문 열자마자 돈 찾아다 드렸거든요.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되면, 아, 내가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도 저한테도 점점 스며드는거죠. 그 사람들의 생활방식 사고 이런 게.”(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젊었을 때 독일에 적응하면서 사귀게 된 한 독일인 가족이 있다. 그 가족과 매우 가깝게 지냈고 자주 그 집에 방문하여 음식과 문화를 배우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같이 먹기도 하고 비슷한 나이의 자녀들과는 친구가 되었다. 그 가족의 부인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몇 년을 지내와서 서로의 심성이 어떠한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차용증을 쓰자는 것에 연구참여자 1은 놀라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차츰 독일의 문화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독일 문화의 특성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차용증을 쓰는 독일의 방식을 자신의 경우에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독일 사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방식의 표현양식을 기꺼이 수용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며 살아왔다.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대화방식은 한국 사회에 다시 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한국 친구들에게 한국 사람 같지 않고 독일 사람 같아서 낯선 사람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저한테 독일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중략). 독일에서는 까망이든지 하양이든지 해야지 회색이라는 것이 없어요. 중간에. 대강 이런 것도 없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동창들이 여행을 간대요. 버스를 타고 밤새 가서 아침에 도착하면 하루보고 그렇게 한 대. 내 나이에 미쳤다고 밤새 버스를 타고가요? 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안 해’라고 얘기 안 해도 된대요. 어차피 안될건데 나중에 결정돼가지고 안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런 자리였었는데 얘기를 안하고 뒤에가서 하더라구요. 처음에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몰랐죠. 우리는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안 해. 이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하고 있다가 어차피 안 할건데 안 가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2018. 10. 03)

한국과 독일은 대표적 고맥락/저맥락 문화권의 나라이다. 한국의 대화방식은 고맥락 패턴으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에 상세한 배경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의사소통 분위기와 상황



그리고 직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그러므로 청자는 화자가 말하는 화행의 행간을 읽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독일과 같은 저맥락 문화권은 이질적이고 이동이 심하고 사회변화가 빠르며 공통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공통 경험이 적은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게 되므로 언어표현 자체에 상세한 배경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일인들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메시지가 상세하고 명확하기를 기대한다(김난영, 2019: 29-27). 연구참여자 1은 민족적으로 한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20대 초반까지 한국 문화권에서 살았다. 그런 후 독일로 이주하여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의 두 배 가까운 세월 동안 거주국에서 살아왔다. 이주자로서 연구참여자 1이 거주국에 적극 동화하며 살아왔음은 의사소통에서 문화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1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거주하지만, 한국에서 독일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므로 친구들로부터 독일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연구참여자 1의 저맥락 문화권 형태의 의사소통 행위는 고맥락 문화권에 속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인 행태가 되므로 같은 민족이고 친구이지만 서로가 이질성을 감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4) 노년의 삶

##### ① 한국,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함

“한국 사람들은 내가 즐겁자고 남에게 피해를 줘요. 그리고 피해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서양 사람은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게, 피해 안 주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시끄러워요. 뭐라그럴까 안하무인이랄까? 그런데 서양사람들은 절대 안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내꺼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꺼이고 여기서부터 남의 거잖아요? 그럼 남의 것 영역은 상관없어요. 내 울타리 안에는 깨끗한데 그 바깥은 깨끗하던지 말던지 상관없고, 내 쓰레기도 거기다 버리고, 우리집 건물이 상가건물인데 3층에 애들이 많이와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카페인 가봐요. 교복 입고 오니까, 참 애들이 침을 그렇게 뱉어요. 내가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 아줌마는 미안해가지고, 거기 침 뱉지 마세요. 주인이 써붙여놨어요. 근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뱉어요 침을. 무슨성격이냐고 그게.”(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3년 전에 한국에서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길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즉시 그 중학생을 불러서 “이봐요 학생.. 그거 주워요.”라고 하였다. 그때 여자 중학생은 가만히 연구참여자 1을 쳐다보았고 남자 중학생은 조금 후에 담배꽂초를 주웠다고 한다. 친구들은 이 일을 보고 운이 좋았다고 하였지만, 연구참여자 1이 보기에 그 아이들이 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아이들이 지키지 않

는 것에는 어른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침을 뱉지 않게 하고 싶다면 어른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어른들은 침을 뱉으면서 아이들에게 침뱉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이 지키겠느냐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나만 아니면 되는 태도, 남의 영역에는 자신의 쓰레기를 버려도 내 영역은 침해를 거부하는 행위, 남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인터뷰하던 날 옆 테이블의 한 무리는 실내가 찌렁찌렁하게 웃고 떠들고 있어서 인터뷰 내용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연구참여자 1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증거 해주는 것 같았다. 연구참여자 1은 한국 사회 내적으로는 이러한 부실함이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돕자는 것인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TV에서 보면 기아, 아프리카 어디에서 굶고 있습니다... 뭘 전해주... 좋아요. 좋은데 언제부터 한국이 지네들이 밥 먹고 산다고 그렇게 가서 눈물 똑똑 흘리고 도와달라고.....(중략). 내가 열 받는 것 중의 하나는 젊은 애들이 벤츠타고 다니는 거. 여기 부모세대들이 일한 돈으로다가 지네들이 그 덕을 보는 것인지 지들이 일으켜서 지들이 벌어서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굶어보지 않아서 참 뭐라그럴까...(중략). 여름예요. 다니면서 보면은 이만~한 브라운색 루이뷔...가방인가 뭘 들고 다녀요. 다 똑같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저런 것을 들고 다녀야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굶어본 기억이 없어서인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행세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남의 눈을 의식하여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허례허식을 앞세우는 행동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1이 한국을 떠날 때는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서 허덕이던 한국이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은 굶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였다. 가난이, 그리고 빛이 사람의 체면을 어떻게 바닥에 내동댕이치는지를 보았다. 그렇기에 굶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가 부모의 재력에 편승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남동생을 보는 것처럼 허황하고 위태롭게 보인 것은 아니었을까. 연구참여자 1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어릴 때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 풍족했던 가정경제는 아버지의 부재로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이후의 삶은 가난의 불편과 체면의 손상, 무시됨, 지독한 자기 극복의 시간으로 연결되었다. 현재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힘인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행위,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사회 풍조 등으로는 지금까지 이룬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지켜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처럼 말이다. 한국의 어른들은 말로만 가르치고 실제로는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죽은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기대하는 가르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어른이 먼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함을 연구참여자 1은 상기시켜준다.

## ② 잘해도 이방인, 못해도 이방인

“옛날에는 코트도 만들고 투피스도 다 만들어 입고 다녔어요.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앞에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자꾸 나를 쳐다보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한테 독일어를 할 줄 아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할 줄 안다고 했더니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내 생각이 아, 나는 여기서 죽었다 깨도 외국인이거나 그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살면서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않고 살았거든요. 거울보며, 맞다 독일 사람 아니구나..., 어느 해인가는 바이에른 지방에 갔더니 빵을 사러 갔는데 나보러 어떻게 그렇게 표준어를 잘 쓰느냐 그런거. 그래서 나는 독일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살면서 외국인이라고 느끼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난 그것에 대해서 독일에 굉장히 감사해요. 일자리에서도 한 번도 외국인이라... 그 대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면 눈치보고 욕 들어요. 독일 사람들한테.”(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솜씨 좋은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옷을 만들어 입었다. 연구참여자 1은 독일에서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독일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것은 연구참여자 1이 독일어를 잘하거나 독일 문화에 익숙해서라기보다는 독일 사회에서 이주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에서 일할 때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거나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렇지만 동양 여성으로서 서구세계 구성원과의 외모 차이는 연구참여자 1을 어쩔 수 없는 외부인으로 구별되도록 이끌었다. 외국인인 연구참여자 1이 독일어를 하는 것, 그리고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그 사회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독일에 살면서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느끼게 하지 않았던 독일 사회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로드(Load, 2016: 86-89)는 독일은 외국인에 대하여 눈에 띄지 않게 지극히 배타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들려주고 있다. 그는 신나치주의에 소속된 독일인이 극소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꽤 많은 독일인이 신나치주의자들의 의견 표출방식, 패션 기호는 거부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관점에는 크게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에게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외국인 사절’에서 외국인은 앵글로 색슨 계열의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독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독일 경제에 이익을 주는 직업인이라면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숙련직 또는 반 숙련직에서 일한다면 하층민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인종과 피부색만이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로 이주한 한국 간호사들은 독일에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이주하였으며 독일인들이 기대한 이상으로 업무의 능률을 보여주었기에 독일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독일 사회는 그들의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외국인 노동자였던 파독 간호사들을 귀국 조치하였다. 한국 간호사들은 환자를 인간으로 대우했지만, 독일 사회는 파독 간호사를 노동력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이 독일에 정주하고 독일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독일어를 잘해도, 그리고 독일어를, 못해도 독일 사회에서 외국인이 된다. 그래도 독일 사회에서 살아온 연구참여자 1이 외국인이어서 차별을 겪지 않았다고 느낄 만큼 독일 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성숙한 태도가 있었음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 ③ 이주자, 공중에 뜬 사람

“나는 거기 가서 안 살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답이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내 친구들 보면 어떤 애는 장사하느라 힘들게 살았고 어떤 애는 농사지면서 고생했고 어떤 애는 땅을 사서 땅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됐고 그런데 개네들 이야기하는거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한두 시간 동안 뭐 안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나오지만 아쉬운게 많죠. 한 친구가 이제 자기도 1박2일 여행을 간다고. 남편한테 해방을.. 그걸 굉장히...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저렇게 살았을까.. 굉장히 삶이 좁은거예요. 나는 거기서 살면서 오만테를 다 다녔잖아요. 오만거를 다 캐고 다니고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바래다준 것도 아니고 난 내가 혼자 스스로 다녔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살아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이주 후 노년이 되어 다시 한국에 와서 친구들과 만나 어린 시절의 추억과 현재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비교한다. 여기에서 이주의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 1의 삶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삶과 차별성을 갖는 부분은 주체성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보고 느끼는, 주체성과 자율성에서 친구들과 자신의 삶이 다르다고 느낀다. 여성으로서 자신이 한국에 살았다면 자신이 거주국에서 가지는 삶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과 주체성이 이주가 연구참여자 1에게 미친 영향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자율성과 주체성은 연구참여자가 이주를 통해 가지는 긍정적 부분이다. 그러나 이주의 또 다른 측면에는 이주자가 노인이 되어서 거주국의 노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독일의 노인들 커뮤니티에 아직 안 갔는데 거기 가서 어쩌다 노인들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유년기 그런 게 생소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 사람들의 젊었을 때나 그 사

람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거나 이런 거를 내가 전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 노래하면, 다 아는 노래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그런데 애네들도 그런 거를 한다면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공감이 안 되죠.”(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지 않은 이주자와 원주민의 노년은 같은 지역에 존재해도 과거 존재했던 시·공간이 다르므로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지 못함을 이야기하였다. 물론 노년의 모든 여가 활동이 어릴 때의 추억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주자와 원주민이 자라온 정서가 다르고 두 그룹이 삶의 어느 시·공간에서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으로써 공감대가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노인의 여가를 준비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문화를 모티브로 한 활동을 한다면 노년의 여가가 문화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도 문화를 소재로 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1은 한국의 친구들과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친구들이 가족들도 있고, 자기 시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친구도 위층 친구, 옆집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 김장철이 되면 친구들 만나면 고추를 얼마에 샀다느니 그러는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듣고 있죠. 고추를 얼마에 사느니 검은 고추를 사느니 나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초등학교 동창들도 만나고 한국의 노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막상 동창들을 만나면 동창들은 시집과 윗집, 옆집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은 한국에 그러한 연결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40년 이상 김장을 할 필요가 없는 문화권에 있었고 현재 한국에 있지만, 김치가 친구들만큼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니다. 한국인에게 김치는 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생활이고 문화이지만, 연구참여자 1에게는 김치가 생활도 문화도 아닌 그저 다른 반찬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들이 김장과 고춧가루에 관해 대화할 때 자신은 그 안에서 동질성을 찾지 못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의 이주로 인해 끊어진 한국과의 문화적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1973년부터 2007년까지는 딱 끊어졌던 거예요. 2007년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알고 그러는데 거기는 문화, 사회 이렇게 나한테는 백치예요. 백치. 내가 여기 휴가를

많이 와도 와서 몇 주만 있다가 가고 그런 거지. 연속극을 그때 내가 더 많이 본 것도 한국을 배우면서. 80년대 90년대 연속극을 보면은 그때 당시 살은 거 있잖아요. 회사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 아침에 인사를 한 대던가 그런 거 나는 모르잖아요.”(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이주를 한 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자신은 백치와 같다고 인지한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이유는 드라마에 당시 한국 사회의 문화가 있기에 이주함으로써 생긴 모국과의 문화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학습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주하여 다른 문화권에 속한 연구참여자 1은 유년 시절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만났어도 함께 공감하거나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친구들과 만나 몇 시간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오지만 마음 한쪽에는 독일에서 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자신과 친구들과 마음 깊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이주하여 살아온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적응해 온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거주국과 모국 양쪽 사회에서 연구참여자 1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공중에 뜬 사람, 주변인, 외부인처럼 느껴진다.

“저는 가끔 그래요. 저는 공중에 뜬 사람이라고. 독일의 어느 심리학 학자가 저 같은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거기서는 떠났지만, 아직 여기 도착이 안된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말 맞아요. 여기(한국)서는 떠났는데 아직 독일에 도착이 안됐어. 나는 여기(한국)도 아니고 여기(독일)도 아닌거예요. 그거 맨날 그래요. 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2018. 10. 03)

이주여성으로서 연구참여자 1은 스스로가 한국인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양쪽 문화에 모두 적응하고 이해하여 그로 인해서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하며 여기와 저기에 속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이주하여 거주국 독일로 출발했지만, 독일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거주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도 자신이 있을 자리는 없다. 문화의 차이는 이주자가 거주하는 사회, 그리고 모국 사회에서 타자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1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이주의 영향을 개인적 영향, 모국으로 연결하는 초국적 활동, 거주국에서의 문화적응, 이주자의 삶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참여자 1의 이주의 영향은 자기 삶의 주체성을 형성해간 것에 있다. 삶에서의 주도성은 이주를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거주국으로 이주함으로써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했던 환경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이주한 한국 여성에게 덜 억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삶에서 자율성과 주도성, 주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자기 삶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의 주체성은 이주를 통해서 연구참여자 1이 획득한 삶의 중요 요소이다.

둘째, 초국적 이주자의 행태로 모국과의 연계가 있었다. 이는 자녀가 친정의 친지들과 정서적으로 연계됨을 목적한다. 그리하여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초국적 행위임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자녀에게 두 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역할이 되었다. 자녀는 거주국 정체성의 바탕에 어머니의 모국인 한국인 정체성을 추가함으로써 삶의 역경에 대처할 방편이 두 개가 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1은 거주국에 집을 사지 않고 해마다 1년 동안 모은 돈을 한국에 오가는 때에 사용했다. 초국적 연계는 시간의 여유와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적응에 있다.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 결혼은 생의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가져오는 생의 전환점은 이주자로의 삶으로 이끈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개인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하든 그것은 개인을 양쪽 문화 사이에 위치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을 가게 됨을 의미한다. 이 일은 국제결혼을 선택한 개인과 자녀들의 생애에서 끊임없는 정체성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이끈다. 연구참여자 1은 오랜 거주국 생활에서 자신이 독일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연구참여자 1이 독일 사회에서 무엇을 잘해도 무엇을 잘하지 못해도 여전히 이방인의 위치에 둔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이 한국에서 이주하고 정착하기 위해 거주국으로 출발했지만, 아직 거주국에 도착하지 않은 공중에 뜬 사람으로 규정한다.

넷째, 이주자의 삶은 경제적 안정, 정서적 외로움이 있다. 연구참여자 1은 어렸을 때의 결심으로 젊었을 때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노년에는 안정되게 살 여건이 되었다. 독일의 정년퇴직은 만 65세였다. 그러나 약 10년 전쯤부터 차츰차츰 길어져서 지금은 67세가 되어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 1은 연금수령 할 때 65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구참여자 1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조금 일찍 연금수령을 하게 되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남편 연금의 60%를 수령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이 은퇴할 때만 해도 65세 + 2, 3개월 더 근무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도 병환으로 고생했지만, 연구참여자 1 자신도 병치레를 많이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아플 때 독일 사회의 복지로 부담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에 대하여 독일에 이주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자신이 독일 사회에서 이방인이 되고 자신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독일인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 독일에 이주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주자의 삶은 거주국에도 모국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즉 양쪽 문화에서 이방인이 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

## 2) 연구참여자 2 : 늦깎이 낭만 학인(學人)

연구참여자 2는 1950년 시골의 대 농가에서 태어났으며, 큰어머니의 형제들과 자신의 어머니의 형제를 합쳐서 13명의 형제가 있었고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

<표 IV-2> 연구참여자 2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가정사</li> <li>■ 등 돌린 형제들</li> <li>■ 새옹지마</li> <li>■ 이주, 새로운 세계로</li> </ul>
이주 후-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거웠던 기숙사 생활</li> <li>■ 빠리지엔느(Parisienn)로 살아보기</li> <li>■ 운명의 이끌림</li> <li>■ 결혼, 갈등 속으로</li> </ul>
거주국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함</li> <li>■ 이혼, 아이들의 상처</li> <li>■ 빈 등지에 홀로 남아</li> <li>■ 자녀의 정체성 갈등</li> <li>■ 독특한 동거형태</li> </ul>
노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후 대학 진학</li> <li>■ 모국 종교의 위안</li> <li>■ 자기 성찰과 사회와의 친목</li> <li>■ 향수, 디아스포라</li> </ul>

### (1) 유년-청년기

#### ① 복잡한 가정사

“큰 울타리가 있는데 그 안에 집이 일곱 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외동이였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였죠. 아들을 낳아야 자손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결혼을 하셔서 첫째, 둘째를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걱정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결혼을 시킨거예요. 둘째 어머니가 제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일곱 집이 들어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큰어머니 사시는 집. 우리 어머니 사시는 집 전부 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거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할아버지는 아들이 외동이였기 때문에 옆에 두고자 하였고 연구참여자



2의 아버지는 외지에 나가지 못했으므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2의 할아버지는 외아들을 항상 옆에 두기 위해 아들 대신 이웃 학생을 공부시켰으며 그 사람이 미국 유학을 다녀와 행정 관직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2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 이력이 있었으므로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 일은 후에 연구참여자 2가 간호사로 독일에 가려고 할 때 결격사유가 되었다. 파독 당시 할아버지의 친일파 이력 때문에 독일행이 거절되었을 때 아버지 대신 공부한 사람의 도움으로 연구참여자 2가 독일에 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2의 할아버지는 아들을 결혼시켰고 며느리에게서 원하던 손자를 얻지 못하자 두 번째로 며느리를 맞이하여 손자를 얻었다. 그렇지만 곧 큰 며느리도 아들을 낳았고 이로 인해 가정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자기생애기술지를 통해서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형제들이 많고 모두가 학교에서 우등생이어서 학교 전체와 이웃 동네에 잘 알려져 있었다. 어린 맘에 내가 남보다 잘난 줄 알았고 모든 방면에서 첫째를 뺏기면 기분이 상했으며 한 살 위 오빠와는 수학에서 맞서려고 애썼다. 아버지의 교육 모토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자녀에게 땅을 팔아서라도 학문의 길을 제공하겠다는 자세였다.”(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어렸을 때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랐으며 부모님은 연구참여자 2가 우등생으로 공부도 잘했으므로 별달리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의 집에는 아이들이 연년생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반장을 하였다.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운동장 맨 앞줄에서 있는 아이들은 연구참여자 2의 형제들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2는 형제들이 모두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 다방면으로 두각을 보였으니까 잘난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이들이 많으니 다른 아이들이 연구참여자 2의 집을 기숙사라고 놀리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1950-60년대 당시 한국 사회는 아들을 낳기 위해 부인이 돌이었던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하였다. 남들 보기에 일반적인 일이었을지라도 그 가족 내에서는 결코 일반적인 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울타리에 일곱 채의 집이 있고 그 안에 한 명의 남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어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형태의 삶에서 여성의 인권은 호사스러운 메아리였을 것이다.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는 것에, 여성 자신의 의사는 없었고 아들을 낳는 것에도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그러한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에도 역시 여성의 의사는 없었다. 이때 한 울타리에 살았던 아버지와 두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까지, 가족 모두 가부장제의 희생자일 수 있다.

## ② 등 돌린 형제들

“(큰어머니와)불편했죠. 사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큰엄마한테서 난 제일 큰 언니들 둘이 우리 어머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큰어머니 돌아가시고(자살 추정이라 함) 나서 그 언니들이 자기 동생들끼리만 패를 갈라버린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이복형제들이라도 잘 지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언니들이 담을 쌓는 바람에 자기들끼리만 무슨 행사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의무적으로 무슨 행사 때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딱 갈랐대요. 저는 몰랐죠. 제가 한국에 가서 물어보면 거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라서. 지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2019. 01. 19)

김용찬(2005: 127)은 역사적으로 일부일처제는 법으로 인정하는 중요 혼인 형태이지만 처첩제는 한국 사회에서 기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지속한 관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처첩 갈등의 주요 원인은 남편에게 있지만 대개 그것이 여성의 문제로만 드러난다고 하였다. 처첩제는 남성 중심적인 제도의 하나이며, 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위치를 확보하지만, 첩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남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주변인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의 어머니의 결혼은 할아버지의 ‘손자 얻기’에 의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결혼 후 두 아내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 또한 두 당사자 여성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연구참여자 2의 어머니와 큰어머니는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을 위한 삶이었고 또한, 그들에 의한 삶을 살아간 것이다. 큰어머니의 자살(연구참여자 2는 이주 후 한국 방문에서 큰어머니의 사망이 자살이라 들었다 함)은 이 가족 갈등의 정점이 되었다. 이 일의 결과는 큰집의 두 딸이 아버지의 사망 후 연구참여자 2의 가족과 관계를 끊는 것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두 어머니는 모두 가부장제의 희생자일 수 있지만 두 여성과 그 자녀들은 서로 아군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2는 형제들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 위로를 가족으로부터 찾지 않고 본인 문제를 가능한 한 혼자 해결하려고 하였다.

## ③ 새옹지마

“아버님은 제가 경남여고 들어가서 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입학시험 치는 경험을 쌓는다고 서울, 부산으로 진학할 애들 일곱 명을 OO 간호학교에다가 같이 원서를 넣어서 시험을 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떨어졌어. 내 혼자만 되고. 합격이 되니까 프라이드가 막. 라디오도 입학자들 성명 다 이야기 해주고 이웃집에서도 경사가 났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은 데다가 딴 데 가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도 반대하고 큰 오빠도 반대하고 큰 형부도 반대하시고. 그런데 저도 굉장히 고집이 못하라고 하면 더 또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겼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2가 학교에 다닐 때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2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7명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입학시험 경험을 쌓는다는 목적하에 OO 간호학교에 원서를 넣어 시험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연구참여자 2를 포함하여 함께 시험을 본 일곱 명 가운데 연구참여자 2만 합격하였다. 간호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축하했을 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도 합격자 명단으로 연구참여자 2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대학에 합격해도 라디오에서 명단을 불러주는 않았을 텐데 지방 소도시의 간호 고등학교에 합격한 명단을 방송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파독을 얼마나 장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시대적 환경이 파독 간호사를 장려했고 일곱 명이 시험을 보았는데 혼자만 합격한 연구참여자 2는 같이 시험을 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실력 있는 학생이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당시에 공부하기 싫었고 빨리 직업을 통해 독립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기에 간호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우겼다. 이에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큰집 형부(아버지의 사망 후 연구참여자 2의 가족과 연을 끊은 큰어머니의 두 딸 가운데 한 명의 남편)도 반대했지만, 연구참여자 2의 자기생애기술에 의하면 ‘백의의 열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 나이팅게일처럼 살겠다고 역지를 부렸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연구참여자 2는 간호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간호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이 일은 연구참여자 2를 간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이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주 후 자신은 이주노동자가 되었으나 같이 시험 보았던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들어갔기에 자격지심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자격지심은 훗날 이혼으로 이어졌다.

“고2부터 시작한 임상 실습 때 내 성격과 맞지 않은 직업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을 때, ‘네 성격에 맞지 않은 직업이니 경남여고, 부산교대를 거쳐 교사직을 가지라고 내가 한 말 기억나나? 이왕 고집부려 들어간 곳이니 일단 끝을 내어라. 졸업 때까지 생각 변치 않으면 졸업 후 인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으니.’”(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고집을 부려 입학한 간호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였다. 2학년 임상 실습 기간에 실제로 환자에게 주사 놓는 임무가 주어졌으나 암에 걸린 환자가 고통으로 방안을 기어 다니던(당시엔 병실에 환자 침대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닥에 이불이 펴있었다) 상황을 직접 목격한 후 무작정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때 연구참여자 2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시작한 일은 끝을 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졸업한 후에도 간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면 다른 길을 갈 수 있으니 간호학교를 졸업하면서 생각

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2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차피 간호사를 할 생각이 없었기에, 한 친구와 수업을 듣지 않고 자주 학교 밖으로 나가 일탈 학생이 되기도 했다.

#### ④ 이주, 새로운 세계로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어쨌든 3년이 지나가고 국가고시를 쳤죠. 천만다행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얻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하고 농땡이 많이 치던 그 친구가 나보고 독일 가자고 막 꺾인 거예요. 개가 꺾이는 바람에 서류를 같이했어. 그랬는데 저한테 거절이 온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여서 우리 호적에 빨간 줄이 있다고, 일단 못가라고 그러니까 참 서운하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꼭 가야되겠느냐 그래서 꼭 가야되겠다고 그랬더니 서울에 전화 한번 하시고 나니 그다음 날 당장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꺾시던 그 친구는 자기 엄마가 아프셔서 자기는 못 오겠대. 그래서 나 혼자 가게 된 거예요.”(2019. 01. 19)

실습시간에 놀러 다니며 수업을 잘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2는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대학에 갈 시험준비를 하는 중에 간호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함께 수업을 빠지며 놀러 다녔던 친구가 같이 가자고 조르는 통에 파독에 지원했지만, 거절이 왔다. 할아버지의 친일 이력 때문이었다.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막상 거절이 오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꼭 가야겠는지를 물었다. 꼭 가야겠다고 대답한 연구참여자 2를 위해 아버지는 본인 대신 공부한 사람에게 전화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파독 간호사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독일에 같이 가자던 친구는 어머니님 병환으로 남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얼마 후 결혼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는 이 이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했다. 간호 고등학교에 혼자만 합격하여 주변의 칭찬을 들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후 돌아봤을 때 그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가 되었고 자신은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여겼다. 연구참여자 2는 간호 고등학교 졸업은 기술고등학교이므로 일반 고등학교 졸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격지심이 되어 연구참여자 2를 오래도록 괴롭게 한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3년만 다녀오리라던 이주였지만, 정주로 이어졌다.

## (2) 이주 후-결혼

### ① 즐거웠던 기숙사 생활

“그때 000 대학병원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제 동창들과 선후배들이 있었고, 간호원 70명 중에서 동창, 선배 8명이 같은 층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에 와서 살면서도 한국의 삶이 연장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한국말 하면서 그렇게 같이 밥해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기숙사 한 층이 전부다 우리 00간호학교 선배들, 동창들 해가지고 줄줄이 같은 층에 살았으니까 항상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항상 같이.”(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독일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서 다녔던 간호 고등학교 선배, 동기들과 같은 기숙사에 배정받았으므로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아 집으로 송금하는 다른 간호사들처럼 자신도 집으로 송금했으나 집에서는 “네 돈 고맙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유럽 구경 많이 하고 계약 기간 끝나는 대로 귀국해서 결혼하기 바란다.”라는 아버지의 답장이 왔다. 연구참여자 2는 이 답장의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집으로 송금하지 않고 월급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근무 후 유럽 각 곳으로 여행하였으며 야간근무를 하면 휴무도 주어지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자처하여 더 많은 여행을 다녔다. 여행한 지역 가운데 특히 프랑스 파리는 자유롭고, 활발하며, 낭만적인 모습이 좋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연구참여자 2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후에 연구참여자 2가 부부싸움으로 친정에 가고 싶었을 때 한국이 아닌 파리를 친정이라고 생각할 만큼 연구참여자 2에게 특별한 곳이었다.

### ② 파리지엔느(Parisienne)로 살아보기

“용돈과 숙식 제공 댓가로 가끔씩 아이의 부모 부재 시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 부모들이 저녁때 잠깐 어디 외출하거나 낮에 외출할 때 그 시간에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 애를. 그러니까 그거밖에 내가 하는 일이 없었어. 그 대신에 그 집에 제가 살 수 있게 방도 주겠다, 음식도 주겠다, 그리고 잡비도 주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불어 공부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 참 좋더라구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독일의 간호 시스템에서는 일반 간호사와 아동 간호사가 구별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일반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아동 간호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아동 간호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프랑스 부부의 신생아를 돌보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일을 하면서 프랑스 소르본대학 어학원에 다녔고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과 어학 코스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며 친분을 쌓았다. 연구참여자 2는 파리가 친정과 같이 편안한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파리에 체류하도록 간호사로 일하려고 프랑스 노동청에 노동 허가증을 받으러 갔으나 연구참여자 2가 프랑스에 도착한 그해부터 허가내용이 변경되어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프랑스에 더 머물 근거가 없었고 독일에서도 일이 끝났으므로 짐을 모두 서울로 보냈다. 한국에는 남자친구가 연구참여자 2를 기다리고 있었고 연구참여자 2가 한국으로 귀국했다면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을 것이다. 짐을 모두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고 그로 인해 마음을 바꾸어 몇 개의 독일 병원에 지원서를 보냈다.

### ③ 운명의 이끌림

“귀국행 항공기표 구입 보다 독일의 3(Göttingen, Heidelberg, Tübingen)개 도시 대학병원에 원서를 써냈다. 그리고 OO 대학병원에서만 답을 받았기에 그곳으로 떠났다. 파리와 분위기가 비슷한 OO에서 생활하는 동안 수시로 여행하며 즐겼고 한 한국 음악가를 그 당시 유학생 부부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가서 만나 사귀어 결혼하게 되었다.”(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막상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니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다. 그리하여 독일의 3개 도시의 병원에 지원서를 냈고 OO 대학병원에서 연락을 받아 그곳으로 떠났다. 연구참여자 2는 그때 자신이 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결정을 했는지 자신조차도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때의 알 수 없는 변심으로 독일 병원에 다시 취직할 것을 결심하였다. 독일 병원에 재취직 후 연구참여자 2는 독일에 유학 온 몇몇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그 가운데 남편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당시 OO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를 담당하였고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음악이 하고 싶어서 서울 음대를 들어갔다. 연구참여자 2에 의하면 남편은 항상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경북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에 가는, 당시의 엘리트들이 가는 길을 갈 만큼 똑똑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다. 그리고 경북고-서울대는 그 당시만 해도 KS 마크(똑똑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다고 연구참여자 2는 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참여자 2는 당시 남편이 키도 크고 잘 생겼었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런 점이 연구참여자 2의 관심을 끌었다. 연구참여자 2는 그때 자신이 남편을 선택하여 결혼한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던 것보다 남편이 했던 음악을 더 사랑했던 것일지 모른다고 하였다.

#### ④ 결혼, 갈등 속으로

“한국에서 교환교수들이 왔을 때, 자기가 다 해놓을 테니까 손님이 오면 나보고 들고 들어오라고.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니고 간접적으로 자기 와이프는 기껏해야 간호사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거예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친정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맘이 안좋으니까 친정집이 빠리인거예요. 빠리를 가고싶은거야(2019. 01. 19). 내 마음의 친정. 사람보다도 그 도시 자체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나를 용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정은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친정이죠. 그 빠리라는 도시 자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기차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패스포드를 안가지고 온거예요.”(2019. 04. 10)

연구참여자 2와 남편은 결혼하여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요리는 예술작품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음식 재료를 사는 것부터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예술작품인데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아내는 아무것도 없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참여자 2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기생애기술지를 통하여 남편이 가부장적 가치관을 뚜렷하게 가졌기에 집안일과 자식을 키우는 일은 여성의 일로 여겼고, 이에 더하여 아내에게는 독일 여성들처럼 생활비를 책임지는 역할을 요구한 것 같다고 기술하였다. 남편은 독일에 오는 한국 교수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하였고 그때 아내를 소개할 때 연구참여자 2를 부끄럽게 여기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연구참여자 2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이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친정 같은 프랑스로 가려 했지만,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 가지 못했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가 남편으로부터 느꼈던 상처와 실망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2의 어머니는 늘 일하는 사람을 두고 살림하였기 때문에, 딸이 주부의 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남편은 딸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음을 불평하고 험담하였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연구참여자 2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남편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다. 연구참여자 2는 남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더불어 자신에 대하여서는 “저는 간호고등기술학교예요. 인문과 1년 배우다가 간호학과만, 공부했죠. 그러니까 학력이 없잖아요.”라고 생각했다. 많이 배운 남편에 비해 자신은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미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콧 집어 얘기하여 상처를 건드려 터트리려는 결과가 된 것이다.

안현숙(2011: 47)은 한국의 9개 도시의 부부와 시카고 재미교포 1,100명을 대상으로 건강

한 결혼에 대한 변인을 연구한 결과가 부부 사이의 대화(의사소통)와 존중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Gottman은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관찰하는 종단연구를 통해서 이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경제적 이유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역기능적 의사소통 즉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등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의 가장 근원적인 기능은 상대방과 소통하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 2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설정하지 못했다. 웨이스(Weiss, 1973; 이선우, 2015: 8 재인용)는 외로움을 ‘무엇인가 없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홀로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망이 없어서 생기는 것으로 관계의 결핍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외로움은 친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갖는 심리적 고립의 상태이며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남편이 자신을 부끄러워함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신뢰(존중)의 결핍에서 오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겪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2가 남편과의 갈등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곳으로 생각난 곳이 파리였다. 파리는 연구참여자 2가 그곳에 있을 때 알게 된 사람들의 따뜻한 정 때문에 친정처럼 느껴졌다. 부부 갈등이 있었을 때 한국의 친정은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연구참여자 2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2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 (3) 거주국에서의 삶

#### 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함

“그런데 (졸업을)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했고, 헤어지자 그랬어요. 내가 애들 키울 테니까 애들 두고 혼자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법이 그래요. 남편이 돈 못 버니까 남편까지 부양비를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 나가라고 처음에는 (남편이)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제가 그렇게 원해서 나갔어요. 한국으로.”(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음악미학/음악 비교학을 00대학에서 했고, 박사과정에서 주임교수를 베를린 00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을 택했기에 가족이 00에서 베를린으로 이사하였다. 당시 아이는 3세 정도였고, 둘째 아이도 생겼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박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 일찍 가서 일을 시작하고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을 돌보았다.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경제 능력이 약했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집안일은 아내의 할 일로 치부하는 가부장적인 태도



를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2는 일하고 돌아와서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이 계속될수록 연구참여자 2는 심신이 지쳐갔으며,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경제 능력이 없는 남편이 독일에 남아 있다면, 이혼한 남편에게도 부양비를 보내야 하므로 한국으로 나가 달라고 했고, 연구참여자 2의 의견을 남편이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후에 받아들였고 이혼하였다.

독일의 이혼법은 1976년 개정되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유책주의 이혼시스템에서 파탄주의 이혼시스템으로 변화된 것이다. 파탄주의 이혼시스템은 이혼의 경제적 효과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혼 후 경제적 효과는 이혼 시 재산분할, 연금분할, 이혼 후 배우자 부양 및 혼인 주택 등의 문제로 구별된다. 유책주의 이혼시스템은 당사자의 유책 여부에 따라 이혼 후 부양 여부 등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파탄주의 이혼시스템의 경우 종전의 유책성보다는 “혼인 전의 생활 수준” 또는 “부양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파탄주의에서는 부양의 문제를 혼인 과오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한복룡·김진현, 2007: 754, 768-778).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2는 남편이 이혼 후 독일 사회에 남는다면, 이혼한 후에 자신이 남편도 부양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한국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의 이혼은 남편과의 갈등 측면은 종료되었지만 다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혼 사실은 친정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연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정하고도 자주 연락을 못한 게 작은 애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연락을 하면 제일 먼저 애들 학교 잘 다니느냐 뭐 이런 걸 묻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인 거예요. 첫째가 12살 때 둘째가 8살 때 이혼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혼했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아예 모르는 것이 맘 편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이혼이 친정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친구를 통해서였다. 연구참여자 2는 가족에게 자신이 이혼한 사실을 알려서 자신에게 도움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이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회피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결혼생활의 갈등과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에 대하여 어른이 안 됐다고 하였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즉흥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생활을 했던 것 같다고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큰아이가 12살 때 이혼하였지만 이혼의 여파는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졌다.

## ② 이혼, 아이들의 상처

“한창 아빠가 필요할 때 엄마와만 자란 아들들의 가슴에 멍들이기 싫어서, 나름대로 힘을 썼으나 제대로 못 해줘서 이젠 성인이 된 아들들에게 미안하다. 이혼 후 아이들 교육 역시 내 책임이었으나, 직장 생활에 쫓기느라 의식주 해결 외 큰 시선을 겨눌 수가 없었다.”(2018. 10. 13).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는, 소질이 없었고 연구참여자 2가 가족의 생계와 자녀 양육, 남편의 학업까지 감당하였다. 이러한 현실의 더 큰 문제는 현실 자체보다 이로 인한 갈등의 양산에 있다. 연구참여자 2는 힘든 직장 생활, 그리고 남편과 가졌던 잦은 싸움을 자녀에게 보여주기보다 이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삶에 쫓기듯 사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혼자서 아들 둘을 양육하는 것에 이혼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한편, 이 어려운 시기에 연구참여자 2가 그의 현실을 털어놓을 대상 그리고 적절한 조언을 줄 네트워크의 부재도 예상할 수 있다.

“제가 미안하게 사내애잖아요.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인도에 아빠 찾으러 간다고...(중략). 그런데 이상하게 작은애도 고등학교 졸업하더니 자기도 아빠 찾으러 가겠다고 (2019. 1. 19). 두 아이가 각각 고등학교 졸업 후 아빠를 찾으러 간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늦었지만 신중한 대화를 통해 이혼 사유를 이야기했다. 또 바람직하지 않은 재회에 대한 건도 합의를 볼 수 있었다. 사내아이들의 부친 부재로 받는 상처보다 서로 다투면서 애들한테 끼치는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지금은 모르겠다.”(2019. 04. 10)

연구참여자 2의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아이들의 고모로부터 아버지가 불교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인도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를 찾아 인도에 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작은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역시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이혼은 당사자보다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고 하였다. 정상규·강국진(2010: 30-33)은 대부분의 이혼하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자녀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행하거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라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녀들이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혼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간단한 사건이지만 심리 사회학적으로는 일련의 사건들이 고리를 이룬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야 했다. 이는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분리와 아울러 신체적, 물리적 분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에 관하여 어머니가 설명하였으나 자녀들은 갈등하는 부부 당사자가 아

나라 자녀의 입장이 있으므로 어머니와 자녀들 각각 서로를 생각하며 어려움 속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독립한 현재 그때의 결정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하여 갈등한다. 이혼의 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 ③ 빈 등지에 홀로 남아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다. 가정에서의 대화는 무조건 한국어로 하였고 또 주말마다 한글학교에 보냈으나 주말에 독일 친구들의 초대에 응해줄 수 없어서 아이들이 한글학교 수업을 거부하여 중단하였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에서 1년 언어연수를 했고 대학에서 일어 중국어까지 배웠다...(중략). 자녀들에게 한국 정서교육을 시키는 것은 시간에 여유가 없었고 한국 음식 외에는 제공하지 못했다.”(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에 쫓기느라 의식주 해결 외에 큰 시선을 겨누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아들들의 정서교육에서 실수했음을 깨달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는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지금은 아들과 여행이라도 같이 가고 싶지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2는 이혼 후 자녀들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기에 지금 돌이켜볼 때 후회가 남는다.

### ④ 자녀의 정체성 갈등

“큰아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보냈는데 남동생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카가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내려다보니 학생들의 까만 머리가 개미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울에서 보니까 진짜 머리가 새까맣고 그걸 처음으로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야. 그때 엄마가 읽던 책을 생각했대요. 독일 기자 한 명이 (귄터 발라프) 터키 노동자로 변장하여 일하면서 독일 고용주가 보여준 태도를 그대로 그려놓은 책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머리가 까만 터키 노동자와 같이 생각해서 그러면 자기도 외국인이지 않느냐 막 그려면서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굉장히 우울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부탁했어요. 가끔씩 반 전체 아이들에게 외국인/이주민을 주제로 해서 수업해 달라고. 그런 얼마 후 정상으로 돌아왔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삼촌 집을 방문하였다. 연구참여자 2의 동생네 아파트에서 아이가 내려다본 사람들의 머리가 모두 검은색이었으므로 개미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검정 머리를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당시 연구참여자 2가 읽었던 책이 독일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를 아들이 읽고서 심리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자신의 외모가 독일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독일 사회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독일 사회의 적대감 등을 생각하게 되었고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2는 학교 선생님과 의논하여 학교 수업에서 차별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다행히 잘 극복하였고 지금은 독일의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연구참여자들이 모국의 친족 및 모국 사회와 연결하려는 초국적 활동의 목적에는 자녀들이 있다. 자녀들이 거주국에서 차별과 배제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을 때 어머니 나라의 정체성인 한국인 정체성이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 ⑤ 독특한 동거형태

“독일 남자친구와 초창기엔 부부처럼 화목하게 잘 지냈으나, 언젠가부터 신뢰를 잃게되어 지금은 한 공간에서 간섭하지 않고, 또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타인으로 살고 있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몇십 년 동안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을 부러워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과는 달리 근무를 반, 또는 아주 적은 일부의 시간만 하거나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이었다. 당시 자신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체념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만 했었다. 남편과의 이혼 후 한 독일 남성을 만났고 그와 그의 어머니는 연구참여자 2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2의 아들은 독일인 남성이 자신들의 집에 오는 것은 반대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그 사람과 헤어졌고 후에 만난 사람이 현재의 독일인 남자친구이다. 연구참여자 2는 독일인 남자친구와 10년을 사실혼으로 살았다. 독일인 남자친구는 직업이 교수이며 그의 아내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참여자 2가 이혼하기 이전에 별거한 상태였다. 현재의 독일인 남자친구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2는 왼손을 두 개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의 의미는 돌봐줘야 할 사람 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지만 결국, 알게 된 것은 독일인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독일인 남자친구가 연구참여자 2와의 신뢰를 저버렸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을 인지한 연구참여자 2는 남자친구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헤어지지 않았다.

“항상 집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9. 01. 19)

먼저 이혼한 친구는 연구참여자 2에게 이혼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을 해주

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2가 내린 결정은 같은 공간 그리고 각자의 삶이다. 즉 집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월세는 각자 부담하지만, 이전과 같이 부부가 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 남남처럼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삶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가 독일인 남자친구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사는 집의 구조가 특별하고 그 동네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독일인 남자친구 역시 그런 이유로 그 집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기에 두 사람은 그 집과 동네를 떠나 헤어지기보다는 특이한 동거를 택한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외로움 때문에 독일인 남성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국인 친구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한 말을 일리 있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나 외로움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필요에 따른 공동거주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구참여자 2가 연금을 통한 안정적 경제력이 있기에 독일 남자친구의 신뢰가 상실된 연인 관계를 버릴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

#### (4) 노년의 삶

##### ① 은퇴 후 대학 진학

“옛날, 남편한테서 내 처는 간호사일 뿐입니다.라는 식으로 나를 소개하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옛날 저하고 같이 간호 고등학교에 시험쳐가지고 다 떨어진 여섯 애들은 전부다 대학 가가지고 학사가 됐잖아요. 저는 그때 우연히 (간호고등학교에)합격이 돼가지고 대학을 못나왔지요...(중략). 평생에 내가 못 배웠다는 게 항상 자격지심으로. 남편한테 내가 그런식으로 반응이 나온거는 내가 벌써 상처가 나 있는데 거기다 남편이 소금물을 그런 계기였어요(2019. 1. 19). 이혼 후 어린 자식들 혼자 키우면서 언젠가는 다시 학문의 길을 밟아 남편한테서 당했던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싶었다.”(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중학교 때 혼자만 간호 고등학교에 합격한 후 가족이 모두 반대하는 간호 고등학교 진학을 고집하였다. 간호 고등학교에 혼자 합격한 결과는 당시 연구참여자 2를 가장 실력 있는 학생으로 만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의 결과는 오히려 연구참여자 2를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고 학사가 되었지만, 연구참여자 2는 이주를 통해서 이주노동자가 되고 중학교 학력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남편이 무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아픈 곳을 찔렸으므로 공격적 반응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아픈 상처는 배움의 길을 걸으리라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남편과의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다른 파독 간호사인 한인 여성들의 삶이 부럽게만 여겨졌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은퇴하고 보니 젊었을 때 풀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오히려 노년에는 안정적 노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은퇴 후 연구참여자 2는 성인반 고등학교 과정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 통과하였고 현재는 베를린 자유 대학 학사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배움을 추구하는)진짜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나를 아는 것. 체 하는 자신이 아니고 내 본질을 알아보고 텅텅 빈 머리를 조금이라도 채우는 거. 그거예요.”(2019. 04. 10)

연구참여자 2는 학업을 통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그러면서 후회와 반성도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2가 인지한 못 배운 한은 남편을 통해서 표면화되었으나 그것은 남편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잠재된 것이 표면화된 것임을 알고 있다. 남편과 중학교 친구들을 통해 깨닫게 된 못 배운 것에 관한 자각지심은 독일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상쇄하고 있다. 그럼으로서 자각지심에서 벗어나고 더불어 스스로 치유와 성찰로 나아간다. 연구참여자 2는 친구들과 합창, 무용, 여행 등을 하는 것보다 강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대학에서의 배움은 연구참여자 2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 ② 모국 종교의 위안

“여기 베를린에 정토당이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제가 불교를 접하게 되고 법륜스님 하고도 동영상이나 명언 같은 것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번 그분 영상을 들으면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고 가벼워져요.”(2019. 04. 10)

연구참여자 2는 다른 한편으로 불교 강연을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불교 강연을 듣는 것은 불심을 강화하려는 목적보다는 스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가볍게 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듣는 방법은 모여서 다른 불도들과 함께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 듣는다. 불교는 집착과 소유욕을 경계하고 버릴 것을 추구하는 무소유 정신, 수행과 참선, 검소함, 비폭력 등의 특징이 있다(김창모, 2009: 126). 스스로를 다스려서 주변의 안위를 추구하려는 동양의 종교인 불교는 참선을 통한 개인의 성찰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중심 원리가 사랑이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심 원리이다. 즉 타자와의 소통이 중심에 있다. 이 두 가지 종교의 특성 가운데 독일에서 반평생 가까이 거주한 연구참여

자 2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종교는, 한국적 종교 바탕이다. 연구참여자 2가 불교에 더 가깝게 가는 것은 거주국인 독일의 종교와 종교방식에 적응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이는 거주국 사회에서 소통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종교도 그 나라의 문화방식을 따른다. 한국의 불교가 중국이나 태국의 불교와 근본적으로는 가르침이 같다 하더라도 종교적 문화 행위는 서로 다르다. 더구나 기독교와 불교는 더 많은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와 다름은 이주자들이 거주국의 종교에 진입하더라도 종교문화에 있어서 다르기에 거주국 종교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주자들은 거주국의 종교보다는 모국의 종교에 의지하여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

### ③ 자기 성찰과 사회와의 친목

“저는 지금까지 제 개인 문제만 신경을 썼지 사회적인 거는 하나도 관여도 안 하고 간섭도 안하고 신경을 안쓰고 살았잖아요. 저 혼자만이 아니고 내 주위, 내 사회를 같이 참여를 해야되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안 했으니까 나는 나만 챙기면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체에 들어가서 제가 듣고 배우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 나가는 이유는 그냥 친목 도모하는 거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은퇴 후 사회운동단체에 가입하고 교육을 받으며 단체의 회원들과 친목도 도모하고 있다. 자녀들이 독립하였고 노년이 되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김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연구참여자 2의 첫 번째 결혼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 후엔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했으므로 더욱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리하여 거주국 사회에서 몇몇 친한 친구들 외엔 단체 네트워크를 확장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시집과 친정으로의 연결도 자주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노년에 연구참여자 2의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연결은 튼튼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화를 위한 행보는 막 첫걸음을 뗀 것과 유사하다. 현재 연구참여자 2는 미디어를 통해 한국 소식을 접하고 있다.

“보고 나서 잊어버리지만, 한국 뉴스 JTBC 날마다 봐요. 요새 제일 주제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남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알아야지. 제가 한국에 대해서 모르면 그 우리 \*\*\* 연대 거기 모임이 있을 때 한국 실정에 대한 의논과 토론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듣고 배우려 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독일에 있는 한국인의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관심 영역을 한국 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북한은 동독과 수교를 맺었고 한국은 서독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부터 한국과 북한사람들이 독일 사회

에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하여 독일의 한인 교민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의견은 합일되지 않았다. 소위 빨갱이 프레임과 태극기 부대 프레임이 존재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모임 가운데 개인적으로 선별하여 참석한다. 연구참여자 2는 진보성향의 한국인 단체에 참석하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모국과 거주국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진보성향이고 보수 성향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해하기 위해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였다. 연구참여자 2가 거주국에서 한국인 사회단체에 소속하여 토론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를 접할 때 다음의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힘든 게 한국 뉴스를 봐도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한글 사전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내가 보는데 어떤 거는 참 웃기는게 사전에도 없는 말이 있잖아요. 줄임말 영어단어 줄임말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한국말 발음을 해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국말인가 나중에 보니까 영어를 그냥 한국말로 좀 머리가 빙빙 돌 때가 있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을 떠난 시점은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이다. 1988년에 한글 맞춤법 개정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3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한글 맞춤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더구나 세계가 좁아지면서 한국 사회에 한글만으로 소화되지 못하는 내용이 뉴스와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 생성되는 신조어는 한국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글 변화의 속도에 맞추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현대사회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삶에서 이주자는 거주국의 언어변화뿐만 아니라 모국의 언어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 ④ 향수, 디아스포라

“이젠 옛날처럼 향수에 젖지도 않고, 또 문화, 정서 차이도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귀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의 형제, 친구들의 생활 양상이 너무 급격하게 산업화 되고 물질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70년대의 인간미는 찾아보기 힘들고, 개인 이기주의적 모습들이 이곳보다 더한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귀국에 대한 열망도 퇴색되어진다. 가까운 형제들을 보고싶은 맘 외에는.”(2018. 10. 13)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을 떠날 때는 이주를 목적으로 떠난 경우보다 다시 돌아올 것을 바탕으로 떠났었다. 그러나 이주자로서 거주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연구참여자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한국을 떠나갈 때와는 현저히 달라진 한국 사회



와 한국 사람들이 낯설다. 즉 거주국과 한국이 낯설에서 다르지 않다. 이들이 그리워하는 한국은 이들이 떠날 때의 그 시절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돌아와도 그 시절의 정서가 아니라고 느낀다. 이 주자가 모국과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을 디아스포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모국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달라진 환경에 의해 이산의 고통과 같은 심리적 박탈감과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다. 이주자들이 모국을 향해 갖는 향수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향수이다. 물리적으로 한국에 돌아와도 그 시절 그 정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2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주의 영향을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특성으로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개인의 주체성이고 자기 삶의 주도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체성을 가진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이 약하거나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주에서 주체성과 자기 삶의 주도성이 커졌으나 이주 후 사회적 관계의 약함으로 인하여 소외와 외로움을 갖는다. 사회적 관계의 약함은 모국 친정과의 연결도 소원하게 하였고 남편과의 갈등으로 시집과도 연결이 뜸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할 경제적 기반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거주국에서의 사회적 관계도 협소했다. 그리하여 모국의 가족과 연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보다 비교적 약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이주가 연구참여자 2에게 미친 사회적 영향은 자격지심이었다. 남편과의 갈등에서 그 자격지심은 더욱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못 배운 자격지심을 해소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여 배움으로써 성찰과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아무한테도 소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어디에 속한다고 할 때는 내가 완전히 기기에 속하는 걸 동감하거나 그렇게 느낄텐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도 부족하고 한국 생활도 부족하고 한국적으로 생각도 안할테고, 조금은 하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그렇게는 못하지? 마찬가지로 독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나를 내가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한국적인거하고 독일적인거 하고 내한테 맞는 것만 챙겨서 내 자유로 살고 있잖아요. 내 삶의 형태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한테도 소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2019. 01. 19)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2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냥 흐름에 따라서 불길, 바람길 가는대로 가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어느 민족에 속하고 어느 사회의 구성원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이 정체성이고 그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내 나뭇대로의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바람부는 방향으로 움직이되 나무의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처럼 나의 특유한, 기본 삶의 철학만 지키면 되지 않는가?”(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정체성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외부환경에 따라 변하고 새로운 양상으로 형성된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 2는 스스로 한국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거주국에서도 온전히 소속감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2 역시 여기와 저기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와 저기에서 타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여기와 저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 3) 연구참여자 3 : 사회변화를 꿈꾸는 변혁가

연구참여자 3은 1944년 출생했으며 남동생이 한 명 있다. 1966년 독일에 간호사로 이주하였고 아버지는 경찰이었으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였고 어머니는 장사하여 생계를 이었다.

<표 IV-3> 연구참여자 3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가에서 성장함</li> <li>■ 파독 간호사 지원</li> </ul>
이주 후-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호로 불린 이름</li> <li>■ 한국에 대한 원망</li> <li>■ 반공의식의 내적 갈등</li> </ul>
거주국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여성의 목소리 표출</li> <li>■ 레드컴플렉스의 해소</li> <li>■ 깨어나는 자아, 정체성 확립</li> <li>■ 아들라 백화점 사건</li> <li>■ 한국 사회단체와 연대</li> <li>■ 거주국의 힘을 활용함</li> </ul>
노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의 가족과 갈등</li> <li>■ 서러운 이주자의 삶</li> <li>■ 자기 성찰</li> </ul>

#### (1) 유년-청년기

##### ① 외가에서 성장함

“6.25때 제가 여섯 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혼자 자식들 키워야 하니까. 항상 타지에서 장사하고 외가, 외할머니한테서 컸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큰 집에서 다니고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산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나한테 차갑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모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 못 오시면 대학 다닐 때도 와서 용돈 주고가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관계가 좋았었는데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은 어릴 때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고향마을이 아닌 타지에서 장사했기에 외가에서 자랐다. 그리하여 자주 못 보던 어머니와는 관계가 서먹했다. 연구참여자 3은 고향마을에 있는 OO여고를 나와서 경북대 간호대학에 입학했다. 형편이 어려워 일반학과에 가지 못했고 당시 인기가 있었던 교육대학과 간호대학 중에 간호대에 간

이유는 기숙사가 있었고 학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 10월 전까지 전 수도 의대 부속병원에서 근무했다. 수도 의대 부속병원에서는 특실에 배치되었는데 월급보다 부수입이 더 많았다. 천을 필로 주기도 해서 다른 간호사들에게 나눠주고 동대문에 가서 옷도 맞춰 입기도 하였다. 또한, 바나나는 당시에 매우 귀해서 집에 가져다주면 집에서도 못 먹다가 썩어서 버리기도 했다. 월급보다 부수입이 더 좋았던 직장을 버리고 독일로 이주한 이유에는 동생의 교육을 위한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

## ② 파독 간호사 지원

“간호대 졸업 후 수도 의대 부속병원 특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곳에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하루 신문을 봤어요. 동아일보였는데 간호사 독일 간호사 모집한다고 그래서 가야겠다. 그때 어머니가 서울에 와서 장사하시고 그러니까 동생이 학교를 제대로 못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도 교육시키고 가야겠다. 독일 가야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때가 66년. 완전 초기때예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이 파독을 결정한 이유에는 동생을 교육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다. 병원의 특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근무 환경에서는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으나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는 데에는 큰 역할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생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현실이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독을 결심하였다.

## (2) 이주 후-결혼

### ① 번호로 불린 이름

“거기 가니까 처음에 도착하니까 첫날 독일 간호사들이 나와서 공항에서 이름이 어려우니까 번호로 불러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1966년 10월 15일이었어. 그런데 여기는 가을이 빨리 오고 겨울이 빨리 오니까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버스는 한없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지? 거리에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이 독일에 도착한 날은 10월이었고 비가 왔다. 비가 오는 독일의 10월은 초겨울 날씨처럼 춥고 어두웠다. 이름 대신 번호로 호명되었던 것도 잊히지 않는 독일의 첫 기억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던 친구의 손은 근무할 병원이 달랐으므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각자의 곳으로 갔다. 병원으로 가는 길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두운 거리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한없이 달려가는데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마치 어딘가로

끌러가는 듯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독일에서의 첫날이었다. 20대 초년에 있었던 독일 도착 첫날의 기억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연구참여자 3에게 생생함으로 남아 있다. 병원에 도착한 첫날, 독일 간호사들은 아시아에서 간호사들이 온다고 큰 솥에 밥을 해냈는데 그것이 우유 밥<sup>9)</sup>이었다. 연구참여자 3은 우유밥이 독일의 유명한 음식이고 문화라고 하였다. 그것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멍멍해서 한국 간호사들은 먹지 못했다. ‘으.. 이게 뭐야..’라고 생각했으며, 당시 연구참여자 3은 한국에서 우유 한잔 먹어 본 적 없는 상태에서 독일에 왔었다고 하였다. 가난에 찌들었던, 그래서 이주하였고, 그래서 노동자가 되었으므로 한국에 대한 원망이 우유 한잔 속에 아직 남아 있다.

## ② 한국에 대한 원망

“제가 들어가는 병실에 보니까 50살 이하 사람(독일 간호사)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려. 나는 운이 좋아서 간호업무를 맡았지만 다른 간호사들은 청소부터 시켰어요. 말을 못 해서 다른 일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내가 간호대학 나와서 청소하러 여기 왔나!.....(중략). 어떤 친구는 물동이를 복도에 팍~!! 차버리는거예요. 말은 못 하고 그럼 물이 막 복도 저 끝까지 가잖아. 그럼 퍼들러 앉아 우는 거예요. 다른 간호사들은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울고.”(2019. 01. 23)

독일이 외국 간호사를 독일에 유입한 배경에는 독일 경제의 부흥으로 노동 인력의 부족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독일 구성원의 간호업무 기피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독일의 병원업무 시스템은 환자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간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것과 돌봄에 관한 것을 함께 담당한다. 그런 이유로 독일의 간호사는 한국과 달리 낮은 사회적 위치를 점유한다. 연구참여자 3이 독일에 갔을 즈음 독일 병원에는 젊은 독일 간호 인력이 없었고 하려고 하지 않아서 외국 인력이 유입된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간호업무의 다름과 한국보다 낮은 독일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는 한국 간호사에게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게 했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3은 독일의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은 한국의 잘못을 성토했다. 독일은 보호자가 없는 병실이기 때문에, 청소와 환자 돌봄을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한 간호사 교육에서 알려주었어야 옳았다는 것이다.

9) 우유밥: Milchreis 독일의 디저트. 우유와 설탕과 쌀을 넣어 함께 끓이고 토핑을 얹어 먹는 푸딩 같은 음식이다. 우유와 쌀, 설탕 이외에 다른 재료들(버터, 계피, 초코... 등)을 넣어 종류가 다양하다(네이버 지식검색).

“한국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 해줬어야 해. 우리한테. 그런 시스템이니까. 너희가 처음에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참고 견디라.”라고 해줬어야 되잖아요.”(2019. 01. 19)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을 노동자로 이주시킬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업무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왔지만, 청소와 돌봄 노동을 해야 했던 현실이 더욱 서러웠고 이에 대한 원망은 한국으로 향한다.

### ③ 반공의식의 내적 갈등

“남편은 보수적이지는 않았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나가는거 반대 안 하고 존중 하는거죠. 내 의사를. 그런데 (남편의)친구들도 정치의식이 없고. 자꾸 멀어지는 거야. 관심사가. 그 친구들 만날 때는 내가 가기 싫어서 이유를 대서 안가고. 우리 행사 있을 때 자기도 이유를 대서 안오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게 되는거죠. 그러다가 그런 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남편이 학생 때인 75년에 결혼했고, 90년 초에 이혼했으니까... 15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회계사였는데 자기도 자기 분야의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또 자기가 이제 이해 잘하는 여자 친구도 사귀고 그랬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이주하고 9년 정도 지났을 때 당시 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났다. 연구참여자 3은 남편이 전형적인 독일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고 약간 아시아 사람처럼 머리도 갈색이고 눈도 좀 짙은 것 같아서 호감이 더 갔다고 했다. 남편의 집에 처음 초대받아서 인사갔을 때 독일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인데 연구참여자 3을 위해서 밥을 하며 신경을 쓴 것을 보고 감동하였다.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강연에서 당당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한국 여성들을 보았다. 그 모임은 재독여성 모임이 결성되기 전 모임으로 서로 돕는 여성회에서 하는 심포지엄이었다. 그 모임에서 연구참여자 3은 사회문제의 이모저모를 토의하는 그들을 보면서 매우 똑똑한 여성들이라고 느꼈고 이후 그들과 모임을 같이하고 자주 만나서 토론에 참여하였다. 남편은 처음에 아내가 참여하는 활동에 함께 가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같이하기도 하였으나 부부가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에 점차 각자의 모임에 참여했고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남편의 친구들도 그러했다. 그러므로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스스로를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한 후 1975년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재독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사회 인식과 정치의식이 바뀌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뭔지(몰랐고), 내가 몰랐던 내 안의 박혀있던 반공의식이 꼭 맞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재독여성 모임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의식화가 되었지만, 자신의 남편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에 혼자 스스로 의식화의 과정을 헤쳐나가야 했다고 하였다. 그 과정은 늘 심리적 갈등의 연속이었고 두렵고 긴장되는 내적 갈등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연구참여자 3의 의식에 빨갱이(공산당)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재독여성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였다. 그렇게 연구참여자 3이 정치적으로 의식화하고 사회적 집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결혼 15년 1990년에 남편과 이혼 하였다.

### (3) 거주국에서의 삶

#### ① 이주여성의 목소리 표출

“재독여성 모임에서 이거는 아니다. 당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왔으면서 필요없으니까 돌려보내는 상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2019. 01. 19)

1973년 1차 오일쇼크<sup>10)</sup>가 일어나고 1978년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독일의 부흥하던 경제가 주춤하면서 독일이 취한 정책은 외국 인력의 감원이었다. 독일의 이 정책에 영향을 받은 한국 그룹은 파독 간호사와 광부였다. 독일은 외국인 간호사 유입을 1975년 공식 중단하였고 독일에 1973년 이후 유입된 인원은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3년이 지나면 무제한 재계약을 시켜주던 것을 중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간호사들은 독일의 간호사 귀국 조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1만 개의 서명을 받아 독일 의회를 비롯한 노동청, 병원연합회 등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 연구참여자 3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당시 한국인 간호사들만의 서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한국 교민을 비롯하여 거주국의 구성원들인 독일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로 가능해진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연구참여자 3을 비롯한 한국 여성들이 있었다.

10)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原油)의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하여 야기된 세계 각국의 경제적인 혼란을 말한다.

“우리가 5월에 시작했는데 그해 연말에 벌써 11,080개인가 모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 걸 헤아려서 알아. 숫자를. 그래서 이거를 노동청, 병원청, 여기 있는 정치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다음 해 78년 3월 일거예요. 심포지엄을 해요. 기자들도 초청하고 노동청도 초청하고 우리는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가겠다. 우리는 상품이 아닌데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그거는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조건을 내건 거예요.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무기한 체류허가. 8년 이상된 사람들은 영주권. 그랬더니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2019. 01. 19)

이 경험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3은 “아 우리가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우리 힘으로 뭐든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배웠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3이 본격적으로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효능감으로 작용했다.

## ② 레드컴플렉스의 해소

“광주항쟁이 터지고 사회의식이 되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자각이 된거죠. 광주항쟁이 계기예요. 여기서 광주항쟁을 알리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역할,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우방국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꼭 그런거는 아니구나. 광주항쟁을 통해서 제가 레드컴플렉스가 해결이 된거예요. 광주항쟁이 터지고 나서 유학생, 교민, 교인들, 재독여성회원들이 모여서 대책을 자유 대학에서 모여서 했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였으며, 한국을 떠나오기 전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주 후 재독여성 모임에 나가면서 의식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하여 내적 갈등이 심하였다. 연구참여자 3이 말한 레드컴플렉스는 적색 공포라고 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일컫는다(이민형 외, 2017: 281). 연구참여자 3이 적색 공포라고 불리는 레드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시작한 것은 5.18이 기점이 되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방송을 통해 5.18의 실상이 그대로 전해졌고 방송을 시청하던 한국인들 가운데는 실신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5.18 관련 다큐를 보면서 연구참여자 3은 정치의식에서 레드컴플렉스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공산당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유학생, 교민, 재독여성회 등이 모여 5.18을 대외에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유 거기 빨갱이 집단 아니야? 생각하다가 또 (날짜가)되면 가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알고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열악함과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조금씩 눈이 떠가는데 그래도 레드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어.”(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재독여성 모임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받으면서도 반공교육에 의하여 내적으로 레드공포증을 심하게 앓았다. 이처럼 내적 갈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독여성 모임에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여 참여한 이 과정이 의식변화에 밑받침 역할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독일 방송에서 방영한 5.18이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의식화된 변화에 확실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주 전에는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주 후 민주화 교육과 5.18을 접함으로써 의식에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 이 의식의 변화는 연구참여자 3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 ③ 깨어나는 자아, 정체성 확립

“저희들이 1986년쯤 돼서 재독여성 모임에서 한독문화협회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느냐 하면 재독여성 모임은 한국 사람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여성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을 열자. 두 번째 이유는 독일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자.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식들은 2세대이고 3세대로 넘어가는데 그런 애들한테 정체성과 한국문화를 전수해주자 그랬죠. 그리고 재독여성 모임은 사회활동을 많이 했고 한국 여성 노동 현황도 알리고 인권 현황도 알리고 하면서 집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안 와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문화팀을 만들어서 2부를 문화 공연을 한거예요. 풍물도 하고 한국 무용도 하고 탈춤도 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러 많이 오는 거예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이 소속된 재독여성 모임은 1986년에 한독문화협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협회를 만든 이유는 한국 여성뿐 아니라 독일 여성들도 재독여성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협회에서 한국 문화 공연을 하면서 2세대들에게 문화교육을 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연구참여자 3은 한독문화협회에서 활동하면서 2세대들 뿐만 아니라 독일 아이들에게 농부가를 가르치고 춤과 소리도 가르쳤다.

이러한 활동은 베를린에서 운영하여 오전에는 언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문화를 가르치고 밤에는 한국 문화를 공연하였다. 이를 ‘단비’라는 한국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했고, 1994년에 연구참여자 3은 천둥소리를 결성했다. ‘천둥소리’는 한인 2세대들과 입양아 가운데 1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사물놀이패이다. 처음에는 재독여성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공연을 했지만, 문화 공연을 통해서 2세대의 활동 영역도 넓히고 거주국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면서 자부심도 생기는 등 다양한 긍정의 효과를 가졌다. 이뿐 아니라 재독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들풀’을 만들어서 농악을 공연했다. 연구참여자 3의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려는

이유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공장의 불빛’이라는 연극 공연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사로 왔지만, 한국에서 간호사를 그 당시에는 좋은 직업으로 보고 노동자로 안 봤잖아요. 우리가 독일에 와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우리도 여성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한국과 독일에서 간호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주하여 한국 사회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독일 사회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이주한 여성 노동자로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3과 재독여성 모임 회원들은 ‘공장의 불빛’이라는 공연을 독일의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어로 하였다. 이 연극은 1985년에 공연되었으며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공장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극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연극을 하면서 독일에 여성 노동자가 되어 이주한 자신이 서울로 상경한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과 같다고 느꼈다.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각색해서 춤과 노래로 다시 만들어서 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착취 당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각성해서 여성 조합을 만들어 투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2019. 01. 19)

이 연극을 공연하면서 연구참여자 3과 다른 한국 여성들은 극의 내용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감정 이입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하였다. 그리고 연극 속의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상자들에게 투쟁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도 그러한 투쟁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동기도 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공장의 불빛을 공연하던 그때가 행복했다. 함께 공연하며 울고 웃으면서 노동자로서 자신을 인지하였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자아의식이 깨어나던 시기이다. 이때는 결혼하여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활발히 활동했다. 시어머니도 연극 공연을 관람하러 왔었고 거리 공연을 할 때는 자녀들도 공연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1966년에 독일로 이주하였고 1975년에 결혼하였다. 그리고 재독여성 모임을 통해서 의식화되고 사회활동과 사회적 연대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 시기에 한국 사회는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발전이 눈부시게 일어나는 시기로 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고 노동력의 착취와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독일에서 연구참여자 3과 동료들은 한국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한

국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독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펼쳐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을 마련하여 한국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3은 독일에서 2세대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를 전수하고자 하였다.

“2세대들은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왜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되고 왜 내가 한국 문화를. 나는 도대체 뭐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정체성과 한국문화를 전수해주자. 여기 있는 2세대들이 한 번은 꼭 정체성 혼란을 겪는데 잘 해결하는 애들은 자기 정체성을 두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 두 개의 정체성을 하는 거예요. 독일하고 한국. 그렇게 생각을 하니깐 나한테 이익이 많다. 나는 독일 사람이 부러워할만큼 부러워할 두 가지 문화를 내가 접촉할 수 있다. 애들이 그렇게 이중 정체성 또는 이중 문화 그것을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은 2세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거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거주국의 국민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 사회의 현실은 그들을 차별과 배제의 현장에 둔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3은 2세대를 모아서 거주국에서 문화 공연을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천둥소리’라는 청소년 사물놀이패를 구성했다. 천둥소리는 재외동포 2세대들과 입양아로 구성된 10명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여러 다문화 경연대회에서 상을 탔으며 미국 백악관과 한국 광화문에서 공연할 만큼 활동이 활발했다. 거주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 그리고 입양된 한국인들이 정체성 갈등을 겪을 때 한국의 전통문화는 이들에게 한국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인 정체성은 2세대들이 거주국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를 2개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여겨 정체성 갈등을 헤쳐나가도록 하였다.

천둥소리의 회원 가운데 두 명은 독일 음악가와 함께 ‘수’라는 그룹을 만들어 음악 활동 중이고 다른 아이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운동권 부모의 자녀들이라서 한국의 정치 상황은 잘 듣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문화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여 한국 종합 예술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다. 2세대들이 정체성 갈등을 겪는 것은 거주국 사회의 편견이 존재함에 대한 반증이며, 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대처 전략은 어머니 나라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자녀들이 거주국 정체성과 어머니 나라의 정체성, 즉 두 개의 정체성으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한편, 2세대들도 그들 스스로 심포지엄을 열어 차별과 편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다.

“2세대들이. 뭐냐하면 독일이 통합, 사회통합에 성공한 케이스가 베트남하고 한국인 거예요. 한국이 제일 적응을 잘해요. 베트남도 잘하고. 그러니까 무스타 솔라라고 본보기 학생들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반발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스타 솔라? 본보기 학생? 왜?! 그러면서 자기들이 심포지엄을 한적이 있어요. 본보기 학생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차별은 없는가? 그걸 주제로 한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아시아 사람들을 평범한 여기 하나의 독일에 사는 국민들이라고 생각 안하고 거기에 속하는 엑소틱(exotic) 거기에 있는 차별은 없는가? 그런 주제예요. (차별을)느끼는 거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2세대들이 독일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관한 심포지엄을 한 것을 지켜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학생들이 독일 사회에서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은 독일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그룹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독일 사회가 아시아 사람들을 이국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그들은 이미 독일 구성원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을 이국적으로 보는 관점이 가진 차별은 없는가? 에 관한 청소년들의 토론이었다. 이러한 것은 한국 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행위이다. 연구참여자 3은 독일 사회가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차별에 있다고 말한다. 독일에는 182개의 민족이 있으나 독일민족과 이들 182개 민족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은 주류문화이고 다른 사람들은 비주류문화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문화가 아니기에 다문화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주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협상하게 하는 요소에는 차별이 있다.

“다문화는 되지만 상호문화가 안돼.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주류문화를 비주류문화에 입력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주류문화들이 동등하게 인정이 돼야지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독일 주류문화에 문화적 소수자인 이주자들을 편입하고자 하는 것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2세대도 독일 사회에서 차별을 느꼈기 때문에 심포지엄을 열어 차별을 주제로 토의하였다. 이주자와 원주민 사이의 문화간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대립하는 주체들의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3은 이주자로서 그의 생애 전반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더 큰 목소리를 생성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한국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위를 통해, 때로는 심포지엄을 열고, 강연,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일이 자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참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연구참여자 3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어떤 일이 목표하는 대로 되도록 실행하는 것이 연구참여자 3이 이주자를 타자로 대하는 거주국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이다.

#### ④ 아들라 백화점 사건

“우리 신세가 한국에서 돈 벌려고 독일에 온 신세나 한국 시골에서 서울 공장으로 돈 벌러 온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를 하기 시작해요.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착취를 집회 같은 것을 해서 독일에 알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음식을 해서 팔아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매달 한국에. 그런 일을 했죠. 내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조그만 힘이지만 기여를 해야 되겠다.”(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독일에 도착해서 간호업무를 실행할 때 독일과 한국의 간호 시스템의 차이를 모르고 이주하였다.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었으나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연구참여자 3은 재독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의 노동력 착취 현실과 국제관계, 정치적 의식화 등을 교육받고 토론하면서 한국에 있는 여성 노동자와 파독 간호 노동자인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를 차별하는 한국 사회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결심을 실천하는 길로 나아갔다. 연구참여자 3의 한국 여성 노동자를 위한 투쟁과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곧 그녀 자신을 위한 투쟁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방직공장에서 일어난 여성 노동자 착취에 관한 시위에 참여하여 개선을 요구했다. 그 공장은 독일 기업이 한국에 세운 방직공장이었다.

“(한국)이리에 독일 방직공장을 세운 거예요.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견디다 못해서 독일에 왔다 간 간호사 한 사람을 통해서 재독여성 모임에 편지를 보내요. 그 방직공장이(운영하는) 백화점이 여기 몇 개 있어요. 아들라<sup>1)</sup>라고 지금도 있어요. 아들라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의 불매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를 도와달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와달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여성 조직들. 교회에서 하는 노동운동 조직들. 청년운동 조직들과 연대를 해서 아들라 사건을 시작을 했어요.”(2019. 01. 23)

11) 1987년 8월15일, 독일 아들러 기업이 운영하는 9곳의 옷가게에서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옷만 불에 타서 기업에 대한 재산 피해만 입힌 사건이었다. 이 방화사건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미궁에 빠져 있을 때, 사건 사흘 뒤인 8월18일 독일 언론 <타츠>(TAZ)에 한 성명서가 실렸다. “한국 아들러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력 착취와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대해 투쟁하고 있다. ... 아들러의 9개 지점은 우리에게 의해 불길에 휩싸였다. 우리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타오르는 불길로 한국 여성 노동자에게 연대 인사를 보낸다.” 이들은 독일의 급진 페미니스트 케릴라 조직 ‘로테 초라’(Die Rote Zora)다. 항의 서한과 연대투쟁 등이 별다른 진전이 없던 와중에 ‘로테 초라’의 공격이 발생했고, 후레아 패션 공장 노동자의 투쟁은 승리했다. 아들러 기업은 노동자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 ‘해고노동자 복직’ ‘노조 결성 허용’ 등을 받아들였다(한겨레 인터넷 신문 2019. 9. 24일, 채혜원 ‘독일과 한국 여성운동 연대’).

연구참여자 3이 속한 재독여성 모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보낸 편지였다. 독일 아들러 백화점이 소속된 모기업에서 한국 이리에 공장을 지었고 그 방직공장에서 여성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독일 사회에 알리고 독일 본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독일의 여성 사회운동단체 가운데 '대지의 여성단체'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곳과 연구참여자 3이 속한 단체가 연대하여 한국에 있는 독일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실상을 독일에 알렸다. 그리고 한국 공장의 모체인 아들러 백화점 앞에 가서 불매운동을 하고 그들과 협상하였다. 그와 동시에 한국 이리(1995년 익산시로 변경됨)에서는 이리대로 여성단체들이 저항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장하고 회사들이 아무리 우리가 난리를 직여도 안 해줘. 그런데 붉은 초라는 여성 지하조직이 있대요. 누가 누군지 완전히 비밀이니까 우리는 몰라. 밤에만 모여서 지하조직에서 일하는데 독일 전역에 있는 그 백화점 여덟 군데에 불을 질러요.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회사만 피해가 온거죠. 그때 몇 억인가 피해가 온거야. 그때 손을 딱 들었어요.”(2019. 01. 23)

한편, 한국에 세운 독일 방직공장의 여성 노동력 착취에 관한 실태를 독일 본사에 알렸음에도 독일 회사는 변화가 없었다. 그리하여 붉은 초라는 독일 내 여성 지하조직에 의해 아들러 백화점 9개 모두에 방화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아들러 백화점은 저항 세력에 굴복하여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파독 간호사 귀국 반대 시위에서 아들러 백화점 사건, 그리고 독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족적 차별 등에 관한 반대 시위 등 다수의 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사회적 저항을 실행하면서 연구참여자 3은 활동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의 활동이라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지 몰라도 뭔가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라 하였다. 거창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한국의 민주화에 도움이 될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연구참여자 3은 한국소재 독일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동환경과 임금, 업무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연구참여자 3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다.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민족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이런걸 하면서 꾸준히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거기 제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하는거예요.”(2019. 04. 10)

연구참여자 3은 어느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형태에서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된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한쪽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자신이 몫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타자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연구참여자 3이 지속하여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참여할 동력을 지원한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3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 ⑤ 한국 사회단체와 연대

“한국에 ‘이주민과 함께’라는 단체에, 재분배재단 프로젝트에 신청해라. 그렇게 내가 권고를 한 거예요...(중략). 결혼이주민 통역사를 거기에서 양성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 네팔에서 온 여성.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역사를 배워서 자국민들을 통역하러 나가는 거예요. 노동이주민이 법원에 갈 때 같이 가서 통역을 해주고 그럼 법원에 가려면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배우는 재정을 여기에서 후원해준 거예요. 제가 나가는 재분배재단에서, 저는 한국에 와있는 여성 이주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의 한 독일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50억 마르크를 상속받았는데 그 사람은 아나키스트(anarchist)였기에 상속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자 하였다. 그때 만든 재단이 재분배재단이었고 그 재단 안에 여섯 개의 분과(여성분과, 아시아분과, 아프리카분과, 라틴아메리카분과, 터키분과, 제3세계분과)가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3은 여성분과에서 일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주민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 단체에 독일에 있는 재분배재단에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여성분과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을 넣어서 신청하도록 하였고 그것이 통과되어 재분배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결혼이주 외국 여성이 한국 역사, 법, 의료 등에 대하여 통역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외국 여성과 노동자들을 위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 현재 한국의 한 광역시에서 근로자 센터를 운영하려 할 때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이 이주민 단체에 위탁하였다.

그리하여 매일 이주민들이 오면 상담하고, 병원에 가면 따라가서 통역하는 등의 일을 한다. 연구참여자 3이 한국의 이주민 단체가 성장하도록 미리 도움을 주고 연결한 것이 결혼이주 외국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자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연구참여자 3의 선행된 이주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그가 연관된 단체의 활동에 대한 경험치를 한국의 이주단체와 소통하여 전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3이 한국의 이주단체와 협력하여 한국으

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한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연구참여자 3과 같이 재외에서 활동하고 한국으로 초국적 연결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선행된 경험이 있다. 연구참여자 3은 자신도 독일에서 결혼 이주 외국 여성이기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과 동질감을 가진다. 그러므로 한국의 이주단체와 결혼 이주 외국 여성을 돕는 행위 역시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된다. 한편, 연구참여자 3은 한국의 이주 노동자와 연계하여 양국을 오가며 강연하면서 연대를 강화한다.

“간호사 투쟁사례부터 독일에 와서 한국 이주민들이 했던 민주화 운동. 광부들의 일생. 광산에서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 하여튼 10명이 가서 발표를 많이 하고 순회강연을 했어요. 당시에 한국 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를 초대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에 가서도 발표하고 우리가 2007년에 한국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2010에 여섯 명을 초대해서(금속노조 사람 2명, 4명은 이주민-중국,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렇게 와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함부르크에 가서 한국의 이주민 현황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의 ‘이주민과 함께’와 꾸준히 연대하고 있어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은 한국과 독일에서 여러 개의 사회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독일을 왕래하며 순회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강연의 주제는 한국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에서 했던 민주화운동, 광부들의 삶 등이었고 한국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초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독일에 방문하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함부르크에 가서 한국의 이주민 현황에 대해 강연하면서 서로의 사회활동과 노동운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나누었다. 연구참여자 3은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어야 함을 한국 이주민 단체에 알려주었다.

“제가 2006년 처음으로 이주민 단체를 방문했을 때 이주민 심포지엄을 하더라구요. 가보니까 전부 다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주민들은 없어. 보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독일에 가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다. 이주민들이. 독일 친구들이 도와주기는 했지만은. 독일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았다. 이주민 심포지엄에 이주민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랜거예요. 지금은 이주민 활동가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이 이주민으로서 독일에서 사회운동하며 활동한 경험들은 한국 사회의 사회활동가들에게 전달되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억압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뿐 아니라 외국 이주여성들 스스로 주체적 활동을 하도록 도왔다. 연구참여자 3은



한국 이주민 단체의 심포지엄에서 이주민은 없고 한국 사람이 모임을 주도하는 것을 보고 개선하도록 도왔다.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해야 발전한다는 원리를 전달한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모임에서는 실제로 이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주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성장하였다. 이러한 초국적 활동은 연구참여자 3에게 성취감과 효능감을 주었다.

### ⑥ 거주국의 힘을 활용함

“코리아 협의회(한독단체)는 모든 정보가 독일말로 나가요. 진보단체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예요. 1990년에 결성됐어요. 한독단체니까 한국 정보를 독일에 알리고 독일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단체. 한국에 무슨 일이 터지면 성명서도 내고 지난번에 5.18 망언들이 아직도..., 북한군이 개입을 하고 그런 거에 성명서를 내면 한국 방송에서 그런 거 다 나왔었어요. 소녀상 문제 그런 것도 꾸준히 전시회 행사를 하면서 독일 사회에 알리고 독일 정부가 성명서 같은 거를 낼 수 있도록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2019. 04. 10)

코리아협의회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독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한국 진보단체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생성되면 이에 개입하여 독일 사회의 목소리로 그러한 것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정 소식이 한국 방송으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정치에 관여하고 간섭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3이 속한 단체는 한국 사회를 향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독일 사회에서 형성하여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독일 정부에 로비하여 한국 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외에도 연구참여자 3은 거주국에서 한민족 유럽연대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2013: 158)에 의하면 재외한인 단체 등은 한국 내 양심수 석방 운동, 민주인사 명예회복,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극복 운동 등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유럽에 사는 동포사회의 권익을 옹호하고 2세들의 자주적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 활동한다. 이러한 활동에 연구참여자 3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거주국에서의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보내기 위해 활동하는 것과 아울러 연구참여자 3은 거주국 내에서 다른 민족단체들과 연대한다.

“독일 평화운동 할 때도 나가서 같이 시위하고 그래요. 거기서 한국 사람은 하나도 만나와요. 그냥 커뮤니티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할 때, 독일 친구들한테 연대를 호소할 때 우리

도 그 친구들과 연대를 해야되잖아요. 그죠? 외국인 차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터키 사람들 시위할 때) 우리가 나갔었는데 나가면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위안부 문제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한독단체에서는 위안부 소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여성들이 자기 일본 사람들이지만 일본 정부가 잘못한다는 것을.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한국에 가서 기생관광 하는 것(80년대 말)을 반대하는 그때부터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위안부 독일 사람,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죠.”(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은 자신들만의 목소리가 아닌 거주국의 다른 민족,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연대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시위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힘을 빌어오자면 그들이 시위할 때 한국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시위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으며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하였다. 그것이 연구참여자 3이 보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시위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것은 한국인들이 독일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선호되는 이주민 그룹이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취하는 이러한 방법과 달리 연구참여자 3은 집회에 참여하고 다른 단체나 조직과 연대하여 힘과 목소리를 형성하고자 한다.

“한국 사람만 뽉뽉 뭉쳐가지고 여기 독일 사회에 그거를 어필을 안 한거예요. 독일 사람들 상대해서 뭐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외국인 차별 대우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 데모에 안 와요. 한국 사람은 조금은 선호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터키나 이런 나라들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터키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이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한국민족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터키와 같은 이주 인원이 많으며 독일 사회에서 우선하여 갈등이 있는 그룹과의 문제를 해결하려 독일이 신경을 못 쓸 뿐이라는 것이다. 거주국에서 이주자로서 받는 차별에 시위로써 대응하고 거주국 내 다른 민족단체들과 연대하여 목소리를 형성하는 것은 연구참여자 3이 거주국 사회와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연구참여자 3은 이주자로서 거주국에 살면서 거주국 구성원들이 이주자가 그들의 직업을 빼앗는다고 여겨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대응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사회의 불합리한 측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 열정에 의해 사회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다. 연구참여자 3은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활동하였고 이를 위해 거

주국의 사회적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 (4) 노년의 삶

##### ① 모국의 가족과 갈등

“한국에 가서 한 3-4일 지나면 딱 스트레스가 와요. 동생이 또 보수적이에요. 입만 열면 요즘은 누구 욕을 하더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대답도 안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확 올라와서 싸우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빨리 독일 가야지. 옛날에는 연금 받으면 반년은 독일에서 살고 반년은 한국에서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한국에는 그냥 가끔 가는 걸로. 행사 없으면 나는 (한국에)안 나가요. 싱가포르는 진짜로 손자들 보고 내 휴가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가면 휴가가 아닌 거예요. 행사 참석하는 것도 휴가가 아니고 동생 집에 있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휴가가 아니예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한국에서 살았다면 자신도 다른 한국 엄마들처럼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이며 미국이 우방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이주하고 의식화하면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얻는다. 연구참여자 3은 특히 한국의 여성 노동자를 돕는 활동에 참여하였고 나아가서 1990년대부터 2000년 이후의 기간에는 결혼 이주 외국 여성과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3 자신이 독일에 이주한 여성 노동자라는 인식과 그리고 독일 남성과 결혼하여 독일에서는 결혼 이주 외국 여성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외국 여성과의 동질성,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에서 이주노동자라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동질감은 연구참여자 3이 한국의 노동단체나 다문화 단체 등과 연계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3과 정치적 관점을 달리하는 남동생과의 소통은 매우 불편하다. 심승환(2011)의 주장처럼 서로에 대한 공감의 결여는 상호이해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남동생과의 갈등은 개인을 넘어서서 한국과 독일 사회의 사회적 시스템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 후 연구참여자 3은 의식화 교육에 참여하고 거주국과 모국에서 각종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사회의식이 깨어났고 활발히 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이는 독일 사회가 타자의 의견에 배타적 반응을 보이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 자체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사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어떠한 사안을 자신과 결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작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집단문화권으로서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빚어진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3과 동생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 차이에 의한 갈등을 포함하여 두 사회의 문화와 소통방법의 차이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 ② 서러운 이주자의 삶

“이주는 개인적인 성찰도 있고 개인적인 운명의 바꿈(도 있고). 한국에 살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서럽죠.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자기 나라에서 안 사는 게 사실은 우리 같이 정체성이 형성돼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도 또 다른 고향이라고 생각은 머리로서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생각이 안 될 때가 많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이주를 통해 자신의 삶도 바꾸고 운명도 바뀐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나라에서 살지 않는 이주자의 삶이 서럽다고 표현했다. 그렇다고 한국에 남아 있었을 삶이 그리운 것은 아니다. 그저 이주자의 삶, 타국에서의 삶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 머리로는 거주국을 고향이라고 여기지만 가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주국에서의 노년은 한국적 정서를 유지하고 불교를 통해 자신을 수련한다.

## ③ 불교를 통한 자기 성찰

“2주에 한 번씩은 법회에 나가고 운동 매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명상하고 치과에도 가고 정기적으로 심장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으러 가고 산책도 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는 거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한국 영화도 많이 보고 한국 책도 많이 읽고, 소설책도 많이 읽어요. 신간들 다 매년 이상 문학 전집 사서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걸 매년 보고, 독일 TV는 잘 안 보고 뉴스만 보고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극장도 혼자 가면은 이상하더니 요즘은 혼자 극장에 가서 봐요....(중략). 불교는 마인드 컨트롤이 많으니까, 이게 나의 수행에 좋다.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는 수업이니까.”(2019. 04. 11)

연구참여자 3은 독일에서 살지만, 한국 책을 읽고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며 한국의 대중적 종교인 불교를 통해 자신을 수행하며 여가를 보낸다. 즉 거주국에 살지만, 거주국 속에 한국을 구축하여 살아간다. 연구참여자 3은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 않았고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만의 정체성은 아니며 이주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 3은 독일 사회에서 배우고 익힌 각종 집회 경험과 이주자의 삶의 경험을 한국 사회의 이주민 단체 등과 공유한다. 연구참여자 3은 한국과 연계하고 집회와 시위 등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

신의 존재 이유를 형성한다. 연구참여자 3이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초국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이주자 단체와 연계하고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을 돕거나 거주국 사회의 단체들과 협력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기저에는 과르니조의 설명을 연결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과르니조 외(Guarnizo, et al., 2003: 1218)는 이주자가 모국을 향하여 행하는 “초국적 활동은 이주자의 지위 상실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독일에 도착하여 일하면서 자신이 여성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의 여성 노동자와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였고 한국 여성 노동자와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 외국 여성들과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그들을 돕는 활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결국 이주노동자가 된 자신을 위한 초국적 정치 활동이다.

연구참여자 3의 이주의 영향은 첫째 개인적으로 연구참여자 3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이주 후 재독여성 모임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국제 정세와 양국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가지는 것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정점은 독일에서의 5.18 다큐 시청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그동안 자신의 내부에서 갈등하던 레드کم플렉스를 이 지점에서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주국과 모국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펼쳤다.

둘째, 연구참여자 3의 초국적 활동에는 연대가 있다. 한국의 여성 노동자를 위한 투쟁으로 거주국의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주체성을 갖도록 한국의 이민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다른 국가의 민족단체와 연대하여 시위와 집회에 참석한다. 그러한 활동의 이유는 목소리를 생성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셋째, 연구참여자 3은 이주자의 삶이 기본적으로 서럽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이미 성인이 되어 정체성이 형성된 상태로 이주하였기에 거주국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생각을 머리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안된다. 연구참여자 3은 자신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여긴다. 독일에서 한국 방송을 보고 한국어책을 읽으며, 한국 음식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서운하고 김치가 항상 냉장고에 있어야 한다. 이처럼 독일에서 한국을 구축하고 살면서도 한국인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 와도 역시 다시 타자가 된다. 두 개의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두 사회 어디에도 안착하지 않았다.

#### 4) 연구참여자 4 : 부드러운 협상가

연구참여자 4는 1947년에 태어났으며 다섯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는 집안에서 남동생 바로 위의 누나로 태어났다. 남동생이 태어나도록 연구참여자 4의 이름은 남자 이름으로 지어졌다. 1972년 스위스에 간호사로 이주하였으며 자녀는 2명이 있다. 스위스에서 5년을 근무하고 독일로 이주하여 47년째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표 IV-4> 연구참여자 4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가 가산을 빼돌림</li> <li>■ 주경야독(晝耕夜讀), 그리고 파독(派獨)</li> </ul>
이주 후-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국 언어와 업무 적응</li> <li>■ 한국 어머니의 교육 열정</li> </ul>
거주국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라진 한국의 위상</li> <li>■ 거주국 구성원과 협력함</li> <li>■ 양쪽 사회를 연결함</li> <li>■ 외롭지 않은 노후</li> </ul>
노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자의 치매, 질병</li> <li>■ 긴장된 이주자의 삶</li> <li>■ 한국 사회의 이슈에 관심</li> </ul>

##### (1) 유년-청년기

###### ① 양자가 가산을 빼돌림

“아들을 우리 엄마가 양자 들인 거... 마포였어. 그 땅이 그때 다 날라가고. 그 사람이 선수를 쓴거야. 항상 엄마가 그거를 마음아파 하신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밀가루를 먹어도 그 오빠한테는 쌀밥을 해준 그런. 그때는 아들이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들이 요만하니까. 조그맣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듬직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을 푹 믿은 거야. 그래서 전부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고생이 시작된 거야. 그때 당시 당신이 바보 같아서 우리를 잘 키우지 못했다. 그러는 거라. 그래서 엄마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건 다 지나간 일들이고 다들 결혼해서 잘들 살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의 집은 서울 마포에 논밭이 있었으며 당시 5, 6세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렵지 않았던 가정형편이었으나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여섯(1명

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5명이 됨) 자녀를 돌보는 중에 양자를 들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 품꾼을 사면 품꾼들이 3일이면 할 일을 5, 7일을 하여서 품값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어머니는 대신 양자를 들여 양자가 드센 품꾼들도 관리해주고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해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 양자가 모든 가산을 빼돌렸고 연구참여자 4의 가족은 살던 집도 내주고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되어 생활이 몹시 곤궁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는 수제비를 주어도 양자에게는 밥을 해서 주는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그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그 일이 연구참여자 4의 어머니 마음에 한으로 남아 평생 ‘내가 못나서 새끼덜 고생시켰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평생 너무 많이 어머니가 그 일로 인해 미안해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애통해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이제는 그만 잊으시라고 하여도 소용없었다. 어머니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 양자 프레임은 연구참여자 4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 4는 평생을 사는 동안 정직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았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왔다. 연구참여자 4의 어머니가 평생을 애달프게 여긴 그 사건의 교훈이 연구참여자 4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 요소가 되었다.

## ② 주경야독(晝耕夜讀), 그리고 파독(派獨)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고 하는 것도 아르바이트하면서, 교환수 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밤에도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내가 일을 했어. 그때는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지. 학교 나오면 바로 거기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아침 6시부터 7시에 또 일했어. 한 시간을 더 한 거지.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하고 학교 가고 그랬어.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나중에 내 직업으로 쓸건데 국가고시에 떨어지면 국가고시에 2번인가 3번 떨어지면 취득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한번 떨어지면 우선 자존심도 그렇지만 이 용기가 없어지지. 그래서 안되겠다 내가 간호사 국가고시를 봐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2018. 10. 12)

여섯 명 가운데 다섯째 딸로 태어나고 아래로 남동생 한 명을 둔 연구참여자 4는 가정 형편상 중학교 들어갈 때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각각 1년씩 늦게 학교에 들어갔고 신문 배달, 전화교환수 등을 하여 학비를 조달했다. 대학을 들어갈 시기에 언니들도 대학에 간 사람이 없었기에 어느 학과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단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시 약사가 잘 되었기에 약대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졌다. 그리고 친구가 OO대에 간호대가 새로 생겼다고 하여 지원했고 합격했다. 연구참여자 4는 그때 만약에 약대에 합격이 되었어도 등록금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교 때는 전화교환원으로 일하며 학교에

다녔다. 낮에 학교에 다니고 저녁에 일하면서 피곤하여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학점을 못 받아 유급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시기에는 전화 교환 일을 그만두고 학업에만 집중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동 대학의료원에 취업하였고 얼마 후 파독 간호사에 지원하여 스위스로 가게 되었다.

“내가 그 당시 OO의료원 분만실에 근무하다 갔는데 어우 친구들이 “야 너는 좋겠다. 스위스도 가고” 또, 산부인과 과장이 어 그때는 우리 간호사를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미스O... 미스 뭐 이렇게 불렀어요. 어 미스O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파티도 해주고 자기네들이 사인해가지고 큰 꽃병이 있어. 그거를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꽃병에다가 밑받침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꽃병 놓은 거. 큰 선물이었어요. 내게는. 그거를 지금 2019년 현재 47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데 안 깨졌어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료원에 근무할 때 친구들은 종종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연구참여자 4도 미국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년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했다. 임상 경력이 없었고 미국에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4는 미국을 포기하고 대신 파독 간호사가 되어 스위스로 가게 되었다. 스위스에 간호사로 가게 된 것은, 주위의 부러움이 되었으며, 그때 함께 근무하던 병원 의사와 동료들이 나무 받침이 있는 커다란 도자기 꽃병을 선물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그것을 귀한 선물로 여겼다. 그리고 이주하여 생활하면서도 47년 동안 원형 그대로 보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4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소중하게 관리하고 간직하는지를 알 수 있다.

## (2) 이주 후-결혼

### ① 거주국 언어와 업무 적응

“스위스는 스위스 독일말이야. 스위스 사투리가 들어가면서 이게 표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배우는 게 힘들지. 스위스는 말 배우기가 힘든게 거기는 불어도 쓰고 이탈리아말도 쓰고 영어도 쓰고 그래요. 스위스는 네 나라말을 써요. 래트로 로매니쉬라고하고 이탈리아쉬, 그담에 불어 그담에 스위스 독일말. 스위스 독일말이 우리한테는 사투리예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외국에 가고 싶었고 가게 되면 영어권 나라로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했지 독일어를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스위스로 가게 되었



고 연구참여자 4는 스위스에서 한 달간 독일어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스위스에 오기 전 독일어 집중코스로 2개월 배웠다. 그런데 스위스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스위스 사투리), 영어를 사용한다. 그 가운데 연구참여자 4는 표준 독일어를 배웠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독일어는 스위스 사투리 형태의 독일어였다. 언어적응이 매우 어려웠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연구참여자 4가 간호사로서 업무를 볼 때 환자들을 대하게 되는데 거주국 언어의 다양성은 이주자로서 연구참여자 4에게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환자들도 각계각층 사람이 오잖아요. 내가 신경외과에 있었는데 알콜 중독자들도 오고 그러잖아. 정상도 아니고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 신경외과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하나 정신이상인가 그런거 물어보면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 질문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에 연구참여자 4는 중환자실에서 대부분을 근무했다. 은퇴할 때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중환자실은 다른 면에서 전문성을 요구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했고 환자의 상태와 상황을 그때그때 의사에게 설명해야 했다. 몸이 많이 불편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극히 제한된 환자의 불편사항을 살피는 연구참여자 4의 업무는 일상의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상황과 상태를 세심히 살피는 능력으로 활용되었다.

## ② 한국 엄마의 교육 열정

“남편하고 처음에 힘들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나는 애네들이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어릴 때는 다 놀려고 하지 (공부)하려고 해요? 피아노, 플룻, 발레, 성악, 발레도 네 살부터 시켰어. 한글학교도 그렇고 이 피아노 치는 것도 아주 싫어해. 연습을 해야되잖아. 그러면 애들은 하기 싫어 죽겠는거라. 그러면 아빠가 이런 것을 보잖아. 그러면 하기 싫어하면 그냥 놔두라고 그래. 강제로 시키냐 이려는 거라. 그리고 저렇게 싫어하는데 꼭 해줘야되느냐. 애네들도 생각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그런거. 갈등이야. 당신, 아무 소리 하지 마쇼. 애네들 놓고 싶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리다...(중략). 내 욕심에는 계속해주고 싶었지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첫 번 결혼에서 아들을 낳은 후 남편이 연구참여자 4에 관하여 집착이 강하였기에 1년 뒤 이혼하였다. 그리고 6년 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였다. 그 후 아들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남편에게 입양하였다. 현재의 남편과 결혼 후 딸을 한 명 더 낳아 자

녀는 아들과 딸이 있다.<sup>12)</sup> 연구참여자 4는 교육열 높은 한국 엄마답게 자녀에게 많은 교육을 해주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교육 방법에 있어서 남편과 갈등을 가졌는데 그것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에 따라 교육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 4의 방식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자녀가 어리다고 하여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려는 남편의 교육방식과의 갈등이었다. 이러한 대립에서 연구참여자 4는 남편에게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것임을 주장했고 그렇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서 처음에는 자신도 독일말을 배워야 했기에 자녀에게 독일어를 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독일어를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잘 하든 못하든 독일어로 아이들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독일어가 느는 게 아니라서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4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자신이 사는 지역의 한글학교 교장으로 봉사했다. 그 일을 약 8년을 했으며 매주 토요일이면 가기 싫다는 애들을 데리고 꾸준히 다녔다. 처음에는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라고 핑계를 대며 반항하던 아이들도 엄마가 꾸준히 데리고 다니며 한글 교육을 하였으므로 나중에는 군말 없이 한글학교에 다녔다. 큰아이는 아기 때 친정엄마가 키웠고 친정엄마는 독일어를 하지 못했으므로 아이에게 한국어로만 말을 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 한국적인 정서를 몸에 익혔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그러나 둘째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었기 때문에 둘째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아이는 한국어와 한국 정서를 알기는 하지만 독일인이고 독일 정서이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거주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자녀들은 독일인으로 자라났다. 남편과의 자녀 교육 갈등에서 남편이 연구참여자 4를 지지한 덕에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엄마의 특성대로 자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였다. 자녀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교육적 지원과 여러 가지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4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해주었기에 떳떳하다고 느낀다.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주국에서 살면서 자녀가 한국 정서를 갖도록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

12) 연구참여자의 재혼 내용은 지난 2017년 연구참여자 4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연구자가 기억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이다.

### (3) 거주국에서의 삶

#### ① 달라진 한국의 위상

“한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없어. 안와. 토요일에 하는데 누가 토요일에 오려고 그래요. 안오지. 지금은 달라졌지. 지금은 배우려는 사람이 많잖아. 당연히 배워야 되고 이건 한국이 강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이 너 한국말 할 줄 아니? 그래서 할줄 안다고 그러면 프라이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때는 프라이드보다는 쟁피한거야. 가난한 나라니까. 나 한국에서 왔어. 이렇게 가슴 딱 펴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왔다.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당시 한글학교가 나라에서 많이 해준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스스로 한 거라.”(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독일 거주지역에서 한글학교 교장으로 약 8년을 재직했다. 당시에는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주자들 스스로 시작했고 맞벌이를 할 때이므로 재정도 어려웠던 시기였다. 부모들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었으나 한국인 부모라고 하여도 한사람이 낮 근무에 가면 한 사람은 밤 근무를 하고, 부모가 비빔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여유가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효용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어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시절이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한국어 배우는 것을 거부했고 그에 따라서 연구참여자 4가 한글학교 교장을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 한국어를 어떻게 교육할까도 고민이었지만 나오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 하려는 노력 또한 애로사항이었다.

지금은 독일의 도로를 한국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고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독일 베를린의 중심부에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으므로 한국어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요즘은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 하면 부끄러워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먼저 찾아온다. 이주자 모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주자들이 거주국에서 살아갈 때 큰 위로와 자부심 역할을 한다. 연구참여자 4가 한글학교 교장을 할 때 참석했던 민족 교육자 초청 모임이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과 교장들을 1년에 한 번 한국에 초청하여 교육하는 모임이다. 그리고 이때 서로 교육 정보를 나누게 하고 한국어 교육에 동기부여를 갖도록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재외한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민족 교육자 초청 등을 통해 지원한다.

## ② 거주국 구성원과 협력함

“한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시청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여성합창단 단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시청에다 했어. 이거는 서로 문화교류고 당신네 음악, 우리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독일 가곡이라든가 독일음악 한국음악 하면서 이웃 사람들도 같이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하는데 도와줄 수 없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받았느냐고 그래. 독일 사람들 돈 그렇게 안줘요. 이번에 내년 에 할 것도 몇천 유로야. 그래 많다고 그러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네도 상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일단 결혼문화, 차 문화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만들고. 그거 다 돈 들잖아. 우리도 세금을 내고 이런 거는 좋은 거를 우리가 여기에 펼치는 거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한글학교 교장과 여성합창단 단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의 한국 문화 발표, 또는 한국 여성합창단의 독일 가곡 발표 등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행사에는 재정의 필요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요청을 하였다. 시청에 요청하면서 강조한 것은 한국 문화를 공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다문화와 상호문화에 공헌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4는 어떤 모임을 만들고 행사를 주관하면서 역점을 두는 것은 지역사회와 모임을 준비하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거주국은 새로운 문화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자도 거주국 사회에서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4는 모임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한다.

“대충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배운 거죠. 그리고 내가 말을 꺼냈으면, 뭔가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실천을 해야 된다. 난 그거는 항상 갖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2018. 10. 12)

연구참여자 4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고 협력하게 하는 방법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말을 꺼냈으면 실천하는 것에 있다. 연구참여자 4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소통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실행하면 연구참여자 4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의 열정 때문에 따르고 도와주게 된다.

## ③ 양쪽 사회를 연결함

“저녁에 독일어로 하는 한국 KBS. 한국에서 독일어로 하는 방송이에요. 그때는 독일 사람들이

거의 다 와. 나는 여기에 총영사를 모시고 싶은 거야. 우리는 프랑크푸르트하고 거리상으로 가깝지만, 행정 처리는 본에서 하는 거라. 본하고 마인쯔예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에 있는 영사가 안 오려고 그래 바쁘잖아. 그래도 초대를 했어요. 나는 항상 초청장도 한국어와 독일어로 써서 우선 보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를 해. 총영사님 우리 한독협회에 KBS 국제라디오 모임이 있어요.....(중략). 그랬더니 오셨더라고요. 오시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오셔. 초청장 보내고 얼마 있다가 전화를 하면은 네~.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된 거잖아요. 첫 시도가 중요해요.”(2018. 10. 12)

한국 KBS에서 독일어로 송출하는 국제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독일 사람들의 모임인 ‘라디오 코리아 국제 청취자 모임’을 1년에 한 번 독일의 한독협회에서 준비한다. 한독협회는 독일인과 한국인 또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회원이 될 수 있는 모임이다. 여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며 이곳에서 한국 영화를 보여주고 음식을 나누며 회원들 간의 우정 증진 모임을 한다. 연구참여자 4는 이곳 한독협회에 속해 있으며 다른 회원들과 함께 국제라디오 모임을 준비한다. 그리고 한국 방송사와 연계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협회 운영비에 사용한다. 연구참여자 4는 한독협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리하여 이 모임에 자신이 사는 지역 총영사를 참석하게 하고 싶었다. 이 모임에는 한국 사람들은 오지 않고 한국에서 독일어로 하는 방송을 듣는 독일 사람들이 각지에서 온다. 그러므로 총영사가 참석하면 그만큼 모임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총영사를 참석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4가 있는 지역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까운 지역이지만 행정상 관리하는 본이 하기에 총영사가 오려면 멀리 있는 본에서 와야 했다. 더구나 총영사는 바쁜 일정이 있으므로 멀리서 진행되는 국제라디오 모임과 같은 작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렸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 4는 총영사에게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한국 방송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라디오 중국 국제 청취자 모임에서는 중국으로 여행도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는 기회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초청의 결과로 모임에 총영사가 참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참석한다. 연구참여자 4는 이러한 일을 할 때 되어야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일한다.

“그럼 30명 정도 모여. 많지는 않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한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그러면서 KBS에서 꼭 선물이 와. 수저, 부채, 평창 올림픽 할 때도, 하얏트 조그만 선물이 꼭 오더라고. 그럼 그런거 좋아해요. 독

일 사람들도 공짜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더라고. 만들어서 그걸 돈 받고 팔아요. 그럼 조금 이익이 남는 거지. 거기는 한독협회를 위한 하나의 행사이기도 해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국제라디오 모임에 총영사를 초청하면서 총영사에게도 좋고, 국제라디오 모임에 참여하는 독일인 참여자들도 좋고 그 모임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교류하는 한독협회도 좋은 상호 윈(win)-윈(win)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에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할 때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를 보면 거주국은 이주자를 통해 이주자의 모국과 관계를 도모하고 이주자의 모국은 이주자를 통해 거주국과 연결할 때 자국의 이주자와 협력하고자 한다. 양쪽 국가는 이주자를 교량으로 상호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자는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계의 주체자가 된다.

#### ④ 외롭지 않은 노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내가 처음에 그 뭐냐 퇴직하고 찾아간 게 내가 외로울 것 같았어요. 여기 오면 난 집에서 놓고 그러는데 맨날 집안에서 그냥 그렇다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기는 뭐해. 그래서 내가 외롭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봉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년퇴직하고 뭔가를 해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외롭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봉사도 하면서 봉사한다는 자체가 우선 나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간호사 은퇴 후 지역사회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때 추천받은 것이 세노 트레너린으로 일종의 봉사활동 지도사 같은 것이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봉사활동을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에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어떤 봉사활동에 협력할 수도 있고 어떤 봉사활동을 조직할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 4는 언어문화 전달사도 취득했지만, 난민들이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그 봉사활동은 하지 않는다. 대신 난민들에게 옷을 나눠 주거나 시청이나 은행 등의 위치와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완수하는지를 알려주거나 같이 가서 도와주는 봉사를 한다. 연구참여자 4는 은퇴 후 거주국에서 외로운 노년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자원봉사를 조직할 수 있는 교육을 1년 넘게 공부했고 현재는 한국 문화를 독일에 소개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국 문화를 알릴 기회도 된다. 이를 위해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많은 역량이 필요한 일이지만 처음에 계획한 것처럼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안이 된다. 또한, 연구참여자 4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이주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가 더 많아졌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 등을 통해서 내 나라 문화를 조금 더 내가 사는 곳에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 문화는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이주자들도 그들의 문화를 거주국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한국 문화의 날을 만들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지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여겨 협의하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연구참여자 4는 프랑크푸르트 가까운 곳에 한국 문예원을 운영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한국의 차 예절, 전통 결혼문화 등을 보여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기에 누군가는 나서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봉사활동과 언어문화 전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 문예원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차 문화와 전통결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리를 마련해주어 한국 문예원 사람들도 일할 수 있게 하고 자신도 봉사하고 거주국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모두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상황을 조정하고 협력한다. 한편, 연구참여자 4는 노년에는 거주국의 지역사회 속으로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한다.

“우리 지역사회 가까운 데서 예를 들자면 우리 무슨 행사하는데 너 쿠쿤(케익)좀 할수 있느냐? 거기 서서 케익 팔면은 뭐 힘든 일이야? 뭐 지금도 여기저기서 뭐가 세미나가 있는데 와라. 그런거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기도 그렇고 보면 나 혼자예요. 외국 사람은. 그러면 이제 세미나가 끝났잖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날 물어보는 거야. 외국 사람은 혼자니까 그럼 어떤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야. 하하하하. 이제 나이가 더 들면은 한인회 이런 거 필요 없고. 거기 독일 사람들이 하는 거. 내 동네에서 행사 있으면 같이하고 그러면 외롭지는 않잖아. 서로 독일 사람하고 대하면서 그 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면 한인회 등의 모임을 줄이고 마을의 구성원과 하나가 되기 위한 소소한 활동들에 더 시간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현재에도 세미나가 있거나 케익을 만들어 파는 것과 같은 행사에 독일인 친구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간간이 참여한다. 앞으로 그런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년을 외롭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연구참여자 4는 앞으로 한국에 나올 횡수를 헤아리고 있다. 나이가 더 들고 기력이

떨어지면 한국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을 것이고 그때는 한국과 한국인들보다 자신이 사는 마을 노인들과의 커뮤니티를 늘려서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고 자 한다.

#### (4) 노년의 삶

##### ① 이주자의 치매, 질병

“한국 사람 치매 걸린 사람이 있는데 독일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음식을 김 잘 먹고 김치 잘 먹고. 통영 음식. 김 미역 김국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김. 굽지 않은 그런 김만 사왔더라고. 언어하고 음식. 그거(치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요.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독일은 큰 문제예요.”(2018. 10. 12)

독일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이주하였다. 이들 가운데 정주한 한국 여성들은 거주국 언어인 독일어를 익히기 위해 평생 노력하지만 먼저 잇는 것은 독일어이다. 모국어는 잊었다 해도 다시 사용하게 되면 돌아오지만, 독일어는 잊으면 모국어처럼 다시 재생되어 자연스럽게 발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치매가 되면 독일어를 먼저 잊고 그 다음에는 음식이 문제가 된다.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지만, 그 음식을 거주국 언어를 잊었기 때문에 거주국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주자가 젊을 때는 거주국 사회의 적응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노년에 이르면 치매 등 의료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에는 외국 여성이 결혼을 통해 대거 이주해 있고 이주의 연한이 길지 않아 아직 치매를 신경 쓰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주민의 치매와 의료 분야 또한,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치매 예방 건강세미나”는 보건복지부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재독한인 간호협회가 실행하는 건강관리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1960-70년대 파독한 광부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치매, 정신적 외로움, 모국에 대한 향수, 연금이 적은 사람 가운데 병들고 힘든 사람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세미나와 약 200명 정도 되는 한국인에게 개별적으로 한국 반찬 등을 약간 보내주는 것,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있다. 이는 거주국에 사는 한국인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구참여자는 여기에서 재독한인 간호협회 회장으로서 독일에 있는 한국인들의 건강을 살피는 위탁사업을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재정을 도와주고 우리는 그 재정을 받아서 실행하는 위탁사업을 해요. 여기에 봉사자들이 있어요. 일이 많아요.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지원이 오면 그거를 여러 가지 생필품 그런 거를 수혜자들이 거의 200명 있어요. 힘든 사람이 많아요. 광부는 한 500명 정도 되고 간호



사는 약 3500명 정도 돼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여기에 나이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요. 지금. 돌아가신 분도 꽤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요번에 교수 네 분이 오셨어. 이거를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규개발을 하기 위해서.”(2020. 02. 19)

연구참여자 4는 2019년에 재독한인 간호협회 회장이 되었다. 재독한인 간호협회의 업무 가운데 하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위탁을 받아 독일 거주 한인들의 건강, 정신적 외로움, 치매, 모국에 대한 향수 등을 돌보고 보살피는 업무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파독 간호사들이 무보수 봉사에 참여한다. 거리가 먼 경우에 약간의 기름값(1km에 0.3유로 정도)을 지원받는다.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성인이 되어 이주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외국 독일어를 완전히 하지 못하잖아. 그런 감정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를 독일어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 봉사자들이 맡아줘야 해. 그런 거는 우리가 독일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해결해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한국국제의료재단에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생필품에는 반찬 같은 것도 들었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김치 같은 것도 들었고 그거를 일 년에 네 번 정도 보내주면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2020. 02. 19)

독일로 이주한 한인 광부와 간호사 가운데 젊었을 때 중간에 직업을 바꾸거나 결혼 등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거나 개인 사업을 한 경우 등에서 연금을 받지 않았거나 못하여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독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와 주택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할 때 언어적 어려움과 서식의 까다로움으로 준비하지 못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러한 도움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때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잘 아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나이도 70대로 연로하였고 먼 거리의 경우 수혜자들의 상태를 한 달에 한 번 살피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다. 그렇기에 자원봉사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태를 살피, 보고를 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하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병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이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시스템을 갖추어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독일과 같이 복지 시스템이 잘 된 나라의 경우와 독일보다 열악한 환경의 나라에 있는 한인들의 형평성을 살핀다. 그리하여 재외동포들에게 효과적 지원을 하기 위한 실사를 한다. 한

편,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에게 전달되도록 중간에서 일하는 무보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도 늙어가지만, 이들을 돌보아줄 한국 언어와 문화를 알고 있는 다음 세대는 없는 현실이다. 연구참여자 4는 한국에 유입된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이 자신들처럼 노년이 되고 치매와 모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정신적인 외로움을 겪을 때를 대비하여 한국 사회에서 준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외국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다. 둘째, 이들 가운데 일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들을 도와줄 중간 역할을 할 사람들과 연계를 해둘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적극적으로 적응한 외국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과 한국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필요한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월이 지나 외국인들이 노년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외국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 ② 긴장된 이주자의 삶

“독일에선 남편하고야 그런 게 없지만 다른 독일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항상 조금 긴장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때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니깐 이거는 편한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는 긴장을 하게되지. 혹시 내가 잘 못 들어서 답변을 잘 못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잘하려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고급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가 지역사회와 독일 친구들과로부터 초대를 받아 토론회 등에 가면 외국인인 연구참여자 4만 있다고 했다. 그러면 항상 이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꼭 질문이 온다. 어떤 때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때, 또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연구참여자 4는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대응을 못할까봐 귀와 마음을 열고 있어야 했다.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사는 것은 이처럼 긴장감을 안고 사는 삶의 형태가 된다. 긴장감 없이 모든 것이 편안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오직 가족과 함께 있을 때나 같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가벼운 자리일 때에나 가능하다. 이주민이 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은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 ③ 한국 사회의 이슈에 관심

“요즘은 탈북자들. 탈북자가 어떻게 왔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봐. 그 외에는 독일 방송 보조. 남한에 온 경로.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정착하고 사는 거. 그리고 어떤 때는 다문화 그 사람들의 고부 관계 이런거 나도 이제 외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들 너무해. 무조건 여기 문화를 따르라고 하면 되나? 그게 시간이 가야지.”(2018. 10. 12)

연구참여자 4가 한국 소식 가운데 관심을 두는 것은 탈북자들과 다문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북한 소식에 주목하는 것은, 통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탈북자들의 개인적 이주 과정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 북한 주민의 북한 이탈과 그들의 정착에 관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에 관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들에게서 국제결혼 한 자신과 유사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시어머니와 말과 문화가 통하지 않는 모습을 시청한다. 그러면서 한국 시어머니들이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한국 문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며느리의 입장이 된다. 이주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들에 대하여 동료애를 느끼고 시어머니보다는 며느리의 입장에 더 감정이입이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기존의 고정적 관점을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4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고 이주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4의 이주 영향에서 개인적인 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 즉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역량 있게 해내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만들어 왔다. 둘째, 초국적 연계 활동이 있다. 우선 자녀의 한국 정체성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킨 것이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개인으로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sup>13)</sup>(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의 독일 지역 담당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일로 해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와서 세계에 있는 한국 여성리더들과 네트워크를 다지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 국제결혼 여성 총연합회<sup>14)</sup>(World Federation of Korean Inter Married Women's Association.월드킴와)의 전 세계 부회장으로서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쳤다.

13)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들의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14) 세계 국제결혼 여성 총 연합회(이하 월드킴와 World-KIMWA)는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의 모임이며 세계 규모의 국제결혼 여성 조직이다. 현재 16개국 35개 지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 4는 가족과 친족의 연결을 위한 초국적 활동 이외에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여성들의 모임을 통한 한국 여성들의 초국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럼으로써 지구촌 시대에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를 넓게 활용하며 살아오고 있다. 셋째, 이주자의 삶은 노년이 된 파독 간호사 세대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 연구참여자 4는 거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거주국 구성원들과도 네트워크가 비교적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와도 긴밀하게 연결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제는 이주한 기간도 길어져서 더 늘어질 때를 대비하여 거주국에서 편안한 휴식을 준비하고 있다.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로 2세대들이 간호사에 진입해주거나 한국에서 간호 인력으로 이주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제는 한국이 예전처럼 극심한 가난으로 허덕이던 때가 아니기에 독일로 이주하려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파독 간호사들은 그들이 늙고 병약했을 때 이들을 이해할 한국인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4는 한국이 돈을 많이 벌지만, 연금을 모두 합치면 그래도 독일이 낫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독일의 업무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서 정말로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하기에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2세대도 의사나 변호사를 하려고 하지 간호사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염려하는 것은 한국으로의 연계이다.

“우리가 한국 경제의 초석을 다져놓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에게 특별나게 뭐 하고 그런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 잊어먹었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그럼 나라에서 (우리가 한국에)가면 머물 곳이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무료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편안한 거 보다도 우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2020. 02. 19)

재외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이들은 한국말이 외국어와 섞여 있거나 한국 물정을 잘 모른다거나 해서 한국인들에 의해 금방 외국에서 오셨어요? 라며 물어오는 질문에 당황한다. 자신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국에 왔는데 이러한 시선과 관심으로 오히려 한국에서 이방인이 된다. 외국에서 와서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공항에서 지방으로 오가는 것도 낯설고 어설피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한국에 와도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에 왔을 때 편안한 것보다도 그저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2. 오스트리아 빈 거주 한인 여성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는 독일로 이주한 한국인 간호사의 좋은 이미지에 힘입어 오스트리아 빈시에서 소수의 한국인 간호사를 초청함으로써 이주하게 되었다. 1차와 2차 총 두 번 한국인 간호사가 각각 50명씩 1972년과 1973년에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 도착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오스트리아 빈 거주 파독 간호사는 3명이다. 이주 후 이들의 직업은 간호보조 1명, 간호사 2명이었고 1972년에 1명이 이주하였고 1973년에 2명이 이주하였다. 이주 후 은퇴까지의 이들의 직업은 간호사 은퇴 1명, 음악 매니지먼트 1명, 간호사 은퇴 후 부동산업자 1명이 있다. 즉 이들의 직업은 이주 후 바뀌기도 하였다. 이들의 이주 동기는 가난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 동생의 학비 마련, 서구 사회에 관한 동경,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등의 이유가 있었다. 오스트리아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애사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참여자 5 :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

연구참여자 5는 1952년 7남매의 둘째로 태어났다. 1973년에 오스트리아 빈에 간호사로 이주하였으며 2020년 현재 47년째 거주하고 있다.

<표 IV-5> 연구참여자 5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 대한 동경</li> <li>■ 가족이 모르게 이주를 준비함</li> </ul>
이주 후-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국의 차별과 편견</li> <li>■ 국제결혼, 양가(兩家)의 반대</li> <li>■ 송금으로 인한 갈등</li> <li>■ 자격증,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li> </ul>
거주국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집살이, 극한의 고통</li> <li>■ 신앙으로 극복한 고난</li> <li>■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li> <li>■ 한인 국제결혼 여성 커뮤니티 구성</li> <li>■ 모국과 거주국 문화에 따른 갈등</li> </ul>
노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학교 국제결혼 가정 학급</li> <li>■ 한국 정부의 재외 한글학교 지원</li> <li>■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동질감을 가짐</li> <li>■ 한국에 거처를 마련함</li> </ul>

## (1) 유년-청년기

### ① 외국에 대한 동경

“어렸을 적부터 선교 뒤 그런 게 항상 내 꿈이었어요. 그때 한참 간호사, 간호보조원 모집하고 그래서 내가 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나가는 게 꿈이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왔어요. 9개월인가? 간호보조원 강습. 그거하고 여기 와서 인제 빈에 온 게 100명이 왔는데 그중에 30명. 우리는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보조.”(2019. 01. 28)

연구참여자 5의 아버지는 경찰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집에서 농사를 짓고 인근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으며,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았다. 집안의 경제적 사정은 넉넉하지 않아서 학교에 내는 교육비를 제 때에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연구참여자 5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는 것을 꿈꾸었으며, 특히 선교사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던 중에 파독 간호사 광고를 보았고 간호 학원에 다니면서 이주를 준비했다.

“3년 딱 되면 내가 (독일어)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복학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학위를) 따가지고 학교에 가면 내가 교수를 해서 그런 희망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사랑에 묶여서 여기로 오게 된 거지.”(2019. 01. 28)

연구참여자 5의 이주 동기에는 빈곤이 포함되어 있지만, 서구 문물에 대한 동경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구참여자 5의 생각으로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어권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워서 한국에 돌아오면 경제적인 것도 해결하고 언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또 그곳에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교수가 될 수 있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이주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5는 빈에 도착하고 난 후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을 만났고 그와 3년 후에 결혼함으로써 처음에 이주하면서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 ② 가족이 모르게 이주를 준비함

“집에서 모르게 한 거죠. 반대했으니까. 내가 몰래몰래 아르바이트 해서 아침에 신문배달 했어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느 때는 시계 못보고 막 일어나고 밤에 역전에서 배달하고 신문 다 돌리고 그렇게 해서 벌은 걸로 학원 다닌거지요.”(2019. 01. 28)

파독 간호사 모집 광고를 본 연구참여자 5는 간호보조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족들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여 간호 학원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새벽과 밤에 신문을 돌리면서 학원비를 마련했다. 그렇게 하여 해외개발공사에서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통과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구참여자 5의 아버지가 이승만정권 때 자유당에서 활동했고 그 이유로 해서 박정희 정부로부터 감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5는 해외에 나갈 수 없는 대상이었지만 아버지의 친구가 해외개발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오스트리아 빈에 갈 수 있었다. 한편, 오스트리아로 한국 간호사가 가게 된 계기는 독일에서 한국 간호사들이 좋은 이미지를 보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일부 병원에서 한국 간호사를 초청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에는 100명의 한국 간호사가 이주하였고 그 가운데 두 번째 그룹에 연구참여자 5가 포함되어 있다.

## (2) 이주 후-결혼

### ① 거주국의 차별과 편견

“우리가 너무너무 못하는 데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국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를 미개인 취급을 해요. 자기네가 우리를 고용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것도 뭐 참아야지 어떻게. 유고 애들, 지네들도 이 나라에 취업하러 와서 하는데 개네들도 무시하는 거죠. 처음에는 반항하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만 재네는 그런 거 아닌데 나만 흥분하고 나만 속이 상하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변화를 해서 저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도와주니까 인정을 해요. 그때사.”(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오스트리아 병원에 도착해서 배정받은 병원은 시립병원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이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5는 간호사이면서도 공무원 신분이었고 공무원에서 은퇴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병원에는 오스트리아 간호사들과 연구참여자 5처럼 간호사로 고용된 유고슬라비아 등의 외국 간호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간호사들과 외국 간호사들이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을 무시하고 미개인 취급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의 태도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천천히 그 사람들의 환경을 살펴보니 그들은 가정에서 학대를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아버지는 알콜 중독이거나 여러 가지로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자나라에 사는 것만이 그들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재네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산다는 그 자랑스런 마음에 우리를 무시하니까 우리는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2019. 01. 28)

연구참여자 5는 자신들을 무시했던 빈의 간호사들이 오스트리아의 국민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가난한 나라 한국과 한국에서 온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더 잘 견딜 수 있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주변국에서 이주한 간호사들은 한국 간호사들이 같은 유럽권에서 온 이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이주하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친절하게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친절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대변을 봤다고 해. 그거를 씻어야 하는데 안 가요. 개네들은. 우리가 가서 이거 그냥 한번 착착 딱아내고(그러는게 아니라), 우리는 깨~~끗이 씻고 물로 닦아주고 얼마나 개운하게. 그러면 이 환자들은 우리만 부를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기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인정을 받잖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2019. 01. 28)

오스트리아의 병원시스템 역시 독일과 같이 보호자 없는 간호 시스템이었다. 이때 오스트리아의 간호사나 다른 나라 간호사들이 기피 하는 일이라도 한국 간호사는 기꺼이 행하고 환자의 편안함을 더 우선하여 행했다. 용변을 본 환자를 돌보는 일에 거주국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가기를 꺼렸다. 그러나 한국 간호사는 꺼리지 않고 가서 휴지로 닦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로 닦아주어 환자가 개운함을 느끼도록 보살폈다. 그러한 진심은 환자들과 동료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한국에 대하여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5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자신이 변화해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원리를 깨달은 것은, 그만큼 마음공부로 부단하게 단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5가 이와 같은 변화하는 것에 도움이 된 사람이 있었다. 기젤이라는 빈의 간호사였는데 연구참여자 5를 자기 딸처럼 대해주었다. 고향 생각이 나서 울거나 기숙사에 앉아서 한국 간호사들이 울고 있으면 데려다가 같이 여행가고 밥도 같이 먹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가서 혼내주던 사람이었다. 연구참여자 5는 기젤을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5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서도 그 집에 가서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기도 하였다.



“가끔 그 집에 가서 한국 음식 좋아하니까 불고기니 잡채니 해다 주면 잘 먹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참 사랑했는데 돌아가셨어요.”(2019. 01. 28)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이 어디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기젤이라는 간호사는 낯선 곳으로 이주하여 일하는 젊은 한국 간호사들을 돌보았다. 그로 인해 오스트리아에서 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연구참여자 5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같은 윌리로 연구참여자 5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왔고 바꾸고 있을 것이다.

## ② 국제결혼, 양가(兩家)의 반대

“그때 한복을 입었는데 우리 병동에 가서 기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갔지. 병원문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려오면서 층계에서 탁 마주쳤어. 보니까 키도 크고 잘 생겼어. 그래서 어? 그랬어. 그랬더니 애도 나를 보면서 어? 어떤 애가 한복을 입고. 처음 보는 한복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놀라서...(중략). 그게 우리 남편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자마자 처음에는 뭐 사랑보다도 아 이 사람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독일어 배우고 중구나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3년 끝나고 바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간호학교를 간거죠.”(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빈에 도착한 후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빈시에서 한국인 간호사들을 초청하여 환영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연구참여자 5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고 돌아오는 길에 한복을 기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병원에 들어서서 계단을 올라가려던 때에 계단을 내려오던 오스트리아 청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쓰는 언어는 독일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독일어 사투리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표준 독일어를 배웠는데 빈에 왔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는 독일어 사투리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때에 표준 독일어를 쓰는 청년을 만난 것이었고 표준 독일어를 쓰니 말이 더 잘 들렸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사랑보다는 독일어를 배우고 오페라 극장에도 가면서 친해지는 것으로 이어졌고 3년이 지난 후 결혼하였다.

연구참여자 5의 남편은 시어머니가 40이 다되어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다. 시아버지가 2차대전 전쟁포로로 있다가 생존해서 돌아와 얻은 귀한 아들인지라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어딘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곳에서 온 못생긴 여자애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못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무시는 더욱 연구참여자 5의 아픈 곳을 찌르며 상처를 주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겠다는 결혼이므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으나 결혼식 하객 가운데 가족은 오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었으나 형도, 누나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친정에는 결혼을 알리지 않아서 아무도 오지 않았기에 신부 혼자 타지에서 남편만을 바라보고 결혼한 셈이다.

### ③ 송금으로 인한 갈등

“친정에 (오스트리아 남자친구) 얘기는 했지만, 결혼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반대하니까 편지를 안 했지. 우리 아버지가 막 편지할 때면 ‘너는 절대 그 나라...’ 그때 한국 문화가 있죠?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창녀로 알고 있었어요. 절대 용납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돈도 안 보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보내면 돈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허락하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웃음).”(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가족들에게 오스트리아 청년의 존재에 대해 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결혼은 절대 반대였다. 당시에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은 그 즉시로 주홍글씨를 목에 거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5가 결혼 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을 때 연구참여자 5의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는 너희 둘이 손잡고 다니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그때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나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커플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참여자 5는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대하여 자신이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고, 성인이니까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혼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5는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허락할 것이라고 여겼으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친정 가족은 연구참여자 5에게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연구참여자 5가 송금하지 않았던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당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었다. 그때 연구참여자 5의 형부가 사업을 하였고 아버지가 보증을 섰는데 형부의 사업이 망하였다. 그 영향으로 연구참여자 5가 지원했던 것들을 포함하여 집과 논과 부동산들이 전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 서울로 와서 약간의 돈으로 구멍가게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그때 연구참여자 5가 송금을 중단한 것이다. 아버지로서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송금하지 않는 딸이 어떤 면에서는 꽤 씩씩하고 서운했을 것이라고 연구참여자 5는 말한다. 아버지는 딸의 국제결혼을 반대했고 딸은 친정에 송금을 중단하면서 연구참여자 5와 가족의 소통은 더욱 멀어졌다. 그런 이유로 친정 가족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연구참여자 5는 오스트리아에서 하객 없이 결혼하고 혼자 거주국에 적응해 나가야 했다. 연구참여자 5는 결혼 후 8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 그 시기에 집을 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5의 가정에도 경제적인

로 긴축 재정이 필요했으므로 남편이 친절으로 송금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만 가끔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연구참여자 5가 따로 얼마씩 모아냈던 것을 송금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5와 친정 가족은 서로의 상황에 대하여 소통하지 못했으므로 연구참여자 5의 상황을 친정 가족이 알지 못했고 친정의 빚보증과 서울로의 이주 등을 연구참여자 5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아이를 낳은 후 연구참여자 5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족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5가 따로 모아 얼마를 보낸 송금들은 친정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고 이로 인해 친정에서는 연구참여자 5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 이처럼 송금으로 인한 친정 가족과의 갈등은 연구참여자 5가 나중에 한국을 방문할 때 가족과 연구참여자 5가 갈등을 갖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5는 집을 사고 긴축 재정이 필요할 때 남편이 송금 중단을 요청하였었다. 이는 표면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남편과의 송금 갈등을 가졌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주여성이 친정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에는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송금자 개인, 배우자, 친정 가족과의 갈등을 내포한다.

#### ④ 자격증,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3년 끝나고 제가 이 나라 간호학교를 갔어요. 간호사 자격증 따야되니까. 빈에 온 한국인 간호사 30명 중에 제일 처음으로 거기 가서 3년 끝나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간호학교를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어떤 때는 막 울면서 내가 왜 이거를 해야되나. 스물세 살이니까 스무 살에 와서 스물세 살에.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원장님이 데려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쉬운 거 같으면 누구나 다하지. 어려우니까 누구나 못하니까. 더구나 외국 사람이. 내가 보기엔 너가 굉장히 영리하니까 너 공부해라. 내가 도와주겠다.”(2019. 01. 28)

연구참여자 5는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남편과 결혼한 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간호학교에 갔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는 다른 학생들이 1시간 공부할 것을, 3시간 공부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었다. 그나마 3년을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학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고 또한 한국어의 장점은 낯선 독일어를 발음 그대로 쓸 수 있었으므로 한글로 발음을 써서 외웠다. 간호학교에서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하나? 라며 울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5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공부의 시작에 남편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한 공부가 아니라 남편의 권유로 시작했기에 힘들었을 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츰 공부하면서 이 공부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 알아가는 즐거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공부의 즐거움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어려웠던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촉매가 되었다. 공부가 끝난 후 졸업식에서 간호 원장님은 연구참여자 5를 자랑스러운 학생으로 소개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서 자신의 직업이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에서 스스로 기쁨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다.

### (3) 거주국에서의 삶

#### ① 시집살이, 극한의 고통

“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너무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한국 가자면 한국 가면 뭐해. 여기는 애들이 있지. 아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힘들 때는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2019. 01. 28) 시어머니가 주일마~~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토요일날 주무시고 일요일날 갔어요. 내가 애들 셋이 있는데 애들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봐야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7-8년 섬긴 것 같아요. 머리 카락도 팔르고 씻겨주고 그렇게 했어요.”(2019. 08. 23)

연구참여자 5의 시어머니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에게 온갖 분풀이를 다 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죽고 싶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이들은 키워야 했기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연구참여자 5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자신을 무시하고 미워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남편이 시집살이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고 형의 부인처럼 말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형의 집에는 안 가도 연구참여자 5의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다. 나중에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머리카락도 잘라주고 씻겨주며 모셨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오셨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 우리 어머니 오신다고. 전화로 막 욕을 하시더라고. 그 욕을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를 났어. 나중에 한참 하다가 전화를 끊고 있다가 전화를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전화가 와. 스토킹을 하는 거지. 아고... 얼마나 그때는 진짜 죽고 싶어요. 진짜. 애들이 없으면. (2019. 01. 28) 어느 때는 남편이 내맘 다 이해해주면서 그러는 때도 아니잖아. 제가 좀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나한테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럼 말을 못해. 참아. 꼭 참아요. 그렇게 잘~~ 참다가 나중에 남편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 폭발 막~~~ 해. 탁 대놓고 우리 남편 형의 부인처럼 대놓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 집에 안가잖아. 우리집만.. 우리집은 잘 와.”(2019. 08. 23)

연구참여자 5가 겪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나라와 문화가 달라도 닮은꼴인 것이 신기하다. 연구참여자 5의 남편은 늦게 낳은 막내아들이다. 이 막내아들은 시어머니에게 아들이며 남편 대신이었는데 그 아들을 연구참여자 5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연구참여자 5를 죽고 싶게 만들었으며 이 괴로움을 피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녀들이 있었으므로 삶을 놓아버릴 수도 없는 상태로 직장 일을 하며 참았다.

“이가 안 좋으시니까 정성 들여 음식을 연하게 해서 드려도 쓰레기 같은 것, 못 먹을 것 가지고 왔고 그릇을 던져 버리면 참 너무 서운해. 나중에 그냥 어느 때는 한바탕 쥐어주고 싶는데 참아야지 어떻게. 그거를 애들앞에서 제가 했어요. 애들한테는 좋은 할머니 였는데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계셨거든요. 한 일주일 누워계셨어. 폐염이었거든요. 가서 날마다 애가 쪼그만했을 때 끌고 가서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돌아가시기 전날 내 손을 꼭 잡고 야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여기까지 올라오던 그게 삭~~ 사그라들더라구요. 그 한마디에.”(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시달릴 때 남편은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남편은 서양사람이지만 가부장적인 면에서는 한국 사람과 똑같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의 남편이 생각할 때 여성은 남편이 집에 오기 전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하고 집안일은 모두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졌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할 때 늘 남편은 연구참여자 5의 편에 서주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연구참여자 5는 남편에게 엄마 앞에서는 절대 자신의 편을 들지 말고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 말을 잘 따라 주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구참여자 5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였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후 시골에 살던 시누이가 암에 걸렸고 시골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연구참여자 5의 집에 왔다. 근무하면서 시누이를 돌보았고 시누이도 고맙다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시누이가 세상을 떠난 후 80이 된 시누이의 남편이 아프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5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시누이가 돌아가시니까 혼자 있잖아. 80이 다 됐는데 그분이 시골에 살면서 일주일에 꼭 오셨어. 주말에. 토요일날 나는 근무 가는데, 어떻게 해. 개까지 데리고. 개는 나밖에 몰라. 밥을 주니까. 내가 또 개 똥싸러 가야되잖아요. 산책시키는 거. 그걸 내가 한 10년을 한 것 같아요. 주말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정년 퇴직 전에 그분이 총계에서 떨어지셨어요.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아퍼. 걷지를 못해. 시골에다 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남편 사무실을 병실로 만들어 놓고 집에서 모셨어요. 그렇게 3개월을 간호했어요. 나중에는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랬더니 남편이 요양원은 절대

안 보내겠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쓰자. 그래가지고 24시간 하는 간호사를 구했어요.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밥도 주고 청소도 하고 6개월을 했나? 또 저희 남편은 일주일에 두 번씩 가고 나는 한 번 가고, 나중에는 무슨 일 있어서 병원에 치료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2019. 01. 28)

시누이의 남편은 상이군인이었고 전쟁의 기억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지팡이를 짚고 밤에 마루를 똑각똑각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으나 참았다. 전쟁으로 인해 생긴 아이들 고모부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5가 병원에서 돌아와서 시누의 남편을 돌보아야 하는 힘든 점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고모부도 조심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소변 주머니를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물을 잘 마시지 않았으므로 일주일에 두세 번 갈아주었다. 어느 날은 소변 주머니 바꾸는 것을 스스로 하려다가 나이가 들었고 손이 떨리니까 제대로 바뀌지 않아서 오히려 소변이 온 집안에 뿌려졌고 그로 인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한번은 양말을 전자렌지에 넣고 말리다가 집에 불이 날뻐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사건 등으로 결국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으나 남편은 요양원에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고모부의 시골집에 24시간 상시 간호사를 두어 돌보았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5는 시집 가족의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이 과정이 힘이 들었고 내적, 외적 갈등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일들을 다 지나왔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성질이 대단하였다고 했다. 학교 교육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호명되었을 때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화분을 깨기도 했었다. 나중에 더 혼나기는 했지만, 양같이 순해서 참기만 한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혼 초에 아기도 혼자 키워야 했고 집도 자신이 다 치워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집이 뭐냐뭐냐 하면 화가 폭발하여 그럼 당신이 해라...하며 싸움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살면서 연구참여자 5는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책<sup>15)</sup>을 읽다가 발견했고 그 방법을 사용하여 부부 사이 갈등을 줄였다. 연구참여자 5는 인터뷰 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참아야지 어떻게 해”라는 말을 했다. 이러한 참는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 5는 처음에 동료 간호사들이 무시하고 미개인 취급할 때 말했듯이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이 변화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 ② 신앙으로 극복한 고난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만 하면 천당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중략).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생활하는 게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를 들면, 이웃을, 내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15) 게리 채프먼 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변화를 해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거. 그 전환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편해.”(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한 또 다른 요인은 종교에 있다. 이주한 후 교회에 친구와 함께 나갔고 그곳에서 독일어로 된 간증을 무수히 읽었다. 연구참여자 5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남편과 시집 가족의 병간호 등 삶의 굴곡들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신앙도 자랐다. 특히 연구참여자 5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라고 볼 수 있는 ‘영생’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즉 영생의 의미를 깨닫기 이전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앙이었다면 깨달음 이후에는 자신이 변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신앙은 연구참여자 5가 그의 삶의 태도를 다르게 한 또 다른 지점이다. 연구참여자 5가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은 남편의 병이었다. 남편은 폐렴에 걸렸고 병원에서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었다. 그때 연구참여자 5는 집 지하실에 내려가 울면서 기도했다.

“내가 시어머니도 모셨고 우리 시누이이도 모셨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할 말 많은데 나를 이런 곳에 두고 우리 남편을 데려가면 우리 애 셋을 데리고 어떻게 사나 나는 못살아요. 저를 데려가세요. 우리 애들 책임지고 저를 데려가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막 피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참아야지. 그러면서 평안이 오더라고. 오고 나서 그러면 우리 남편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2019. 01. 28)

연구참여자 5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 남편은 치료되어 퇴원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집살이와 언어와 문화에의 적응, 그리고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남편의 투병 등 이 모든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5는 참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신앙이 아니면 상쇄되기 어려운 삶의 막다른 골목들을 만났을 때 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접하면서 신앙을 키웠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5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 번 특별한 신앙적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5는 영생을 바라는 신앙인의 궁극적인 소망에 도달하면서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태도로 변화되었다.

### ③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렇게 오래는 안 보내주고 큰 애 낳고 그다음부터 못 보냈지. 집 사기전까지만 해도(친정으로의 송금이) 괜찮았는데 우리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 못하게 하더라도. 중간에 돈 보낼 때

는 내가 조금 옆으로 모아놨던 것 얼마씩 보내고 그런거지.”(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이주하여 3년, 그리고 결혼 후에도 친정에 종종 송금하였다. 자녀 출산 후 집을 샀고 그 후에는 친정으로의 송금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남편이 친정 송금을 반대하기도 하였고 연구참여자 5의 생활도 긴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연구참여자 5는 송금하면서 자신이 송금한 것을 한국에 돌아가면 돌려받아서 집도 사고 결혼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계획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계획이 되었다.

“제가 보낸 돈을 아버지가 완전히 다 망쳤어요. 우리 형부가 사업하면서 우리 아버지 돈을 빌려 썼어. 그래서 완전히 다 망한 거 있죠. 우리 집하고 논하고 밭 다 가져가고. 그래서 서울로 도망 왔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끝까지 그 빚 다 갚았어요.”(2019. 08. 23)

그러나 연구참여자 5가 송금한 것은, 아버지가 형부에게 투자하였고 형부의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족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 5의 친정 형편이 좋았거나 형부의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연구참여자 5의 송금은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어 친정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처음에는 보상받으려고 한 거죠. 그때 누구나 다 그랬을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더라고. 그거를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도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도와줘요. 돈을 꿔줘도 그거를 안 받을 생각으로 꿔주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거 다 받으려고. 내가 오면은. 다 적으면서 내가 공부 끝나고 여기 오면 내 집도 있고 여기서 결혼생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네는 지네끼리 다 받아서 쓰면서 싹 다 망해버리고 말이야. 내가 TV도 전화기도 다 해주고 집도 다 고쳐주고 살만하니까 왕창 망해버리고 또 처음부터 시작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나도 가족이 있으니까 더이상은 못 도와주잖아. 그치?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한거를 좀 얘기하는 거 같애. 애들은 뭐 대학 다니면서 용돈도 없고 막 그럴 때는 누나는 외국에서 잘 산다는데 안 도와주고..”(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처음에 가족에게 송금할 때 그것을 돌려받으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살면서 그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받을 생각 없이 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5의 생각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연구참여자 5와 가족 사이의 불편한 감정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5의 가족은 아버지의 빚보증 여파로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고 서울에 도착하여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5도 결혼으로



인하여 친정과 소통하지 못했고 몇 년 뒤에는 아기를 낳고 집을 샀으므로 송금할 여유가 되지 않았기에 송금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현재 장성한 동생들은 자신들이 힘들었을 때 용돈조차 상관하지 않은 누나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연구참여자 5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5가 한국에 나와서 가족에게 조연하거나 친정 일에 간섭할 때 이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다. 이는 연구참여자 5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형부의 부도로 인해 아버지가 진 빚은 딸의 송금을 모두 삼키고도 남은 빚이 있었고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걸쳐 갚았다. 빚은 딸의 송금만 삼킨 것이 아니라 친정으로의 송금과 친정 가족 지원을 위한 타지에서 딸의 노고도 지웠다. 그러므로 딸은 가족을 위해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정당한 실제적, 심리적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가족은 가족대로 자신들이 고생스러웠을 때 살만한 누나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여긴다. 이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 5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어야 함을 체득했다.

“이해해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잘하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말을 안 듣는다 말이야. 나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 옛날에는 내가 도착하면 야 나 도착했으니까 데리러 와. 이렇게 명령식으로 했는데 그렇잖아. 나도 그럴 자격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와도 공항버스 타고 이제 혼자와. 갈 때는 짐이 많으니까 부탁도 할 수 있는데 싫어요. 이제 나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니까.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피해 안 끼쳐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기 오면, 아 누나~~!!(몹시 환영하는 목소리와 태도) 막 그럴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바보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지네들은 지네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2019. 08. 23)

연구참여자 5가 해외에서 47년을 살아오는 동안 친정 가족에도 변화가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린 동생들은 장성하여 결혼하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친정 동생들에게 누나로서 입바른 소리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참여자 5의 목소리는 가족에게 닿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인해 가족에게 당당히 요구하거나 할 말은 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지만, 동생들은 이런 연구참여자 5를 피하려 한다. 가족이기에 그런 기대를 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서운함이 있다. 자신이 가족에게 행한 일에 비하여 돌아오는 가족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생각에 변화를 가지려 노력한다. 자신이 베푼 것은 잊고 요구하지 않는 태도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공항에 도착해도 데리러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동생에게도 생활이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친정에 오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바라는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진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5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풀되 자신

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 동생 뭐 했다고 100만 원씩 보내주면 그거 번 돈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나한테 큰돈 이거든요? 그러면 아 언니 고마워 그럴줄 알았는데 아니야. 언니는 잘 사니까 이거 조금 준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주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다 가져가. 나는 어머니 준다고 그러면 싹 가져가더라고. 지금은 잘 사니까 괜찮아요. 누나, 이모가 외국에서 잘 사는 줄 알아. 돈을 땅에서 파서 쓰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힘들게 번 돈인데 애들은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자기 딸이 거기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버니까 여기 살면서 돈을 안 보내준다고 그랬거든. 우리 언니가 힘드니까. 그런데 자기가 와서 애기를 봐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제 이해해요. 언니가. 저를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은 떼돈 버는 줄 알아요.”(2019. 08. 23)

연구참여자 5가 간호사로 이주하여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했을 때, 가족들은 연구참여자 5가 거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시집살이는 어떻게 하는지, 직장 생활은 얼마나 힘든지와 같은 이주자의 삶에 대해 알지 못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5도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소통은 대화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어퍼한가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될 것이다. 연구참여자 5와 친정 가족은 소통에서 장벽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5의 언니는 그녀의 딸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송금하지 않는 것에 서운했지만 실제로 가서 딸의 생활을 보면서 동생(연구참여자 5)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5가 억울한 것은, 자신은 나름대로 힘들게 생활해서 친정 가족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을 준 것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 이전에는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실생활과 고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서로 소통되지 못하였다. 소통하지 못하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방향을 잃었고 서운함이 해소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어머니가 지금 올해 89세거든요. 살아계시니까. 봐줘야죠.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좋은데 비행기 힘들니까 나보고 오라고. 그래 내가 가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친정에서 할 말을 딱딱해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해. 한국 사람들 그런거 싫어하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셔. 오면 조용히 있다가 가라 조용히. 손님이다. 손님이니깐 손님답게 그런데 할말은 해야되잖아. 그런데 못하게 하셔. 그래서 이제는 안해. 내가 해봤자. 이익되는 것도 없는데. 지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데.”(2019. 08. 23)

연구참여자 5가 한국에 오는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다. 1년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온다. 노모가 안 계시면 한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주요 이유는 사라진다. 그렇지만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한국에 나오는 일을 반복한다.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것은 정체성의 정립이고 심신의 안정과 위안이다. 연어가 회귀하듯 자신과 같은 본질적 동질성을 찾으려는 몸부림 같은 것이다. 한국에 오면 때로 실망하고 가족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모국에서 외국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다음에 다시 찾아온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에 가족을 방문했을 때 할 말은 했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면서 어머니의 중재는 손님이나 손님처럼 잔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누나이고 언니이니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족에게 행한 일도 있으니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연구참여자 5의 간섭은 부담스러워한다. 연구참여자 5들이 모국의 가족과 갈등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나 그 형태는 주로 ‘간섭’에 의해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5는 가족과의 갈등을 통해 무엇을 누구에게 줄 때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고 간섭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것은 연구참여자 5가 삶에서 실행하는 성찰의 과정이다.

#### ④ 한인 국제결혼 여성 커뮤니티 구성

“처음에 10명이 모여가지고, 한집에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한국 음식 해서 먹고. 애들 옷 있잖아요 서로 바꿔서 입히고 그렇게 해서 넓어진 거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2008년도 그러면 우리가 국제부인회를 만들자.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모이니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항상 모이는 사람만 모여요. 한 80명쯤 되는데. 여자만. 남편하고 합치면 160명. 애들하고 합치면 한 200명 정도.”(2019. 01. 28)

파독의 영향으로 빈에 온 한국인 간호사는 1차에 50명이 왔고 2차에 다시 50명이 와서 총 100명이다. 이 가운데 연구참여자 5와 함께 병원에 온 인원은 30명이고 3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3년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13명 중에 절반이 국제결혼을 했다고 하였다. 나머지 70명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귀국을 했거나 정주를 하거나 국제결혼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가진다. 소수의 한인 국제결혼 여성 가운데 먼저 1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만의 모임을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5는 이 모임의 5대, 6대 회장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을 하면서 국제결혼 여성들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문화의 차이에 오는 갖가지 상황들,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생활 등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에 대한 정보, 학습방법 등에 관하여 소통한다.

젊은 부부의 경우 이혼을 생각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먼저 국제결혼 한 경험자들이 선배로서 상담하여 도움을 주기도 한다.

“부인회에서는 친목이죠. 친목. 부인회에서 뭐하나면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들 문화차이가 있잖아요. 남편들하고의 차이 같은거. 그리고 한국에서 남녀관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도 여기는 제가 제일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서 젊은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난 이래서 어려웠다.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애네들은 살아온 시기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 같은 거.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은 건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살다보면 다 잘 사는게 아니고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래 이혼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마다 힘든 게 있죠.”(2019. 01. 28)

국가와 민족이 다른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여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같은 민족 내에서 결혼한 가정의 남녀와는 다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이다. 타자와의 의사소통은 언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어 외적 요소들로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이다. 문화는 개인의 가치관과 그에 따르는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문화가 다르고 그 문화에 의한 가치관과 표현방식, 그리고 행동이 다르므로 같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내재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은 국제결혼 가정 부부 상호에 대한 애정 여부와는 별개로 갈등 국면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 고맥락적 대화 패턴을 가진 한국과 저맥락적 대화패턴을 가진 독일 사회는 대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크게 가진다. 독일 남성과 결혼한 한인 여성의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남혜경·김영순(2018: 56-57)은 고맥락 문화권인 한국 여성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심정을 남편이 눈치채기를 바라지만, 저맥락 문화권인 독일 남성은 왜 말로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한국 여성은 굳이 말로 표현해야 알아듣는 남편이 답답하고 남편은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 여성들은 더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현대의 젊은 국제결혼 부부는 이와 같은, 고/저 맥락의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여 대화 패턴의 차이, 그리고 상대방의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세밀한 문화적 요소들의 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의해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근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것도 처음에 결혼한 애들이 있죠. 한국에서 와가지고 애네들은 예스 노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예 그래놓고도 아닐 수도 있고, 싫는데 예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미스터리.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쓱쓱쓱. 할 말은 딱 하고 뒤에서 쓱쓱쓱 하는 거(하지 말라고).”(2019. 01. 28)

한국과 오스트리아 문화의 다름 가운데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다름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 갓 결혼하여 이주한 경우 ‘예’와 ‘아니오’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예 하 고도 아니오. 일수도 있고 싫은데 예라고 할 수도 있기에 이에 따른 오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쪽 문화의 특성에 관한 다각적 수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커뮤니케이션은 표현방식에 있어서 문화의 차이를 가진다. 한국은 타인과 문제 상황을 접하게 되면 집단적이고 관계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피하여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주변을 먼저 해결하여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안건이 생성되면 그 안건에 관한 주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의견을 먼저 내놓지 않고 관망하거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대답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나 독일과 같은 개별적 문화권의 대화방식은 문제의 핵심을 예와 아니오처럼 직접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리고 문제에 따른 감정보다는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는 관점에 익숙하다. 그러나 한국은 문제에 관련한 사람의 감정을 먼저 보고 이를 해결하려 하기에 에두르는 방식을 사용한다. 표현방식에서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국제결혼 초창기 한국 여성들의 부부간 대화와 한국 여성의 거주국 적응은 갈등이 증폭된다.

국제부인회에서는 신입 국제결혼 여성에게 거주국의 문화를 교육하고 대처방법을 조언한다. 그리하여 거주국에서 상황을 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함을 교육하고 조언한다. 그럼으로써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개인의 문화적응력을 높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젊은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겪을 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케리 채프먼 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예쁘게 포장하여 선물한다. 갈등을 겪는 부부가 그 책을 읽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볼 것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연구참여자 5 자신도 국제결혼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타자와 협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도 한국 사람답게 행동을 하죠. 빈에는 중국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한번 지나가면 그렇게 더러워요. 나는 내 앞사람이 지저분하게 해놓고 지나간 것을 깨끗이 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같은 국제결혼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해야 한다 그 래요.”(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을 한국의 민간대사라고 여긴다. 자신의 앞 사람이 지저분하게 하고

간 자리에 가면 그곳을 다 치우고 나온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신 즉 한국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5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한국 음식을 이웃과 친구와 함께 먹고 즐기며 나눈다. 이제는 남편의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더 잘 먹고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안다. 요즘은 한국 요리 강습하는 곳이 있어서 김치 만드는 것과 불고기 만드는 것을 배우기도 한다. 한식당이 늘어서 한국식당에 가면 먹으면서 어떤 음식인지 한국인보다 더 잘 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려졌고 그렇게 되기까지 연구참여자 5와 같은 국제결혼 여성들과 한인들의 숨은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모국과 거주국 문화에 따른 갈등

“한국은 예스가 노가 될 수 있고 노가 예스가 될 수 있으나 오스트리아 사람은 예스하고 노가 정확해요. 뭐든지.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예스와 노가 정확하지 않으니깐 가끔 힘들어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예스로 얘기한 건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우리는 노(no)라고 그러면 노(no)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오해도 있었어요. 그런 게 많아.”(2019. 06. 04)

문화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에 의해 개인은 해야 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분한다. 연구참여자 5가 말한 한국 사람끼리의 결혼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의 다른 점은 바로 이 문화의 다름에 의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5는 문화에 의한 의사 표현방식의 다름에 관한 예를 들었다. 한국 사람이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은 아니오. 이거나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사실은 예, 인 경우 거주국 구성원들이 그 대답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인회 회장님을 맡아서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해서 아닌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예’였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사소통에서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주민이 거주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화될 필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다수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동화가 아니라 서로의 방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동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60년대-70년대에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 문화가 남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국제결혼 가정)는 그런데 자꾸만 변화시키면서 새것을 보고,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애. 앞을 안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느니.”(2019. 06. 04)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모국을 떠나온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주하는 국가에 그대로 가

져온다. 그리고 그것이 거주국의 문화와 가치관과 혼합하여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국의 문화가 그들의 생활 습관에 화석처럼 남는 경우가 있다. 즉 이주자가 떠난 모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거주국의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하여 거주국의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고, 한편으로는 이주자가 자문화에 대한 높은 프라이드를 고수하는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5는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과거가 아닌 앞으로를 보면서 나아가겠다고 하였다. 이는 국제결혼 가정이 거주국의 문화에 한국인 가정보다 더 많이 친화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거주국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였으므로 한국 여성도 그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거주국 사회문화에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한국인 가정처럼 정체된 듯한 현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가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는 뭐냐 하면 너는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하냐.. 아니면 너는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 이런 거. 제가 다니는 (로컬)교회는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 안 해요. 정신적으로 기꺼이 도와주고, 뒷말하는 거 하나도 못 봤는데. 한국교회는 도와주고 뒷말하고, 한국 사람은 나인이라고 그래놓고 뒤에서는 예라고 그러고, 말이 이렇게 좀 달라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일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차린 것도 없는데 드시라고.. 그게 뭐예요. 하루종일 힘들어서 했는데 차린 것도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바꿔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말해요. 좋잖아요.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 건데...”(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이주자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에 많이 의지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사람이 다니는 교회와 거주국 구성원들이 다니는 교회 두 곳을 다 다니게 되었고 딸들과 함께 다녔다. 딸들과 같이 한국교회에 가면 한국말을 왜 못하느냐? 라거나 옷이나 머리모양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스스럼없이 말하며 간섭을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도움을 주고 뒷말을 하지 않 로컬교회는 간섭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난 후 뒷말도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한국교회는 한국 집단문화권의 특성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자 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예의라고 여기는 것에 기인한다. 즉 집단주의 문화는 상대방을 내집단으로 받아들여 자신들과 동질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집단과 다른 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여 집단의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집단의 압력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행하고 타인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여긴다.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보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

하지만, 그 기술의 근원에는 문화와 개인의 인성이 있다.

#### (4) 노년의 삶

##### ① 한글학교 국제결혼가정 학급

“그때는 따로 우리 혼혈 애들을 위해서, 국제결혼가정을 위해서 반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대사관에 쫓아가고 영사님을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빈에 국제결혼가정을 위해서 한글학교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국제부인회에서 따로 우리끼리 돈을 내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모아놓고 다섯명 여섯명 우리끼리 같이 가르쳤어요. 우리 국제결혼가정 애들을 한 3-4년 되나? 5년 되나 지금 국제결혼가정 애들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한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는 국제결혼가정 애들만 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독일어를 아는 사람들이예요. 애네들은 한국 교과서를 하는게 아니고 한국말 익히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익히는 거죠.”(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당시에는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반이 따로 있지 않았고 오스트리아에 온 주재원의 자녀들이나 유학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반이 있었다. 주재원과 유학생들의 자녀들은 한국어로 돌아간 후 한국 학교에 다녀야 하므로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는 한국의 국어 수업과 같은 교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과는 학습 목표가 다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과 주재원 자녀들이 함께 한국어를 공부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선생님으로부터 혼나거나 꿀밤도 맞고 그러면 국제결혼 가정 2세대들은 그것에 반발했다. 그리고 한국어 교실에 가지 않겠다고 부모에게 요구한다. 자신들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하느냐? 라고 묻는다. 이러한 현실이었으므로 연구참여자 5는 국제결혼 가정의 2, 3세대들을 위해 한글학교를 따로 마련해야 함을 영사를 쫓아다니며 설명했다.

그리하여 국제결혼가정 여성들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고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받아 선생님을 고용하였다. 그렇게 국제결혼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3년에서 5년 정도 되었다. 연구참여자 5의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였고 다른 국제결혼 가정의 2, 3세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결혼 여성들이 자녀세대를 위해 한국어반을 개설한 이유에는 자녀와의 소통과 한국인 정체성의 정립에 이유가 있다. 한국말로는 뭐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독일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이유로 독일어가 모국어인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어를 자녀들이 배운다고 하여도 어머니만큼 자유



롭게 할 것은 아니지만, 모국어와 거주국 언어를 둘 다 사용함으로써 자녀와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가르쳐야 하고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한국이 그치는 게 아니고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한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어줘야죠. 애네들이 커가지고 한국에 가면 엄마랑 할머니가 한국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면 큰 쇼크가 아니지만, 생일 때마다 한복 입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애들이 알지.....(중략). 근데 우리 애들한테 한국어를 모국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이 뭐 하고 내 피가 어떤 것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내 책임감 아니겠어요?”(2019. 06. 04)

연구참여자 5가 오스트리아에 간호사로서 처음 왔을 때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며 무시당하였고 이와 아울러 외국 여성 노동자로 거주국의 인종적 편견에 시달렸다. 그러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외모의 다름으로 놀림을 받을 때,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이중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견뎌낼 힘을 주려고 애썼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이 자라고 있기에 이 손주들에게 다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복을 입혀준다. 연구참여자들은 거주국에서 수년 동안 아무런 효과와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교육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지라도 자녀가 한국에 대한 맥을 놓치지 않게 하였다. 또한,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여 갑자기 한국 문화를 대할 때의 문화 충격을 방지하고자 한다.

“작년부터 우리가 2세대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으면서 15명 모았어요. 젊은 애들. 대학생들. 애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해요. 개네들이 교육비 내면서 우리가 애들한테 이거 꼭 해야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많은 성과를 보고 있고 교육비는 우리 국제부인회에서 반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장학생 하나 도와가지고 만약에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는데 한국에 가서 어학당을 가고 싶잖아요. 비행기표 같은 생활비는 집에서 다 대고 어학당은 우리가 대주는 거죠. 올해부터 하기로 했어요. 한국말 못하면 너 왜 한국말 못하냐 그러잖아. 너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못해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2019. 08. 23)

한국인 2세대는 부모가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한국인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이지만 자녀에게 거주국에서 부모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어렸을 때는 한국어를 하지만 자라면서 자녀들이 거주국에 적응해야 하므로 스스로 거주국 언어를 선택한다. 그런 2세대 자녀들이 자라나는 현재의 환경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때가 되었다. 부모들이 이주할 당시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은 전쟁하는 나라 또는 도움을 줘야 하는 가난한 나라로 인식이 되었었다. 그런 이유로 자녀들은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갖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이 엄마 아빠 세대가 이주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향상되었고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먼저 한국을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찾아온다. 그리고 한국인 2세대에게는 한국인인데 왜 한국어를 못하느냐? 고 물어온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인 2세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반을 아울러 개설한 것이다. 모국의 위상이 재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자라면서 한글을 못 배운 애들이 있죠. 개네들 어릴 때는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 안 배운 애들이 지금은 한국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2세 모임을 따로 해주거든요. 2월부터 10명이 한글학교 시작해요. 2세대들이. 그래서 3세대들은 다니고 있고 2세대들이 한글 공부를 해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국제부인회에서.”(2019. 08. 23)

연구참여자 5가 간호사로서 빈으로 이주한 지는 47년 되었다. 그것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나이가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결혼가정 2세대 반의 나이는 40대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어의 필요성이 거주국에서는 없었고 배우기도 어려웠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으나 자라면서 한국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당시 부모는 가르치고 싶었지만, 자녀들 스스로 거부했었던 국제결혼가정 2세대들을 위한 한국어 반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 2세대들의 자녀인 3세대들을 위한 반도 함께 개설되었다. 2세대들은 부모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꼭 한국어를 가르쳐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3세대인 5, 6세 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글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어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한국말 하니까, 안녕하세요?.. 웬만한 거 그런 말들은 알아들죠. 그리고 한마디씩은 배워오니깐. 신경을 안 쓰면 애들이 (한국말)아무것도 못해요.”(2019. 06. 04)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손녀들이 포함된 3세대를 위한 반을 개설하고 이곳에 손녀들을 매번 데려가고 데려온다. 그럼으로써 자손들에게 그들의 할머니가 어디에서 왔고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3세대인 손주들에게 해마다 한복을 입힌다. 알록달록한 한복은 어린 손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접촉하게 한다.

“이 나라에서 요즘 한국말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요즘 한글학교가 올라갔어요. 외국인 아이들이 배우러 온다니까요? 한국과 아무 저기가 없는데, 한국이 좋아서. 지난번에 친구가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 식당의 매니저가 한글학교를 졸업해서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 외국인인데. 개는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면 다 놀래지. (한국말)잘해요.”(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빈에서 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의 매니저는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를 잘한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들을 연구참여자 5는 국제부인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자녀세대를 위한 한글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세대에게 한국인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신의 정체성도 굳게 한다.

## ② 한국 정부의 재외 한글학교 지원

지구촌의 세계 각국은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의 자국민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하여 해외 자국민을 위한 정부 기관을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3월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을 공포하고 10월 30일 재외동포재단을 발족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목적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김봉섭, 2016: 154, 165).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재외동포의 자녀세대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이 있다. 이화숙·김남경(2018: 117)은 한글학교가 이주국에서 재외 국민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 학교로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를 교육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주국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글학교는 2017년 기준 113개국에 1,78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는 15,789명, 학생은 100,063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2020년 2월 20일 현재 오스트리아 빈의 한글학교 교장<sup>16)</sup>의 설명에 따르면 빈의 한글학

16) 빈의 한글학교에 관한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참여자 5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때 연구참여자 5는 빈의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주어 20분 동안 통화하며 이를 본 연구에 추가하였다.

교에는 유치원부터 중등 2학년까지의 과정에 14개 반이 있으며 한국 학생을 위한 반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한글학교 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약 40명 정도 출석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한다. 그렇지만 현지 사정에 맞추고 학생의 개별 수준에 맞추기 위해 교사들의 재량이 다수 활용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한글학교 1년 운영비 가운데 1/3을 차지한다. 재정은 재외한인 2세대의 한글교육과 한글학교 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와 엄마들의 바자회를 통한 수입, 운영위원들의 기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등은 학교 건물 임대료, 학생들을 위한 활동과 학교 운영 등에 사용된다. 한국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에 있는 한글학교 교사 훈련을 위해 교장은 50명, 교사는 300명의 제한을 두어 세미나를 한국에서 1년에 1회 실행한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봉사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한국 정부가 재외한인을 지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외한인과 협력하여 거주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재원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한인의 자녀세대를 지원하는 것에도 그들을 잠재적 한국의 재원으로 여겨 이들과 관계망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 ③ 한국 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동질감을 가짐

“우리와 똑같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죠. 외국인이니깐. 좀 열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를 많이 해야죠. 한국에서. 이게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끼리. 한국이 잘살고 한국이 세계 랭킹이 7, 8위로 있는데 아직도 외국 사람 저기하고 그러면 안되지. 좀 본을 보여야하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도 어디 가서 일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당하면 좋겠어요? 아니지.”(2019. 01. 28)

연구참여자 5는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 여성들에 대하여 동질감을 느낀다. 연구참여자 5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여 일하며 살아갈 때 동료의 무시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삶이 있는지를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이 외국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 외국 여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서 보호하며 따듯하게 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권에 대한 의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주를 실행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 이주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사회가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에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교육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상우(2017: 66)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후 다양한 법령과 정책들이 제정되었고 이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일정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인권보장과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 등 인권적 측면의 보완을 강조한 다문화 인권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인권교육은 편견 및 차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인권침해 및 예방, 그리고 구제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인권교육과 아울러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이주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고 있는지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 이해는 한국 사회의 타자에 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한편 이주자의 노년에 경제적 안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 노동 이주를 한 것이었고 간호사 직업은 업무 특성상 오스트리아에서 계속적 수요를 가졌다. 연구참여자 5는 거주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업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리고 직업을 통해 연금이 적립되었고 그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 안정성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5는 63세까지 근무를 해야 했었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남편이 대신 계속 연금을 납입 하였으므로 40년을 일찍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5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40년을 채우고 60일을 근무하면 일찍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63세까지 일해야 했지만 60세에 퇴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퇴직에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연구참여자 5는 설명한다. 일반 퇴직 보증을 든 사람은 '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공무원은 퇴직이라고 하지 않고 '취고 있다고(in Ruhestand)' 말한다고 하였다. 퇴직과 취고 있다는 용어의 차이가 은퇴 후 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일반 사람들과 공무원의 퇴직에 용어 차이가 있음은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일찍 퇴직한 후에 간호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재취업을 하여 연금을 붓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딸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들이 생겼으므로 은퇴 후의 직장은 더는 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연금수령은 60세였지만 점점 늘어져서 63세, 그리고 지금은 65세이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므로 그리고 아직은 이주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있지만 향후 몇 년 또는 몇십 년 안에 이들의 노후가 현실로 다가올 때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기에 노후 대비 문제는 자국민과 이주민 모두를 위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자국민의 노후와 더불어 이주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한국 전체를 위한 일이다.

#### ④ 한국에 거처를 마련함

“언니가 이 집을 내놓으려고 했거든요. 이 집이 공영주택이니까. 그런데 내가 언니 그러지마. 이게 나중에 언니가 살다가 나이 들면 말도 안 통하니까 한국이 더 좋다. (미국이)아무리 좋아도 애들이 다 크면 외로와. 이 집은 내뒀라. 대신 세는 내가 줄 테니까. 여기 이 집 다 고친 거예요. 샤워장도 만들고. 샤워도 없었어요. 바닥도 새걸로 깔고 정리를 해놓으니까 괜찮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같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60, 70년대 노동자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2019. 0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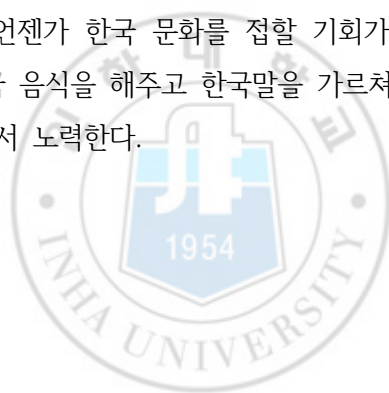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5가 언니 소유의 아파트를 팔지 말도록 언니를 설득한 이유는 한국에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파독 간호사들은 노령이 되면서 부모와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한국에 나올 때 손님이 되어 친척, 친구의 집이나 호텔을 오간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5는 언니의 집을 팔지 않고 보전함으로써 거주국에서 대부분의 생활은 하지만 마음 편히 한국에 오갈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과 이들의 자녀세대는 한국의 친족과 한국 사회와의 연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직계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한국으로의 연결점이 점점 더 약해질 가능성을 가진다.

연구참여자 5의 이주생애사를 통한 이주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영향은 ‘나를 찾은 것’이다. 연구참여자 5는 100%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이 왜 사는지를 아니까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렸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아왔네..’ 라는 생각을 하며 삶을 돌아보고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이주하여 결혼한 후 시집살이로 인하여 거주국에서 죽고 싶었던 나날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여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신께 탄원할 만큼 힘든 과정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다. 신앙에서도 연구참여자 5는 이전에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고, 또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영생의 의미를 깨달고 난 후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 자신이 변해야 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5는 자기 자아를 찾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문화적 적응은 공동체 활동을 통한 문화적응이 있다. 한국 문화와 오스트리아 문화는 상당 부분에서 다른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도 문화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같은 현상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가 다르면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예스(yes)가 오스트리아인의 예스(yes)와 같지 않다는 점을 문화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 두 개

의 에스에서 어느 한 그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연구참여자 5는 공동체 활동에서 새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에게 거주국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셋째, 모국으로 연결하는 초국적 행위로는 송금과 관련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5가 느끼기에 자신의 송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친정 가족들의 인식은 이해되지 않았으나 이제 점차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남편과 함께 노력했고 자녀들은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을 하거나 한국에 어학연수 등을 하면서 한국어를 습득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사회에서 당당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이주자의 삶은 ‘조상이 되는 것’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인 정체성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들의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자녀들은 할머니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5는 그의 후손에게 1세대 조상이 된다. 1세대 조상으로서 연구참여자 5는 자녀들이 언젠가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왔을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복을 입힌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해주고 한국말을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도록 조상으로서 노력한다.



## 2) 연구참여자 6 : 세심하고 꼼꼼한 전략가

연구참여자 6은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고 있으며 1951년 5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위로 오빠 둘과 아래로 남동생이 세 명 있다. 1972년에 간호사로 이주하였으며 남편을 만나 1974년에 결혼하였고, 2020년 현재 48년째 거주하고 있다.

<표 IV-7> 연구참여자 6의 연대기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지손톱이 빠지도록 지켜낸 딱지</li> <li>■ 달갑지 않은 딸</li> <li>■ 고향에 혼자 남아</li> <li>■ 어망을 떠나 삶의 격전지로</li> </ul>
이주 후-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근무 도우미 의과대 청년들</li> <li>■ 맞아 죽을 각오로 선택한 국제결혼</li> <li>■ 빈의 종교적 성혼 서약식</li> <li>■ 10년 만의 친정방문</li> <li>■ 남편과 갈등, 고통과 성장</li> <li>■ 패치워크 패밀리</li> <li>■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li> </ul>
거주국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갈등, 미안하다 먼저 말하기</li> <li>■ 또 다른 출구가 된 암(癌)선고</li> <li>■ 음악의 진동(슈빙웅옌 연주회)</li> <li>■ 음악 콩쿨 심사위원</li> <li>■ 한국 평화통일 음악회</li> </ul>
노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지(冬至) 캠프파이어</li> <li>■ 마을 주민과의 친목</li> </ul>

### (1) 유년-청년기

#### ① 엄지손톱이 빠지도록 지켜낸 딱지

“이웃 사내아이와 딱지치기 중 이긴 내 딱지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느라 내손으로 딱지를 덮는 순간 그가 내 손을 짓밟아 끝내는 엄지손톱이 빠지고 말다. 형제들이 나를 소개할 때는 우리 여섯째 형님이라고!. 또한, 5살과 9살 위인 오빠들과의 생활은 마냥 천진난만하였고 학교 진학문제도 쉽게 도움받을 수 있었다. 여고 시절에 혼자서 시골 유학할 때 공군 장교이셨던 큰오빠의 시골 여자고등학교 방문은 온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순간이다!”(2018. 09. 20)

연구참여자 6은 남자 형제들 가운데에서 자랐다. 딸이 하나였고 부모님은 바깥기에 연구



참여자 6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놀았기 때문에, 어릴 때의 놀이는 남자 형제들이 하던 딱지놀이, 나무타기 같은 것이었다. 어릴 때 딱지를 탄 후 딱지놀이에서 진 아이가 딱지를 빼앗으려 했을 때 연구참여자 6은 딱지를 손으로 덮어 사수했고 그 아이가 손을 짓밟아서 결국은 엄지손톱이 빠졌다. 그리고 2명의 오빠와 세 명의 남동생이 연구참여자 6을 여섯째 형님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것은 연구참여자 6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유추하게 한다. 이와 아울러 자기 손을 짓밟는데도 딱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참여자 6의 특성은 그녀의 생애에서 재현되었다.

## ② 달갑지 않은 딸

“OO종가 36대 종손이었던 아버지는 깨끗하고 융통성이 없으나 기계를 잘 다루었어요. ‘어머님은 엄하고 진지하셨으며, 말수가 귀했던 분이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좀 리더십도 있었고 사업에 대한 그 센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 퍼스널 매니지먼트도 아주 대단한 талан트를 갖고 계셨어요. (2019. 1. 25) 어머니는 “딸 하나는 과분코 반은 별 쓸모가 없다.” 하신 절대 보수적 안목을 가지신 아버님 뒤에서 묵묵히 5남 1녀 중 딸의 장래를 지켜보시며 남모르게 은근히 용기 북돋아 주신 분이시다! “요즈음 세상은 여자도 배워야 현명한 부인, 어머니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귀땀해 주셨다. 곧 그 말씀은 그때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네 실력과 능력으로 아버님께 보여드려라!” 로 받아들였다.”(2018. 09. 20)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13세에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그리고 해방 1년 전에 연구참여자 6의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현금을 모두 모아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하던 공장과 집을 팔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연구참여자 6의 어머니 또한 일본에서 오빠와 함께 있었고 연구참여자 6의 외삼촌의 중매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여 한국으로 돌아와서 벨벳공장을 운영했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다섯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딸에 관한 태도는 “딸 하나는 과분코 반은 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 말의 의미를 물었을 때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러니까 이어나저러나 웰컴이 아니야. 별로 희망 사항이 아니고 태어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라고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가부장적 태도는 연구참여자 6의 가치관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 6은 그리 달갑지 않은 딸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으므로 아버지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는 삶을 살았다. 연구참여자 6의 집이 공장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모두 기계 돌리는 일에 참여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때 연구참여자 6도 작은 기계를 돌렸는데 저녁이 되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고 집으로 갔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공장 직원과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데 어린 연구참여자 6이 보이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찾으러 나섰다.

“공장 문을 열다가 어디에서 덜커덕 덜커덕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불을 켜시고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안 돌려도 된다. 그러시고 저를 안고 우시더라고요. 딱 한 번 기억이에요. 그래 우리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다시는 일하라 소리 안 하셨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컴컴한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만큼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가 고명딸인 연구참여자 6을 귀하고 애뜻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귀하게 여긴 만큼 염려가 넘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한 것도 각별했다.

### ③ 고향에 혼자 남아

“고등학교 수석으로 들어가면 1등 하는 놈은 학비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니 살아가는 것은 내가 돌봐줄 테니까 (공부)하자.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학교 절대로 못가게 하시다가 이게 또 덜컥 (1등이)됐네. 그런데 선생님이 또 뒤에서 막 그러시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포기를 하신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만두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은 서울로 가신 거예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중학교에 갈 때만 해도 가정형편에 문제가 없었으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가 하던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공장문을 닫은 이유는 박정희 정권 때 호주에서 수입되던 원사의 수입이 차단되고 금지되어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방직 기계로 다른 방도를 찾았지만,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그 일로 인해 당시 많은 벨벳공장이 줄도산했다. 형편이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연구참여자 6은 고등학교에 갈 시기였고 남동생은 중학교에 갈 시기였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딸을 교육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남동생을 중학교에 진학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며, 중학교 담임선생님은 연구참여자 6을 양녀로 삼아 돌보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연구참여자 6을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공부시켜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싸움하듯

주장하였기에 아버지가 양보하여 남동생 대신에 연구참여자 6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 일로 연구참여자 6은 자기로 인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 당시 비로도(벨벳)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가족은 모두 서울로 이사 가는데 연구참여자 6만 홀로 고향에 남아서 고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연구참여자 6의 가족이 살던 집은 당시 주변에 몇 채 없었던 기와집이었는데 이 집을 매매하면서 다짐받았던 것은 연구참여자 6이 사용하던 방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하게 해달라는 조건이었다. 그 집은 연구참여자 6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다. 집을 사려는 마음에 바빴던 그 사람들은 조건을 수락했지만, 가족이 모두 서울로 간 후에는 연구참여자 6을 집 뒤의 골방에서 살게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구참여자 6은 돈 안 들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궁리했다.

#### ④ 어망을 떠나 삶의 격전지로

“어디를 가야 돈 안 들고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만 해도 꿈은 컸고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디 가서든 톱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서울대 같은 데는 여차피 못가고 그래서 연구를 한게 돈 안드는 학교. 그리고 거기는 외국으로 다 간다. 100%. 그래서 보니까 국립의료원 간호학교. 완전 스폰서식. 먹고 자고 입히고 다 해주고. 그리고 졸업하면 의무 근무하고 나서 거의 100%가 미국으로. 특차고. 거의 한 두 달 시험을 봐서. 이거 뭐 떨어지든 말든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이가 적어서 안 된다 그래서 막 해가지고 어쨌든 시험을 봤죠. 300명 와서 30명 뽑았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딸이라서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던 것을 연구참여자 6의 어머니가 시아버지께 “그래도 출생신고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요청한 결과로 할아버지가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태어난 해와 날짜가 뒤죽박죽인 상태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그 결과 국립의료원 시험을 볼 때 나이가 적다고 원서를 받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시험을 꼭 봐야 했기에 요건을 만들어서 시험을 볼 수 있었고, 합격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의 출생 연도와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에 의하면 전쟁통에 피난할 때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귀중품을 다 놔두고 널려 있던 기저귀만 후다닥 걸어서 집을 꾸러 피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1950년에는 태어나지 않았겠느냐는 예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손녀가 태어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기록해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난 후 출생신고할 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으므로 연도와 날짜에 오

류가 생겼다. 연구참여자 6의 집안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유추되는 상황이다. 연구참여자 6은 1950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기록상으로는 1951년으로 되어있다. 우여곡절 끝에 10 :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국립간호학교는 졸업한 후 의무로 3년을 일해야 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은 3년을 의무로 일하기 싫었다. 그래서 1년쯤 근무한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고 파독 간호사 모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교육을 받던 중에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음악의 도시 빈이라는 소리를 들은 순간 당장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3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으로 시집간다고 돌려대고 위약금 삼십 만원이 넘는 금액을 되돌려 주고 퇴사처리를 하고 빈으로 갔다. 위약금은 엄마가 빌려주었다.

70년대 쌀 한 가마(80kg) 값을 검색해본 결과 1946년에는 3.86원, 1963년에는 3천원, 1972년 1만원, 2008년 20만 원이 넘었다. 1974년의 쌀값이 기록된 사실을 1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장부에는 쌀 1가마의 가격이 12,3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네이버 지식검색, 2015). 이 기록에 따라 당시 쌀 한 가마 가격을 1만 원으로 하였을 때 30만 원을 2008년 쌀값으로 환산하면  $30 \times 200,000 = 6$ 백만 원이 되는 셈이다. 당시의 30만 원이 현재의 600만 원의 가치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간호사로서 안정된 직업이 국내에 있었고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독 간호사에 지원한 이유를 연구참여자 6은 간호사 일을 하기 싫었고 빈에 가고 싶었던 이유(한국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 포함)와 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6은 빈에 가서 48년 살아 오는 동안 간호사 일은 2년 동안만 하였고 남은 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이주에 ‘어망 속에서 헤어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였다.

“(빈에 간호사로) 오게 된 진짜 동기 중 하나도 제 밑에 바로 동생이 저 때문에 중학교 재수를 했고 그 동생이 이제 한양공대를 들어갔어요.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상의를 하러 왔어. 그래가지고는 니 입학금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우리 공장 할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급하면 돈을 빌려온 태서방 아지매가 있었어요. 그 아지매를 찾아, 찾아, 찾아갔어. 태서방 아지매, 나는 외국 가고 외국 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 내가 어떤 한이 있어도 애 입학금 빌려주시면 값아 드릴 테니까 지금 시급하니까 빨리 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지매가 장문을 열더니 입학금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입학금을 내고 다 해결을 했어요. 그것도 (이주) 이유였고 또 첫째는 제가 그 한국에 얽히고 설키고 그 어망 속에서 헤어나고 싶은 .. 탈출하고 싶은 거. 그 자체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으니까.”(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자신 때문에 중학교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세 살 어린 바로 밑에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던 차에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고 연구참여자 6은 파독을 담보하여 동생의 입학금을 해결해주었다. 연구참여자 6의 이주 동기에는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고 다른 이유는 어망을 헤어나고 싶은 것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이 어망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경제적 빈곤, 더 높은 꿈을 꾸었지만 이를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여성에게 지워지는 사회적 압력 또는 규제 등과 같은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6의 집은 종가였기에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 차별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1972년 한국 간호사 50명이 이주한 첫 번째 그룹과 함께 빈에 도착했다.

“빈 공항 딱 도착하는데 저는 제가 집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천국에 도착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마음 자세, 제가 어떤 무슨 굴곡을 겪어도 전체적으로는 나는 천국에 살고 있어. 거기에 그렇게 변함은 없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어망 속을 빠져나와 새로운 삶의 격전지로 들어섰다. 연구참여자 6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48년을 살아왔고 이주하여 삶의 굴곡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주지를 천국으로 받아들였던 그 마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처음 도착한 빈 공항에서 마치 집에 온 것처럼 느꼈다는 것에 주목해보면 한국에서의 삶이 확실히 어망처럼 답답했었던 것 같다. 연구참여자 6이 느꼈던 어망의 일면은 그녀의 국제결혼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 (2) 이주 후-결혼

### ① 야간근무 도우미 의과대 청년들

“어느 날 그때가 한 3, 4개월 됐을 때인데 당신은 혼자서 밤 근무를 하세요. 그러기에 나는 전화 오면 기숙사로 도망가기 때문에 절대로 못 하니까 나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학생들을 붙여준대. 의과대학생들. 그래서 3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근무를 할 때는 세 명이 번갈아가면서 와서 같이 밤 근무를 한 거죠. 그중의 한 명이에요. 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 퇴근길에 기숙사 건물의 층계 밑에서 항상 나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나? 그랬더니 할로(가벼운 인사) 하러 왔다고. 그런데 한국말로도 100번 짚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대듯이..”(2019. 01. 25)

한국 간호사들이 일할 때 가장 기피 한 것이 전화 받는 것이었다. 언어가 안 되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 6에게 혼자 밤 근무하는 임무가 주어졌을 때 못하겠다고 하는 연구참

여자 6을 위해 전화 받는 업무를 도와줄 3명의 의과대학생이 함께 뽑혔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연구참여자 6의 남편이 될 청년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이 의과대학생들이 힘들고 잠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전화가 올 때만 깨우고 남은 시간은 잠을 잘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참여자 6에게 관심이 있었던 한 청년은 항상 기숙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질 무렵 연구참여자 6은 한 신문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철창에 동양 아이가 갇혀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진인데 타이틀이 “한국은 이런 아기들을 팔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런 기사를 보고 연구참여자 6은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친구(남편)를 불러 당신들이 얼마나 기사가 없으면 이런 기사를 쓰느냐? 이것은 아이와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고 옳지 않다며 항의했고 남편은 연구참여자 6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그러면 신문사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사를 써서 남편의 한국 이름으로 보냈고, 다음날 신문에 그들이 보낸 기사가 나왔다. 연구참여자 6은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왔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쌍하게 살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구성원은 한국 간호사들을 볼 때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 그리고 동정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한 시선은 연구참여자 6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심정적으로 불편감을 받게 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6이 거주국에서 교회에 가면 “오늘은 가난하고 불쌍한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라고 하며 기도하고 헌금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았던 연구참여자 6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부끄러웠고 창피함을 느꼈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불쌍한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서 있어야 했던 것이 자존심이 상했다. 결혼 이후 외국 여성들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 부자나라이고 그들의 모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여기기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을 불쌍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나와 타자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를 두어 구분하기보다 서로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는 인간존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그 독일 의과대학생과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 ② 맞아 죽을 각오로 선택한 국제결혼

“결혼 얘기 나오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국제결혼 하면 나는 맞아 죽는다. 그래서 당신은 한 달 후에 (한국에)와야한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무슨 수를 쓰든지 결판을 내서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한 달 뒤에도 소식이 없으면 내가 맞아 죽은 걸로 생각하면 된다. 그 교육을 시켰

어요.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내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도착할 즈음 매일 편지가 이런(규격 편지봉투) 봉투로 한통씩 빈에서 왔어요. 매일. 그러니까 거기에 사진이 한 장 있었나봐요. 저는 그 편지를 읽어보지도(못했어요). (2019. 01. 25) 이왕 일생에 하는 이 결혼 내가 맞아 죽어도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파트너를 선택해서 당당하게 하겠다는데 그럼 아버지 생각에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 저는 그 각오를 하고 한국을 들어갔어요.”(2019. 08. 6)

연구참여자 6은 남편과의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 죽기를 각오하고 한국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 가면서 남편 될 사람에게 한 달 안에 연락이 없으면 자신이 맞아 죽은 것으로 알라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만큼 연구참여자 6의 집안 분위기가 보수적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6이 생각하기에 친정의 가치관에서는 국제결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선택한 국제결혼을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허락받고자 하였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관하여 아버지와 한국 사회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이 한국으로 들어간 사이 남편 될 청년은 아내 될 여자 친구의 부모님에게 매일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가운데 자신의 사진을 동봉했다. 그 사진을 보며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미국 놈들은 머리도 노랑고 눈은 파랑다고 그러는데 이놈은 눈도 파랑지도 않고 머리도 안 노랑네?”라고 하였다. 딸의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연구참여자 6의 손을 잡고 “일본까지라도 가면 내가 가서 보기라도 할 텐데 못 가보게 하필 왜 미국으로 가냐고 하였다. 그때 어른들한테는 미국밖에 없어. 미군이야(2019. 01. 25). 그러니까 거기서 허락하신 거야. 우리 어머니도 자주 하신 얘기가 이 세상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답니다.”(2019. 08. 6)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것처럼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도 결국, 딸의 국제결혼을 허락하였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종가의 종손이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이 종가의 여식이 할 결혼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은 아버지가 독일 남성인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을 보고 미국 놈들은... 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의 어른들이 외국인인 모두 미국인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국제결혼에 의한 사회적 낙인을 딸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딸의 결심을 막지 못했다.

“1972년 빈에 도착하여 2년만인 1974년 8월 19일 서울 종로예식장에서의 국제결혼식은 나 자신

도,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절의 결정이었다. 아버님께서 “남 부끄럽다!” 고개도 못 드시고, 친척 오빠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똑똑한 남성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코쟁이한테? 야단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백번 짝혀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옛말처럼, 인연이 그런 것인가?”(2018. 09. 20.)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결혼식이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딸의 손을 잡고 년지시 결혼을 허락하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결혼식장에서는 다시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체면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집단문화권의 나라로 분류된다. 집단문화에서 체면의 손상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개인적으로는 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중심가에서 치러진 외동딸의 국제결혼은 문중과 친지들 앞에서의 사회적 체면 손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37대 종손으로서, 넘어서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연구참여자 6의 친척 오빠가 나서서 ‘왜 하필 코쟁이냐!’라고 야단친 것 또한 집단문화의 양상으로 집안의 일원으로서 자신도 동시에 체면을 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이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국제결혼을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인정을 바란 것이다. 어망이라고 느꼈던, 가난 그리고 비상할 수 없었던 환경,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관한 도전이고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연구참여자 6 에게도, 부모와 친척들에게도, 국제결혼은 힘든 결정이었다. 당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던 국제결혼을 굳이 일가친척 다 불러모아 서울의 중심가에서 강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연구참여자 6의 정체성 표출이고 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며 당당한 것임을 아버지와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관습 또는 가치관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6의 협상은 협상 대상인 아버지와 친척 남성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갈등이 증폭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 에게 있어서 국제결혼을 숨어서 조용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정체성)를 확실히 한 것이다.

### ③ 빈의 종교적 성혼 서약식

“노. 이런 약속은 나는 못한다. 그 신부님이 그때 84세.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거기서 내려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비테 비테 비테(부디, 제발).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나 한테 그런 약속. 미래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약속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에 저는 어그리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든지 신부님 만날 때마다 그거는 아니었다. 내가 죽도록 노력은 하겠다.....(중략). 그건 가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래 정작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도 약속 했던말야. 그런 약속을 왜 해요? 신부님이 정말 간절하게 그러는데 제가 굽어들었죠. 굽어들



고 나서 영세받게 하고 하여튼 거기서 제가 그거를 언약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본정신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결혼사진을 보면 초상난 거 같은. 신부가 우니까 사람들 다 우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한국에서 결혼하고 오스트리아 빈에 온 후 1년 뒤에 빈의 가톨릭 성당에서 종교적으로 결혼식을 하였다. 그것은 자녀의 영세의식을 위해 엄마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결혼 선물을 주려 했을 때 남편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연구참여자 6이 크리스천이 되면 그것이 선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6은 아들의 영세의식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바라마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어주기 위해 성당에 가서 성혼서약을 하게 된 것이다. 종교적 결혼서약의 주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으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바로 이 서약에 연구참여자 6은 싫다(no)고 대답한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하객이 경건하게 결혼서약의 완료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신부가 “노(no), 이런 약속은 난 못 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 난감한 상황에 노 신부가 연단에서 내려와 신부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간청했고 연구참여자 6도 자녀의 영세를 위해서 한발 물러서서 결혼서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눈물의 결혼식이 되었고 그 일은 거주국 사람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였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6의 결혼식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 기자들이 와있었고, 다음날 지역신문에 이들의 결혼이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실렸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 6은 동양 원숭이가 된 듯 얼마나 신기했겠느냐고 하였다. 동양 원숭이라는 말 속에 담긴 연구참여자 6의 이주자로서의 상처, 불쾌함을 인지할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이 빈에서의 성혼서약을 것처럼 참여하게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6과 2019년 11월에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대화하며 1시간 이상을 토의했다. 연구참여자 6의 대답은 이러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현재 약속을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약속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일 수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 자유를 박탈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런 절대적인 요구를 하는가? 사랑은 약속이라는 것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이에 사인한다고 해서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사인 없이도 사랑은 지속될 수 있다.”(2019. 11. 02)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끝에 연구자가 내린 결론은 ‘신앙’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맺는 성스

러운 약속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비신앙인의 관점에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는 어찌면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허황하게 보이기도 할 것이다. 신앙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듯이 실제성을 가지고 믿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을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6이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적 서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었다.

연구참여자 6이 성혼서약을 한 이유에 자기 자신의 의지는 없었다. 연구참여자 6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남편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시작된 행위였고 성혼서약을 한 것 또한 자녀의 영세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신앙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평생을 사랑하며, 성스러운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는 약속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는 더더욱 없는 약속인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그래서 서약식에서 노(no) 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 상황에 노(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의지는 자신의 딱지를 지켜낸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어망을 뚫고 이주를 실행한 젊은 여성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신앙에 관한 종교적 태도이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 어머니가 결혼서약을 하지 않아 자녀가 영세 될 수 없다면 자녀는 그 자신의 신앙으로 영세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인 연구참여자 6의 선택의 자율성은 지켜졌어야 했다. 연구참여자 6이 성혼서약을 한 것은 비단 노신부님만의 부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남편이 바라던 바였고 함께 온 하객의 기대, 그리고 자녀의 영세라는 총체적 압력의 결과였을 것이다. 개인의 신앙이 주위의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다. 다문화 사회가 의미하는 것 안에는 다양한 종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에서 화합과 존중을 추구할 때 타자의 종교에 관한 이해와 존중에 관한 자세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종교적 자유가 타인 또는 타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개인과 사회, 집단 등의 압력이 개인의 선택에 관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결혼생활에서 한국의 종가처럼 친척을 불러모았다.

“대가족에 태어나서 자란 나에겐 유럽의 소가족 중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하고 외롭다 생각되어 친척들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시부모님, 시백부님, 시누이이가족, 시외가집 친척들, 사촌들, 외사촌들, 나아가선 그들의 절친한 친구들까지 초청하였다. 친정 가족을 포함하여 오늘날은 대가족이 형성되어 유럽의 종가 흥내를 내기도 하였다!”(2018. 09. 20)

연구참여자 6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 선물로 남편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6은 그 아파트의 열쇠 가운데 하나를 공항에서 시어머니에게 주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오고 싶을 때 오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했다. 딸의 집은 평생 열쇠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동양에서 온 며느리가 자신을 믿고 집 열쇠를 준 것이었기에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 6은 대가족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므로 소가족 중심인 오스트리아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거주국에서 대가족을 만들었다. 시집에는 삼촌, 사촌, 외가 친척들이 다 있었지만 서로 만남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큰 가족을 만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특별한 날인 어머니날, 생일, 명명일,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에 친지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남편과 아이들도 좋아하여 하나의 가족 전통이 되었다.

#### ④ 10년 만에 방문한 친정

“처음 오게 된 동기가, 우리 아버님이 시골 동네에 양놈 데리고 오면 남사스럽다고 꼭 서울로 오셨어요. 한번은 접는 편지지에 글을 써서 보내셨더라고. 우리 애들을 안아보고 싶다고. 그거를 보고 시골에 갔죠. 저희가 6주를 그 시골에서 있는데 우리가 떠나기 2주 전에 남편도 와서 같이 지냈어요. 남편이 오니까 친척들이 남편 데려가서 술도 사먹이고,.....(중략). 애들이 크면서 한국에 대한 미련 애착 이런 것이 싹트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일 고급 동네에 좋은 집에 사셨는데 우리 애들이 한국 갔다 와서는 한국 할머니 집은 파라다이스고 빈 할머니 집은 좋은 집이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파라다이스냐 그랬더니. 그 동네는 어느 한 집도 대문도 없고 다 오픈 하우스라고.”(2019. 08. 06)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남사스럽다고 외국인 사위를 시골 마을에 데려오지 못하게 했었다. 그러다가 연구참여자 6의 막내가 3세 전후쯤 되었고, 큰아이가 7세 정도 되었을 때 (둘째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친정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하여서 아버지가 계시는 시골로 내려갔다. 시골에서 친척들은 연구참여자 6의 남편을 데려다가 술을 먹였다. 친척들의 이러한 행위는 친족의 내적 구성원으로 받아 들일만 한지 아닌지 테스트의 의미와 아울러 가족으로 받아들여려는 절차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의 남편은 팔 걷고 맨발로 고추 농사를 짓는 장모님을 도와 열심히 일했기에 시골 친척들의 마음을 얻었다. 친척 어른들은 연구참여자 6의 가족이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고 난 후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에게 ‘자네가 사위는 제일 착하고 좋은 사위 얻었으니 더는 군소리 하지 말라’는 권고를 주었다 한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의 자녀들 또한,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할머니로부터 한국의 정서인 ‘정’을 느끼고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한국 할머니의 집은 대문을 열어놓고 살기에 천국에 비유했고 비엔나 할머니 집은 좋은 집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의 가족들은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시골 친척과 연계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남편과 갈등, 고통과 성장

“티격태격할 때 아주 쉽게 그러니까 비스트 두 데바트. 데바트 그러면은 약간 바보냐 뭐 그런걸로 이해를 해요. 저는 생각에 내가 평생에 데리고 살 내 와이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을 내렸고 적어도 평생 존경을 해도 부족할 텐데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싸우면은 항상 얘기가 뭐였냐면은 어... 나보고 큰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위에서 내려와서 얘기하자는 것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뭐든지 남녀관계도 같은 눈높이에서 하고 대통령이라도 평등하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라 이거예요. 지금 이래 생각해보면은 뭔가 우리가 자격지심. 못사는 나라에서 여러 면에서 결핍 되는게 많아. 그때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내가 말 위에 올라 앉은 게 아니라 저 지하실에서 한참 저 밑에 몇층 지하실로 떨어졌는데 어디서 뭘 날보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2019. 01. 25)

결혼생활은 결혼에 이르는 과정보다 더욱 실질적인 개인의 덕목들을 요구한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남녀가 만났기에 문화 간 조율과 상호이해의 필요성은 동질적 민족 안에서의 결혼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 연구참여자 6과 그의 남편도 티격태격하던 시기가 있었고 상충하는 두 사람의 요구가 삶에 나타났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지만 아내는 말 위에서 내려가는 방법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말 위에 있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내가 더 큰 피해자인데 어째서 내게 그런 요구를 하는가?”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편은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깬고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 6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남편의 외도는 연구참여자 6에게 넘치는 고통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대화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다시 말해 상대방의 유책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유형의 대화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이 한국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은 미안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선 저희는 그 용서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배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당당하게 하면서 살아오신 거. 당당할 수 없는 거는 아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신거...(중략).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을 때 미안하닥 하는 거. 그러니

간은 어쩌면은 (제가) 그 말을 안했을때도 미안하기 때문에 말을 안했을수가 있겠죠. 이런 문화적인 것을 서양에서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참 배워야 되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를 하지 못한 것에 관한 회한이다. 연구참여자 6은 미안할 행동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배우고 자라왔다. 그리하여 왜 미안한 행동을 하고 미안하다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미안한 상황에서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와 같은 말을 하지 못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 참여한 문화갈등과 두 사람의 자존심은 당시에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았다. 연구참여자 6이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에는 아주 많은 세월이 걸렸다. 그리하여 결혼생활 24년 되던 해 연구참여자 6은 남편에게 ‘내 일생의 단 한 번의 비테, 좀 나가주세요.’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다.

“우리 헤어집시다. 우리 둘의 약속은 당신이 깬어. 맞지? 어디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 스스로 책임을 져야되고 단지 우리는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식을 여기에서 키우고 있어요. 애네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당신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우리 근처에서는 제발. 만약에 그런 해프닝이 있다면은 나는 그다음 날로 저기 파크호텔 시골 호텔이지만 당신 가장 친한 친구하고 브렉퍼스트를 할거야!.....(중략). 지금까지도 저희는 이혼은 안했어요.”(2019. 01. 25)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서로 공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부부 사이는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갔다. 연구참여자 6은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또한, 남편의 외도에 대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의 효과는 무색했다. 결혼 당시부터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6이 사는 마을은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빈의 전통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연구참여자 6만이 동양 여성이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주목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남편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동네에는 남편의 외도에 관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경고 또는 간절한 마음을 남편에게 전달한 후 10년(막내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꼈다. 길어야 80년을 살다 가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에게 우선 서로에게 거리를 두자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집을 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집을 나가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이혼은 반대했기에 지금까지 이혼은 하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 이혼을 안하게 된 이유는 저는 첫째, 결혼을 한 번 더 하고 난리법석 찍이는거.

결혼이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저는 터득을 했어요. 그거를 터득하고 나서 왜 철창을 쳐서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프리 하면서 그 프리한 그 범주 내에서 의무적으로 할게 하나도 없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한국에서의 결혼, 그리고 빈에서의 결혼서약과 같은 ‘난리법석 짝이는거’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 이에 더해 더욱 궁극적인 이유는 ‘결혼이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결혼이 사랑의 상징이라 생각했지만, 후에는 결혼이 철창이라고 달리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이 실제로 사랑인지 철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사자들은 결혼을 사랑으로도 철창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다. 연구참여자 6의 남편과 자녀들은 연구참여자 6의 오빠에 의해 족보에 기록되었다. 그것은 연구참여자 6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남편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다른 이름을 새겨넣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넷째,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 분배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이혼이 성사되면 연구참여자 5의 남편은 연구참여자 6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 이혼하게 되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은 연구참여자 6보다는 그녀의 남편이다. 남편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연구참여자 6은 이에 동의하였다.

### ⑤ 패치워크 패밀리

“약간 패치 패밀리가 됐어요.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조각조각 나있는.. 그러니까 토탈 애가 일곱. 파트너까지 하면 14명 또 손자 손녀까지 하면 ... 하하하하. 우리는 항상 다 같이 만나요. 패치 패밀리가 많죠. 재미있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 관용. 관용의 규모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헤어진 여자가 전남편이 새로 만난 여자하고의 사이에 애를 낳으면 거기에 대모가 돼준다. 이 둘이 휴가를 가면 애를 봐준다. 여 친구들 사이에 전혀.. 우리는 헤어지면 뭐 죽일놈 살릴놈 이 감정이 상처받은 이런 것들이 힐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깨끗하게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주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의 가족 상태를 패치 패밀리라고 표현했다. 패치 패밀리는 패치워크 패밀리(patchwork family)라고 하며 주로 독일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라씨와 비벳(Grassi & Vivet, 2014: 5)은 ‘패치워크’라는 단어는 직물 조각으로 이루어진 카펫을 의미하지만, 이 용어는 분리된 후 재구성된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 형태는 서구 사회에서 점점 확산하는 현상이지만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패치워크

가족은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가족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결혼하여 부부가 된 가족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 결혼 당사자의 파트너에게 자녀가 있기에 가족으로 연결된 형태를 패치워크 패밀리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혼외 가족을 의미한다. 패치워크 패밀리는 연구참여자 6이 소개했듯이 한 부부가 헤어지고 다시 각각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각각의 가족들이 넓은 의미로 모두 한 가족의 울타리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즉 패치워크 패밀리는 생물학적, 법적, 사회적으로 어느 한 줄기씩 연결된 사람들이 가족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연구참여자 6의 자녀는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3명이 있고 두 사람이 각각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후의 패치워크 패밀리에서의 자녀는 7명이라고 했다. 이 패치워크 패밀리라는 용어가 서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주에 관련한 혼외 가족에 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 앙골라의 남성 노동자가 포르투갈로 이주하여 포르투갈에서 새로 가족을 이룬 아버지들에 관한 연구에서 그라씨와 비벳(Grassi & Vivet, 2014: 20)은 포르투갈로 이주한 아버지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을 경우, 앙골라에 있는 자녀를 돌보고 그들에 관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앙골라에 남아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패치워크 패밀리에서 여성이 이주한 경우는 남자가 이주한 경우보다 모국의 가족에게 연결하는 빈도가 여성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패치워크 패밀리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가족의 형태는 있으나 법적, 사회적, 윤리적 의미에서 정당하게 시작된 가족은 아니므로 출발에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가는 '가족 시스템'이다. 결국, 패치워크 패밀리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에서 상처를 받는 대상은 가족 구성원 모두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은 여성에게 지워진다는 것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생계의 책임을 여성, 즉 부부 가운데 한 명 또는 부부 중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자녀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이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문제의 영향은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이러한 패치워크 패밀리의 확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다.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상처받고 깨어져 파편이 된 마음들이 다시 새로운 사랑으로 봉합하여 패치워크 패밀리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가족애로 하나가 되며 승화될 수 있는가? 이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느 일부 나라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윤리의 문제이고 개인의 성품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족애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가족 시스템 안으로 묶어지는 과정에서 여성과 이주여성이 어떻게 불평등에 놓일 수 있는지 등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패치워크 패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중점 포인트는 가족이다. 가족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이기 때문에 패치워크 패밀리 문제는 향후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가정은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단위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붕괴하는 것은 사회 전체로 영향이 미치게 된다. 한편, 패치워크 패밀리에서 전남편 또는 전처의 새로운 남편이나 아내와 다 같이 ‘가족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6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됩니다. 물론 다 되지는 않는데, 그게 우리 한국적인 감정 세계하고 이 사람들하고 역시 다르긴 달라요. 우리는 헤어지면 원수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컨트롤 하는 힘이 강한지... 저도 그게 이제 전혀 남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해요. 우선 마음속에서 용서해줄 것은 하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의 경험이 없었으면.....(중략). 여기 나와서 사는 한국 여자들. 바뀌지 않았으면 여기서 잘 살아남을 수가 없죠. 살아남겠지만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억셉트 하고 뭔가 습관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살아야 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패치워크 패밀리를 남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그 구성원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한국의 가족문화와 다름을 가진 서구의 가족문화 그리고 역시 한국과는 다른 서구의 사회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6은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그리고 잘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의 경험이 없었다면 연구참여자 6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의 변화는 어떤 때 오는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잘’ 살아남지 못하는 치열한 이주여성의 삶이 패치워크 패밀리 안에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의 자녀들은 남편과 헤어지는 연구참여자 6에게 아빠 대학 졸업장을 주었다.

“마마 나는 스타인드(아버지 성씨) 유니버시티(university)를 3년 만에 학위를 받았는데 엄마는 25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하하하하하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하나 해줬어요. 제목이 뭐가 하면 스타인드 유니버시티의 닥터인데 어떤 위험한 위치에서도 살아남 수 있는 그 스타디를 (결혼을 통해) 한 거예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을 가장 성장시킨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였다. 결혼을 통해 남편대학에 입학하여 박사학위까지 취득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6은 어떠한 위험한 환경에서도 살



아на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졸업장을 자녀들이 준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결혼 24년에 남편과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헤어졌다. 아빠 대학 졸업장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소통하는 한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의 자녀들은 엄마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패치워크 패밀리에서 모성은 여전히 중요 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요즘 와서는 자꾸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패밀리 다시 뭐 어찌구 저찌구. 그는 그냥 안 될 일이다. 제가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벌써 접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예쁜 자식도 낳았고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활발하게 사는 것도 다 당신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야. 그럼 본인도 웃어요. 웃어”(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남편으로 인해 내적, 외적 갈등을 치열하게 겪은 후 위와 같이 편안해졌다. 그렇기에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은 안될 일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가족과 친척들이 부끄러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혼이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당당하게 천명했던 결혼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당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단지 종교적 혼인서약이 가능하도록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고 그에 따라 종교적으로 실행한 결혼이었다. 그렇게 한 결혼이 패치워크 패밀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패치워크 패밀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것이 연구참여자 6을 성장시켰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6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이주여성의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 ⑥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마지막 그거를 내 입밖으로 토해낸 그 순간. 그 순간엔 제 마지막 카드를 쓴거죠. 헤어지자. 나는 당신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라고 한 그 순간.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나와서 전쟁을 하면서 질문답을 만들었어요. 살기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것들. 만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자동차가 있어야되나? 아파트. 좋은옷. 휴가? 물어보니까 다 없어도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한가? 남자가 필요한가? 그거는 생각할 필요없이 나인. 아니야. 그 전에 그 전에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이 꼭 필요한가? 그게 저한테는 제일 마지막이었고 제일 힘든. 감히 내가 엄마로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과감하게 물었고 나인. 그게 바로 고 대답이 저한테는 오케이!. 예스. 고 대답을 제가 스스로에게 얻고 나니까 남편은 질문의 대상이 안돼.”(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놓은 순간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되었기에 말을 꺼냈고 그 결과 남편은

아내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요청했으므로 다음 날 아침 집을 비워주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은 그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여 그동안 사용하던 달력과 자신의 주소록을 들고 24시간 무부수 비서로 일했던 남편의 회사와 남편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그 후 1, 2주일 동안은 'I am free~~. I am free~~.' 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좋았다.

그 이후 연구참여자 6은 스스로와의 내적 전쟁을 치렀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 그러나 단지 생명을 연명하는 의미의 살아남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잘 살아남기 위한 내적 갈등이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연구참여자 6은 스스로와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아니오'라는 답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식이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나인(no)이라는 대답을 함으로써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집착과 소유,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억압 등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통해 얻은 내적 자유는 오히려 자녀들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마음에 새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녀와의 유대를 강화했다. 그리고 내적 자아와의 전쟁은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을 괴롭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공부를 하도록 이끌었고 그것이 그녀의 삶에 소중한 공부가 되었다. 최현식(2003: 318)은 백무산의 시 「머리 없는 돌부처」에 대한 분석에서 모든 것을 연민하는 주체는 “나를 내려놓으니 나 아닌 것이 없노라”라는 명제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크게는 자아를 비움으로써, 작게는 자기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벗어 던짐으로써 그리움의 세계로 열리고 접촉하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이 잘 살아남기 위해, 또는 존재하기 위해 치른 내적 갈등은 자아를 비우는 과정이었고 자기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이 과정을 통해 내려놓았던 자녀들이 진정한 자신의 보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6의 갈등이 특별한 것은 이주자로서 거주국의 문화적 기류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더욱이 잘 살아남아야 하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6의 심리적 갈등과 고통은 종결되지 않았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적자였던 잡지회사를 흑자로 돌려놓았다.

“제가 남편하고 국제항공환자 수송 잡지책을 3년을 했어요. 그 일이 굉장히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밤새는 것은 기본이고, 3년 동안 잡지를 만들어내면서 돈을 벌어들이지도 못하고 해도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만 되고 그러니까 주위의 직원들만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의사만 해도 그때 20명 간호원이 30명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현지인들이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한 7년 잡지 샘플을 다 가지고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밤을 새고 1권부터 1년에 4권씩 나오는데 첫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스테디를 하면서 첫장에는 어떤 광고가 나오고 어떤 텍스트가 나오는지 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중략). 그래서 내가 한게 1밀리언 실링이었으니까. 그게 큰돈이예요. 8만유로. 빛 다 갚고 플러스를 그만큼 해주고 3년 만에. 그리고 넘겨줬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의 남편은 의사였고 비행기 조종사였으며 사업가로서 활동했기에 가지고 있는 직업만 10개가 넘는다. 남편이 벌인 사업들의 관리에 연구참여자 6이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제항공환자 수송을 다루던 잡지였다. 이 잡지는 오래도록 적자를 면치 못했고 모두에게 골치가 되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6은 기존의 잡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하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은 후 광고주를 찾아가서 광고 수주를 위한 협상을 했다. 이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결핍이 필요를 부르듯이 열심히 했던 결과로 점점 더 경영에서 적자의 폭을 줄여나갔고 3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적자 잡지사를 흑자로 돌려놓았지만, 연구참여자 6은 그것을 넘겨주고 나왔다.

연구참여자 6이 남편과 갈등을 겪은 내용 가운데 재정적인 것도 있었다. 사업적 감각이 뛰어났던 남편과 달리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연구참여자 6이 맞지 않았던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6이 돈을 너무 모른다는 것. 그래서 돈을 규모 없이 큼직큼직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부부 간 갈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경험은 연구참여자 6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6이 2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던 남편의 회사를 나오고 난 후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을 살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 남편은 생활할 때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6도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인터뷰에서 돈이 없어도 살게 되더라는 말을 하였다. 한편, 남편은 결혼 24년 후 연구참여자 6이 자신의 회사를 떠난 후에 연금을 해지하지 않았기에 연구참여자 6은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

### (3) 거주국에서의 삶

#### ① 학부모 갈등, 미안하다 먼저 말하기

“내 애가 더 잘났고 내 애가 더 뭐하고 그러면은 그 두 부모 그리고 애들 둘도 평화를 찾기는 힘들어요. 처음에 벌써 숙이고 들면은. 근데 사실일 경우에는 내가 당당하게 용서를 빌었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빌었으면 그 사람 분명히 돌아서서 아 좀 미안하다(생각할 것임). 그것도 좋은 일 이야. 아 미안하다 그거를 느끼는 순간 그것도 도를 닦는 순간이라 이거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를 만나 해결해야 할 때 자기 아이의 변론으로 나아가면 해결국면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6이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이가 잘못된 것이면 당연히 미안하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 자신의 아이가 미안할 상황이 아닌데도 미안하다 하면 상대방이 돌아서서 깨달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연구참여자 6의 어머니는 자녀들 문제가 불거지면 어디서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라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잘못했다고 하면 헛바닥이 탈이 나느냐?”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그런 어머니의 방식이 화가 나기도 하였으나 후에 자신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방식을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만약에 부모들이 내 아이가 더 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6은 1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당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가서 일했다. 성당이라는 커다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여름방학에 그 커뮤니티에서 축구하러 일주일 동안 캠핑 가면 잼을 만들어 한 상자씩 싸주고 때에 따라서는 설거지도 해주었다. 다른 것은 해줄 것이 없으므로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은 아끼지 않고 도왔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과 미팅할 때 기꺼이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내가 독일어 가르칠 수가 없다. 우리 집에는 가정교사도 없고 그건 당신의 책임이다. 특별한 어텐션을 주든지 아니면 어드바이스를 줘서 우리애가 독일어에 문제가 없게끔, 뭐 이런걸 노골적으로 부탁을 하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자녀들을 키울 때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자신이 자녀들의 독일어나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처럼 선생님께 가감 없이 도움을 청함으로써 선생님들도 기꺼이 연구참여자 6에게 도움을 주었고 서로 대화하여 자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 실행하였다. 선생님은 연구참여자 6의 아들이 독일어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으므로 졸업할 수 있도록 졸업시험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졸업생들 앞에서 연주도 하고 졸업시험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6이 자녀를 위해 거주국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

## ② 또 다른 출구가 된 암(癌)선고

“어느 날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한 몇 초 동안은 그런 거? 그런 거는 저기 걸가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우선 빨리 생각했던게 와우 그래 이제

내가 이유가 하나 생겼네?! 안 하고 못 한다는 이유가 하나 생겼네. 드디어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모토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유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살았는 거 같은데 그 단어만 알았지 그 맛이 어떤지도 몰랐는데 그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내 능력 이상의 모든 책임을 제가 맡았었다는 거. 그리고 탈출구가 거의 없었던 그런 마지막 종착역. 오도 가도 못하는 심각한 골목. 마지막. 여러 가지 복합. 거기 가정적인 것도 있었고, 거기 얽히고 설키고 막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존심(으로부터의 해방).”(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남편과 헤어지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걸린 암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암 선고가 오히려 연구참여자 6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서 만난 것이 암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이때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에 짓눌리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암에 걸렸던 것이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출구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 6의 삶이 이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을 치료하던 의사는 상담치료를 찾아가 보도록 권했다. 이에 연구참여자 6은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고 의사가 준 전화번호를 버리려 했지만, 생각을 바꾸어 상담치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 ③ 음악의 진동들(슈빙웅엔<sup>17)</sup> 연주회)

“제가 우리 나름대로의 연주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한국의 철학을 유교적 사상, 어른을 섬기는 거, 어른에게 효도하는 거(2019. 01. 25). 그런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어 연주 시리즈가 되어가지고 전 오스트리아에 살고 계시는 골든 제너레이션, 지금 현재 골든 제너레이션은 세계 제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살아온 그 세대예요. 효도를 어느 분한테 하든지 간에 하는 것에 의미를 두자. 그래가지고 효도 연주회를 저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리타이어를 한 사람들에게.”(2019. 08. 06)

연구참여자 6은 남편과 헤어지고 남편이 벌여놓은 모든 직업으로부터 떠나온 후 남동생과 뮤직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었다. 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연구참여자 6의 말째 동생이며 연구참여자 6와는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동생이다. 이 동생을 연구참여자 6은 만아들이라고 불렀다. 이 동생은 연구참여자 6이 빈으로 데려와 호텔 관광학을 전공케 하며 키우다시피 한 동생이다. 동생은 음악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고 연구참여자 6은 음악가와 연주자들을 돌보는

17) 슈빙웅엔(Schwingungen): 세찬 움직임(운동(내면적인) 열정, 추진력, 충동); 힘껏 밀기(흔들기); 진동, 동요; 스윙; 도약, 활기, 기세; (상황(商況) 의) 활발; 정신적 고양, 감격, 열성을 의미하는 독일어이다.

일을 하였다. 이 직업을 하면서 연구참여자 6과 동생은 10년 동안 ‘슈빙웅엔 효(孝) 연주회’를 구상하고 준비했다. 슈빙웅엔(Schwingungen)은 진동이라는 의미의 독일어이다. 이 연주회의 제목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모여 고민한 끝에 슈빙웅엔으로 지었다. 이 “진동이 있기에 우리의 귀에 음악이 들리고 진동이 있기에 인간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연구참여자 6은 연주회의 이름을 설명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슈빙웅엔 연주회의 취지는 효(孝)이다. 즉,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1, 2차 세계대전 시기를 살아온 은퇴자들을 위한 무료 효 연주회이다. 한국 전통가치관의 근간이 되는 효 문화를 음악에 접목하여 은퇴자들에게 효도의 한 방법으로 연주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주회는 크게 성공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료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슈빙웅엔 연주회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 공연을 보러오는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 연구참여자 6은 오스트리아의 메인 정당인 보수당과 사회당의 총수를 만나 효 연주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이 정당들의 협조로 노인들이 슈빙웅엔 효 공연에 참석하고 있다. 이 공연들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연구참여자 6의 음악 매니지먼트사의 노력과 두 거대 정당들의 지원, 그리고 연주자들의 기부가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다. 연주자들은 그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재능기부에는 유명 지휘자와 연주자들과 오페라 극장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여러 당이 있어요. 특히 메인 당은 보수당과 사회당이예요. 이 사람들의 멤버십이 한 당은 40만명, 다른 하나는 한 50만명. 굉장히 큰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보수당의 아이디어를 추종하는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케어를 해줘요. 이 당의 제일 헤드를 만나서 이런이런 취지로, 젊은 사람들이 부모, 조부모, 나아가서는 조상을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다는 이런 효성을 모티브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와~~ 너무 좋대요(2019. 01. 25). 제가 10년 하면서 항상 인사말 할 때 그 말(효)을 언급했어요. 제가 노인들을 끌어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체를 모은거죠.”(2019. 08. 06)

슈빙웅엔 효 연주회는 한국의 효 문화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효는 젊은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것을 중심에 둔 가치관이다. 오스트리아에는 이러한 문화가 없기에 효 문화를 설명했을 때 거주국 정당의 총수들은 그러한 가치관을 환영했을 뿐 아니라 단 한 번의 미팅으로 연주회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 6은 연주회를 시작하면서 항상 효의 의미를 언급하고 설명한다. 그러면 연주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하였

다. 효 연주회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두 거대 정당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주자들이 기부하더라도 관객이 있어야 했다.

이렇게 시작된 ‘슈빙웅엔 효 연주회’는 은퇴자들을 감동케 했다. 이에 정당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최 측에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연주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 정당들이 감사의 표창장을 주고 파티를 열었고 파티가 열리면 기자들이 왔다. 그러므로 신문과 잡지에 슈빙웅엔 효 연주회에 관한 기사가 나가며 광고 효과가 생기고 참여 의사를 가진 연주자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과 친구가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다시 효 연주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연주회의 기획에 한국의 효 문화를 포함한 것은, 효의 개념이 기획 의도와 잘 맞은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근간이 되는 문화를 오스트리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음악문화에 접목함으로써 양국의 문화적 교량 역할이 되었다.

#### ④ 음악 콩쿨 심사위원

“제가 한 10년 동안 콩쿨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기는 갔는데 잠도 잘 안 오고 조금 있으면 나가야될 판인데 막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야야. 내가 셔리(콩쿨)에 거 댔는데 피아노 치는데 내가 뭘 봐야되니? 네가 알다시피 엄마는 피아노에 대한 지식이 한 개도 없잖아. 뭘 점수를 어떻게 줘야되냐 했더니 다 듣고 있다가 마마,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뭔가가 엄마한테는 있대. 엄마 자신만 믿고 하래. 만약에 아들이 마마 거기 가지마~ 이랬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왔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크리티컬한 심판관이 되었어요. 귀만 늘었는지 실수한 거는 금방 들어와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반이 짤라져 나가고 반이 남아서 두 번째 라운드로 가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음악 전공자가 아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음악 콩쿨 지원자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10년 동안 활동하였다. 이 일을 할 때 아들은 엄마에게 스스로를 믿고 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심사위원 활동을 수행해왔다. 음악 심사를 할 때 두 번째 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인들이나 교수들의 조언을 듣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 지원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연구참여자 6의 조언을 듣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연구참여자 6은 다른 음악인이나 교수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신들의 연주를 들으러 오는 청중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혼신을 다해서 선사했습니까? 대충하는 음악인들의 자세는 정말 금방 느껴요. 그런

애들은 가차 없이. 음악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연주할 때 정말로 즐기면서 했나요? 당신이 100% 즐기지 않았다면 그건 좋은 연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연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악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즐겁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최대한도로 만족한다면 온 청중이 다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람도 느꼈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무엇을 할 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없다. 약속에 항상 15분을 일찍 나가는 연구참여자 6의 습관을 알고 있는 딸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처럼 15분 일찍 나갔지만, 엄마는 그보다 15분 더 일찍 즉 30분을 먼저 딸을 만나기 위해 나가서 기다렸다. 그만큼 딸을 만나는 것을, 기대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6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말해주는 하나의 예이다. 어릴 때 딱지를 지키기 위해 손톱이 빠지도록 손이 밝혀도 참아낸 용기와 공장이 컴컴할 때도 기계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은 독심의 특성은 그녀가 이주하여 살아오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었다. 10년 동안의 심사위원 활동은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반영된 심사였고 그것이 연주자들의 마음을 끌었다. 한편, 한국의 음악 영재들이 있을 때 연구참여자 6과 잘 아는 작곡가 헤르베르트 빌리에게 의뢰가 오기도 하였다.

“빌리샘 하고도 그런 영재들을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는 성질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내심이에요. 빨리 빠리는 노우예요. 정말로 슬로우템포.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선 급해서 안 돼요. 키우면 클 수 있는 재능은 있는데 다 시급해. 스폰서해주는 사람도 하루라도 빨리 유명해져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엄마는 엄마대로 빨리빨리 빨리. 정말 애가 음악인이 되려면 음악이라고 생긴 것은 다~ 소화를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의 이런거 그게 완전히 차단돼야 돼요. 완전 내한테 내 것이 됐을 때 그때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뭘 꺼내도 다 완벽한 이기 튀어나와야 된다 그거죠. 근데 그건 절대로 한국 사람에게 안 통하는 거. (한국의 음악 영재가)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2019. 08. 06)

연구참여자 6은 한국의 음악 영재들이 충분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는 한국적인 빨리빨리 문화 또는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따려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여긴다. 한 사람이 음악가로서 키워지는 그 시간 동안 인내하고 침잠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훌륭한 선생님들도 세계에 있고 한국에는 재능이 있는 영재들이 있지만 이를 참아내는 것에, 한국 문화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빨리빨리의 형식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급하고 보여 주기와 같은 오래된 습성을 뛰어넘어서 더욱 큰 행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한국적인 부지런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뛰어넘어 넉넉하고, 기다려주고, 값진 것을 값지게 대하고,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특성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 ⑤ 한국 평화통일 음악회

“헤르베르트 빌리 선생님이 작곡한 ‘정’이라는 이 곡은 한국을 위해서 작곡이 됐고,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평화통일 심포니라는 것이죠. 남북 사람이 모여서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는 거. 남북의 젊은 뮤지션들을 모아서 판문점에서 연주를 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편지에) 적었죠(2019. 01. 25). 헤르베르트 빌리는 모차르트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예요. 맨 처음 목적은 오스트리아의 빈 필이 판문점에서 ‘정’을 초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 행사야말로 국제 메스컴과 국제 귀빈들의 참석하에 인류 평화를 위한 최상의 역사적 순간이라 생각했죠.”(2020. 01. 24)

연구참여자 6은 연구자와 빈에서 인터뷰하는 중에 어떤 편지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한국의 대통령께 보낼 예정이라고 하였다. 편지의 내용은 통일 음악회 제안에 관한 내용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헤르베르트 빌리라는 작곡가와 매우 가까운 지인으로 헤르베르트 빌리가 한국의 정서인 ‘정’을 주제로 작곡한 곡을 한국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음악회로 연주할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정이라는 이 곡은 작곡가 헤르베르트 빌리가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10악장의 곡을 머릿속으로 완성한 곡이라고 한다. 음악의 내용은 불교의 십우도<sup>18)</sup>(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는 정찬주 작가의 설명이 있었다. 이 곡은 일반 대중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 악장들이 오스트리아 빈 필과 독일 베를린 필 등에서 초연되었고 큰 호응을 얻었으나 10악장 전체가 초연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6은 이 곡이 빈 필 또는 한국과 북한의 음악인들에 의해 판문점에서 10악장 전체가 초연되어 세계에 울려 퍼지면 좋겠다는 개인적 희망을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어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6이 2019년 8월 한국에 왔을 때 통일부 관계자와 미팅 일정이 만들어졌고, 미팅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6은 빈으로의 귀국 일정을 열흘 늦추었다. 통일부의 입장은 연구참여자 6이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 문의가 들어왔으므로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유럽에서 이 음악이 관심거리가 되어 우리 정부로 정식 요청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다. 비록 연구참여자 6이 바라던 대로 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연구참여자 6은 앞으로도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18) 십우도(十牛圖)가 한국에 언제 유입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과정을 소나 다른 가축에 비교하여 설하는 것은 부처의 설법 중 하나이다. 그러한 설법이 여러 어록, 경전에 산재 되어있는 것이 보명, 화암 등에 의해 정리되었고 그것이 십우도 문화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역시 고려시기에 이러한 문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형우, 2017: 223).

그리하여 한국이 세계에 드높여지도록 음악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지금도 오스트리아 현 대통령과 여러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만나 음악 연주회 성사를 위해 노력 중이다.

연구참여자 6은 나비부인이나 투란도트는 각각 일본과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음악들이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서양이 거부감 없이 한국을 떠올릴 음악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그런 음악이 생겼다고 여긴다. 연구참여자 6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를 모티브로 한 ‘정’이 세계적인 천재 음악가에 의해 작곡되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세대를 이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음악으로 소통하는 서양문화 속에 한국이 심어지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연주곡의 경우 3악장 또는 4악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정’의 경우 10악장으로 작곡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했다. 이러한 헤르베르트 빌리의 ‘정’이 만들어지기까지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6은 헤르베르트 빌리를 음악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연구참여자 6은 헤르베르트 빌리를 삶의 큰스님으로 여기게 되었다. 헤르베르트 빌리가 ‘정’을 작곡하기 전 그는 일본에 초청받아서 갔다가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때 한국의 사찰을 방문하면서 깊은 인상과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 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울고, 웃고, 죽고, 사는 풍부한 감성을 가졌다. 한국 사람들은 직설적이고 정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 빌리 선생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무엇인가에 깊이 심취하셨어요....(중략). 차가 멈추는 순간 빌리 선생님이 눈을 딱 뜨시더니, “소냐, music is finish!”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선생님은 이미 “정”에 관한 영감을 완벽하게 받으신 거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헤르베르트 빌리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에 대화하면서 한국의 정서인 ‘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때 헤르베르트 빌리는 조용히 무엇인가에 심취하였고 차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곡이 끝난 상태가 되었다. 헤르베르트 빌리는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몬타폰에서 태어났고 25세에 작곡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세계 유명 음악을 위한 홀에서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세계적 명성을 가진 지휘자들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헤르베르트 빌리는 어렸을 때 병을 심하게 앓았으며 병원에서는 포기하였지만 어린 빌리에게는 신(神)이 병이 나아 회복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정말 병이 나았고 그 후 어린 빌리는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렸다고 한다. 헤르베르트 빌리는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그 지역에서 나는 음역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헤르베르트 빌리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동양에 대한 느낌과 음악에 대한 자신의 소임을 이야기했다.

“동경과 서울을 방문하는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여태까지 저를 알던 것보다 더 많은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은 서양과는 달리 더욱 많은 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지요.....(중략). 음악은 이미 세상에 존재합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스크랩 자료집, 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의 설명에 의하면 헤르베르트 빌리는 한국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음역을 들었는데, 가장 높은 음, 그리고 어떤 악기로도 낼 수 없는 가장 낮은음을 들었다고 한다. 그가 한국의 정서인 ‘정’을 모티브로 한국을 출국하던 날 공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완성한 10악장의 곡인 ‘정’은 빈 필에 의해 2018년 5월 초연되기로 결정되었었지만 연기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6은 빈 필의 초연이 연기된 것이 오히려 한국에서 연주되기에 더 좋지 않겠는가? 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모짜르트나 베토벤이 작곡한 곡들이 수백 년 후인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듯이 헤르베르트 빌리에 의해 작곡되고, 한국인의 깊은 얼과 혼과 한이 뭉뚱그려진 ‘정’이 세계방방곡곡에서 세계인 모두의 소망인 평화의 노래가 되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진다면, 이 음악의 위력, 먼 훗날 우리 한민족 역사에 얼마나 경탄할 사실입니까!”(2020 01. 24)

연구참여자 6은 빈으로 이주하여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유럽 사회가 음악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을 체득하였다. 음악을 통해 문화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한다. 현대사회는 이주의 다양성과 함께 문화적 다양성이 넓게 펼쳐진 시대이다. 최승은·박봉수(2013: 93)는 다문화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는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의 보존과 번영에서 중요하듯이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언어, 사상, 전통, 종교, 관습 등을 포용함으로써 사회는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 인류학자인 미리엄(Merriam, 1964)은 음악이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음악에 대한 개념과 의미들은 시대와 사회마다 다를 것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연구참여자 6도 음악으로 세계인이 평화를 추구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정서를 표현한 곡을 세계에 알려서 그 곡이 세계에서 재생되면서 평화를 조성하여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작곡가 헤르베르트 빌리가 ‘정’의 10악장 하나하나에 부제목을 달기를 원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6은 ‘정’의 내용이 십우도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정찬주 작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부하게 되었다. 제목은 연구참여자 6이 헤르베르트 빌리와

협의하며 정하였다. 제목을 정할 때 불법(佛法)과 동양철학의 표현을 대치할 서양의 한 단어를 찾아내어 부제목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제목에 사용된 언어는 불교 용어, 독일어, 한국어가 사용되었고 헤르베르트 빌리가 만들어낸 제목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단계에 빌리 선생님은 굳이 각 악장에 부제목을 원하셨어요. 우연인지 행운인지 빌리 선생님은 한글 발음을 들으시고 “와- 아주 좋다! 아, 사운드가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죠. 그런 연고로 10악장의 부제목은 몇 개국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독일어, 중국어 그리고 빌리 선생님께서 개발한 유빌로(Jubilo)단어 등등.”(2020. 01. 24).

유빌로(Jubilo)라는 단어는 오스트리아어에 있는 언어가 아니며 헤르베르트 빌리가 만든 제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이 제목을 붙였을 때 작곡자는 그것에 동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10악장의 제목이 완성되었다. 각 악장의 제목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정(情)’의 악장별 제목

악장	제목	의미
1악장	유빌로 (Jubilo)	축제. 환호. 하나의 시작.
2악장	내 안의 신성 (Ne An E Sinsoeng)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속의 신성함.
3악장	견적 (Gjon Dsock)	발자국을 발견하다(중국. 12세기경 곽암 선사(眞正)의 진정(眞正)한 진리의 탐구 비유). 신성한 것이 보이는 것.
4악장	비 아인 발저 (wie ein Walzer)	발저(왈츠)의 음악처럼, 아름다운 흐름, 물소리, 폭포, 물과 관계가 있기도 한 음악
5악장	깨어나라 (Ggäonara!)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닌 깨어남. “얹”은 쉬워도 그렇게 “됨”은 지극히 어렵구나!
6악장	내 안의 신성 (Ne An E Sinsoeng)	2악장과 연관이 있음. 자유롭고, 더할 나위 없는 무아의 단계, 즐겁기만하다.
7악장	자비심 (Dscha Bi Schim)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 무소유. 모든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8악장	깨어나라 (Ggäonara!)	5악장과 연관성이 큼. 무(텅 빈 상태)에 이른다. 아름다운 신성을 만인에게도 나누어주자. 깨우치게 하자.
9악장	참나 (Tscham Na)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조화. 영원한. 참된 지혜, 근원으로 되돌아가다.
10악장	유빌로 (Jubilo)	처음에는 시작을 의미하는 축제라면 여기에서는 참나를 찾아서. 자기의 평화만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구조하는데 나머지를 바치겠다는 환호. 내가 나를 넘어서고 초월해서 하는 환호.

<자료출처: 각 장의 제목은 작곡자 헤르베르트 빌리와 연구참여자 6이 협의를 통해 정한 것이며, 의미는 연구참여자 6의 설명을 요약한 것임. 2020. 1. 27>

연구참여자 6이 헤르베르트 빌리 작곡가의 곡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는 한국 판문점이나 서울과 평양에서 초연하려는 이유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 분단의 특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휴전이 아니라 종전, 또는 통일로 나아가도록 힘을 북돋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음악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헤르베르트 빌리라는 천재 음악가의 음악이 빈 필과 함께 그 역할을 한국에서 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정’의 10악장 전곡의 초연을 위한 준비로 연주 장소는 DMZ, 또는 다른 곳, 오케스트라는 빈 필, 또는 남북의 젊은 음악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대표 음악인들과 합류시켜 공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음악회의 지휘자는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 1981~ )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하였다.

#### (4) 노년의 삶

##### ① 동지(冬至) 캠프파이어

“하지(夏至)캠프파이어라고 매해 6월 21일(양력)이 낮이 제일 긴 날이에요. 그날 오스트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캠프파이어를 해요. 그거는 동네마다 하나의 큰 행사이고 지금도 해요.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요, 그리고 행사를 위한 장소가 동네마다 있어요. 또 그때 태울 나무 같은 재료들을 모으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6월 21일에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차를 몰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저는 도나우강변에 사니까 거기 강변이 30, 40키로 되지 싶어요. 도나우강변 동네들이 메인 트래지션을 가진 행사를 해요. 그러면 정치인들, 유명인들 다 오고 악기하는 사람들. 다오고, 배도 꽃장식 다 하고 하나님께 일종의 감사와 부탁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2019. 08. 06)

오스트리아는 해마다 6월 21일 전후,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에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는 행사를 한다. 이 행사를 위해 사람들은 1년 동안 하지 캠프파이어에서 태울 재료들을 모으고 그것을 모으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이것이 한국 문화 가운데 하늘에 제를 지내면서 복을 비는 것과 유사하다고 여긴다. 하지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원의 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하지 캠프 파이어) 동네마다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겨울에 하자. 그래서 어느 날 겨울에 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끼리 하다가 동네 친구를 부르고 먼데 친구를 부르고, 그 행사를 저는 집에서, 겨울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동짓날. 밤이 가장 긴날. 12월 21일 한 30년째 가든에서 큰

파이어를 해요. 겨울에 그거를 못 하게 돼있어요. 어느 규모를 넘는 불을 피울 때는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큰 도시에다 다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소방대원까지 다 오고. 동네에서 전통이 돼가지고 우리 정원에서 불려서 여름 동안 모인 장작 나무가 많으니까. 벽난로에 못 넣는 찌꺼지 나무들 다 모아서 태워가지고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 캠프 파이어를 하면 두 명, 세 명, 네 명, 불 가장자리에 서서 주머니 받거나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시장도 오고, 법관도 오고 나이 많은 사람도 오고 젊은 사람도 오고.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모르던 사람도 친구가 되고 서로 오려고 그러고 올 때 누가 새 사람 데려오고.”(2019. 08. 06)

동지 캠프파이어는 12월 21일 밤이 가장 긴 날 연구참여자 6의 집 마당에서 30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시(市)에 보고해야 하고 소방대원과 경찰서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렇게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모임이 되었다. 이 모임의 음식을 위해서 연구참여자 6은 동네에서 와이너리(와인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과 와인을 부탁했고 연구참여자 6은 밤에 추울 때 불가에서 이야기기를 나눌 때 춥지 않도록 포도주와 각종 한약재 같은 것을 넣어 제조한 특별 음료를 준비한다. 그것을 한잔 마시게 되면 몸속이 뜨끈해지는 음료라고 하였다. 어느 해에는 이 모임을 하지 않고 가족이 모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문 앞에 각종 와인과 선물들이 놓여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이 모임을 빠지지 않고 지속해왔다. 그런 가운데 모르던 사람들도 만나 친구가 되기도 한다. 동지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며, 동지를 지나면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김정민(2015: 73)은 동지는 설날처럼 새해의 시작을 알리며, 해맞이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동지가 지나야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이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하지 축제를 본인의 집에서 동지 축제로 변형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모두 담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날짜와 의미를 변형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행위로 하여 한국 문화와 거주국의 문화가 서로 접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② 마을 주민과의 친목

“친목도모가 너무중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시골 동네에 서로 잘 친목할 수 있는거. 저부터가 처음부터 거기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같이 가서 살게 되면서,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된 것 같아도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리감을 갖는, 친해지기 힘든. 사실은 귀족과 뭐 그런것도 강하고 그런거를 저는 이제 아예 각오를 하고 갔으니까. 그것도 제가 무난하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 릴레이션쉽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도록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요. 그 사람들이 전기를 써야하면 우리집에 와서 쓰고 그런 주머니 받거나 그 농부들 하고도 야 너희 살구 맛있고, 뭐 그

려면 내가 또 살구잼 만들어 주고... 그래도 뭔가 임프레션을. 그런 데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써프라이징 하는거.”(2019. 08. 06)

연구참여자 6은 보수적이고 귀족의식이 강한 빈의 시골 동네로 시집을 갔다. 겉으로는 유하지만 내면은 결코, 변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 6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주국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는 것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거주국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감동을 주고 마음으로 다가가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긍정적으로 기쁨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방법은 긍정적이고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6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았다. 이제 연구참여자 6의 이주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인 면에서는 ‘나 스스로에게 당당한 내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 태도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제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다고 하였다. 속박되는 것, 어망에 갇히는 것이 싫어서 결행한 이주였다. 그러나 이주 후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미스유징(Misusing), 즉 남용되고 오용되었다”고 느꼈다. 연구참여자 6이 의미하는 미스유징은 젠더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남성들이 비도덕적으로 여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연구참여자 6이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외도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는 인간으로서, 나로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어디에도 부속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나보다 더 나은 여자가 (없다), 있다면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당당한 자세가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었다.”(2018. 09. 20)

연구참여자 6은 아픔, 괴로움, 실망의 경험으로, 오늘의 자신이 되기까지 모든 경험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6은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가장 큰 선생님은 남편이라고 하였다. 둘째, 초국적 연계로는 자녀들을 한국과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사랑받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유럽이(오스트리아 포함) 음악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한다. 음악으로 대화하고 음악으로 정치하고 음악으로 생활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서인 ‘정’을 주제로 아름다운 음악이 천재 작곡가에 의해 작곡이 되었으니 이것이 세계무대에서 그리고 음악이 일상인 유럽 등에서 항상 연주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세계인이 늘 한국을 기억하고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지속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 음악회를 한국 대통령에게 제안하였다. 이번에는 거절되었을지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속하여 이러한 통일 음악 연주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

셋째, 이주자의 삶은 자연이 친구인 삶이다. 하루는 연구참여자 6이 자신을 방문하려 온 친정엄마에게 “엄마 저 도나우강의 흐르는 물 있지? 저 물이 내한테 가장 진실하고 내한테 가장 정확한,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답을 해준 가장 좋은 친구야.”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 누구에게 하다 보면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해야 하고 그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도나우강물과 이야기하고 강에게 묻고 강이 대답해 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주자의 삶은 동쪽을 떠나 사는 삶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더 깊은 고독이 있는 삶이다.





### 3) 연구참여자 7 : 열정적 자기 계발 실천가

연구참여자 7은 1949년 2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73년 빈으로 이주한 후 46년째 거주하고 있다. 자녀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현재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며 꾸준히 글을 쓰고 있고 한인 여성합창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IV-9> 연구참여자 7의 연대기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골짜기 외딴집</li> <li>■ 외로움, 음악으로 위로함</li> <li>■ 남자친구와 이별, 그리고 이주</li> </ul>
이주 후-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지독한 외로움</li> <li>■ 거주국의 진급 차별</li> <li>■ 슈퍼에서 만난 독일 남성(남편)</li> </ul>
거주국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가족에 대한 사랑</li> <li>■ 고추장 된장 먹는 맛</li> <li>■ 언어, 소통의 원천</li> <li>■ 봉사, 평안을 가져옴</li> </ul>
노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창회, 즐거움과 소속감 제공</li> <li>■ 가정 교육의 중요성</li> </ul>

#### (1) 유년-청년기

##### ① 산골짜기 외딴집

“1949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고 옆집과의 거리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외딴집이면서 방이 많았다.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4km를 걸어서 다녔다. 나는 혼자 오랫동안 걷는 운동에 시넷물이 흘러가듯 그저 움직였다.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시고 아버지는 국졸이신데 어린 내 눈에는 어떤 선비 같으셨다. 아버지는 마을의 반장이셔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해결사로 통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보통 정도의 부부 사이로 딸4 아들2, 그중 넷째로 태어났다.”(2019. 3. 14)

연구참여자 7은 어릴 때 자신의 집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15세 까지 같이 살았다.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까지는 꽤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고 할머니로부터 우렁각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게 자식을 보내어 돌보는 마음이 있을 만큼 가족애가 돈독했던 것 같다. 대가족의 품에서 살던 연구참여자 7은

이주 후 외로움으로 몸살을 앓던 시절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이주 후 일하고 돌아오면 ‘밥 먹었느냐? 힘들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 중 하나였다고 하였다. 어릴 때 가족들이 서로 보듬어 주고 아껴주는 정서 안에서 살았기에 이주한 후 가족이 없는 빈자리의 외로움이 더욱 컸다. 연구참여자 7이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집에 거지가 찾아와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던 점이다. 어릴 때의 이러한 기억은 노년이 되어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끌었다.

## ② 외로움, 음악으로 위로함

“우리 때는 어떤 과가 인기였느냐 하면 교대 가서 빨리 돈 버는 과. 교대를 가거나 사범대를 가는 거였는데 공주 사범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실패를 하니까 집에서 놀 수는 없으니까 우리 근처에 간호대학을 대전 간호학교에 다니다가 다니면서 너무 촌구석이고 나한테 익사이팅한 느낌이 안 오니까 제가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할 때 우리 친구 하나는 OO 의대를 지원했고, 저는 간호학에 지원했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 혼자만 OO으로 멀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제가 음악에 더 가까이 하게 된 거 같아요. 내가 좀 외로움이 라든가 그런거를 달랠 수도 있고 암튼 음악은 나하고 같이 살았었어요.”(2019. 03. 12)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을 진학할 당시는 교육학과와 간호학과가 인기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7도 공주 사범대학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지고 대전간호대학에 다녔지만, 너무 시골에 있었던지라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그리하여 휴학하고 재수하던 중에 친구와 함께 OO대학 의대와 간호학과에 각각 지원하였다. 친구는 의대에 떨어졌고 연구참여자 7만 간호대에 합격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7 혼자서 고향과 떨어진 OO으로 갔고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려 음악을 가까이하며 살았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났다.

## ③ 남자친구와 이별, 그리고 이주

“어느 날 갑자기 남친은 결혼 전에 빠른 승진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 우리 그만 만날까? 라며 말을 꺼냈다. 식사하고, 음악 감상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고, 같이 산책을 하는 일들이 시간 낭비라는 느낌이라 했다. 풍자가 신랄하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그의 말이 진실 이라는걸 느끼며 내머리속은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채워져 갔다.....(중략). 세월이 약이라더니 나에게도 작은 변화가 오고 있었다. 빠르게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파독 (working in Germany) 바람이 일어났다. 나만을 위한 빅 찬스라 생각하며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했다.”(2019. 03. 24)

OO의 간호대학에 진학하면서 연구참여자 7은 낯선 지역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음악을 자주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다방에 갔다가 한 청년을 알게 되었다. 그 청년은 음악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차츰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7과 남자친구의 데이트는 음악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음악과 음악사, 작곡가의 생애와 주변 이야기 등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는 남자친구의 매력에 푹 빠졌다. 남자친구는 졸업 후 연구참여자 7의 학교가 있는 OO시에 소재한 증권회사 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가 이별 선언을 해왔다.

연구참여자 7은 남자친구에게 조건 없이, 강아지보다 더 많은 충성을 보였었고, 남자친구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기를 바랐지만, A는 B를 좋아하고 B는 C를 좋아하고, 연구참여자 7은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7은 실연의 좌절감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당시 유행하던 파독을 남자친구를 잊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이에 지원했다. 어머니는 "잘게 먹고 잘게 싸지 무슨 고생을 하러 가냐." 고 하셨다. 연구참여자 7은 끝없던 그리움도, 외롭게 했던 수많은, 요소들도 음악이 있는 빈에서는 견딜만했다고 기록했다(2019. 3. 24 연구참여자 7의 자작 수필 '노후의 신바람'을 요약함). 연구참여자 7은 1969년 OO 간호대에 입학하고 1973년 졸업하여 같은 대학병원에서 3개월 근무하다가 파독 대열에 합류하였다. 연구참여자 7의 이주 동기에는 실연의 이유 이외에 경제적 이유가 있다. OO대 병원에 있을 때 독일에 간호사로 다녀온 선배가 가져온 오디오는 연구참여자 7의 관심을 끌었다.

“그때 이 언니가 가져온 게 뭐냐면 오디오. 그때는 듀얼이라는 상표가 있었는데 그 듀얼 전축 그런 것을 갖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만 있었어도 그런 시대니까 그런 것을 보니 눈이 번쩍 하죠. 그래서 아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거죠. 어린 마음에.”(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의 가정경제는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넉넉한 편도 아니었다. 음악을 좋아했던 연구참여자 7이 듀얼 오디오를 보았을 때 라디오도 귀하던 시절에 그것은 충분한 호기심이 되었다. 파독을 위해 해외개발공사에서 언어교육을 받을 때 독일이 아닌 오스트리아 빈으로 갈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하였다. 돈이 목적이라면 베를린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여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7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베를린으로 가나 빈으로 가나 상관없이 없었으므로 빈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주했다.

## (2) 이주 후 결혼

### ① 이주, 지독한 외로움

“이주해서 삶이 달라졌는데 이주를 하고보니까 내가 너무 외로웠어요. 여기에서. 말도 못하고 우리 대가족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야 너 수고했다 밥먹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참 외롭고 메말랐고 외로워서 내 마음이 좀 어려웠죠.”(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은 실연의 아픔을 피해서 이주했다. 이주하면서,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게다가 새로운 언어도 배우게 되니 정말 기회가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현실과 꿈이 달랐는데 그것은 언어를 모르니 말을 못 하는 신세가 된 것이 그 하나이다.

‘언어 거지였던 그 시절에 두꺼웠던 피부는 엉터리로 말하면서도 미소까지 지었다.’  
(2019. 03. 24)

이주 초창기 빈에서 외로움으로 괴로웠을 때 연구참여자 7을 위로했던 것은 입석 오페라 구경이었다. 그때 연구참여자 7의 체중이 40kg까지 줄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음악만으로는 복합적인 외로움이 상쇄되지 않았다. 많이 좋아했던 남자친구를 잇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언어도 안되고 간호사로서의 업무도 힘이 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족의 부재였다.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있다가 혼자 외국으로 떨어져 나와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없는 상태를 견디는 것으로 인해 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00대에서 같이 이주한 친구들 두 명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음악회에는 같이 가지 않았다. 결국, 연구참여자 7은 가족이 곁에 없었던 외로움도 실연의 아픔도 이주노동자의 고단함도 혼자 이겨내야 했다.

### ② 거주국의 진급 차별

“2년이 지나면은 거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상황이 돼요. 언어가 되니까 여기 더 있자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더 있게 됐는데 한 10년쯤 살아보니까 우리는 외국 사람이라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애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애네들이 진급이 되도 우리는 진급이 안 되니까 뭐랄까 일하는 재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거든요. 미국에 가서 뉴욕, 여기서 살아보자. 미국에 가서 한 6주를 있었는데 그러다가 짐을 싸러 왔죠.”(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은 2년이 지나 언어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장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10년을 일하면서 자신보다 어린 거주국 원주민은 진급이 되어도 외국인인 자신은 진급되지 않는 현실을 인지하고 일에 의욕을 잃었다. 그리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여 새롭게, 날아보자는 생각으로 연구참여자 7은 연고도 없는 뉴욕으로 6주간 시장조사를 떠났다. 뉴욕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실행한 6주간의 여행과 시장조사는 성공적이어서 연구참여자 7은 뉴욕으로 다시 돌아올 결심으로 뉴욕의 높은 탑에 자신의 꿈을 걸어두고 빈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짐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청년을 만났다.

### ③ 슈퍼에서 만난 독일 남성(남편)

“남편이 참 신사였고 우리집 근처 사람이었어요. 1분이면 당을 정도로 가까운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슈퍼에서 어떤 치즈가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이전에 아시아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시아 여성인 저를 보고 반가워서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이제 친해진 이유가 사실은 사귀다가 초대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보통수준이 아닌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할 때 괜히 승낙했죠.”(2019. 01. 26)

뉴욕으로 이주할 결심을 하고 오스트리아에 돌아와 준비하던 때에 슈퍼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나중에 남편이 되었다. 남편을 만난 계기로 인해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 정주하였다.

“남편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이태리와 국경 지역인 뵘터호수(Wörter See), 캐른텐(Kärnten)이 고향이어서 물과 산을 좋아했다. 시댁 가족은 등산을 즐기고 민요도 자주 합창하는 분위기였으며 듣기 좋은 화음을 잘 만들어냈다. 남편은 결혼생활 25년 후 병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2019. 03. 24)

연구참여자 7은 남편이 신사였으며 형제들이 4명이 있는데 모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형제간 우애도 좋았다고 하였다. 자신은 시집살이를 모르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시집살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오스트리아의 문화는 시집과 아들 가족이 서로 노타치(no touch)라고 표현하였다. 즉 아들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어머니는 빈에서 300키로 떨어진 곳에 살았다. 시어머니가 연구참여자 7의 집에 오면 먼 곳에서 왔으니 여비를 하도록 연구참여자 7

이 용돈을 건네면 마구 뭐라고 하면서 절대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로도 연구참여자 7의 시어머니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7과 남편은 고향에 땅을 사고 싶었으나 빈에서 너무 멀었으므로 빈에서 한 시간 거리의 헝가리에 집을 샀고 인터넷이 안되는 그 지역을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연구참여자 7은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의 아들은 영국의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박사과정 중에 있다. 연구참여자 7의 아들은 빈에서 은행에 다녔으나 진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들은 연구참여자 7에게 대학원에 갈 계획을 말하였고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7은 집을 한 채 팔아서 아들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대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후 연구참여자 7의 아들은 취직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연구참여자 7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국 남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물었고 그것을 계기로 친해지면서 아들의 영국 일자리도 생기게 되었다. 그 영국 남자는 현재 연구참여자 7의 남자친구이며 연구참여자 7보다 10년이 어리고 정년퇴임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연구참여자 7은 그 사람은 결혼할 의사가 크지만, 자신은 결혼 의사가 없으며 이유는 결혼하게 되면 재산 분배 등의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처음에 시집에서는 아들이 연구참여자 7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남편의 누나는 연구참여자 7이 혹시 국적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다. 그러나 가족이 되고 난 후부터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잘 대하였다 한다.

“그 마무리를 잘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는 그거가 깨끗해요. 한국은 옛날 쓸데없는 것을 끌고 계속 싸움의 원천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난 민들을 구제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인간적이다. 이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고 느끼는거죠.”(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이 본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사람과 사건을 구분한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 사람들을 한국인보다 더 신사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의 남편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연구참여자 7의 남편에게 연결이 되었고 연구참여자 7은 통역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배우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는 7년 동안 간호사 직업을 쉬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이 부동산 업무를 할 때 한국인 구매자들을 위해 통역을 하였다. 그 후 간호사 업무를 재개했을 때 업무 시간을 줄이고 부동산업을 병행하였다. 부동산업자를 하면서 집에 대해 흥미가 생겼고 부유

한 사람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을 대하는 안목이 넓어졌다고 하였다.

### (3) 거주국에서의 삶

#### ① 한국 가족에 대한 사랑

“우리 조카 애들이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등록금 해라 그러면서 송금을 했어도 우리집은 꼭 내 송금이 기다려지는 그런집은 아니예요. 내가 고모니까 주는건 있었어도 그 당시에는 한국이 가난이야 했지만은 송금하긴 했어요. 애들 등록금. 그런거. 경조사 그거는 돈을 보내죠. 동생 아들이 장가를 간다. 딸이 시집을 간다 그러면 준비하라고 미리 보내요. 한국에 송금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도 가난하지 그 생각이 조금 내 몸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현재 잘 사는데 그래도 한국이 좀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것이 항시 나를 좀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한다 하면은 그리 가는건 당연하죠.”(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은 정기적 송금보다는 친정 가족과 친지들에게 결혼이나 대학 입학 등과 같은 경조사에 송금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7의 막내 여동생을 오스트리아에 유학하게 하여 대학을 졸업시켰다. 이러한 송금과 형제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은 가족의 필요사항에 연구참여자 7이 동참하는 행위가 되었으며 특히 송금은 연구참여자 7을 가족 내에서 언니, 누나, 고모, 이모와 같은 사회적 위치로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는 한국이 연구참여자 7이 떠나올 때처럼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연구참여자 7이 느끼기에 여전히 한국은 자신이 뭔가를 보태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누군가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의 근본은 사랑이다. 가족과 한국에 대한 연구참여자 7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있다.

#### ② 고추장 된장 먹는 맛

“우리 애들이 한국을 12번쯤 갔을거예요. 한국어 배우라고 지네들끼리 보내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애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우선 한국말이 통하는 거. 한국말로 유머를 할 수 있는거. 그리고 정이 더 있죠. 이 나라말로 하는 것 보다 고추장 된장 먹는 맛이죠. 정서가 더 무게 있게 잘 통한다고 봐야죠.”(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도록 자주 한국에 데려가거나 아이들만을 보냈다. 그리하여 친척들과 유대관계를 맺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런 결과로 자녀들과 한국어로 유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슈미츠(Schmitz, 2002; 왕혜숙, 2009:

173. 재인용)는 언어와 관련된 유머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특정 언어나 문화에 관련 없이 어디서나 통하는 현실에 바탕을 둔 유머가 있다. 둘째, 특정 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적 유머는 특정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셋째, 특정 언어가 갖는 특정 자질에 기초한 유머로 특정 언어의 음운적, 형태적, 또는 통사적 특성에 기초한 유머이다. 이 가운데 문화적 또는 언어적 유머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유머의 본질이 상실될 수 있고 목표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 유머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의 자녀가 어머니와 유머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로 유머가 통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7은 자녀들과 한국어로 유머를 나누는 것이 고추장 된장 먹는 맛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좋은 점은 정이 더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자녀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정서가 더 잘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 애들이 한국에서 예의 같은 거. 한국에 가면 용돈도 주고 그러는거. 지가 삼촌 노릇을 한다는 거. 지네들도 어른들한테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거가 애들이 몸에 익어가지고 다시 줄줄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2019. 3. 12) “조카들과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요. 이번에도 한국에 간 이유가 내가 죽으면 한국 조카들과 우리 애들이 멀어질까봐 연결해주려고 간거예요.”(2019. 11. 05)

연구참여자 7은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익히고 이해하는 것으로 ‘삼촌 노릇 하기’를 이야기하였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용돈 등이 몸에 익어 성장하여 어른이 된 후에는 다시 그 문화를 행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7은 그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여름 연구참여자 7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 가족을 방문하고 조카들과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형제끼리 친해서 같이 여행을 잘 갑니다. 조카들과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요. 이번에도 한국에 간 이유가 내가 죽으면 한국 조카들과 우리 애들이 멀어질까봐 연결해주려고 간거예요. 우리 애들은 한국말 잘하니까 사투리도 잘해요. 조카들과도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갔으니까요. 아이들을 여행에 데려가는 것이 좋았어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은 심리가 생기니까요.”(2019. 11. 05)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온 이유는 다음 세대의 연결, 즉 자녀들과 조카들과의 연결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 7은 자녀들이 단순히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친족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가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은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게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이 이처럼 자녀들을 한국에 여행하게 하고 친족과 연결하고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와 친척의 조카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이유이다.

### ③ 언어, 소통의 원천

“독일어를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나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며 배웠어요. 환자들을 통해서 인생 경험 얘기 들을 들었고 삶을 배웠죠.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언어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원천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인간끼리 친해질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문화 이해하는 데 많이 첩경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죠.”(2019. 11. 05)

연구참여자 7은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기에 자녀들에게 문자 보낼 때 영어로 보내라고 하여 자녀들이 엄마에게 영어로 문자 한다. 연구참여자 7은 빈에 간호사로서 이주한 후 자신을 언어 거지라고 표현할 만큼 언어적으로 곤궁했던 때를 통해서 소통에서 언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체감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영어뿐 아니라 헝가리어, 유고어를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 언어들에 관심을 두어 공부한다. 연구참여자 7이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언어에 관심이 있는 이유와 아울러 또 다른 이유는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방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주 초창기에 하고자 하는 말을 거주국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답답함, 그리고 그 답답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이를 이주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어장벽이 생김으로써 외로움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7은 마음이 달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산책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

“도나우강가를 걷고 산책하면서 명상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얼었던 내 마음. 외롭기도 하고 달힌 마음. 어두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자연하고 가까워지면서 열리게 되었어요...(중략). 도나우 강 근처에서 한 가족을 만났어요. 그 가족은 한국 가족, 한국 옆집 아줌마가 놀러오는 것 같이 너무나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풀린 거죠.”(2019. 03. 12)

거주국에서 소통이 되지 않아 얼어붙은 마음이 자연으로 인해 서서히 풀리기도 하였지만, 도나우강 근처에서 한 가족을 사귀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서서히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 가족은 마치 한국 사람들 같았다. 연구참여자 7은 외로움으로 힘들었음에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외국에 사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하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언어를 보통 회화로는 그 사람들에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수준 높은 대화여야 해요. 눈이 커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책을 많이 읽었고 신문도 많이 봐요. 고급 언어를 구사하고 수준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외국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하면 그런 가보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수준에 맞게 언어를 구사하면 이 사람이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놀래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따뜻하게 봐주는 것. 그런 것이 외국에서 소통하는 것이고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이주하여 사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거주국 사회와 소통하면서 살아가려면 언어습득과 언어 구사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언어를 통해 어떠한 정보 전달만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호 소통이 되고 정서가 교류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에 담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7은 언어가 소통의 도구가 되며, 진지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이주자 자신이 수준 있는 언어를 구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주자로서 거주국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거주국 주민에 대하여 적대감을 두지 않고 원주민을 따뜻하게 봐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7의 이러한 태도는 이주민이 거주국의 원주민을 바라볼 때 피해자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봉사, 평안을 가져옴

“제가 여기에서 배웠던 것은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이 안 풀릴 때 이런 봉사를 하면 큰 힘이 생겨요. 불쌍하고 처참한 것을 보면, 거기서 며칠 살다 보면 나한테 정리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 힘이 되면 다시 살고 싶은 힘이 되는 거죠. 돈보다 귀한 것을 얻어옵니다. 실제로 봉사를 나갔다가 오면은 생각하는 것이 틀려져요. 빈 사람이 같이 가보자 요양원이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자 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그게 나한테는 큰 삶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말로만 들었던 내가 너고 너가 나고 그걸 깨달았어요.”(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2020년에 71세가 된다.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가 추구하고 싶은 삶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 남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것에 있다. 그 바탕에는 ‘내가 너고 내가 나다’라는 원리에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 친구의 권유로 같이 가게 된 요양원에서 이 원리를 배우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에서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힘을 경험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빈에 살면서 연구참여자 7이 가장 감동되었던 것은 거주국 사회의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이었다.

“이 나라는 이 사람이 돈이 없어도 이 사람은 숨쉬는 인간이다. 그래서 대우를 해줘요. 문화 수준, 사람 대하는 수준, 여기가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접하거든요. 여기는 못산다. 더럽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람은 종교적인 밑바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렇게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 걸을 때 보면은 이 사람들 돈 착착 내요. 사람들이 인간이 되었어요.” (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는 거주국 사회의 태도에 감동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존중을 연구참여자는 봉사하면서 깨달았다. 자신의 문제로 삶의 짐이 버거울 때 남을 돕도록 자신의 손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구참여자 7은 자신은 한국을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백(명품 백)들과 과시하는 것이나 없는 사람들 괘시하는 것과 같은 행태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오스트리아 구성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대비된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못살고 더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존중하고, 더러운 사람이거나, 더러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나 신 앞에 동등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연구참여자 7이 힘들고 외로워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주국에서 버틴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어서 연구참여자 7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사람이 좌절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을 해야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 연구참여자 7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요.”(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삶에서 새로운 힘을 가

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친구와 함께 요양원 봉사에 참여하면서 하루는 몸이 불편하여 봉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하였다. 그래도 할머니와 약속하였으니 가야겠다 하고 가서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것은 불편했던 몸이 개운해진 것보다 마음에 오는 평안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원리를 체득하였기에 좌절할 때는 남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한 65세 60세가 넘으면서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살고 그런식이 돼버린 거죠. 여기 외롭게 한국에서 온 우리 주민들이 같이 있는데 너는 너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나는 나대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주의가 된 거죠. 그것을 터득까지는 오래 걸려요. 그거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많이 베풀면 된다는거(2019. 1. 26). 남의 청을 쉽게 거절하지 말고 남의 도움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말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돼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노년이 되면서 다 같이 잘살자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자기 자신의 안위에 집중하기보다 타인의 필요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는 의미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이 말하는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방법은 어릴 때 어머니와 할머니가 거지를 그냥 보내지 않던 그 마음과 연결된다. 연구참여자 7은 타인이 곤궁하여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며 같이 걱정하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 배웠다고 말한다.

#### (4) 노년의 삶

##### ① 동창회, 즐거움과 소속감 제공

“OO대학교 나온 동창회. 독일하고 언어가 똑같으니까 같이 하거든요. 독일에서 일했던 사람. 오스트리아서 일했던 사람이 만나서 매해 목 금 토 일을 같이 보내요. 한번은 하이델베르크, 한번은... 인원은 열두 명이 될 때도 있고 열네 명일 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가끔 와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하고 저녁에 뭐 이런저런 맨날 웃는 거예요. 별거 아니예요. 같이 보내는 거.”(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들과 함께 동창회를 한다. 만나서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같이 보내며 소속감과 동질성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만나서 이들이 함께 나누는 것은 모국에서 자라올 때의 시간, 그리고 거주국으로

이주하여 살아온 시간이다. 이들의 모임에는 단절된 시·공간이 없으므로 별거 아닌, 단지 같이 보내는 시간만으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질의 그룹으로 기능하며 소속감을 제공한다. 또한, 파독 간호사, 이주자, 00대 졸업생과 같은 동질성을 확인하고 동질의 그룹 안에서 그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이 형성되고 공유된다.

## ② 가정 교육의 중요성

“그 강아지가 똥을 누잖아요? 그럼 저는 대변을 치울 때 주변의 휴지를 같이 주워요. 왜 줘느냐? 이 길거리를 많~은 사람이 지나갈 건데 기분 나쁘게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딸이 그러더라구요. 그게 참 좋다 그거야. 엄마 모습이 좋아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중략).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거지가 밖에 와있어도 야 조금 더 갖다줘라. 더 갖다줘라. 그러셨어요. 그게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남편이 기르던 강아지를 연구참여자 7이 기르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은 강아지와 산책할 때 강아지 똥을 치우면서 주변을 함께 치운다고 하였다. 그것은 연구참여자 7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갈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위이고 남을 위한 배려 차원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근본에는 연구참여자 7의 할머니가 있다. 거지의 처지를 이해하였기에 넉넉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다. 그리고 이주하여 문화가 다른 거주국에 살아도 어릴 때 배운 그 가르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거주국의 노인이 손에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던 것에 있다. 그것 또한 연구참여자 7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왜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 연구참여자 7도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이다.

연구참여자 7의 이주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영향은 세계인과의 소통이다. 연구참여자 7은 이주 후 언어적으로 자신이 거지가 되었다고 여겼기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주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직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참여자 7은 언어가 소통의 원천이라고 여기기에 언어를 익힌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세계인과의 소통의 즐거움은 이주로 인해 배가되었다. 둘째, 초국적 연계는 자녀들과 모국의 친족과 문화적, 정서적 연결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자신이 세상을 떠

난 뒤에도 자녀들은 한국의 친족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자주 한국의 친족을 방문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자녀에게 익히게 하였다. 그리고 한국 친족의 경조사에 참여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 친분을 유지하였다. 셋째, 인간존중이 있다.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 사람들의 기본 바탕에는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는 인간존중의 원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에 감동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릴 때 할머니와 엄마가 거지를 그냥 보내지 않는 마음처럼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것을 추구한다.



### 3. 소결

지금까지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를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사용하는 언어가 같고 구성원의 대부분이 게르만 민족으로 민족적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정부 기구의 구성도 비슷하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러한 여러 가지에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나라가 아니기에 두 나라에 사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삶도 다르게 나타난다. 독일은 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열강에 의해 나라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고 동독과 서독은 이념적으로도 대치하였다. 이때 한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고 전후 폐허가 된 현실을 딛고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인 1950년대 말부터 한국 여성이 간호사로 서독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966년에는 정부 주도하에 공식적인 한인 간호사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세계정세는 냉전 시대였고 독일에서 동독은 북한과 수교가 있었고 서독은 남한과 수교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반공 이념으로 무장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희영(2019: 36)은 1967년 동백림<sup>19)</sup>사건<sup>20)</sup>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서독 교민 사회의 분열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주의에 기초한 ‘국민화 프로젝트’를 재외공간으로 확대하고, 적극적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동백림사건은 남한과 북한의 두 체제가 ‘재외공간을 둘러싼 영토화 경쟁’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며, 서베를린에 정착한 한인 여성들이 ‘국민화 프로젝트’의 직접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동백림사건을 포함한 공안 사건은 과장, 조작된 측면을 가지며 이의 효과는 박정희 정권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이정민, 2020: 117-118). 그 가운데 동백림사건은 특히 독일 내 교민 사회가 서로를 불신하고 분열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후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하면서 독일 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뒤섞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독일 사회에 있는 한인사회는 이러한 정치적 이념 갈등에도 대응해야 했다. 그리하여 남북의 동서 냉전은 현재에도 암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교민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연구참여자는 소위 ‘태극기 부대’와는 같이 일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이념 갈등 양상이 독일 한인 교민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는 이처럼

19) 백림(伯林)은 베를린의 한자 음차이다. 그러므로 동백림(東伯林)은 동베를린을 의미한다.

20) 동백림사건은 1967년 7월에 발표된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이다. 동백림사건은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공안 사건으로 특히 해외에 거주하던 지식인층이 대거 연루되었고, 중앙정보부가 서독과 프랑스 등 외국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면서 해당국가들과 외교적 갈등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이정민, 2020: 112).

이념적으로 갈등과 불안을 겪었던 삶을 살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적 노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사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공간이 독일 사회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여 오스트리아는 정치적으로 독일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오스트리아는 1938년 독일에 점령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패망 후 승전국들에 의해 분단될 위기에 있었으나 정치적 기지를 발휘하여 분단 없는 영세 중립 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의 정치 노선은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며 국제 정세를 살피는 것에 있었다. 이서행(2005: 217)은 중립화는 기본적으로 외부 세력의 경쟁적 간섭을 중화 또는 배제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였다. 오스트리아가 중립을 포기하고 어느 한 노선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간섭을 감수해야 했기에 지정학적 이점을 핑계 삼아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거주국 국가적 환경은 이주민들이 독일처럼 활발하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색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과는 다른 점을 가진다. 그래서인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는 그들의 이주생애사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통일을 위해 평화 음악 연주회를 열어 음악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을 알리는 우회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이 또한 거주국의 정치적 노선과 닮았다. 이처럼 파독 간호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라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내에서도 친남한 성향과 친북 성향의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정치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연구결과에 대한 소결로 파독 간호사로 이주한 후 거주국에서 정주하여 살아온 한인 여성의 생애사를 참여자별로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남의 돈의 무서움을 인지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은 절대 빚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그 결심을 평생 지켰다. 간호보조로 이주하였으나 이주 후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단지 자격증이 없기에 업무에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은퇴할 때까지 임상병리사로 일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이 기능공의 직업을 가졌으나 남편을 설득하여 기술자가 되도록 격려했고 결국 기술자가 되어 지멘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노년이 되어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생활한다. 그러면서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 친분을 유지하는 과정에 생각하는 것은 친구들처럼 한국에서 살았다면 삶에서의 주체성을 지금처럼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 연구참여자 1은 이주를 통해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이 더욱 공고해졌다. 삶에서



개인이 가지는 주체성이나 주도성은 이주의 긍정적 영향 가운데 하나가 된다.

연구참여자 2는 일곱 명의 친구들과 같이 시범 삼아 치른 간호 고등학교 시험에서 혼자 합격하여 친구들과 가운데 가장 공부 잘한 학생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방송으로도 합격한 학생의 이름이 호명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간호 고등학교 진학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시대였다. 그리하여 간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 이주를 떠났으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때 간호 고등학교에 떨어졌던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가 되었고 자신은 이주노동자로 남았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며 살아왔으나 인생을 되돌아보면 거주국에서 자신에게 남은 친구들이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은퇴 후 시간과 경제 사정의 여유로움을 바탕으로 한국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거주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못 배운 한을 털어버리고자 한다. 이주여성의 꿈이 삶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가난한 환경을 떨치고 아울러 동생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이주의 길에 올랐다. 이주 후 9년 만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결혼 후 재독여성 모임에 나가면서 정치의식을 깨우게 되었다. 자신이 이주하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면 다른 한국 어머니들처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이 우방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치의식이 깨어나기는 하였으나 레드컴플렉스에 걸려 마음으로는 계속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본 5.18의 영향이 컸다. 5.18을 계기로 자신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돌아섰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 전반에 한국 여성 노동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독일 사회활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실행하였고 다른 나라 이주자들의 시위에도 함께 참여하여 연대 시위를 하였다. 또한,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에도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이주자로서의 경험을 들려주어 외국 여성들도 그들의 삶에서 자립하고 삶의 주도성을 갖도록 도왔다. 이주가 여성 개인의 정치의식을 깨우고 그 영향으로 연대 활동을 통해 모국과 거주국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양자를 들었는데 그 양자가 가산을 빼돌려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직업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다. 그리고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독일로 이주하였다. 이주 후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을 겪었으며 이혼 과정은 아이가 있었기에 더욱 힘들었다. 결국,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즈음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고 재혼한 남편에게 아들

을 입양함으로써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한글학교 교장, 코윈 베를린 지역 담당관, 한인회 회장, 재독한인 간호사협회 회장,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 부회장 등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 활동들에서 연구참여자 4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쪽저쪽을 살핀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여러 단체의 리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여성이 이주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 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던 차에 파독 간호사 광고를 보고 집에 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하여 학원비를 마련하고 1년 동안 학원에 다녀 간호보조로 오스트리아에 이주하였다. 오스트리아 병원에 도착한 후 일주일 되었을 때 병원 계단에서 키가 큰 오스트리아 청년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문병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고 그로부터 3년 뒤 결혼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매운 시집살이를 시켰고 시집살이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으나 아이들이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없었기에 대신 죽을힘으로 삶을 살아냈다.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잘 자라서 오스트리아 국제부인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다른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 여성들을 위해 상담도 해주고 친목도 도모한다. 또한, 2세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연구참여자 5와 국제부인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세대가 그들의 뿌리가 한국임을 알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이주여성의 '조상 되기'와 자녀세대를 위한 어머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종가의 다섯 형제 가운데 셋째이며, 고명딸로 태어났으나 아버지와 집안에서는 딸의 존재를 그리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했기에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 받기 위한 노력이 계속하여 시도되었다.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즈음에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음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혼자 남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돈이 안 드는 대학에 가기 위해 국립의료원에 지원하여 30: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였다. 국립의료원에서 파독에 관한 소식을 접했고 오스트리아에 갈 사람에게 자원하여 빈으로 이주하였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도록 지명된 의과대학생을 만나 결혼하였으나 결혼생활은 갈등이 있었고 갈등에서 헤어나오는 과정이 연구참여자 6을 성장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찾고 자녀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

으며,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거주국 구성원과도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냈다. 그리고 모국을 세계 속에 빛나게 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심리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이주여성의 삶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7은 실연의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 이주를 선택했다. 음악을 좋아했기에 음악의 도시 빈으로 이주하였다. 이주하면 좋아하는 음악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한국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주국의 현실은 냉혹했다. 언어를 할 수 없으니(연구참여자 7은 이 시기를 언어 거지였던 때라고 했다) 소통할 수 없었고, 한국에서는 대가족으로 살았으나 이주 후 집에 돌아오면 밥은 먹었느냐? 묻는 이도 없었던 지독한 이주의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고통이었다. 그러나 차츰 언어가 늘어 적응되었지만, 이주자는 직장에서 진급되지 않았기에 일에서 의욕을 잃었다. 그리하여 뉴욕으로 이주 하려던 차에 동네 슈퍼에서 남편이 될 청년을 만났다. 남편은 신사였고 시집 가족도 연구참여자 7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다. 10년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고 현재는 10년 젊은 영국인 남자친구가 있다. 노년이 되어 연구참여자 7이 추구하는 삶은 내가 나고 내가 너다. 라는 인간존중이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의 할머니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한국인 여성합창단 단장으로 봉사하고 영어와 유고어, 헝가리어 등 새로운 언어들을 배우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이주자의 삶은 자아를 찾고 남을 돕고 이해하는 과정을 겪게 만드는 성찰적 삶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주함으로써 그들의 생애를 통해 받은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이 그의 삶에서 갖는 주도성과 주체성이 있다. 둘째, 이주여성의 거주국과 모국에서의 소외가 있다. 셋째, 이주여성의 정치의식을 깨우고 그 영향으로 모국과 거주국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넷째, 이주여성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다섯째, 이주여성의 '조상 되기'와 자녀세대를 위한 어머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심리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이주여성의 삶이 있다. 일곱째, 이주자의 삶은 자아를 찾고 남을 돕고 이해하는 과정을 겪게 만드는 성찰적 삶이다.

이주여성의 삶은 특히 심리적 면에서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삶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떠나고 싶어도 자녀들로 인해 또는 갈 곳이 없어서 떠나지 못했다.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친절은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이주여성과 친절은 소통하기에는 문화의 다름과 물리적 거리 등 제약이 많았다. 이주하여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한 것이 개인에 따라 종교가 되기도 하였고 자아 찾기, 저항하기, 협상하기, 오롯이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있었다. 삶의 모습은 서로 상대되는 것에 의해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통이 파독 간호사로 이주한 한인 여성들이 발전하는 이유와 촉매가 되었다. 즉 삶에서 상대되는 것에 의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주하여 겪는 고난은 그것으로 인해 발전하고 성장하였을지라도 생각보다 깊고 고통스럽다.

이외에도 이주생애사를 통해 이주자의 삶에 나타난 영향은 개인 심리적 영향, 정치적 영향, 경제적 영향, 초국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 개인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이주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 파독 간호사들은 가족을 돕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특징이 있었고 아울러 자신의 삶에서 가난이나 차별, 편견, 배제와 같은 삶을 억압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였다. 또한, 외로움 같은 지독한 이주 스트레스나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이주 시집살이, 그리고 참 나를 찾아가는 내적 갈등은 이주자였기에 혼자 짊어지고 혼자 이겨내야 했다. 이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문물을 보고 가치관이 확장되며 새로운 정치의식으로 깨어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삶에서 주도성을 갖는 것은 이주의 긍정적 측면이 된다.



## VI.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에 관한 질적연구이다. 이를 위해 1960-7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 7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4명의 독일 베를린 거주자와 3명의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메일을 통해 받은 자기생애기술지, 자작 수필 등의 자료와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전해준 책, 신문자료, 스크랩 자료 등을 연구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하려는데 집중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삶에 나타내는 초국적 행위와 이주의 영향을 이주자의 모국과 거주국 그리고 이주자 개인에게 미친 영향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애사는 네 가지 범주, 즉 유년-청년기, 이주 후 결혼, 거주국에서의 삶, 그리고 노년의 삶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파독 간호사 이주가 이루어지게 된 국제적 환경과 이주할 당시의 이주자 국내의 정치·사회적 환경, 그리고 이주자 개인의 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의 영향을 유입국과 송출국, 그리고 이주자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유년-청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성은 자립 의지와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려웠던 가정환경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간 특성이 있다. 파독 간호사의 송출이 한국과 독일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었고 한국 정부는 전후 경제적 재건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숨통이 트였다. 그리고 이주가 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삶의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이었다. 둘째, 이주 후-결혼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주하고 결혼하기까지의 삶이다. 파독 간호사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반응은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한인 여성들은 부모를 설득하거나 비밀로 하고 결혼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결혼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정당한 것임을 한국에서 결혼식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당당하게 천명하기도 하였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파독 간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출가외인이 되었다. 한편, 거주국의 시집 가족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들의 국제결혼 선택을 존중해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체류를 위해 결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국제결혼을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아들의 선택은 지지하였으나 “노랑통이를

조심하라.”라는 조언을 잊지 않기도 했다. 이는 몽골의 유럽정복에 의한 교혼에서 나온 조언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파독 간호사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결혼은 한인 여성들에게 육아와 남편이나 시집과의 문화적 다름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결혼생활의 갈등은 한인 여성들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들을 성장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거주국은 파독 간호사가 이주함으로써 이주자 적응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자국의 국민과 결혼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이주를 통해 자신이 이주여성 노동자임을 새롭게 인식하기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의식화 과정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여행을 다니거나 피아노와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한국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해보는 자유로움을 누리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파독 간호사들은 자아가 성장하고 삶에서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표출하고 실행해 나갔다.

셋째, 거주국에서의 삶은 거주국 문화에의 적응, 초국적 활동의 확장, 그리고 이주자로서 정체성을 협상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 안정기로 접어들었거나 이혼하였다. 이 시기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들기 전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로 자기 삶에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모국으로의 간섭을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한국 내 여성 노동자와 이주민에 관하여 상관하고 대외적으로는 분단과 같은 정치적 이슈에 관하여 참여 또는 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의 내적, 외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실행하고자 하는 행위는 그들 자신이 한국에 관심이 있음과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세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교육하는 목적은 자녀세대를 한국 사회와 연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자녀세대는 계속해서 한국과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자녀세대가 그들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여 그들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기를 의도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거주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적응하고 자신의 태도를 변용하는 행태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거주국의 일원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독일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연금의 60%를 생존한 배우자가 수령 한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이전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 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파트너 개념으로 동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독일어권에서 가족이 파편화되는 현상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즉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가족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독 간호사의 모국인 한국은 재외동포 자녀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전담 기관을 두었으며, 재외동포법을 제정하고 실행한다.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재외동포와 자녀세대를 잠재적 재원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거주국에서의 삶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경제적 자립을 가져왔고 문화와 가치관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에 살면서 모국 문화와 거주국 문화의 변용을 가져왔고 지구촌 환경과 모국의 상황에 대하여 확장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게 되었다. 또한, 거주국에서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거주국에서 민족적으로 이방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타자가 되지만 그러한에도 불구하고 이주자의 역동성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연구참여자들이 모국으로 연계하는 초국적 행위의 이유에는 사회적 위치의 달라짐에 대한 보상 기제의 측면을 가진다. 즉 한국에서의 간호사 직업은 전문인의 성격을 가지나 독일에서의 간호사 직업은 이주노동자 신분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의 달라짐에 대한 보상으로 모국과 연계하고 모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 간섭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위치의 하향이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심리적 갈등을 모국을 향한 초국적 행위로 위안받고자 한다.

넷째, 노년의 삶이며 직업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이다. 이 시기의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해 오던 삶을 축소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자녀세대를 강화하고 남을 돕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또한, 거주국에서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신체적 질병이나 에너지의 소진이 있다. 한편, 한국으로의 연결은 나이가 들고 신체의 활력이 줄어들면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갔을 때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들도 연로하여 거동이 힘들게 되면 재외한인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거할 공간은 현저하게 협소해진다. 노년의 파독 간호사들은 치매 등의 병을 걱정하게 되는 시기이며, 어릴 때 자랐던 한국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늘어난다. 이주자의 노년에 거주국에는 이주자의 의료 영역 진입의 확대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한국도 이주자에게 치매 등을 포함한 질병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관리를 함께할 이주자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이민 1세대는 모국과 연계가 강한 면모를 지나 이주자의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이주자의 모국과의 연계가 약화 된다. 자녀세대는 일반적으로 거주국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자의 모국은 재외 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재외동포의 자녀세대와 계속적 연결을 추구한다. 노년의 삶의 개인적 측면은 이주자가 자녀세대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강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노년기의 이주자들은 기력이 점차 쇠하여지며 거주국의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에 대한 향수를 가진

다. 그리하여 이주자의 성격은 초국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의 성격도 가진다. 거주국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외로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면에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성격이 있다.





## 2. 논의

다음은 논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점은 모두 일곱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파독 간호사의 정서적 디아스포라이다.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은 거주국에서 민간대사가 되어 한국을 알리며 살아가지만, 한국과의 연결점은 견고하지 않다. 가족이나 친족도 연로 하여지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난 후 그들만이 남게 되었을 때 한국에 방문하면 방문자, 또는 손님이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들이 한국에 갔을 때 편안하게 머물다가 다시 거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장소 마련에 그들도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현대의 자발적 이주자들은 모국과 연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리적 요인은 없으나 문화적 정서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지하면서 이들은 정서적 디아스포라를 경험한다.

둘째, 송금과 관련하여 친정 가족과 의식의 차이가 있다. 딸들의 수고로 전달되었던 송금이 한국 가족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딸들의 노동현장이나 이주자의 삶을 한국의 가족은 이해하지 못하였고 딸들의 송금은 효도 행위로 인식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즉 딸들의 노고는 가족 안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감사함도 말뿐이다. 이들의 가족 내 위치는 손님이 되어, 이들이 하는 권고는 친정 가족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된다. 그리하여 이들이 이주자로서 살아왔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한국 가족에게 하고자 할 때 한국 가족은 이를 간섭과 관여로 여겼으며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다. 즉 이들의 권고는 한국의 가족에게 거부되거나 잔소리로 치부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이방인이 됨이 있다. 문화적 소수자인 한인 여성은 소통에 있어서 거주국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Ahn & Hyun(2013: 69-71)는 한국 간호사들은 고학력의 이주자로서 업무에서는 뛰어난 전문성을 보였으나 러시아 간호사들은 문화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룹이었다고 하였다. 한국인 간호사는 실질적 언어 통합에서는 개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으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화와의 통합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므로 한인 여성들의 삶이 거주국에서 더욱 배제되거나 이방인이 될 가능성이 컸다. 문화는 거주국에서 문화의 장벽을 견고히 할수록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가 화합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자문화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자들이 거주국의 정치·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을 떠나기 전 투철한 반공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주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은 하나의 이념을 선택하거나 제외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념들을 배우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태도를 취했

다. 그러했기에 한인 여성들도 이러한 독일의 정치적 기류에 영향을 받았다. 오스트리아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영세 중립 국가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국제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독일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정치성향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이주자들의 정치적 성향 또한 거주국의 정치적, 문화적 기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가진다.

다섯째, 모국 사회에서 문화적 이방인이 된다.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 문화적 이질감을 가진다. 한국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주했을 때 거주국 구성원과 이주한 한인 여성들 간에는 문화적 간극(間隙)이 존재했다. 그로 인하여 이 틈을 뛰어넘기 위한 한인 여성들의 문화적응이 고달팠다. 즉 새로운 개념이나 가치관을 내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인지해야만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살아오는 동안 지속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자신의 문화와 거주국의 문화 사이에서 선택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했다. 이 과정은 마치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노년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거주국의 문화에 적응했지만, 다시 모국에 왔을 때 모국의 문화 역시 변화하고 발전해 왔기에 한인 여성들에게는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한국 역시 문화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현실이며 이는 이주자들이 거주국과 모국 모두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박탈감을 갖는 이유가 된다.

여섯째, 정체성 갈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이주자로 출발할 때 가치관이 이미 정립된 상태에서 떠나왔다. 그러므로 거주국에서 살아갈 때 이들이 가진 문화적 가치관과 거주국의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은 서로 상충하지 못하였다. 두 개의 문화가 서로 상충할 때 소수자인 이주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국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주 초기에는 거주국의 문화에 동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점차 이를 줄여간다. 동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도 동화되지 않고 거주국 구성원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주국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지속하지만, 모국으로의 연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거주국에서 갖는 정서적 결핍을 모국으로의 연계로 상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거주국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한편으로 모국으로의 연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일곱째, 이주생애사 연구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현대사회는 이주의 시대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이주가 보편화 되어있으며 이주의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이주 현상은 우리의 삶이 이전 어느 시대보다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만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자와 소통하고 타자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삶의 일부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이주생애사는 이주자의 삶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주생애사는 기존의 일반 생애사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논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 생애사는 생애사 연구의 이해에서 파편화되는 현상이 있다. 일반 생애사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각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하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 연구 이해의 파편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이주생애사는 이주자들의 생애사를 분석할 범주화를 마련함으로써 이주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의 각각 다른 분석으로 인한 이해의 파편화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일반 생애사는 적용하는 이론, 즉 개인의 생애사를 살피는 관점의 렌즈가 소수로 적용된다. 연구자가 한 개인의 생애를 종적으로 살피고자 할 때 이를 이해하는 렌즈를 다양하게 두는 것은 연구가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애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 생애사를 살필 것인지 이론적 도구를 선택하고 그 이론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게 된다. 이는 한 개인의 생애사가 깊이 있게 분석되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개인이 가지는 삶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살필 수 없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이주생애사는 개인의 삶을 살피는 분석 틀이 정립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분석하면서 다양한 이론을 첨가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주자를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이주자의 삶을 분석할 때 적용함으로써 이주자의 생애를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론을 적용할 때 연구자의 창의적 관점과 해석이 연구에 적용될 가능성이 더욱 넓어졌다.

이주함으로써 이주자는 문화적 이질성, 그리고 생애사적 시간의 뒤틀림을 살아가게 된다. 또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정체성 갈등과 같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이주자들은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창의적 삶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이주자의 삶의 특수함과 역동성은 이주생애사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주자의 삶에 관하여 이주생애사가 풍성하고 다양하게 연구됨으로써 다양한 형식의 이주생애사 연구와 분석을 위한 범주가 정교하게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이주자에 관한 연구의 풍성함은 이주의 시대에 공존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 3. 제언

지금까지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를 논의하였다.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인 여성들은 이주를 통해 정서적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며, 한국으로의 초국적 연결은 자녀세대와 한국 사회의 연결을 목표로한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적응은 이주 기간이 수십 년이 지난 후인 시점에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문화의 배타성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정체성은 민족적으로는 모국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거주국 시민 정체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주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의 내적 정체성 갈등을 치열하게 가진 후 성찰적 삶의 자세를 취하면서 삶에서 평안을 찾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주장하였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존중, 또는 인간존중이었다. 그것은 그러한 원리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주하여 거주국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였고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문화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문물을 접하면서 사고가 확장되는 긍정적 측면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치유되지 않는 외로움과 모국과 거주국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다. 이처럼 삶에서 기쁨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주자 개인은 성찰로 나아갔다. 그리고 자신을 극복하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지된 것이 인간존중인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으로 주변인의 위치에 있는 이주자들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재외한인에 대한 이주생애사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지형도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에 대한 이주생애사의 필요이다. 넷째, 거주국 한인 이주자의 이념 갈등과 대립, 정치적 행보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주변인에 관한 연구의 확대에서 현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하여 실행되고 있고 향후 지속적 확대일로에 있으므로 재외한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한인의 이주는 역사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다수 이루어졌고 그 자손들이 세계에 퍼져있다. 또한, 한국은 해외에 입양을 많이 시킨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재외한인과 해외 입양된 한인 등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주하여 거주국 사회에서 주변인의 위치에 있는 한인들과 입양 한국인 등 재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삶은 한국 사회에 크게 닿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성공하여 반짝이는 삶뿐만 아니

라 거주국 사회에서 사회적 주변부에 위치하는 삶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이주 이유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한국 사회와 연결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거주국 사회의 주변부에 있다 하더라도 인류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충분히 자리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주변부에 위치하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반대편, 즉 주류에 관한 이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므로 주류와 비주류의 상호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재외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주변부에 위치하는 한인들에 관한 이주생애사 연구의 필요성을 크게 가진다.

둘째,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코리아 디아스포라 지형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인들은 때로는 타에 의해 때로는 자발적으로 이주하였고 그러한 한인들의 이주는 다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한인들의 이산과 이주, 그리고 이들의 적응과 발전, 향후 이들의 성장에 관련하여 코리아 디아스포라 지형도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한국적 가치관을 극복하는 방편이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적 가치관의 장점이 세계로 펼쳐지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단지 떠나간 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재외에서 분투하며 살아온 재외한인의 코리아 디아스포라 지형도를 통하여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한국에 이주한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에 관한 이주생애사 연구의 필요하다.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들의 삶도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인 여성들은 현재 노년이 되어 치매, 또는 다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가 아직은 젊은 외국인 이주자 그룹들과 연계하고 친분을 쌓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이주자의 노년이 닥쳐오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들이 어려우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들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의 이주생애사 또한 다양하게 연구하여 이들에 관한 이해와 상호 소통을 이룰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가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다음 세대와 연결된 미래를 이해하고 추구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은 1953년 한국전 이후 2020년 현재 67년째 분단국가가 되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다.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남과 북의 이념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고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이념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도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정치적 노선이 다르므로 이주민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향후 이들 파독 이주민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재외한인의 정치적 구조가 한국 사회와 초국적으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재현되고 양산되는지에 대하여 이주생애사를 통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호이해는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한국과 북한이 통일로 가는 길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언을 통하여 향후 이주생애사와 관련한 연구들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의 영향을 예상하였다. 재외한인과 한국인 디아스포라 지형도 제작과 결혼이주 여성들에 관한 이주생애사 연구, 그리고 한국의 이념 갈등 등에 관한 연구는 한국 사회가 타자에 대하여 성찰적 태도를 취할 풍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희영(2012). 한인여성디아스포라의 이주경험과 트랜스로컬 정체에 관한 연구-  
구소련 유학이주여성의 한국체류경험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 고가영(2008). 우랄지역 원로 고려인들의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30, 51-86.
- 곽애영(2018). 한국 에어로빅스의 대모(大母) 이영숙의 생애사 연구 - 교육적 공  
헌을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23(3), 101-116.
- 구본규(2013).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비교문화연구, 19(2), 5-51.
- 국사편찬위원회(2013). 유럽한인의 역사 하, 재외동포사 총서 17, 과천: 국사편찬  
위원회.
- 국제이주기구(IOM) 홈페이지. <http://iom.or.kr/>
- 김가연(2018).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학(2007). 인도인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문화역사지리, 19(3), 27-41.
- 김광기(2014). 이방인의 사회학, 경기 파주: (주) 글항아리.
- 김남규(2019). 테니스인 이종훈의 생애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난영(2019). 한국어 교재 지문에 대한 독일인들의 문화적 반응 연구, 전남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8). 조국에 대한 공헌과 재외한인으로의 인정: 미국과 독일의 재외한  
인여성 비교, 아시아여성연구, 57(1), 7-47.
- 김봉섭(2016). 재외 한글학교 현황: 재외동포재단의 지원현황을 중심으로, 민족  
연구, (65), 154-168.
- 김선임(2012).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에서 민족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의 경합 :  
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임지혜·정경희·박봉수(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  
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10(3), 36-96.
- 김영란(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46(1), 43-95.
- 김영순·박봉수(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한국어 교사 경험에 관한 연구,  
언어와 문화, 12(4), 55-81.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제2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정상원(2017). 질적연구방법론 V,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한광웅(2012). 일반논문 :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 김용찬(2005). 사설시조 속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 -고부(姑婦), 처첩(妻妾)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109-138.
- 김용찬(2007). 여성노동자 국제 이주와 이주 수용국가에서의 조직화의 관계 연구: 한인 여성노동자의 독일 이주와 조직화 사례 분석, 사회과학연구, 15(1), 182-215.
- 김용찬(2017). 초국가주의와 국내정치 영향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7(2). 22-67.
- 김용출(2015). 독일 아리랑, 서울: (주)북랩.
- 김정민(2015). 한국의 전통문화와 천문의 상관관계 - 설날의 기원과 천문학적 의미 동아시아 고대학, (38), 61-81.2
- 김정선(2009).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귀속(belonging)의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이진영·이용일·나혜심·유정숙·강진희·이진명(2012). 유럽한인의 역사 상, 재외동포사 총서 1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조자(1975). 서독주재 한국간호요원의 발전을 위한 취업실태 조사연구, 대한간호, 14(3), 11-23.
- 김창모(2009). 한국 전통 종교문화 속의 구원관과 치유관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비교연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학선·홍선우·최경숙·이애주(2011). 해외 취업 간호사의 나이들 : 파독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2), 185-194.
- 김혜정(2012). 재미 1세 한국 이민 여성의 영적 여정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59-90.
- 나혜심(2009a). 독일 한인간호여성의 노동의 성격, 독일연구, (17), 111-140.
- 나혜심(2009b). 파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1960-1970년대 한인간호인력 독일행의 원인-, 서양사론, 100, 255-285.
- 남혜경·김영순(2018). 재독 한인 국제결혼 여성의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 교육문화연구, 24(6), 667-685.
- 남혜경·김영순(2019). 재독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1), 45-77.



- 노명환·윤용선·정홍모·유진영·나혜심(2014). 독일로 간 광부·간호사-경제 개발과 이주 사이에서, 서울: 역사공간.
- 네이버 지식검색 1. 검색어: 1970년대 쌀 한가마니 가격, 웹사이트, 다음 Tip, <https://tip.daum.net/question/83914847>.
- 문현아(2016). 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의 초국적 경험과 의미분석, 구술사연구, 7(1), 137-186.
- 민성은·김영천·정정훈(2015). 생애사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자료 분석 방법 탐구, 교사교육연구, 54(4), 621-638.
- 박경용(2013). 사할린 한인 김옥자의 삶과 디아스포라 생활사- ‘기억의 환기’를 통한 구술생애사 방법을 중심으로-
- 박봉수(2017). 포토텔링을 활용한 자서전 글쓰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임순련의 생애사, 인문사회 21, 8(6), 379-391.
- 박성희(2016). 질적인 생애사 연구방법론, 서울: (주) 피와이 메이트.
- 박신규(2009).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로별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 : 구미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신규·이채문(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귀환 이후 삶과 적응과정에 대한 분석 = 부산 정관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0, 3-36.
- 박신규(2019). 두 재외한인의 삶을 통해 본 귀환이주의 특징분석 - 사할린 한인 S와 중남미 한인 P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4, 151-173.
- 박아청(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박정희(2005). 역사와 문화적 기억의 장소로서의 베를린, 독어교육, 34, 327-346.
- 배은경(2008). 시베리아 과학자 김 파벨 가족의 구술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30, 87-118.
- 배을규·김대영(2012). 자기주도학습 능력, 경력 정체 및 경력 만족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5(9), 3709-3729.
- 서울역사박물관(2017).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 안내 자료.
- 성지영(2018). 탈북청소년의 삶과 정체성에 관한 예술기반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대원·윤서옥(2017). 독일 함부르크 한인들의 삶과 문화, 서울: 민속 박물관.
- 신광철(2010). 다문화 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59, 1-16.
- 심승환(2011). 시민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 것맨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5(2), 91-122.

- 안현숙(2011). 부부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의사소통기술, 결혼만족도의 관계 :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부부의 비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영자(2015). 재독 한인 광산노동자의 생애 이야기 재구성, 비판사회정책, (49), 281-329.
- 양영자(2016). 독일로 떠난 한인 간호여성의 사회운동 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비판사회정책, (53), 48-95.
- 왕혜숙(2009). 유머를 이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이중언어학, 39, 171-211.
- 우명숙 · 이나영(2013).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한국사회학, 47(5), 139-169.
- 유기쁨(2011). 특집논문: 다문화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결혼이주여성과 종교, 종교와 문화비평, 19(19), 86-132.
- 유정숙(2017). 독일 속의 한국계 이민자들: 이해관계 대변과 자치조직 연구, 서울: 도서출판 당대
- 윤서옥(2018). 독일 함부르크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회 네트워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용선(2014).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의 미시사: 동원인가, 선택인가?, 사총, 81, 421-450.
- 윤인진(2012).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28, 7-47.
- 윤인진(2017).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이론과 실태, 경기: 북코리아.
- 윤택림(2010). 구술 생애사를 통한 1930년대생들의 청소년기에 대한 심성사적 접근, 구술사연구, 1, 117-157.
- 이동성(2013). 생애사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에 대한 탐구, 초등교육연구, 26(2), 71-96.
- 이동성(2015). 생애사 연구,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이만영 · 김수연(1995). 생애사 (life story) 해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4(1), 85-116.
- 이문숙(2014).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본 France Toulouse 거주 30대 - 50대 한인여성의 삶,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266-279.
- 이민형 · 윤재진 · 최종환(2017). 한국인의 레드 콤플렉스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60, 278-288.
- 이선우(2015). 결혼이주여성의 외로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

- 위논문.
- 이서행(2005).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정책으로 본 통일방안, 평화학연구, 6, 213-245.
- 이선희(2012). 재독한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인식문제와 정체성 변천과정, 한국사연구, 158, 301-335.
- 이선희(2013). 파독 간호사들의 (제한적) 페미니즘 형성과정, 독일연구, (25), 165-192.
- 이수안(2008). 이주 여성의 타자성과 관용의 상호 발현에 대한 이론적 모색 : 재독한인 여성의 이주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2, 73-108.
- 이수안(2013). 문화혼종화 양상에 대한 문화이론적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총, 23(3), 183-212.
-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38(2), 189-219.
- 이수자(2006).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 - 재독 한인여성과 재한 외국인여성의 문화적응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191-228.
- 이승재(2011).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간 선행적 학습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3), 99-119.
- 이애주 · 권숙인 · 도면희 · 정근식 · 은영 · 김동욱(2011). 파독 간호 평가사업 최종 보고서, 서울: 맑은기획.
- 이여봉(2011). 부양지원과 세대 갈등, 한국가족학회, 23(1), 41-76.
- 이영석(2015). 파독 근로자 출신 독일 교민들의 현황과 한국에 대한 의식, 독일어문학, 23(2), 127-152.
- 이유재 · 박주연(2015). 초국가적 관점에서 본 독일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비평, 110, 321-343.
- 이윤경(2014). 재중한인의 초국가주의 : 왕징 코리아타운 사례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2020). 1960년대 언론보도를 통해 본 서독의 한반도 분단문제 인식 - 동백림사건, 푸에블로호사건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43, 111-139.
- 이지영(2013). 제6장: 국제이주와 여성 -세계화와 이주의 여성화, 세계정치, 19, 233-268.
- 이진경(1997). 근대적 주체와 정체성 : 정체성의 미시정치학을 위하여, 경제와사회, (35), 8-33.
- 이철우(2008).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42(1), 27-61.

- 이효선·김혜진(2014). 생애사 연구를 통한 이주여성 노동자의 삶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30(1), 253-288.
- 이효선·유연숙(2017). 독일로 이주한 한인 1, 2세대의 생애발달경험에 관한 재구성 연구: 삶의 전략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2), 113-138.
- 이혜숙(2016).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핑(Elizabeth Johanna Shepping)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신학과 사회, 30(4), 431-476.
- 이화숙·김남겸(2018). 재외동포 대상 한글학교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 72, 116-139.
- 이희영(2005a).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이희영(2005b). 이주 노동자의 생애 체험과 사회 운동, 사회와 역사, 68, 281-318.
- 이희영(2014). 결혼-관광-유학의 동맹과 신체-공간의 재구성 아시아 여성 이주자들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2, 110-148.
- 이희영(2019). 이주여성과 분단 장치의 재구성: 동백림사건에서 1994년 ‘안기부 프락치 사건’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9(1), 1 - 44.
- 임영상(2006). 코리언 아메리칸과 구술사, 역사문화연구, 25, 277-321.
- 임영상(2010). 타슈켄트 주 <북쪽등대> 콜호즈의 김 게오르기, 문화일꾼에서 한국어 교사로, 역사문화연구, 37, 377-405.
- 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2012). 오스트리아속의 한국인, 서울: 리더스가이드.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정상규·강국진(2010). 부모의 이혼과 자녀문제, 인권복지연구, (8), 29-57.
- 정상우(2017). 다문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과 인권교육연구, 10(3), 45-69.
- 정선이·김순애·김숙영·이주영(2017). 1960-70년대 파독 간호사의 문화갈등과 자아정체성,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3), 71-86.
- 정성화(2013). 박정희 시대와 파독 한인들, 서울: 선인.
- 정혜실(2007).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들, 여성이론, (16), 78-98.
- 조일동(2015). 영구귀국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균열 :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7, 31-5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8). 해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자료집.

1-3, 서울.

최성규(2016). 농인 조경건의 생애사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0(4), 41-64.

최승은 · 박봉수(2013).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2(1), 87-105.

최종렬 · 최인영(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문화 사회학적 접근: 방법론적 윤리적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4, 147-205.

최현식(2003). 자기 개방의 두 가지 형식, (계간)시작, 2(4), 317-323.

최형우(2017). <기우목동가>, <진여자성가>의 十牛圖 문화 수용과 문학적 변용 연구, 어문론총, 74, 219-243.

한복룡 · 김진현(2007). 독일의 이혼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4(3), 747-783.

황영삼(2008). 고려인 학자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교수의 구술 생애사, 역사 문화연구, 30, 3-50.

Ahn, J. H., Hyun, J. (2013). Studie über die Entwicklung der Integrationspolitik in Deutschland : Am Beispiel koreanischer Krankenschwestern und deutsch-russischer Einwanderer in Deutschland., 한독사회과학논총, 23(4), 51-74.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Castles, S. & Miller, M. J. “The Age of Migration” , 한국이민학회 역(2013),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Denzin, N. K. (1989). The sociological interview.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102-12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 권기돈 역(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Giddens, A. 『현대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 · 황정미 역(1996), 서울: 새물결

Glaser, B. G., & Strauss, A. 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Grassi, M., & Vivet, J. (2014). Fathering and Conjuality in Transnational

- Patchwork Families: The Angola/Portugal case. *TL Network e-Working Papers*, 1-25.
- Guarnizo, L. E. , Portes, A. , Haller, W. (2003).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Determinants of Transnational Political Action among Contemporary Migrant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6), 1211-1248.
- Hewitt, J. P.(2000). “Self and society : a symbolic interactionist social psychology. 8th ed” , 윤인진 · 라연재 · 오숙영 · 우해봉 · 고현철 · 김경현 역(2001), 『자아와 사회』, 서울: 학지사.
- Lin, K. M., Masuda, M. & Tazuma, L. (1982).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ese refugees” . Part III. Case studies in clinic and field: Adaptive and maladaptive. *The Psychiatric Journal of University of Ottawa*, 7: 173-183.
- Ojermark, A.(2007). Presenting life histories: A literature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er, CPRC working paper* 101.
- Samovar, L. A., Porter, R. E., Mcdaniel, E. R., & Roy, C. S.(2015).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8th ed” , 이두원 · 이영옥 · 김숙현 · 김혜숙 · 박기순 · 최윤희 역,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talker, P.(2000). “Workers without frontier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 최수연 역(2003), 『국경 없는 노동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oad. R.(2016). “Cultureshock! Germany : a survival guide to customs and etiquette” , 박선주 역(2016), 『세계를 읽다 독일』, 서울: 가지.
- Waldinger, Roger and Fitzgerald, David, 2004, Transnationalism in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5), 1177-1195.

## ABSTRACT

# A Study of the Migration Life History of First-Generation Korean Female Nurses in Germany and Austria

Hyekyeong, Nam

PH. D. Dissertation

Co-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Co-directed by Prof. EulKyoo Bae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August, 2020

This study examines the migration life history of Korean Nurses that resettled in Germany. There was a large-scale voluntary migration of Korean women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During this time,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nations in the world and had high unemployment rates. Furthermore, these financial difficulties led to limited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women to be educated and employed. As a result, great efforts were made to dispatch Korean women to Germany so they could work in a developed Western country. The result of this migration aided Korean nationals in overcoming poverty during these years, as the Korean immigrant nurses in Germany sent home funds to their families in Korea. Immigrant nurses were regarded highly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economy of South Korea.

In modern society, migra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affects many countries and people in the world. In particular, immigration has occurred in many female lives: more than half of current global migrations show higher trends of female migrants. This phenomenon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female migration and the tendency, as well as the resulting impacts. South Korea had a high outflow of migration during the 1960's and 1970's as female labor migrants were dispatched to Germany or Austria but since the 1990's has had higher rates of immigration inflow than outflow.

As immigration trends in Korean society have shifted, the lives of Korean Nurses in Germany have also changed.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Germany settled down in their new country and formed families. Embedded in their life trajectories as first generation immigrants are lessons that may prove useful to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s it transitions into multi-cultural society. Thus, this paper will review the multidimensional impacts of migrants' lives through their migration life history. The study on migration life history is differentiated from general life history study. Migration life history assumes that people who have left their home country and resettled in a new country have an expanded perspective and area of life compared to people who haven't had that experience. Moreover, the impacts of migration affect not only an individual's life but also their home country and new country of residence. Therefore, migration life history represents an individual as well as the individual's international, national, and personal circumstances.

This study utilize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examine the life history of four Korean female nurses who immigrated to Germany and three who immigrated to Austria. Data was collected from face-to-face interviews, self-descriptions of life, newspapers, photos, participants' scrapbooks, books publishe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Korean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migra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in three steps.

First, each participant's migrant life history was analyzed chronologically. The purpose of this step is to find the life historical personal link or cause-effect relationship of the individual's unique life events and experiences. Thus, their life history was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groups: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post-migration and marriage, life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senescence.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ir decision of migration was



related to international, societal, and personal reasons. Additionally, this step shows how participants have live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fter migration.

Second, the participants continually interacted with their relatives in Korea. For example, they visited parents in Korea with their children and taught them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language to help them emotionally connect to their home country.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good treatment in their new countries but continued to view themselves as permanent outsiders. This mindset allowed them to solidify their identity. Furthermore, they attempted to defend against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rough maintaining their identities developed in the home country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when their children experienced discrimination. Unfortunately, the participants have been treated like foreigners while visiting Korea since they have lived in Europe for so long. Nevertheless, as mothers of the rising generation, they have tried to actively engage in both societies and educate their children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both countries.

Third, the participants indicated what they asked for as migrants was respect for others. Their life experienc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utual respect among individuals of differing culture.

Key words: Korean Women, Migration Life History, Cultural adjustment, Identification, Human beings.